

ETHER LIBRARY

0014

오디세이아

Ὀδύσσεια

호메로스

Homer · c. 8th c. BC

문학 · 단편 · 희곡 · 시

오디세이아

Ὀδυσσεια

호메로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Ὀδυσσεια (오디세우스의 노래)

지은이 호메로스(기원전 8세기 무렵, 이오니아의 노래꾼으로 전한다)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기원전 8세기 말 무렵 그리스 동쪽 이오니아에서 육보격 서사시로 지어진 것으로 본다. 노래꾼들이 외워 부르며 전하다가 글로 굳어졌고, 지금의 스물네 권 나눔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매긴 것으로 전한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고대 그리스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A. T. 머리가 엮은 로브 고전 총서판(1919)의 그리스어 본문을 저본으로 삼았고, 그 전자 텍스트는 터프츠 대학교 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Perseus Digital Library)에서 본문 글자와 머리의 문단 나눔만 가져왔습니다. 새뮤얼 버틀러의 영어 산문 번역(1900)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습니다. 영어 번역과 그리스어가 갈리는 자리에서는 그리스어를 따랐습니다.

스물네 권 12,107행을 한 행도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머리가 나눈 1,186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본문에서 뺀 세 행(흔히 10.456, 16.101, 23.48로 봅니다)은 메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체 산문으로 옮긴 까닭과 방식

원문은 한 행이 여섯 걸음으로 된 장단의 시, 육보격 서사시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운율을 받을 틀이 없습니다. 행을 억지로 맞추면 그리스어의 어순과 낱말 수에 끌려 뜻도 그림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행을 버리고 소설처럼 문단으로 읽히는 산문으로 옮겼습니다. 그 대신 장면과 정보와 수식어는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단 안에서는 우리말 문장의 순서대로 행을 다시 엮었습니다. 까닭을 앞으로 당기고, 길게 이어지는 관계절은 따로 세우고, 긴 직유는 「~할 때가 있다. …… 꼭 그처럼」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한 행이라도 그 문단 밖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문단 첫머리의 굵은 숫자는 그 문단이 시작하는 원문의 행 번호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이나 다른 번역과 견주어 볼 때 이 숫자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은 같은 글자로

호메로스는 같은 수식어와 같은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합니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 「날개 돋친 말」 같은 말입니다. 이 되풀이가 호메로스의 문체이므로, 같은 그리스어는 책 끝까지 같은 우리말로 옮기고 비슷한 말로 바꾸어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식어가 다른 인물에게 붙어도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오디세우스도 폴리페모스도 구혼자들도 「신에 버금가는」 사람이고, 아이기스토스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긋남은 원문의 것입니다.

신의 말을 전령이 그대로 옮기거나, 들은 예언을 아내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처럼 한 대목이 되풀이되는 자리도 줄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과 어미만 바꾸어 같은 글자로 맞추었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그리스어에는 높임말이 없습니다. 이 책은 인물 사이의 관계마다 말의 높낮이를 미리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에게 하십시오체를 쓰고,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서로 하오체를 쓰며, 신은 본모습으로 사람에게 말할 때 해라체를 씁니다. 변장한 신은 그 사람의 말씨를 빌립니다. 말투와 부름이 바뀌는 자리는 대개 누군가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23권에서 페넬로페가 남편을 「손님」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마침내 「오디세우스」로 부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9권부터 12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파이아케스의 왕과 귀족들 앞에서 제 지난 일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으로는 네 권에 걸친 긴 대사이지만 따옴표로 묶지 않고, 오디세우스의 「나」가 왕에게 아뢰는 하십시오체로 서술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 인물들의 말은 따옴표 안에서 저마다의 말투로 옮겼습니다. 11권 중간에 잠시 궁전 장면으로 돌아오는 대목은 다른 권처럼 서술했습니다.

「-노라」, 「-도다」 같은 예스러운 어미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만 「-소서」를 썼습니다. 원문에서 서술자가 돼지치기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자리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처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름

사람과 신의 이름은 그리스어 형태로 적었습니다. 버틀러가 쓴 율리시스, 미네르바, 넵튠은 오디세우스, 아테나, 포세이돈으로 되돌렸습니다. 다만 널리 굳은 이름은 그대로 두어 페넬로페, 이타카, 트로이로 적었고,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수식어와 함께 쓰기 좋게 「새벽 여신」으로 옮겼고, 호메로스에서 그리스 북부의 한 지방을 가리키는 헬라스는 「그리스」로 바꾸지 않고 「헬라스」로 두었습니다. 섬 이름의 이오니아식 어미는 「오기기아섬」처럼 「-아」로 맞추었습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처럼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는 말은 그대로 풀어 적었습니다. 아카이아인, 아르고스인, 다나오스인은 모두 트로이에 간 그리스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각주와 그 밖의 것

각주 23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모르면 문장이 막히는 별칭, 우리말로 살릴 수 없는 말놀이와 이름 풀이, 모르면 장면이 이해되지 않는 관습, 호메로스의 세계상에만 달았습니다. 신화의 뒷이야기나 해석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말놀이가 걸린 몇 낱말은 처음 나오는 자리에 그리스어를 로마자로 옮겨 괄호 안에 적었습니다. 「아무도(Outis)」가 그 예입니다.

수는 「스무 해」, 「열두 척」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습니다.

차례

제1권 9
제2권 24
제3권 38
제4권 54
제5권 81
제6권 97
제7권 108
제8권 119
제9권 138
제10권 156
제11권 174
제12권 195
제13권 209
제14권 224
제15권 241
제16권 259

제17권 274
제18권 294
제19권 309
제20권 329
제21권 342
제22권 356
제23권 373
제24권 385

제1권

1 무사 여신이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소서. 길도 재주도 많았던 사람,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무너뜨린 뒤 참으로 많은 곳을 떠돌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숱한 사람들의 도시를 보고 그들의 생각을 알았으며, 바다 위에서는 제 목숨을 건지고 전우들을 고향에 데려가려고 애쓰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수없이 겪었다. 그러나 그토록 바랐는데도 전우들을 구해 내지는 못했다. 그들은 제 손으로 저지른 무모한 짓 때문에 죽었다. 어리석은 자들. 높이 떠가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었으니, 헬리오스가 그들에게서 귀향의 날을 빼앗아 갔다. 여신이여, 제우스의 따님이여, 이 일들을 어디서부터든 좋으니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11 가파른 파멸을 피한 다른 이들은 모두 전쟁과 바다를 벗어나 저마다 집에 돌아가 있었다. 그 사람만은 귀향과 아내를 애타게 그리면서도 돌아가지 못했으니, 존귀한 님프,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그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우묵한 동굴에 붙잡아 두었다. 세월이 돌고 돌아, 마침내 그가 이타카로 돌아가도록 신들이 운명의 실을 자아 둔 해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하는 이들 곁에 돌아와서도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신들은 모두 그를 가엾게 여겼다. 포세이돈만은 달랐다.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가 제 땅에 닿을 때까지, 포세이돈은 그에게 품은 노여움을 한시도 거두지 않았다.

22 그러나 그때 포세이돈은 사람 사는 땅의 맨 끝, 멀리 떨어진 에티오피아인들을 찾아가 있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은 해 지는 곳에, 다른 쪽은 해 뜨는 곳에 살았는데, 포세이돈은 그들이 황소와 숫양을 잡아 바치는 큰 제물을 받으며 잔치 자리에 앉아 흥겹게 즐기고 있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올림포스의 제우스 궁전에 모여 있었다.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무랄 데 없는 아이기스토스가 마음에 떠올라서였다. 아가멤논의 아들, 멀리까지 이름난 오레스테스가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제우스는 불사의 신들 가운데서 말했다.

32 "허, 인간들이란 걸핏하면 신들을 탓하는구나! 재앙은 우리한테서 나온다고들 하지만, 실은 저희 스스로 무모한 짓을 저질러 정해진 몫을 넘는 고통을 겪는다. 이번 아이기스토스만 해도 그렇다. 그자는 정해진 몫을 넘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버젓이 혼례를 올려 맞은 아내를 차지하고, 고향에 돌아온 그 남편을 죽였다. 그것이 가파른 파멸을 부르는 짓인 줄 뻔히 알면서 그랬다. 우리가 아르고스를 죽인[1] 눈 밝은 신 헤르메스를 미리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지도 말고 그 아내에게 구혼하지도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오레스테스가 자라서 제 땅을 그리워하게 되면 그 손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말이다. 헤르메스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타일렀지만 아이기스토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그자는 이제 그 모든 값을 한꺼번에 치렀다."

44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크로노스의 아드님, 우리 아버지, 다스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그자는 마땅한 파멸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 그렇게 망하기를! 그러나 제 가슴은 슬기로운 오디세우스 때문에 타들어 갑니다. 불운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진 채 벌써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사방을 감싼 섬, 바다의 배꼽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그 섬에 사는 여신은 흉한 마음을 품은 아틀라스의 딸인데, 그 아버지는 온 바다의 깊은 곳을 다 알고 땅과 하늘을 떼어 놓는 긴 기둥들을 몸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비탄에 잠긴 가련한 사람을 붙잡아 두고서 이타카를 잊게 하려고 늘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홀립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고향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도 한번 보고 싶어 애태우다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 올림포스에 계신 분이시여,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오디세우스가 넓은 트로이 땅, 아르고스인들[2]의 배 곁에서 제물을 바쳐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에게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제우스시여?"

63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내 딸아, 무슨 말이 네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왔느냐? 내가 어찌 신 같은 오디세우스를 잊을 수 있겠느냐? 지혜로는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고,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다. 다만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 키클롭스 일로 노여움을 조금도 풀지 않고 있다. 오디세우스가 신에 버금가는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폴리페모스는 키클롭스 가운데 힘이 가장 센 자로, 거둘 것 없는 바다를 다스리는 포르키스의 딸 님프 토오사가 우묵한 동굴에서 포세이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 뒤로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죽이지는 않으면서도 고향 땅에서 멀리 떠돌게 하고 있다. 그러니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가 돌아갈 길을 궁리해 보자. 그러면 포세이돈도 노여움을 거둘 것이다. 불사의 신들이 모두 마다하는 일을 저 혼자서 고집하며 다투지는 못할 것이다."

80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크로노스의 아드님, 우리 아버지, 다스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지혜 많은 오디세우스가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정녕 복된 신들의

뜻이라면,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 헤르메스를 오기기아섬으로 보내십시오. 어서 가서 머리채 고운 님프에게 우리가 굳게 정한 뜻을 알리게 하십시오.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타카로 가서 그 아들을 더욱 북돋우고 가슴에 기운을 불어넣겠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른 아카이아인들을 회의에 불러 모아, 떼 지은 양과 발을 끌며 걷는 뿔 굽은 소를 쉴 새 없이 잡아먹는 구혼자들 모두에게 물러가라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스파르타와 모래 많은 필로스로 보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을지 알아보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도 얻게 하겠습니다."

96 이렇게 말하고 아테나는 발에 아름다운 신을 매었다. 거룩한 황금 신으로, 바람의 입김과 함께 여신을 물 위로도 끝없는 땅 위로도 날라 주는 신이었다. 여신은 날카로운 청동 날을 박은 억센 창, 무겁고 크고 단단한 창을 집어 들었다. 힘센 아버지의 딸은 노여움을 산 영웅들의 대열을 그 창으로 꺾어 버리곤 했다. 아테나는 올림포스 봉우리에서 쏜살같이 내려가 이타카 고장, 오디세우스 집의 문간에 이르러 안뜰 문지방 위에 섰다. 손에 청동 창을 든 그 모습은 나그네, 곧 타포스인의 우두머리 멘테스를 닮아 있었다. 거기서 아테나는 거만한 구혼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저희 손으로 잡은 소의 가죽을 깔고 대문 앞에 앉아 말판 놀이로 마음을 즐기고 있었다. 전령들과 부지런한 시종들이 그들을 시중드느라, 어떤 이들은 술동이[3]에 포도주와 물을 섞고, 어떤 이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해면으로 식탁을 닦아 앞에 내놓고, 또 어떤 이들은 고기를 잔뜩 썰어 나누고 있었다.

113 누구보다 먼저 여신을 본 것은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였다. 그는 가슴이 시름에 잠긴 채 구혼자들 틈에 앉아,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선가 돌아와 이 집에서 구혼자들을 흩어 버리고 몸소 명예를 되찾아 제 집을

다스리는 모습을 속으로 그려 보고 있었다.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그런 생각에 잠겨 있던 텔레마코스의 눈에 아테나가 들어왔다. 나그네를 오래도록 문 앞에 세워 두었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언짢아진 그는 곧장 문간으로 가서, 가까이 다가선 채 나그네의 오른손을 잡고 청동 창을 받아 들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23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희 집에서 환대를 받으실 겁니다. 먼저 식사를 드시고 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5 이렇게 말하고 텔레마코스가 앞장서자 팔라스 아테나가 뒤따랐다. 높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텔레마코스는 들고 온 창을 긴 기둥 곁,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의 창이 여러 자루 세워져 있는 매끈하게 다듬은 창꽂이 안에 세웠다. 그러고는 여신을 높은 의자로 이끌어 앉혔다. 의자에는 곱게 수놓은 아름다운 천을 깔았고, 발밑에는 발판이 놓여 있었다. 자기는 그 곁에 무늬를 새긴 등받이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다른 구혼자들과 떨어진 자리를 고른 것은 손님이 방자한 자들 틈에 끼어 소란에 시달리다 식사에 넌더리를 내지 않게 하고, 멀리 떠난 아버지의 일도 물어보려는 뜻에서였다.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아름다운 황금 물병에 담아 와 은대야 위로 부어 손을 씻게 하고, 곁에 반들반들한 식탁을 펴 놓았다.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고,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 여러 가지 찬을 곁들였다. 고기 나누는 이는 갖가지 고기를 담은 쟁반을 들어다 놓고 그 곁에 황금 잔을 놓았으며, 전령은 두 사람 곁을 부지런히 오가며 술을 따랐다.

144 거만한 구혼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등받이 의자와 높은 의자에 줄지어 앉았다. 전령들이 그들 손에 물을 붓고, 하녀들이 바구니에 빵을 수북이 담아 오고, 젊은이들이 술동이마다 술을 넘치도록 채우자,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구혼자들의 마음은 노래와 춤으로 쏠렸다. 잔치를 빛내는

꾸밈으로 그만한 것이 없었으니까. 전령이 더없이 아름다운 리라를 페미오스의 손에 쥐여 주었다. 구혼자들 앞에서 마지못해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페미오스는 리라를 타며 아름다운 노래의 첫 가락을 울렸다.

156 텔레마코스는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게 머리를 바짝 대고 빛나는 눈의 아테나에게 말했다. "손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언짢아하시겠습니까? 저자들은 저런 것에나 마음을 씁니다. 리라와 노래 말입니다. 쉬운 일이지요. 아마 지금쯤 흰 뼈가 되어 어느 뭍에 누운 채 비를 맞아 썩어 가거나 바다 물결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을 사람, 그 사람의 살림을 값도 치르지 않고 먹어 치우니까요. 그분이 이타카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만 한다면, 저자들은 모두 금과 옷이 더 많기보다 발이 더 빠르기를 빌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아 돌아가셨고, 땅 위에 사는 사람 누가 그분이 돌아오신다고 말해도 저희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귀향의 날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십니까? 어떤 배를 타고 오셨습니까? 뱃사람들은 어떻게 손님을 이타카로 모셔 왔고, 자기들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설마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대부터의 손님 벗이십니까? 다른 손님들도 저희 집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도 사람들과 두루 오가며 지내신 분이었으니까요."

178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숨김없이 다 말하겠네. 나는 슬기로운 안키알로스의 아들 멘테스라네. 노 젓기를 좋아하는 타포스인들을 다스리고 있지. 지금은 전우들과 배를 타고 이리로 내려왔는데, 포도주 빛 바다를 건너 말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테메세로 반짝이는 쇠를 싣고 구리를 구하러 가는 길이네. 내 배는 도시에서 떨어진 들녘, 숲이 우거진 네이온산 아래 레이트론 포구에 대어 두었네. 우리 두 집안은 처음부터 아버지 대부터의 손님 벗[4]이라고 자부하네. 영웅 라에르테스 노인을 찾아가 물어보면 알 걸세. 듣자 하니 그분은 이제 도시에 나오지 않고 멀리 들녘에서 고생하며 사시는데, 늙은 시녀 하나가 곁에 있어 포도밭 언덕배기를 힘겹게 오르내리다 사지에 피로가 몰려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차려 드린다더군. 내가 이번에 온 것은 자네 아버지가 이미 고향에 돌아와 있다는 말을 들어서였네. 그런데 신들이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양이군.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아직 땅 위에서 죽지 않았네. 아마 살아서 넓은 바다 어딘가, 바닷물이 사방을 감싼 섬에 붙잡혀 있을 걸세. 사납고 거친 사내들이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거슬러 억지로 잡아 두고 있겠지.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새점에 밝은 사람도 아니지만, 불사의 신들이 내 마음에 던져 넣어 준 대로,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는 대로 이제 자네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네. 쇠사슬이 그분을 묶어 둔다 해도, 그분은 사랑하는 고향 땅을 더는 오래 떠나 있지 않을 걸세. 재간 많은 사람이니 돌아올 길을 궁리해 낼 걸세. 자, 이것을 말해 주게. 숨김없이 낱낱이. 이렇게 다 자란 자네가 정말 오디세우스의 아들인가? 머리며 아름다운 두 눈이며 놀라우리만큼 그분을 닮았군. 그분이 트로이로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어울렸네. 아르고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우묵한 배를 타고 트로이로 건너가던 때였지. 그 뒤로는 나도 오디세우스를 보지 못했고, 그분도 나를 보지 못했네."

213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손님,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 핏줄을 스스로 알아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요. 차라리 자기 재산 속에서 늙어 가는 어느 복 받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운한 사람이 된 그분, 그분의 아들이 저라고들 합니다. 손님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립니다."

221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페넬로페가 자네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신들이 자네 가문을 뒷날 이름 없이 스러지게 하지는 않았네. 자, 이것을 말해 주게. 숨김없이 낱낱이. 이건 무슨 잔치고 이 무리는 다 무엇인가? 자네가 왜 이런 걸 치러야 하나? 술잔치인가, 혼인 잔치인가? 저마다 몫을 추렴해 벌인 잔치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군. 저들이 집 안에서 오만하게 방자를 떨며 먹고 마시는 꼴을 보니, 지각 있는 사람이 누구든 여기 들어온다면 이 숱한 추태를 보고 분개할 걸세."

230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손님, 그것을 물으시고 캐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직 이 고장에 계실 때만 해도 이 집은 넉넉하고 흠잡을 데 없는 집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재앙을 꾀하며 뜻을 달리 정했습니다. 신들은 그분을 세상 누구보다도 종적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트로이인의 땅에서 전우들과 함께 쓰러지셨거나 전쟁을 끝까지 치러 내고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서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셨다 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다면 온 아카이아인이 그분께 무덤을 쌓아 드렸을 테고, 그분은 아들에게도 뒷날까지 큰 명성을 남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오리바람이 그분을 아무 영광도 없이 낚아채 가 버렸습니다. 그분은 자취도 소식도 없이 사라졌고, 제게는 고통과 울음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숨짓고 우는 것은 그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들이 제게 다른 쓰라린 시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둘리키온과 사메와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이 섬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 모두, 그리고 바위투성이 이타카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모두 제 어머니에게 구혼하며 이 집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끔찍한 혼인을 마다하지도 못하고 끝을 내지도 못하십니다. 그사이 저자들은 제 집을 먹어 치워 바닥내고 있으니, 머지않아 저마저 산산조각 낼 겁니다."

252 팔라스 아테나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허, 자네에게는 멀리 떠난 오디세우스가 몹시 아쉽겠군. 그 사람이라면 이 염치없는 구혼자들에게 손을 댈 텐데. 지금 그 사람이 돌아와 투구와 방패와 창 두 자루를 들고 이 집 바깥 대문 앞에 선다면! 내가 처음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그 사람을 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말일세. 그때 그 사람은 에피라에서 메르메로스의 아들 일로스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디세우스는 청동 촉 화살에 바를 사람 죽이는 독약을 구하려고 날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던 걸세. 그러나 일로스는 영원히 사는 신들의 분개를 꺼려 그 약을 내주지 않았고, 내 아버지가 대신 주셨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끔찍이 아끼셨거든. 그런 모습의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 사이에 나타난다면, 저들은 모두 명이 짧아지고 쓰디쓴 혼인을 치르게 될 걸세.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와 제 집 홀에서 앙갚음을 할지 말지, 이 일은 신들의 무릎 위에 놓여 있네. 그러니 자네는 어떻게 하면 구혼자들을 홀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궁리해 보게. 자, 이제 내 말을 잘 알아듣고 귀담아들게. 내일 아카이아인 영웅들을 회의에 불러 모아 모두에게 할 말을 하고,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게. 구혼자들에게는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지라고 이르게. 어머니는 혼인하고 싶은 마음이 일거든 권세가 큰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게. 그쪽 사람들이 혼례를 치러 드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마땅히 딸려 보낼 만큼 혼수[5]도 넉넉히 마련할 걸세. 자네에게도 꼼꼼히 일러 줄 테니 따를 마음이 있거든 들어 보게. 노꾼 스무 명이 젓는 배, 그것도 가장 좋은 배를 마련해서 오래 떠나 있는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러 가게. 누가 자네에게 말해 줄지도 모르고, 제우스에게서 오는 소문을 들을지도 모르지. 사람들에게 소식을 가장 잘 실어 나르는 것이 그 소문일세. 먼저 필로스로 가서 고귀한 네스토르에게 묻고, 거기서 스파르타로 가서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맨 나중에 돌아온 금발의 메넬라오스를 찾아가게.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지치더라도 한 해를 더 견디게. 그러나 이미 돌아가셔서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쌓고 마땅한 만큼 장례 예물을 넉넉히 바친 다음, 어머니를 새 남편에게 내주게. 이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 그때는 꾀를 쓰든 드러내 놓고 하든 자네 집 홀에서 구혼자들을 어떻게 죽일지 속으로, 마음속으로 궁리하게. 자네는 이제 어린애 노릇을 할 나이가 아니니 그런 짓은 그만두어야 하네. 자네는 듣지 못했나?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자, 제 이름난 아버지를 죽인 꾀가 음흉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서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는지. 여보게, 자네도 보아하니 훤칠하고 잘생겼으니 굳세게 나서게. 뒷날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자네를 칭송하도록. 나는 이제 날랜 배와 전우들에게 내려가 봐야겠네. 다들 나를 기다리느라 몹시 애가 탈 걸세. 자네 일은 자네가 잘 챙기고, 내 말을 귀담아들게."

306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손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서두르시더라도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목욕도 하시고 마음껏 쉬신 다음, 정다운 손님 벗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선물, 제가 드린 보물로 간직하실 선물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배로 가십시오."

314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길을 몹시 서두르는 참이니 이제 더는 붙잡지 말게. 자네 가슴이 내게 주라고 시키는 선물이 있거든, 내가 다시 들를 때 집에 가져가도록 그때 주게.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골라 두게. 그러면 자네도 그만한 답례를 받을 걸세."

319 이렇게 말하고 빛나는 눈의 아테나는 새처럼 위로 날아올라 사라졌다. 여신은 텔레마코스의 마음에 기운과 용기를 넣어 주었고, 전보다 더욱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텔레마코스는 속으로 그것을 깨닫고, 신이 다녀갔다고 여겨 마음속으로 놀랐다. 신과 맞먹는 사내는 곧바로 구혼자들 사이로 갔다.

325 널리 이름난 노래꾼이 그들에게 노래하고 있었고, 그들은 말없이 앉아 듣고 있었다. 노래꾼은 아카이아인들의 비참한 귀향을 노래했다. 팔라스 아테나가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지워 준 귀향이었다. 위층 방에서 그 신묘한 노래를 알아들은 이가 있었으니, 이카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였다. 페넬로페는 제 집의 높은 계단을 내려왔다. 혼자가 아니라 시녀 둘이 뒤따랐다.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구혼자들 있는 데로 와서, 튼튼하게 지은 지붕을 받친 기둥 곁에 서서, 반들거리는 머릿수건을 두 뺨 앞으로 드리웠다. 믿음직한 시녀가 양옆에 하나씩 서 있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신과 같은 노래꾼에게 말했다.

337 "페미오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노래를 그 밖에도 많이 알지 않소. 노래꾼들이 기리는 사람과 신들의 행적 말이오. 그 가운데 하나를 여기 앉아 저들에게 불러 주고, 저들은 잠자코 술이나 마시게 하시오. 그러나 이 비참한 노래만은 그만두시오.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내 가슴속을 저미오. 잊을 수 없는 슬픔이 누구보다도 내게 닥쳤기 때문이오. 나는 그토록 귀한 사람을 늘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소. 헬라스와 아르고스 한복판[6]까지 명성이 널리 퍼진 그 사람을."

345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어머니, 정다운 노래꾼이 마음 내키는 대로 노래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왜 못마땅해하십니까? 탓할 것은 노래꾼이 아닙니다. 탓할 분이 있다면 아마 제우스시겠지요.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제우스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니까요. 이 사람이 다나오스인들의 불행한 운명을 노래한다고 해서 분개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듣는 이들에게 가장 새로 들려오는 노래를 가장 크게 기리는 법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가슴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들으십시오. 트로이에서 귀향의 날을 잃은 사람은 오디세우스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방으로 가셔서 어머니의 일, 베틀과 물렛가락을 돌보시고 시녀들에게도 일을 하라고 이르십시오. 말하는 일은 남자들이 맡겠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 집의 권한은 제게 있으니까요."

360 페넬로페는 놀라서 방으로 돌아갔다. 아들의 의젓한 말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다.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간 페넬로페는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그리며 울었다. 마침내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을 내려 주었다.

365 구혼자들은 그늘진 홀 안에서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다. 저마다 왕비 곁에 누워 잠자리를 함께하기를 빌었다.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그들 앞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368 "도를 넘는 오만을 부리는 내 어머니의 구혼자들이여, 지금은 잔치를 즐깁시다. 소란은 피우지 마시오. 이분처럼 목소리가 신들과 같은 노래꾼의 노래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다 같이 회의장에 나가 앉읍시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겠소. 다른 데서 잔치를 벌이시오. 당신들 재산을 먹고, 집집이 돌아가며 대접하시오. 그러나 한 사람의 살림을 값도 치르지

않고 거덜 내는 편이 더 낫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먹어치우시오. 나는 영원히 사는 신들께 외쳐 부르겠소. 언젠가 제우스께서 이 짓을 되갚게 해 주시도록. 그때는 당신들이 이 집 안에서, 아무도 값을 물어 주지 않는 죽음을 맞을 거요."

381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입술을 깨물며, 텔레마코스가 대담하게 말하는 데 놀랐다.

383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말을 받았다. "텔레마코스, 신들이 몸소 자네에게 큰소리치는 법과 대담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모양이군.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바다에 둘러싸인 이타카에서 자네를 왕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네. 자네 가문의 핏줄로 물려받을 자리이긴 하지만."

388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내가 하는 말에 언짢아하겠소? 제우스께서 주신다면 나는 그 자리를 기꺼이 얻겠소. 당신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오? 왕 노릇은 조금도 나쁘지 않소. 왕의 집은 금세 부유해지고 왕 자신도 더 큰 존경을 받으니까. 그러나 바다에 둘러싸인 이타카에는 아카이아인의 왕이 될 사람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많으니,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죽은 지금 그들 가운데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 집과 종들의 주인이 되겠소.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나를 위해 싸움에서 사로잡아 온 종들 말이오."

399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바다에 둘러싸인 이타카에서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가 왕이 될지, 이 일은 신들의 무릎 위에 놓여 있네. 자네는 자네 재산을 지니고 자네 집을 다스리게. 이타카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자네 뜻을 거슬러 힘으로 자네 재산을 빼앗을 자는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네. 그런데 여보게, 그 나그네에 대해 묻고 싶네. 그 사람은 어디서 왔나? 어느 땅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의 가문과 고향 들녘은 어디인가? 자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가져왔나, 아니면 제 볼일이 있어 여기 왔나? 우리가 알아볼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 금세 가 버리다니. 얼굴을 보니 비천한 사람 같지는 않던데."

412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 내 아버지의 귀향은 이제 끝장났소. 그러니 어디서 소식이 온다 해도 더는 믿지 않고, 어머니가 예언자를 홀에 불러 캐묻는 예언에도 마음 쓰지 않소. 이분은 타포스에서 온, 아버지 대부터의 내 손님 벗이오. 슬기로운 안키알로스의 아들 멘테스라 하며, 노 젓기를 좋아하는 타포스인들을 다스리오."

420 텔레마코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불사의 여신임을 알아보고 있었다. 구혼자들은 춤과 마음을 끄는 노래로 돌아가 즐기며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즐기는 사이에 검은 저녁이 찾아왔다. 그제야 그들은 잠을 자러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텔레마코스는 속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거듭하며, 더없이 아름다운 안뜰 안 사방이 훤히 내다보이는 자리에 높이 지은 제 방으로 잠자리를 찾아갔다.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그와 함께 간 이는 믿음직한 에우리클레이아였다. 페이세노르의 아들 옵스의 딸이었다. 라에르테스는 일찍이 아직 앳된 처녀이던 그 여인을 소 스무 마리 값을 치르고 제 재산으로 사들인 뒤 홀에서 믿음직한 아내와 똑같이 대우했지만, 아내의 노여움을 꺼려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 여인이 지금 횃불을 들고 텔레마코스와 함께 가고 있었다. 하녀들 가운데 누구보다 그를 아꼈고, 그가 어릴 때 길러 준 사람이었다. 텔레마코스는 튼튼하게 지은 방의 문을 열고 침대에 앉아 부드러운 윗옷을 벗어 속이 깊은 노파의 손에 건넸다. 노파는 윗옷을 개어 매만지고 끈 구멍을 뚫은 침대 곁의 나무못에 걸어 둔 다음, 방에서 나가며 은으로 된 문고리를 당겨 문을

닫고 가죽끈을 잡아당겨 빗장을 걸었다. 거기서 텔레마코스는 밤새도록 가장 고운 양털을 덮고 누워, 아테나가 일러 준 여정을 속으로 궁리했다.

---

1. 헤르메스의 별칭 아르게이폰테스(Argeiphontēs)를 풀어 옮긴 말이다. 헤라가 이오를 지키라고 세워 둔, 눈이 백 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를 헤르메스가 죽였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름으로 풀어 왔다. 이 책에서는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 「아르고스를 죽인 굳센 신」처럼 쓴다.

2. 호메로스는 트로이에 간 그리스 사람 전체를 아카이아인·아르고스인·다나오스인이라는 세 이름으로 번갈아 부른다. 도시 아르고스나 지방 아카이아의 주민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3. 크라테르(κρητήρ). 포도주에 물을 섞는 큰 동이다. 호메로스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에 타서 마셨고, 잔치 때는 이 동이에서 술을 떠 잔마다 따라 돌렸다.

4. 그리스어 크세이노스(ξεῖνος)는 떠도는 나그네, 집에 맞아들인 손님, 그 손님을 맞은 주인을 모두 가리킨다. 한 번 서로를 손님으로 맞고 선물을 주고받은 집안은 대를 이어 서로 맞아 주고 돕는 사이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런 사이를 「손님 벗」, 그때 주인이 손님에게 주는 선물을 「손님 선물」이라 옮긴다.

5. 에에드나(ἔεδνα). 혼인에 오가는 재물을 두루 이르는 말로,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바치는 「구혼 선물」과 신부 집이 딸을 보내며 딸려 보내는 「혼수」를 함께 가리킨다. 여기서는 신부 쪽이 마련하는 것이다.

6. 호메로스에서 헬라스는 그리스 북부 테살리아 쪽의 한 지방이고, 아르고스는 남쪽 펠로폰네소스를 가리킨다. 둘을 함께 일러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곧 온 그리스를 뜻한다.

제2권

1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어깨에 메었다. 반들거리는 발에 아름다운 신을 맨 그가 방에서 나오니, 마주 보는 눈에는 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텔레마코스는 곧 목소리 맑은 전령들에게 머리를 길게 기른 아카이아인들을 회의장으로 불러 모으라고 일렀다. 전령들이 외치고 다니자 사람들이 금세 모여들었다. 그들이 다 모여 한자리에 들어차자 텔레마코스는 손에 청동 창을 들고 회의장으로 갔다. 혼자가 아니라 날랜 개 두 마리가 뒤따랐다. 아테나가 그에게 신묘한 기품을 쏟아부어 주니, 다가오는 그를 온 백성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자 원로들이 자리를 비켜 주었다. 그들 앞에서 영웅 아이깁티오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었고 아는 것이 끝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창잡이 안티포스는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우묵한 배를 타고 좋은 말이 많은 일리오스[1]로 갔다가, 사나운 키클롭스에게 우묵한 동굴에서 죽어 그 마지막 저녁거리가 되었다. 아이깁티오스에게는 아들이 셋 더 있어, 에우리노모스는 구혼자들과 어울려 다녔고 둘은 늘 아버지의 농사일을 돌보았다. 그래도 그는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 애통해하며 슬퍼했다.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깁티오스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했다.

25 "이타카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시오.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우묵한 배를 타고 떠난 뒤로 우리는 한 번도 회의를 열거나 모여 앉은 적이 없었소.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소?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에게 그토록 급한 일이 닥쳤단 말이오?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남보다 먼저 듣고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 주려는 것이오? 아니면 백성에게 걸린 다른 일을 밝혀 말하려는 것이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같소. 그에게 복이 있기를! 그가 속으로 바라는 일이 무엇이든 제우스께서 좋은 일로 이루어 주시기를 비오."

35 아이깁티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 길한 말에 기뻐했다. 그는 더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 마음에 회의장 한가운데로 나가 서자, 생각 깊은 전령 페이세노르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여 주었다. 텔레마코스는 먼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40 "노인장,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는 멀리 있지 않소. 곧 직접 알게 될 거요. 바로 나요. 누구보다 내게 괴로움이 닥쳤기 때문이오.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남보다 먼저 듣고 여러분에게 똑똑히 알리려는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걸린 다른 일을 밝혀 말하려는 것도 아니오. 내 집에 덮친 재앙, 나 자신의 일 때문이오. 재앙은 둘이오. 하나는 내가 훌륭한 아버지를 잃은 것이오. 일찍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다스렸고 아버지처럼 너그러웠던 분이오.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큰 재앙이오. 머지않아 이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살림을 모조리 거덜 낼 재앙이지. 이 고장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구혼자가 되어, 원치도 않는 내 어머니에게 들러붙었소. 그자들은 어머니의 친정아버지 이카리오스의 집으로 가는 것은 꺼리오. 이카리오스께서 몸소 딸의 혼수를 마련해 원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딸을 주실 텐데도

말이오. 그 대신 그자들은 날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며 소와 양과 살진 염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반짝이는 포도주를 함부로 마셔 대니, 살림이 거의 바닥났소. 이 집에서 재앙을 막아 줄 사람,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이오. 우리는 그것을 막아 낼 만한 처지가 못 되오. 앞으로도 우리는 힘없고 싸움에 서툰 채로 남을 거요. 내게 힘만 있다면 정말 막아 내고 싶소. 이제 벌어진 짓은 더는 참을 수 없고, 내 집이 망해 가는 꼴도 이제는 볼썽사납기 짝이 없소. 여러분도 분개하시오. 둘레에 사는 이웃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줄 아시오. 신들이 이 못된 짓에 진노해 무슨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신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시오. 올림포스의 제우스와, 사람들의 회의를 열기도 하고 흩기도 하는 테미스의 이름으로 비오. 벗들이여, 그만두시오. 나 혼자 쓰라린 슬픔에 시달리게 내버려 두시오. 내 훌륭한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혹시 적의를 품고 정강이받이를 잘 댄 아카이아인들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앙갚음으로 여러분이 적의를 품고 저자들을 부추겨 내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오. 차라리 여러분이 내 보물과 가축을 먹어 치운다면 나로서는 그편이 더 낫겠소. 여러분이 먹어 치운다면 머지않아 보상받을 날이 올 테니까. 우리가 도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에게 매달려 말로 재산을 돌려 달라고 하면 끝내는 모두 돌려받을 거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손쓸 도리도 없는 괴로움을 내 마음에 던져 넣고 있소."

80 텔레마코스는 노여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쏟으며 지팡이를 땅에 내던졌다. 온 백성이 그를 가엾게 여겼다. 다른 이들은 모두 잠잠히 있었고, 아무도 감히 거친 말로 텔레마코스에게 대꾸하지 못했다. 안티노오스 혼자 그에게 대답했다.

85 "큰소리치며 혈기를 못 누르는 텔레마코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우리를 욕보이고 우리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려는 속셈이군.

자네에게 탓할 것은 아카이아인 구혼자들이 아니라 자네의 사랑하는 어머니일세. 누구보다 꾀가 많은 여인이지. 벌써 세 해째고 곧 네 해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그 여인은 아카이아인들 가슴속 마음을 농락해 왔네. 모두에게 기대를 품게 하고 사람마다 전갈을 보내 약속을 하지만, 속으로는 딴생각을 품고 있지. 그 여인은 속으로 이런 꾀도 궁리해 냈네. 홀에 커다란 베틀을 세워 놓고 가늘고도 넓은 천을 짜기 시작하더니,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지."

96 "'내게 구혼하는 젊은이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내 혼인을 서두르고 싶더라도 이 천을 다 짤 때까지, 애써 자은 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기다려 주시오. 이것은 영웅 라에르테스의 수의라오. 긴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운명이 그분을 쓰러뜨릴 때 쓰려는 것이오. 그 많은 재산을 모은 분이 수의도 없이 누워 계신다면, 이 고장 아카이아 여인들 가운데 누가 나를 두고 분개할지도 모르니까.'"

103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우리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네. 그때부터 페넬로페는 낮에는 커다란 베틀에서 천을 짜고, 밤이면 횃불을 곁에 두고 짠 것을 풀었네. 그렇게 세 해 동안 꾀로 아카이아인들을 속여 넘기고 믿게 했지. 그러나 네 해째가 되어 계절이 돌아오자, 사정을 똑똑히 아는 여인 하나가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는 빛나는 천을 풀고 있는 그 자리를 덮쳐 잡았네.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천을 다 짜고 말았지. 이제 구혼자들이 자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네. 자네도 마음속으로 똑똑히 알고 아카이아인들도 모두 알도록 말일세. 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가 정해 주고 어머니 마음에도 드는 사람과 혼인하라고 이르게. 그러나 자네 어머니가 아테나가 누구보다 넉넉히 베풀어 준 것들, 곧 더없이 아름다운 솜씨와 훌륭한 생각과 꾀를 믿고 그런 궁리를 마음에 품은 채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오래도록 괴롭힌다면……. 그런 꾀는 옛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어 본 적이

없네. 옛날의 머리채 고운 아카이아 여인들, 티로와 알크메네와 아름다운 관을 쓴 미케네 가운데 누구도 페넬로페만 한 궁리를 해내지는 못했지. 그러나 이번 궁리만은 옳지 않았네. 신들이 지금 그 가슴에 넣어 준 생각을 그 여인이 품고 있는 동안 내내, 구혼자들은 자네 살림과 재산을 먹어 치울 걸세. 어머니는 스스로 큰 명성을 얻겠지만, 자네는 많은 살림을 잃고 아쉬워하게 될 걸세. 우리는 그 여인이 아카이아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과 혼인하기 전에는 우리 일터로도, 다른 어디로도 가지 않겠네."

129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나를 낳아 길러 주신 분을 그 뜻을 거슬러 집에서 내쫓을 수는 결코 없소. 내 아버지는 이 땅 어딘가 다른 곳에 계시오.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든. 내가 스스로 어머니를 돌려보낸다면 이카리오스께 많은 것을 물어 드려야 할 테니 그것도 고약한 일이오.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나는 화를 입을 테고,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며 끔찍한 에리니에스[2]를 부르실 테니 어떤 신이 다른 화를 내릴 것이며, 사람들에게서도 분개를 살 거요. 그러니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소. 당신들 마음에도 이 일이 분하다면 내 집에서 나가시오. 다른 데서 잔치를 벌이시오. 당신들 재산을 먹고, 집집이 돌아가며 대접하시오. 그러나 한 사람의 살림을 값도 치르지 않고 거덜 내는 편이 더 낫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먹어 치우시오. 나는 영원히 사는 신들께 외쳐 부르겠소. 언젠가 제우스께서 이 짓을 되갚게 해 주시도록. 그때는 당신들이 이 집 안에서, 아무도 값을 물어 주지 않는 죽음을 맞을 거요."

146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말하자,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가 그를 위해 높은 산꼭대기에서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려 보냈고, 두 독수리는 한동안 바람의 입김을 타고 날개를 활짝 편 채 서로 나란히 날아왔다. 그러다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한 회의장 한가운데에 이르자, 거기서 빙빙 맴돌며

촘촘한 날개를 퍼덕이더니 모든 사람의 머리를 파멸을 내다보는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발톱으로 서로의 뺨과 목을 할퀴고는, 오른쪽으로 사람들의 집과 도시 위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날아갔다. 사람들은 제 눈으로 새들을 보고 놀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헤아렸다. 그들 가운데서 마스토르의 아들, 늙은 영웅 할리테르세스가 말했다. 그는 또래 가운데 누구보다 새를 알아보고 운수를 바르게 풀어 말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리테르세스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의에서 말했다.

161 "이타카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시오. 특히 구혼자들에게 밝혀 두려고 이 말을 하오. 저들에게 큰 재앙이 굴러오고 있소. 오디세우스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더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오. 아마 벌써 가까이 와서 이자들 모두에게 살육과 죽음의 운명을 심고 있을 거요.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이타카에 사는 우리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오. 그러니 그보다 훨씬 앞서, 어떻게 하면 이자들을 막을 수 있을지 궁리합시다. 아니, 저들 스스로 그만두는 편이 좋겠소. 그편이 저들에게도 당장 더 이로울 테니까. 나는 겪어 보지 않은 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서 하는 말이오. 아르고스인들이 일리오스로 떠나고 꾀 많은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함께 갈 때, 그가 숱한 고난을 겪고 전우들을 모두 잃은 뒤 스무 해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리라고 나는 일러 주었소. 그때 일러 준 말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나는 말하오. 이제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소."

177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했다. "노인장, 이제 집에 가서 네 자식들에게나 예언해라. 그 애들이 앞으로 무슨 화를 입지 않도록. 이 일이라면 내가 너보다 훨씬 잘 풀이한다. 햇빛 아래 오가는 새는 많아도 모두가 운수를 알리는 것은 아니다. 오디세우스는 먼

곳에서 죽었다. 너도 그와 함께 죽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그토록 많은 점괘를 늘어놓지도 않았을 테고, 혹시 네 집에 선물이라도 내줄까 기다리며 화가 난 텔레마코스를 이렇게 부추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똑똑히 일러두마.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옛일을 많이 아는 네가 젊은이를 말로 꾀어 화를 돋운다면, 우선 그 젊은이 자신이 더 괴로워질 것이고, 그런다 해도 이자들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장, 너에게는 우리가 벌금을 물릴 것이니, 그 값을 치르며 속을 끓일 테고 그 고통이 몹시 쓰라릴 것이다. 텔레마코스에게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몸소 일러 주겠다. 그는 어머니에게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한다. 그쪽 사람들이 혼례를 치러 주고, 사랑하는 딸에게 마땅히 딸려 보낼 만큼 혼수도 넉넉히 마련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이 괴로운 구혼을 그만두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도 두렵지 않으니까. 말이 아무리 많아도 텔레마코스는 두렵지 않고, 늙은이, 네가 늘어놓는 헛된 예언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너는 더 미움을 살 뿐이다. 그 여인이 혼인을 미루며 아카이아인들을 붙잡아 두는 동안, 재산은 또다시 형편없이 먹어 치워질 것이고 결코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그 여인의 빼어남을 두고 서로 다툴 뿐, 저마다 아내로 맞기에 알맞은 다른 여인들을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208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 그리고 다른 당당한 구혼자들이여, 이 일은 더는 당신들에게 빌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소. 신들과 모든 아카이아인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자, 내게 날랜 배 한 척과 전우 스무 명을 주시오. 나를 위해 이리저리 뱃길을 끝까지 저어 갈 사람들 말이오. 나는 스파르타와 모래 많은 필로스로 가서 오래 떠나 있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알아보겠소. 누가 내게 말해

줄지도 모르고, 제우스에게서 오는 소문을 들을지도 모르오. 사람들에게 소식을 가장 잘 실어 나르는 것이 그 소문이니까.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지치더라도 한 해를 더 견디겠소. 그러나 이미 돌아가셔서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쌓고 마땅한 만큼 장례 예물을 넉넉히 바친 다음, 어머니를 새 남편에게 내주겠소."

224 이렇게 말하고 텔레마코스는 자리에 앉았다. 그들 가운데서 멘토르가 일어섰다.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전우로,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떠날 때 온 집안을 맡기며 노인의 말을 따르고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키라고 일러 둔 사람이었다. 멘토르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의에서 말했다.

229 "이타카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시오. 이제는 왕홀을 쥔 왕이 누구든 기꺼이 다정하고 너그럽게 굴려 하지 말고, 속에 바른 도리를 새기려 하지도 마시오. 차라리 늘 모질게 굴고 못된 짓만 저지르시오. 신 같은 오디세우스가 다스리던 백성 가운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오. 그는 아버지처럼 너그러운 분이었는데도. 저들은 제 목숨을 걸고 오디세우스의 집을 억지로 먹어 치우며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말하니, 거만한 구혼자들이 속에 품은 흉계로 난폭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내 그리 탓하지 않겠소. 그러나 나는 나머지 백성에게 분개하오. 여러분은 모두 잠자코 앉아만 있고, 수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말로 꾸짖어 몇 안 되는 구혼자들을 막지 않으니 말이오."

242 에우에노르의 아들 레이오크리토스가 대답했다. "멘토르, 이 고약한 늙은이, 정신 나간 늙은이야, 우리를 막으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다니 무슨 말을 하느냐? 잔치를 두고 우리처럼 수가 많은 사내들과 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설령 이타카의 오디세우스가 몸소 돌아와, 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당당한 구혼자들을 홀에서 몰아내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를 몹시 그리던 아내조차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내와 싸운다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테니까. 네 말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자, 백성들은 저마다 제 일터로 흩어져라. 이 녀석의 여행은 멘토르와 할리테르세스가 거들어 주겠지. 처음부터 이 녀석 아버지 대부터의 벗이었으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 이 녀석은 이타카에 오래 앉아 소식이나 묻고 다닐 뿐 이 여행을 끝내 떠나지 못할 것이다."

257 레이오크리토스가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회의를 흩어 버리자, 사람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졌고, 구혼자들은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갔다.

260 텔레마코스는 사람들과 떨어져 바닷가로 가서 잿빛 바닷물에 손을 씻고 아테나에게 기도했다. "들어 주소서. 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배를 타고 아득한 바다로 나가 오래 떠나 있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알아보라고 이르신 신이시여. 그런데 아카이아인들이, 누구보다 못되게 오만한 구혼자들이 그 모든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67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아테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모습도 목소리도 멘토르를 닮은 채, 아테나는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70 "텔레마코스, 자네 안에 아버지의 훌륭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다면, 자네는 앞으로도 비겁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을 걸세. 그분은 일이든 말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지. 그렇다면 자네의 여행도 헛되거나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 걸세. 그러나 자네가 그분과 페넬로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네가 바라는 일을 끝내 이루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드물고, 대개는 아버지만 못하며,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은 드물지. 그러나 자네는 앞으로도 비겁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을 테고 오디세우스의 꾀가 자네를 아주 저버리지도 않았으니, 이 일을 끝내 이루리라는 희망이 있네. 그러니 이제

구혼자들의 궁리와 속셈은 내버려 두게. 저들은 분별도 없고 도리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저들은 죽음을, 검은 죽음의 운명을 조금도 모르네. 그 운명이 바로 곁에 와서 하루아침에 저들을 모두 쓰러뜨리리라는 것을. 자네가 바라는 여행은 이제 오래 미뤄지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 아버지 대부터의 벗이니, 자네를 위해 날랜 배를 마련하고 몸소 함께 가겠네. 자네는 집으로 가서 구혼자들과 어울리면서 여행에 쓸 양식을 마련해, 포도주는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에, 사람의 뼈에 골수를 채우는 보릿가루는 촘촘한 가죽 부대에, 모두 그릇에 담아 두게. 나는 고장을 돌며 자원하는 전우들을 곧 모으겠네. 바다에 둘러싸인 이타카에는 새 배 헌 배 할 것 없이 배가 많으니,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배를 내가 골라 보겠네.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넓은 바다로 띄우세."

296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이렇게 말하자, 신의 목소리를 들은 텔레마코스는 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가슴이 시름에 잠긴 채 집으로 간 그는, 거만한 구혼자들이 홀에서 염소 가죽을 벗기고 안뜰에서 살진 돼지의 털을 불에 그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티노오스가 웃으며 곧장 텔레마코스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303 "큰소리치며 혈기를 못 누르는 텔레마코스, 이제 가슴속에 다른 못된 일이나 말은 품지 말고 늘 하던 대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세. 자네가 하루빨리 성스러운 필로스에 가서 당당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배와 골라 뽑은 노꾼들은 아카이아인들이 모두 마련해 줄 걸세."

309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방자한 당신들과 함께 잠자코 잔치를 벌이고 마음 편히 즐길 수는 결코 없소. 구혼자들이여, 내가 아직 어린애였을 때 당신들이 내 좋은 재산을 숱하게 거덜 낸 것으로는 모자라오? 이제 나도 다 자라서 남들의 말을

들으며 사정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서 기개가 자라고 있으니, 필로스로 가서든 바로 이 고장에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들에게 못된 죽음의 운명을 내리도록 해 보겠소. 나는 가겠소. 내가 말하는 이 여행은 헛되지 않을 것이오. 배도 노꾼도 내 것이 없으니 남의 배를 얻어 탄 길손으로 가겠소. 당신들은 그편이 더 이롭다고 여긴 모양이오."

321 이렇게 말하고 텔레마코스는 안티노오스의 손에서 제 손을 가볍게 빼냈다. 구혼자들은 집 안에서 잔치 준비에 바빴다. 그들은 텔레마코스를 조롱하고 말로 빈정거렸다.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325 "텔레마코스가 정말 우리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군. 모래 많은 필로스에서든 스파르타에서든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데려올 셈이야. 몹시 벼르고 있으니까. 아니면 기름진 땅 에피라로 가서 목숨을 빼앗는 독약을 구해다가 술동이에 넣어 우리를 모두 죽이려는지도 모르지."

331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누가 알겠나? 저 녀석도 우묵한 배를 타고 가서 오디세우스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 떨어져 떠돌다가 죽을지. 그러면 우리 일거리가 더 늘겠군. 재산을 모두 나눠 갖고, 집은 저 녀석 어머니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사람에게 넘겨야 할 테니까."

337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넓고 지붕 높은 곳간으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금과 청동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궤짝마다 옷이 들어 있었으며, 향기로운 올리브기름도 넉넉했다. 벽을 따라 나란히 늘어선 항아리들에는 신들의 음료 같은, 물을 타지 않은 오래 묵은 달콤한 포도주가 가득 들어 있어, 숱한 고생을 겪은 오디세우스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단히 맞물린 두 짝 판자 문이 닫혀 있었고, 살림 맡은 여인이 밤낮으로 그 안에 머물며 지혜를 다해 모든 것을 지켰다. 페이세노르의 아들 옵스의

딸 에우리클레이아였다. 텔레마코스가 에우리클레이아를 곳간으로 불러 말했다.

349 "유모,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에 달콤한 포도주를 길어 주세요. 유모가 그 불운한 분, 제우스의 핏줄인 오디세우스가 죽음을 피하고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어디선가 돌아오실까 하여 아껴 두는 술 다음으로 맛 좋은 걸로요. 열두 항아리를 채우고 모두 뚜껑을 꼭 덮어 주세요. 꼼꼼히 꿰맨 가죽 부대에 보릿가루도 부어 주시고요. 맷돌에 간 보릿가루로 스무 말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일은 유모 혼자만 알고 계세요. 이걸 다 한데 모아 두시면, 어머니가 위층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드신 뒤 저녁에 제가 가지러 올게요. 저는 스파르타와 모래 많은 필로스로 가서, 어디서든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알아보려고 해요."

361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울부짖고 탄식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얘야, 어쩌다 그런 생각이 네 속에 들었느냐?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어찌 그 넓은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제우스의 핏줄인 오디세우스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고장에서 죽었다. 네가 떠나면 저자들은 곧바로 등 뒤에서 못된 궁리를 꾸며, 너를 꾀로 죽이고 이 재산을 저희끼리 다 나눠 가질 게다. 그러니 여기 네 것 곁에 앉아 머물러라. 거둘 것 없는 바다에 나가 고생하며 떠돌 까닭이 없다."

371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유모. 이 생각은 신의 뜻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열하루나 열이틀이 지나기 전에는, 아니면 어머니가 저를 찾으시다가 제가 떠났다는 걸 들으시기 전에는요. 어머니가 우시다가 고운 얼굴을 상하시면 안 되니까요."

37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신들의 이름으로 큰 맹세를 하며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맹세를 다 마치자 노파는 곧바로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에 포도주를 길어 담고, 꼼꼼히 꿰맨 가죽 부대에 보릿가루를 부었다. 텔레마코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구혼자들과 어울렸다.

382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아테나는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하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마다 곁에 서서 말을 건네고, 저녁에 날랜 배 곁으로 모이라고 이르고는, 프로니오스의 빛나는 아들 노에몬에게 날랜 배를 청했다. 노에몬은 기꺼이 응했다.

388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다. 그제야 아테나는 날랜 배를 바다로 끌어내리고, 갑판 튼튼한 배들이 싣고 다니는 온갖 장비를 실었다. 그러고는 배를 포구 맨 끝에 대 놓았다. 훌륭한 전우들이 그 둘레로 한데 모여들었고, 여신은 그들 하나하나를 북돋웠다.

393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여신은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가서 구혼자들 위에 달콤한 잠을 쏟아붓고, 술 마시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손에서 잔을 떨어뜨리게 하니, 눈꺼풀 위로 잠이 쏟아진 그들은 더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잠을 자러 도시 곳곳으로 일어섰다. 그때 모습도 목소리도 멘토르를 닮은 채,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살기 좋은 홀 밖으로 텔레마코스를 불러내어 말했다.

402 "텔레마코스, 정강이받이를 잘 댄 전우들이 벌써 노를 잡고 앉아 자네가 떠나기만 기다리고 있네. 자, 가세. 길을 오래 미루지 말고."

405 이렇게 말하고 팔라스 아테나가 재빨리 앞장서자 텔레마코스는 여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배와 바다로 내려가 보니 바닷가에

머리를 길게 기른 전우들이 와 있었다.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410 "벗들이여, 이리 오게. 양식을 나르세. 모두 홀에 한데 모아 두었네. 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다른 하녀들도 모르네. 한 사람만 이 말을 들었네."

413 이렇게 말하고 텔레마코스가 앞장서자 그들이 함께 따라갔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날라다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시킨 대로 갑판 튼튼한 배에 실었다. 텔레마코스가 배에 오를 때 아테나가 앞장서 올라 고물에 앉았고, 텔레마코스가 그 곁에 앉았으며, 전우들은 고물 밧줄을 풀고 저마다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다.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들에게 알맞은 순풍을 보내 주었다. 포도주 빛 바다 위로 세차게 불며 소리를 내는 서풍이었다. 텔레마코스가 전우들을 재촉하며 돛 장비를 잡으라고 이르자, 그들은 재촉하는 말을 듣고 따랐다. 그들은 전나무 돛대를 들어 올려 우묵한 돛대 받침 안에 세우고 앞 버팀줄로 동여맨 다음, 잘 꼰 쇠가죽 밧줄로 흰 돛을 끌어 올렸다. 바람이 돛 한가운데를 부풀리자 배가 나아가며 이물 둘레에서 검붉은 물결이 크게 소리쳤다. 배는 물결을 헤치며 뱃길을 끝까지 내달렸다. 날랜 검은 배 위에 장비를 단단히 묶은 그들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운 술동이를 세워 놓고, 영생하는 불사의 신들께, 그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제우스의 빛나는 눈의 딸께 술을 따라 바쳤다. 배는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뱃길을 헤쳐 나아갔다.

---

1. 트로이의 다른 이름이다. 호메로스는 도시를 흔히 일리오스라 부르고, 그 도시와 둘레 땅을 트로이라 부르지만 둘을 섞어 쓰기도 한다.

2. 복수의 여신들. 부모나 손님, 탄원하는 사람처럼 신성하게 지켜야 할 관계를 짓밟힌 이가 저주하며 부르면, 죄지은 자를 끝까지 쫓아가 벌을 내린다.

제3권

1 해가 불사의 신들에게도, 곡식을 내는 땅 위의 죽을 운명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려고 더없이 아름다운 바다를 떠나 청동빛 하늘로 솟아올랐다. 텔레마코스 일행은 넬레우스의 잘 지은 도시 필로스에 닿았다. 필로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대지를 흔드는 검푸른 머리채의 신에게 새까만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자리가 아홉 군데 있었고, 자리마다 오백 명씩 앉아 저마다 황소 아홉 마리씩을 내놓았다. 그들이 내장을 맛보고 신께 넓적다리뼈[1]를 태우고 있을 때, 일행은 곧장 뭍으로 배를 대고 균형 잡힌 배의 돛을 걷어 올려 묶은 다음, 배를 매어 두고 뭍에 내렸다. 텔레마코스가 배에서 내리자 아테나가 앞장섰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다.

14 "텔레마코스, 이제는 조금도 염치를 차릴 때가 아닐세. 자네는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려고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땅이 그분을 어디에 감추었는지, 그분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자, 이제 말을 길들이는 네스토르에게 곧장 가세. 그분이 가슴속에 어떤 지혜를 감추고 있는지 알아보세. 자네가 몸소 간청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게. 그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걸세. 무척 생각이 깊은 분이니까."

21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멘토르 어르신,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그분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까? 저는 아직 지혜로운

말에는 서툽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분께 꼬치꼬치 묻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고요."

25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텔레마코스, 어떤 것은 자네가 속으로 깨달을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신이 일러 줄 걸세. 자네가 신들의 뜻을 거슬러 태어나고 자랐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29 이렇게 말하고 팔라스 아테나가 재빨리 앞장서자 텔레마코스는 여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그들은 필로스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이르렀다. 거기 네스토르가 아들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둘레에서는 동료들이 잔치를 차리며 고기를 굽고 다른 고기를 꼬챙이에 꿰고 있었다. 나그네들을 보자 그들은 모두 한데 몰려와 손을 잡고 맞으며 앉으라고 권했다.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맨 먼저 가까이 와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바닷가 모래 위에 깐 부드러운 양털 위, 형제 트라시메데스와 아버지 곁 잔칫자리에 앉혔다. 그러고는 내장 몫을 나누어 주고 황금 잔에 포도주를 따르더니, 잔을 들어 인사하며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2] 팔라스 아테나에게 말했다.

43 "손님, 이제 포세이돈 왕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여기 오셔서 마침 그분께 바치는 잔치를 만나셨으니까요. 그것이 도리이니 술을 따라 바치고 기도를 올리신 다음, 이 젊은이에게도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 잔을 건네 술을 따라 바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불사의 신들께 기도를 올리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들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이 사람은 더 젊어 저와 동갑이니, 손님께 먼저 황금 잔을 드리겠습니다."

51 이렇게 말하고 그가 달콤한 포도주가 든 잔을 손에 쥐여 주자, 아테나는 그 의젓하고 바른 젊은이가 자기에게 먼저 황금 잔을 건네준 것을 기뻐하며, 곧 포세이돈 왕께 간곡히 기도했다.

55 "들어 주소서,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여. 기도하는 저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소서. 먼저 네스토르와 그 아들들에게 영광을 내려 주시고, 그다음 다른 모든 필로스 사람들에게도 이 이름 높은 큰 제물에 대한 기꺼운 보답을 주소서. 또한 텔레마코스와 제가 날랜 검은 배를 타고 이리 온 일을 이루고 돌아가게 해 주소서."

62 아테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갔다. 그러고는 텔레마코스에게 손잡이 둘 달린 아름다운 잔을 건넸고,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도 똑같이 기도했다. 겉쪽 고기를 다 굽고 꼬챙이에서 빼내자 그들은 몫을 나누어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였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69 "손님들이 음식을 실컷 들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캐어 보는 것이 좋겠소. 손님들, 당신들은 누구요? 어디서 물길을 따라 배를 저어 왔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소,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떠돌며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해적들처럼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오?"

75 멀리 떠난 아버지의 일을 묻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도 얻게 하려고 아테나가 몸소 그의 속에 용기를 넣어 주었으므로, 의젓한 텔레마코스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79 "넬레우스의 아드님 네스토르시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시여,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시니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온산 기슭의 이타카에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은 백성의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일입니다. 저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아버지의 널리 퍼진 소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꿋꿋한 고귀한 오디세우스, 일찍이 어르신과 함께 싸워 트로이인의 도시를 무너뜨렸다고들 하는 분입니다. 트로이인과 싸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어디서 비참한 파멸을 맞았는지 저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파멸만은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뭍에서 적들에게 쓰러졌는지 아니면 바다에서 암피트리테의 물결 속에 쓰러졌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똑똑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의 무릎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눈으로 보셨든, 떠돌던 다른 누구에게서 말을 들으셨든, 그분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분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으로 그분을 낳으셨습니다. 저를 어려워하거나 가엾게 여겨 말씀을 누그러뜨리지 마시고, 보신 그대로 제게 낱낱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던 트로이인의 땅에서 혹시 제 아버지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어르신께 무슨 말을 약속하고 지키셨거나 무슨 일을 맡아 해내신 적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떠올리시고 제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했다. "젊은이, 자네가 그 고장에서 우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걷잡을 수 없는 기운으로 견뎌 낸 고난을 일깨워 주는군. 아킬레우스가 이끄는 대로 노획물을 찾아 배를 타고 아득한 바다를 떠돌며 겪은 일들이며, 프리아모스 왕의 큰 도시 둘레에서 싸우며 겪은 일들 말일세. 거기서 가장 뛰어난 이들이 죽었지. 거기 용맹한 아이아스가 누워 있고, 거기 아킬레우스가, 거기 지혜가 신들과 맞먹는 파트로클로스가, 거기 굳세고 나무랄 데 없던 내 사랑하는 아들 안틸로코스가 누워 있네. 그 애는 누구보다 발이 빨랐고 싸움에도 뛰어났지. 그 밖에도 우리는 숱한 재앙을 겪었네. 죽을 운명의 인간 가운데 누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나? 자네가 다섯 해, 여섯 해를 여기 머물며 고귀한 아카이아인들이 거기서 겪은 재앙을 다 캐묻는다 해도, 다 듣기 전에 지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말 걸세. 우리는 아홉 해 동안 온갖 계략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재앙을 엮었고,

크로노스의 아들께서는 겨우겨우 그 일을 이루어 주셨지. 거기서는 아무도 감히 꾀로 그분과 맞서려 하지 않았네.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온갖 계략에서 단연 으뜸이었으니까. 자네 아버지 말일세. 자네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라면. 자네를 보니 경외감이 드는군. 자네의 말이 그분과 꼭 닮았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꼭 닮게 말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걸세. 거기 있는 동안 나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회의에서도 협의에서도 한 번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네. 우리는 한마음을 품고, 생각과 슬기로운 의논으로 아르고스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지 궁리했지. 그러나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우뚝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배에 오르자 어떤 신이 아카이아인들을 흩어 놓았네. 그때 제우스께서 아르고스인들에게 비참한 귀향을 속으로 꾀하셨지. 그들이 모두 분별 있거나 바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힘센 아버지의 딸, 빛나는 눈의 여신이 내린 무서운 노여움 때문에 많은 이가 비참한 운명을 맞았네. 그 여신이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켰지. 두 사람은 해 질 녘에 모든 아카이아인을 회의에 불러 모았네. 함부로, 법도도 없이 말일세.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술에 취해 몰려왔고, 두 사람은 백성을 모은 까닭을 말했네. 메넬라오스는 모든 아카이아인에게 바다의 넓은 등을 건너 귀향할 생각을 하라고 했지만, 아가멤논은 그 말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네. 그는 백성을 붙잡아 두고 신성한 큰 제물을 바쳐 아테나의 무서운 노여움을 달래려 했던 걸세. 어리석은 사람. 여신이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몰랐으니. 영원히 사는 신들의 생각은 그렇게 쉬이 바뀌지 않는 법일세.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맞서 있었고, 정강이받이를 잘 댄 아카이아인들은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네.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린 걸세. 제우스께서 재앙의 고통을 마련하고 계셨으니, 우리는 서로에게 속을 끓이며 밤을 지새웠네. 새벽이 되자 우리 가운데 한쪽은

배를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리고 재물과 허리띠를 깊게 맨 여인들을 실었네. 백성의 절반은 백성의 목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곁에 그대로 남았고, 절반은 배에 올라 떠났지. 배는 아주 빨리 나아갔고, 어떤 신이 큰 짐승이 사는 바다를 잔잔하게 펴 주었네. 테네도스에 이르자 우리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신들께 제물을 바쳤네. 그러나 제우스께서는 아직 귀향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지. 모진 신. 그분은 다시 한 번 고약한 다툼을 일으키셨네. 한 무리는 양 끝이 휜 배를 되돌려, 슬기롭고 온갖 꾀를 지닌 오디세우스 왕을 따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비위를 맞추러 다시 돌아갔네. 그러나 나는 어떤 신이 재앙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를 따르는 배들을 모두 이끌고 달아났네. 티데우스의 용맹한 아들도 전우들을 재촉하여 달아났지. 금발의 메넬라오스는 뒤늦게 우리를 따라와, 먼 뱃길을 두고 고민하던 우리를 레스보스에서 따라잡았네. 험한 키오스 위쪽으로 프시리아섬 곁을 지나며 그 섬을 왼쪽에 두고 갈지, 아니면 키오스 아래쪽으로 바람 부는 미마스 곁을 지나갈지 말일세. 우리는 신께 징조를 보여 달라고 빌었고, 신은 징조를 보여 주며 한시라도 빨리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에우보이아로 가라고 하셨네. 맑은 소리를 내며 부는 순풍이 일자 배들은 물고기 많은 물길을 아주 빨리 달려 밤에 게라이스토스에 닿았고, 우리는 큰 바다를 건넌 뒤 포세이돈께 황소의 넓적다리뼈를 숱하게 바쳤네. 나흘째 되는 날, 말을 길들이는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의 전우들이 균형 잡힌 배들을 아르고스에 대었네. 그러나 나는 필로스로 배를 몰았고, 신이 처음 바람을 보내 준 뒤로 순풍은 한 번도 그치지 않았네."

184 "젊은이, 그렇게 나는 아무 소식도 모른 채 돌아왔네.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죽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네. 그러나 우리 집 홀에 앉아 전해 들은 것은 그것이 도리이니 자네에게 알려 주겠네.

숨기지 않겠네. 창을 잘 쓰는 미르미돈족은 무사히 돌아왔다고들 하네. 기상 높은 아킬레우스의 빛나는 아들이 그들을 이끌었다지. 포이아스의 빛나는 아들 필록테테스도 무사히 돌아왔고, 이도메네우스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전우들을 모두 크레타로 데려가, 바다는 그에게서 한 사람도 빼앗지 않았지. 아트레우스의 아들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네들도 들었을 걸세. 그가 어떻게 돌아왔고, 아이기스토스가 어떻게 그에게 비참한 파멸을 꾸몄는지. 그러나 아이기스토스는 끔찍한 값을 치렀네. 죽은 사람에게 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아들도 아버지를 죽인 자, 제 이름난 아버지를 죽인 꾀가 음흉한 아이기스토스에게 앙갚음을 했으니 말일세. 여보게, 자네도 보아하니 훤칠하고 잘생겼으니 굳세게 나서게. 뒷날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자네를 칭송하도록."

201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넬레우스의 아드님 네스토르시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시여, 그 사람은 참으로 통쾌하게 앙갚음을 했고, 아카이아인들은 뒷날 사람들도 듣도록 그의 명성을 널리 퍼뜨릴 겁니다. 신들께서 제게도 그만한 힘을 입혀 주셔서, 제게 오만하게 굴며 무모한 짓을 꾸미는 구혼자들에게 그 괴로운 횡포의 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신들께서는 제 아버지에게도 제게도 그런 복을 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210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했다. "젊은이, 자네가 그 일을 일깨우고 말하니 생각나는군. 듣자 하니 자네 어머니 때문에 많은 구혼자가 자네 뜻을 거슬러 자네 집 홀에서 못된 일을 꾸민다더군. 말해 보게. 자네가 기꺼이 굴복하는 건가, 아니면 고장 사람들이 어떤 신의 목소리를 따라 자네를 미워하는 건가? 누가 알겠나? 언젠가 그분이 돌아와 저들의 횡포에 앙갚음을 할지. 혼자서든, 아카이아인 모두를 이끌고서든.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 옛날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던 트로이인의 땅에서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를 보살폈듯이 자네를 그렇게 아끼려 한다면……. 나는 신들이 그렇게 드러내 놓고 사람을 아끼는 것을 본 적이 없네. 팔라스 아테나가 드러내 놓고 그분 곁을 지키던 것만큼은. 아테나가 그렇게 자네를 아끼고 마음으로 보살펴 준다면, 저들 가운데 누군가는 혼인 따위는 아주 잊어버리게 될 걸세."

225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어르신, 그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 놀라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란다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들께서 그렇게 하시려 한다 해도요."

229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텔레마코스, 무슨 말이 자네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왔나? 신은 마음만 먹으면 멀리서도 쉽게 사람을 구해 내네. 나라면 숱한 고생을 겪고서라도 집에 돌아가 귀향의 날을 보는 편을 택하겠네. 돌아오자마자 제 화덕 곁에서 죽느니 말일세. 아가멤논이 아이기스토스와 제 아내의 꾀에 걸려 그렇게 죽었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닥치는 죽음만은, 긴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운명이 그 사람을 쓰러뜨릴 때가 오면 신들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막아 줄 수 없네."

239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멘토르 어르신,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분에게는 이제 참된 귀향이란 없습니다. 불사의 신들께서 벌써 그분에게 죽음을, 검은 죽음의 운명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제 저는 네스토르 어르신께 다른 일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법도와 지혜를 잘 아시니까요. 사람들 말로는 그분이 세 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다스리셨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그분이 불사의 신처럼 보입니다. 넬레우스의 아드님 네스토르시여,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트레우스의 아들, 널리 다스리던 아가멤논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메넬라오스는 어디 있었습니까? 꾀가 음흉한 아이기스토스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죽였으니, 대체 어떤 파멸을 꾸민 것입니까? 메넬라오스가 아카이아의 아르고스에 없고 다른 어딘가 사람들 사이를 떠돌고 있어서, 그 틈에 아이기스토스가 대담하게 아가멤논을 죽였습니까?"

253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젊은이, 진실을 다 말해 주겠네.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자네도 짐작할 걸세. 아트레우스의 아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와 아이기스토스가 홀에 살아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자가 죽은 뒤에도 그 위에 흙 한 줌 덮어 주지 않았을 걸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누운 그자를 개와 새 떼가 뜯어먹었을 테고, 아카이아 여인 가운데 누구도 그자를 위해 울어 주지 않았겠지. 그자는 참으로 끔찍한 짓을 꾸몄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숱한 싸움을 치르며 앉아 있는 동안, 그자는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의 깊숙한 곳에서 태평하게 아가멤논의 아내를 거듭 말로 홀렸네. 고귀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처음에는 그 추한 짓을 마다했지. 착한 마음을 지닌 여인이었으니까. 곁에는 노래꾼도 한 사람 있었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트로이로 떠나며 아내를 지키라고 거듭 당부해 둔 사람이었지. 그러나 신들이 정한 운명이 그 여인을 묶어 무너지게 하자, 아이기스토스는 그 노래꾼을 외딴섬으로 데려가 새 떼의 먹이요 노획물이 되도록 버려두었고, 저도 원하고 여인도 원하여 그 여인을 제 집으로 데려갔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이루리라고는 꿈에도 바라지 못한 큰일을 해냈다고, 신들의 신성한 제단 위에서 넓적다리뼈를 숱하게 태우고, 수놓은 천이며 금이며 봉헌물을 숱하게 걸어 바쳤네."

276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나는 서로 정다운 마음으로 함께 트로이를 떠나 배를 몰았네. 그런데 아테네의 곶, 신성한 수니온에 이르렀을 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메넬라오스의 키잡이를 찾아와 부드러운 화살로

쓰러뜨렸네. 달리는 배의 키를 손에 쥐고 있던 오네토르의 아들 프론티스였지. 폭풍이 몰아칠 때 배를 모는 솜씨로는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길을 서두르면서도 그곳에 머물러 전우를 묻고 장례를 치러 주었네. 그러다 그도 우묵한 배들을 이끌고 포도주 빛 바다로 나가 달려서 말레아의 가파른 곶에 이르렀을 때,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가 끔찍한 뱃길을 마련하여 쌩쌩 부는 바람의 숨결을 쏟아부었고, 산더미 같은 거대한 물결이 부풀어 올랐네. 제우스는 거기서 배들을 갈라, 일부를 크레타 쪽으로, 키도네스족이 이아르다노스강 물줄기 둘레에 사는 곳으로 몰아붙였네. 고르틴 땅 끝, 아득한 바다 쪽으로 깎아지른 매끈한 바위가 하나 솟아 있었네. 거기서는 남풍이 왼쪽 곶을 향해 파이스토스 쪽으로 큰 물결을 밀어붙였는데, 작은 바위 하나가 그 큰 물결을 막아 주었지. 배들은 그리로 왔고, 사람들은 간신히 파멸을 벗어났지만 물결이 배들을 암초에 부딪쳐 부숴 버렸네. 그러나 뱃머리가 검푸른 나머지 배 다섯 척은 바람과 물결이 실어다 이집트에 닿게 했네. 그렇게 메넬라오스는 거기서 많은 재물과 금을 모으며 배를 타고 말이 다른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지. 그동안 아이기스토스가 고향에서 그 끔찍한 일을 꾸몄네. 그자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죽이고 일곱 해 동안 금이 많은 미케네를 다스렸고, 백성은 그자에게 짓눌려 지냈지. 그러다 여덟째 해에 그자에게 재앙이 닥쳤네.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아테네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죽인 자, 제 이름난 아버지를 죽인 꾀가 음흉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인 걸세. 그자를 죽인 오레스테스는 끔찍한 어머니와 비겁한 아이기스토스를 위해 아르고스인들에게 장례 잔치를 베풀었네. 바로 그날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가 배들이 짐으로 실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재물을 싣고 돌아왔네."

313 "여보게, 자네도 재산을 버려두고 그토록 방자한 자들을 집에 남겨 둔 채, 집을 떠나 너무 오래 멀리 떠돌지 말게. 저들이 재산을 나눠 가지며 모조리 먹어 치우는 동안 자네의 여행이 헛걸음이 될까 두렵네. 그러나 메넬라오스에게는 가 보라고 내 권하고 당부하네. 그는 폭풍에 한 번 떠밀려 그토록 큰 바다로 휩쓸려 들어간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마음속으로 바라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의 땅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네. 그 바다는 하도 넓고 무시무시해서 새들도 한 해 안에는 건너오지 못하지. 자, 이제 자네 배와 전우들을 데리고 가게. 걸어서 가고 싶다면 수레와 말이 있고, 내 아들들도 있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사는 고귀한 스파르타까지 자네를 바래다줄 걸세. 자네가 몸소 간청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게.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걸세. 무척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까."

329 네스토르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노인장, 그 말씀은 모두 도리에 맞소. 자, 이제 제물의 혀를 자르고 포도주를 섞으시오. 포세이돈과 다른 불사의 신들께 술을 따라 바치고 잠자리를 생각합시다. 그럴 때가 되었으니까. 벌써 빛이 어둠 아래로 물러갔소. 신들의 잔치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이제 돌아가야 하오."

337 제우스의 딸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그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 전령들이 그들 손에 물을 붓고, 젊은이들이 술동이마다 술을 넘치도록 채우고, 먼저 잔마다 신께 바칠 몫을 조금씩 따른 다음 모두에게 돌리자, 그들은 제물의 혀를 불에 던지고 일어서서 술을 부어 바쳤다.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마음껏 마시고 나자, 아테나와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는 둘 다 우묵한 배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네스토르가 말을 걸며 그들을 붙잡았다.

346 "제우스와 다른 불사의 신들께서 막아 주시기를. 당신들이 내 집을 두고 날랜 배로 가다니. 내가 옷가지 한 벌 없는 가난뱅이란 말이오? 집에 외투도 이불도 넉넉하지 않아 나도 손님들도 편히 잘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오? 내게는 외투도 고운 이불도 넉넉하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뒤에 내 아들들이 홀에 남아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누구든 맞아 대접하는 동안, 이 사람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배의 갑판 위에서 잠을 자게 둘 수는 결코 없소."

356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노인장, 참 옳은 말씀이오. 텔레마코스는 당신 말을 따르는 게 마땅하오. 그편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 이 젊은이는 지금 당신을 따라가 당신 집 홀에서 자게 하시오. 나는 검은 배로 가서 전우들을 북돋우고 이것저것 일러 주겠소. 그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은 나 하나뿐이고, 다른 이들은 정으로 따라온 젊은이들로 모두 기상 높은 텔레마코스와 동갑이오. 오늘 밤은 거기 검은 우묵한 배 곁에서 자고, 새벽에는 기상 높은 카우코네스족에게 가겠소. 거기 받을 빚이 있는데,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오. 이 젊은이는 당신 집을 찾아왔으니, 수레와 아드님을 딸려 보내 주시오. 당신 말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고 힘이 가장 센 말을 내주시오."

371 이렇게 말하고 빛나는 눈의 아테나는 바다수리의 모습으로 떠나갔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노인은 제 눈으로 본 것에 놀라 텔레마코스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375 "여보게, 이렇게 젊은 자네를 신들이 몸소 길잡이로 따라다니니, 자네는 결코 비겁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걸세. 저분은 올림포스에 사는 다른 어느 신도 아니고 제우스의 딸, 가장 영광스러운 트리토게네이아[3]일세. 아르고스인들 가운데서도 자네 훌륭한 아버지를 귀히 여기신 분이지. 여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 저와 제 아들들과 존귀한 아내에게 좋은 명성을 내려 주소서. 저는 여신께 아직 아무도

멍에를 얹어 끌어 본 적 없는, 이마가 넓은 한 살배기 암소를 바치겠습니다. 뿔에 금을 입혀 바치겠습니다."

385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팔라스 아테나가 그 기도를 들었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는 아들들과 사위들을 이끌고 제 아름다운 집으로 갔다. 왕의 이름 높은 집에 이르자 그들은 등받이 의자와 높은 의자에 줄지어 앉았다. 그들이 오자 노인은 마시기 좋은 달콤한 포도주를 술동이에 섞었다. 열한 해 만에 살림 맡은 여인이 열어 마개를 푼 포도주였다. 노인은 그 술을 술동이에 섞고, 술을 따라 바치며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아테나에게 간곡히 기도했다.

395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마음껏 마시고 나자, 그들은 잠을 자러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는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그곳 소리 울리는 주랑 아래 끈 구멍을 뚫은 침대에 재우고, 그 곁에 훌륭한 물푸레나무 창을 지닌 사람들의 우두머리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재웠다. 아들들 가운데 아직 장가들지 않고 홀에 남아 있는 아들이었다. 네스토르 자신은 높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잤고, 안주인인 아내가 그 곁에서 잠자리를 함께했다.

404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높은 문 앞의 반들반들한 돌 위에 앉았다. 기름을 먹어 하얗게 반짝이는 돌이었다. 일찍이 지혜가 신들과 맞먹는 넬레우스가 앉던 자리였지만, 넬레우스는 이미 죽음의 운명에 꺾여 하데스의 집으로 간 뒤였다. 이제는 아카이아인의 수호자,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왕홀을 쥐고 그 자리에 앉았다. 아들들이 저마다 방에서 나와 그 둘레에 모여들었다. 에케프론과 스트라티오스, 페르세우스와 아레토스, 그리고 신에 버금가는 트라시메데스였다. 그들에게 여섯째로 영웅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왔고, 그들은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를 데려와 곁에 앉혔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418 "얘들아, 어서 내 바람을 이루어 다오. 신들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아테나의 마음을 달래 드리고 싶구나. 여신께서 신을 위한 풍성한 잔치에 모습을 드러내고 오셨다. 자, 하나는 들판으로 가서 소를 가져오너라. 소치기가 몰고 어서 오게 하여라. 하나는 기상 높은 텔레마코스의 검은 배로 가서 전우들을 모두 데려오되 둘만 남겨 두어라. 또 하나는 금 세공사 라에르케스를 이리 오라고 불러라. 소뿔에 금을 입히게. 나머지는 모두 여기 함께 남아 있거라. 안에 있는 하녀들에게는 이름 높은 집 안에 잔치를 마련하고, 둘레에 앉을 자리와 장작과 맑은 물을 가져오라고 일러라."

43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부지런히 움직였다. 들판에서 소가 오고, 균형 잡힌 날랜 배 곁에서 기개 높은 텔레마코스의 전우들이 오고, 대장장이도 왔다. 대장장이는 기술의 끝이라 할 청동 연장, 곧 모루와 망치와 잘 만든 집게를 손에 들고 왔다. 그는 그것들로 금을 다루었다. 아테나도 제물을 받으러 왔다. 말을 모는 늙은 네스토르가 금을 내주자, 대장장이는 여신이 그 봉헌물을 보고 기뻐하도록 공들여 소뿔에 금을 입혔다. 스트라티오스와 고귀한 에케프론이 소의 뿔을 잡고 끌어왔다. 아레토스는 꽃무늬를 새긴 대야에 손 씻을 물을 담아 방에서 들고 나왔고, 다른 손에는 보리를 담은 바구니를 들었다. 싸움에서 굳건히 버티는 트라시메데스는 소를 내리치려고 날카로운 도끼를 손에 들고 곁에 섰다. 페르세우스는 피 받을 그릇을 들었다. 말을 모는 늙은 네스토르는 손 씻을 물과 보릿가루로 제사를 시작하고, 첫 제물로 소의 머리털을 불에 던지며 아테나에게 간곡히 기도했다.

447 기도를 올리고 보릿가루를 뿌린 다음, 네스토르의 아들, 기세 높은 트라시메데스가 곧바로 가까이 서서 내리쳤다. 도끼가 목의 힘줄을

끊어 소의 기운을 풀어 버리자, 네스토르의 딸들과 며느리들과 존귀한 아내, 클리메노스의 딸들 가운데 맏이인 에우리디케가 날카롭게 환성을 질렀다. 그들은 길이 넓은 땅에서 소를 들어 올려 붙들었고, 사람들의 우두머리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목을 땄다. 검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목숨이 뼈를 떠나자, 그들은 곧 소를 가르고, 넓적다리뼈를 도리에 맞게 모두 발라내어 기름 조각으로 두 겹 싸고, 그 위에 날고기를 얹었다. 노인이 장작 위에서 그것을 태우며 반짝이는 포도주를 부었고, 젊은이들은 그 곁에서 다섯 갈래 꼬챙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넓적다리뼈가 다 타고 내장을 맛본 뒤, 나머지 고기를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고, 끝이 뾰족한 꼬챙이를 손에 들고 구웠다.

464 그사이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의 막내딸, 아름다운 폴리카스테가 텔레마코스를 목욕시켰다. 폴리카스테가 목욕을 시키고 올리브기름을 듬뿍 발라 준 뒤 고운 겉옷과 윗옷을 입혀 주자, 욕조에서 나오는 텔레마코스의 모습이 불사의 신들과 같았다. 그는 가서 백성의 목자 네스토르 곁에 앉았다.

470 겉쪽 고기를 다 굽고 꼬챙이에서 빼내자 그들은 앉아서 먹었다. 훌륭한 사내들이 일어나 황금 잔에 포도주를 따랐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475 "얘들아, 자, 텔레마코스를 위해 갈기 고운 말을 끌어다 수레에 매어 주어라. 길을 떠날 수 있게."

47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을 귀담아듣고 따랐다. 그들은 재빨리 날랜 말들을 수레에 매었다. 살림 맡은 여인이 빵과 포도주와, 제우스가 기른 왕들이나 먹는 찬거리를 수레에 실었다. 텔레마코스가 더없이 아름다운 수레에 오르자, 네스토르의 아들, 사람들의 우두머리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곁에 올라 손에 고삐를 쥐고 말을 몰려고 채찍질을

했다. 두 말은 기꺼이 들판으로 날듯이 달려 필로스의 가파른 도시를 뒤로했다. 두 말은 온종일 멍에를 양쪽에 진 채 흔들어 댔다.

487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다. 그들은 페라이에 있는 디오클레스의 집에 이르렀다. 디오클레스는 알페이오스강이 낳은 오르틸로코스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밤을 보냈고, 디오클레스는 그들 앞에 손님 선물을 내놓았다.

491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그들은 말을 매고 알록달록한 수레에 올라 문간과 소리 울리는 주랑을 지나 말을 몰았다. 말을 몰려고 채찍질을 하자 두 말은 기꺼이 날듯이 달렸다. 그들은 밀이 자라는 들판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길을 끝까지 달렸다. 날랜 말들이 그만큼 잘 끌어 주었다.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다.

---

1. 제사의 차례는 이렇다. 짐승을 잡아 넓적다리뼈를 발라내고 기름으로 싸서 신께 태워 바치며, 내장은 먼저 구워 제사에 든 이들이 나누어 맛본다. 나머지 고기는 잔치에서 함께 먹는다. 신의 몫은 타오르는 기름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겼다.

2. 아이기스(aigis)는 제우스가 지닌 신비한 방패, 또는 어깨에 두르는 가죽 덧옷이다. 휘두르면 천둥과 공포를 일으킨다고 하며, 아테나도 이것을 걸치고 싸움에 나선다.

3. 아테나의 별칭. 트리톤이라는 강이나 호수에서 태어났다는 뜻, 또는 '세 번째로 태어난', '머리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으로 풀어 왔으나 분명하지 않아 소리대로 옮긴다.

제4권

1 그들은 골짜기 깊은 스파르타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집으로 수레를 몰았다. 메넬라오스는 마침 제 집에서 많은 일가붙이를 불러 아들과 나무랄 데 없는 딸의 혼인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딸은 사람들의 대열을 깨뜨리는 아킬레우스의 아들에게 보내는 길이었으니, 메넬라오스가 일찍이 트로이에서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고개를 끄덕여 다짐했는데, 이제 신들이 그 혼인을 이루어 주었다. 그래서 그는 말과 수레에 딸을 태워, 신랑이 다스리는 미르미돈족의 널리 이름난 도시로 보내려는 참이었고, 아들에게는 스파르타에서 알렉토르의 딸을 아내로 맞아 주었다. 노예 여인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 굳센 메가펜테스였다. 헬레네에게는 신들이 다시 자식을 내려 주지 않았다. 처음에 황금빛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지닌 사랑스러운 딸 헤르미오네를 낳은 뒤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이웃과 일가붙이들이 지붕 높은 큰 집 안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 노래꾼이 리라를 타며 노래하고, 노래가 시작되자 재주꾼 둘이 그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재주를 넘었다.

20 그때 영웅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빛나는 아들은 말과 함께 그 집 문간에 멈춰 섰다.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부지런한 시종, 우두머리 에테오네우스가 앞으로 나오다가 그들을 보고, 백성의 목자에게 알리러 집 안을 가로질러 가서 가까이 서서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6 "제우스가 기르신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나그네 둘이 와 있습니다. 두 사내인데, 위대한 제우스의 핏줄을 닮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의 날랜 말을 풀어 드릴까요, 아니면 저들을 반겨 맞을 다른 집으로 보낼까요?"

30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몹시 속을 끓이며 말했다. "보에토오스의 아들 에테오네우스야, 너는 예전에는 어리석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아이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 둘도 다른 사람들이 내준 손님 선물을 숱하게 먹고서야, 언젠가 제우스께서 이 고난을 그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리 돌아왔다. 어서 손님들의 말을 풀고, 그분들을 안으로 모셔 대접해라."

37 메넬라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에테오네우스는 홀을 가로질러 서둘러 나가며 다른 부지런한 시종들에게 함께 따라오라고 불렀다. 그들은 땀에 젖은 말들을 멍에에서 풀어 말 구유에 매고, 그 곁에 스펠트밀을 던져 주고 흰 보리를 섞어 주었다. 수레는 번쩍이는 벽에 기대어 세우고, 두 사람을 신성한 집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제우스가 기른 왕의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지붕 높은 집 안에는 해나 달처럼 환한 빛이 어려 있었다. 실컷 눈으로 보고 나서 그들은 반들반들 다듬은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하녀들이 두 사람을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준 뒤 두툼한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자, 그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 곁에 놓인 높은 의자에 앉았다.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아름다운 황금 물병에 담아 와 은대야 위로 부어 손을 씻게 하고, 곁에 반들반들한 식탁을 펴 놓았다.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고,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 여러 가지 찬을 곁들였다. 고기 나누는 이는 갖가지 고기를 담은 쟁반을 들어다 놓고 그 곁에 황금 잔을 놓았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두 사람을 반겨 맞으며 말했다.

60 "자, 음식을 들고 즐기게. 식사를 하고 나면 자네들이 누구인지 묻겠네. 자네들 부모의 핏줄은 사라지지 않았구먼. 자네들은 제우스가 기른, 왕홀을 쥔 왕들의 핏줄일세. 천한 사람들이 이런 아들을 낳을 리 없으니까."

65 이렇게 말하고 메넬라오스는 자기 몫으로 차려 놓은 살진 소 등심 구이를 손수 집어 그들 앞에 놓았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텔레마코스는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게 머리를 바짝 대고 네스토르의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71 "네스토르의 아들, 내 마음에 꼭 드는 벗아, 이 소리 울리는 집 안에 번쩍이는 청동과 금과 호박금과 은과 상아 좀 봐. 올림포스의 제우스 궁전 안뜰도 이렇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구나. 보고 있으니 경외감이 들어."

76 그가 하는 말을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알아듣고 두 사람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78 "젊은이들, 죽을 운명의 인간이라면 누구도 제우스와 겨룰 수 없네. 그분의 집과 재물은 불멸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재물로 나와 겨룰 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 나는 숱한 고생을 겪고 숱하게 떠돈 끝에 배에 이 재물을 싣고 여덟째 해에 돌아왔네. 키프로스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인들 사이를 떠돌고, 에티오피아인과 시돈인과 에렘보이족에게 가 보고, 리비아에도 갔지. 거기서는 새끼 양이 나자마자 뿔이 돋고, 양이 한 해에 세 번 새끼를 낳는다네. 거기서는 주인도 목자도 치즈와 고기와 달콤한 젖이 모자라는 일이 없고, 양들이 한 해 내내 젖을 짜게 내주지. 내가 그 땅들을 떠돌며 많은 재물을 모으는 동안, 다른 자가 저주받을 그 아내의 꾀로 몰래, 생각지도 못하게 내 형을 죽였네. 그러니 나는 이 재물을 다스리면서도 조금도

기쁘지 않네. 자네들의 아버지가 누구든, 자네들은 아버지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걸세. 나는 숱한 고생을 겪었고, 사람 살기 좋고 좋은 것이 많이 들어찬 집을 잃었네. 차라리 그 재물의 삼분의 일만 지닌 채 집에 살고,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트로이 땅에서 그때 죽은 사내들이 무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나는 우리 집 홀에 앉아 그들 모두를 그리며 슬퍼하다가, 어떤 때는 울음으로 마음을 달래고 어떤 때는 다시 그치네. 싸늘한 울음에는 금세 물리는 법이니까. 그러나 그 모두를 아무리 애통해해도 한 사람만큼 애통하지는 않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도 음식도 싫어지지.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구도 오디세우스만큼 애쓰고 고생을 짊어진 이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시름이, 내게는 그 사람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슬픔이 끝없이 이어질 운명이었네. 그 사람은 그토록 오래 떠나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네. 늙은 라에르테스와 분별 있는 페넬로페와, 그가 집에 갓 태어난 아기로 남겨 두고 떠난 텔레마코스가 아마 그를 그리며 울고 있겠지."

113 메넬라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의 가슴에 아버지를 그리며 울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자 그는 눈꺼풀에서 눈물을 땅에 떨구며, 두 손으로 자줏빛 외투를 들어 눈앞을 가렸다. 메넬라오스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궁리했다. 그가 스스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먼저 캐물어 하나하나 떠볼지.

120 그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 헬레네가 향기 그윽한 지붕 높은 방에서 나왔다. 황금 물렛가락을 든 아르테미스 같았다. 아드레스테가 곁에서 잘 만든 안락의자를 놓아 주고, 알키페가 부드러운 양털 깔개를 가져오고, 필로가 은 바구니를 들고 왔다. 그 바구니는 이집트의 테베에 사는 폴리보스의 아내 알칸드레가 준

것이었다. 그곳 집들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다. 폴리보스는 메넬라오스에게 은 욕조 두 개와 세발솥 두 개, 금 열 탈란톤[1]을 주었고, 그와 따로 그 아내는 헬레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다. 황금 물렛가락과, 바퀴가 달리고 테두리를 금으로 마감한 은 바구니였다. 시녀 필로가 그 바구니를 가져와 곁에 놓았다. 바구니에는 곱게 자은 실이 가득했고, 그 위에 짙은 보랏빛 양털을 감은 물렛가락이 걸쳐져 있었다. 헬레네는 그 의자에 앉았고 발밑에는 발판이 놓여 있었다. 그러고는 곧 남편에게 하나하나 말로 물었다.

138 "제우스가 기른 메넬라오스,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소? 내 짐작이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말하라고 시키는구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닮은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소. 보고 있으니 경외감이 드오. 이 사람은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꼭 닮았소. 개 같은 나 때문에 당신네 아카이아인들이 대담한 싸움을 벌이러 트로이로 갔을 때, 그분이 집에 갓 태어난 아기로 남겨 두고 떠난 그 아들 말이오."

147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대답했다. "부인, 당신이 그렇게 견주어 보니 나도 그렇게 생각되오. 그 사람의 발이 이랬고 손이 이랬소. 눈길이며 머리며 그 위의 머리털까지. 지금도 나는 오디세우스를 떠올리며,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비참하게 애쓰고 고생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소. 그러자 이 사람이 자줏빛 외투를 눈앞에 들어 올린 채 눈썹 아래로 쓰라린 눈물을 흘렸소."

155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대답했다. "제우스가 기르신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백성의 우두머리시여,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정말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심성이 많아서, 여기 처음 와서 저희 둘이 신의 목소리처럼 즐겨 듣는 왕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늘어놓기를 속으로

꺼립니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께서 길잡이로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왕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일러 주실까 해서요. 아버지가 떠나고 없는 집의 아들은 다른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집안에서 숱한 고통을 겪는 법입니다. 지금 텔레마코스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고 없고, 고장에는 재앙을 막아 줄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168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대답했다. "아아, 나를 위해 숱한 시련을 겪은 내 사랑하는 벗의 아들이 정말 내 집에 왔구나. 올림포스의,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께서 우리 둘에게 날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귀향하게 해 주셨다면, 그가 오면 다른 어떤 아르고스인보다 그를 아껴 주리라고 나는 다짐했지. 그를 그의 재물과 아들과 온 백성과 함께 이타카에서 데려와, 둘레에 사람이 살며 나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 가운데 하나를 비워서 아르고스에 그가 살 도시를 주고 집을 지어 주었을 걸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주 어울렸을 테고, 죽음의 검은 구름이 우리를 덮어 버릴 때까지 서로 아끼고 즐기는 우리를 무엇도 갈라놓지 못했을 걸세. 그러나 이 일은 신께서 몸소 시샘하셨던 모양이네. 오직 그 불운한 사람만 귀향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183 메넬라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의 가슴에 울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제우스의 딸, 아르고스의 헬레네가 울었고, 텔레마코스와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도 울었다. 네스토르의 아들도 눈물 없이 있지 못했다. 눈부신 새벽 여신의 빛나는 아들이 죽인, 나무랄 데 없는 안틸로코스가 마음에 떠올라서였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형을 떠올리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90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저희가 집에서 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물을 때면, 늙은 네스토르께서는 왕이 세상 누구보다 생각이 깊은 분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괜찮으시다면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새벽도 곧 올 테니까요. 죽을 운명의 인간이 죽어 제 운명을 맞으면 그를 위해 우는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머리털을 자르고 뺨에서 눈물을 떨구는 것, 가련한 인간들에게 남은 영예란 그것뿐입니다. 제 형도 죽었습니다. 아르고스인 가운데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었지요. 왕께서는 아실 겁니다. 저는 만나 보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안틸로코스는 누구보다 발이 빠르고 싸움에도 뛰어났다고들 합니다."

203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대답했다. "젊은이, 자네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할 법한 말과 일을 다 말했네. 그만한 아버지의 아들이니 자네도 생각 깊은 말을 하는 게지.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혼인할 때와 태어날 때 복을 자아 주신 사람의 자식은 쉽게 알아볼 수 있네. 지금 네스토르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복을 주셔서, 그 자신은 홀에서 넉넉하게 늙어 가고 아들들은 지혜롭고 창을 쓰는 데 으뜸이 되게 하셨듯이 말일세. 아까의 울음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저녁을 생각하세. 손에 물을 붓게 하세. 텔레마코스와 나는 새벽이 되면 서로 나눌 이야기가 있을 걸세."

21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부지런한 시종 아스팔리온이 그들 손에 물을 부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219 그때 제우스의 딸 헬레네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헬레네는 곧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에 약을 넣었다. 슬픔과 노여움을 잠재우고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는 약이었다. 그 약을 술동이에 섞어 마신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는다 해도,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형제나 사랑하는 아들을 청동으로 찔러 죽인다 해도 뺨에 눈물 한 방울 떨구지 않았다. 제우스의 딸은 그런 효험 좋은 약을 지니고 있었다.

이집트 여인, 톤의 아내 폴리담나가 준 것이었다. 그 땅에서는 곡식을 내는 땅이 온갖 약초를 가장 많이 냈는데, 섞으면 좋은 것도 많고 해로운 것도 많았다. 거기서는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보다 의술에 밝은 의사였으니, 그들은 파이에온의 핏줄이었다. 헬레네는 약을 넣고 술을 따르라고 이른 다음 다시 대답했다.

235 "제우스가 기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의 아들들인 여기 이 젊은이들이여, 제우스 신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때때로 주시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홀에 앉아 잔치를 즐기고 이야기를 들으며 즐기시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소.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가 겪은 시련을 내가 모두 이야기하거나 다 꼽을 수는 없소. 다만 당신네 아카이아인들이 재앙을 겪던 트로이인의 땅에서 그 굳센 사람이 해내고 견딘 일 하나를 이야기하겠소. 그 사람은 스스로 제 몸을 흉하게 매질하고 어깨에는 누더기를 걸친 채, 종의 모습을 하고서 적들의 길 넓은 도시로 숨어 들어갔소. 제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 곧 아카이아인의 배 곁에서는 전혀 그런 꼴이 아니던 거지로 꾸민 것이오. 그런 모습으로 그가 트로이인의 도시에 숨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소. 나 혼자 그런 모습의 그를 알아보고 캐물었지만, 그는 꾀를 부려 피했소. 그러나 내가 그를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주고 옷을 입혀 준 뒤, 그가 날랜 배와 막사에 돌아가기 전에는 트로이인들에게 오디세우스가 왔다고 알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자, 그제야 그는 아카이아인들의 속뜻을 내게 모두 털어놓았소. 그러고는 날이 긴 청동으로 트로이인을 많이 죽이고 아르고스인들에게 돌아가며 적의 사정을 많이 알아 갔소. 그때 다른 트로이 여인들은 날카롭게 울부짖었지만 내 가슴은 기뻤소. 내 마음은 벌써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쪽으로 돌아서 있었고, 아프로디테가 내게

씌운 미혹을 탄식하고 있었으니까. 그 여신이 나를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그리로 데려가 내 딸과 신방과 남편을 저버리게 했소. 생각에서도 생김새에서도 무엇 하나 모자라지 않은 남편을."

265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대답했다. "그렇소, 부인. 당신 말은 모두 도리에 맞소. 나는 벌써 많은 영웅의 생각과 속뜻을 알게 되었고 넓은 땅을 두루 다녀 보았지만,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의 가슴만 한 것은 아직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소. 그 굳센 사람이 반들반들 깎은 목마 속에서 해내고 견딘 일도 그러했소. 그때 아르고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리 모두가 트로이인들에게 살육과 죽음의 운명을 안기려고 그 안에 앉아 있었지. 그때 당신이 그리로 왔소. 트로이인들에게 영광을 내리려던 어떤 신이 당신을 부추겼던 게지. 신을 닮은 데이포보스가 당신 뒤를 따랐소. 당신은 속이 빈 그 매복 둘레를 세 번 돌며 더듬었고, 모든 아르고스인의 아내들 목소리를 흉내 내며 다나오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소. 나와 티데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당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소. 우리 둘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든지 안에서 곧바로 대답하든지 하려고 안달이 났지만, 오디세우스가 몸이 달아오른 우리를 붙들어 막았소. 그때 다른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모두 잠잠히 있었는데, 안티클로스 하나만이 당신에게 말로 대답하려 했소.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억센 두 손으로 그의 입을 쉬지 않고 틀어막아 모든 아카이아인을 구했소. 팔라스 아테나가 당신을 멀리 데려갈 때까지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붙들고 있었소."

290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제우스가 기르신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백성의 우두머리시여,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가슴속에 무쇠 같은 심장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런 일도

그분을 비참한 파멸에서 지켜 주지 못했으니까요. 자, 이제 저희를 잠자리로 보내 주십시오. 잠자리에 누워 달콤한 잠을 즐길 수 있도록."

29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르고스의 헬레네는 하녀들에게 주랑 아래 침대를 놓고, 그 위에 고운 자줏빛 깔개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담요를 펴고, 덮고 잘 두툼한 외투를 얹어 두라고 일렀다. 하녀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홀에서 나갔다. 하녀들이 잠자리를 다 펴자 전령이 손님들을 그리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영웅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빛나는 아들은 그곳 집 앞 현관에서 잠을 잤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높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잤다. 그 곁에는 옷자락 긴 헬레네, 여인 중에 고귀한 헬레네가 누웠다.

306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어깨에 메었다. 반들거리는 발에 아름다운 신을 맨 그가 방에서 나오니, 마주 보는 눈에는 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 곁에 앉아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312 "영웅 텔레마코스, 무슨 일로 바다의 넓은 등을 건너 이 고귀한 스파르타까지 왔나? 백성의 일인가, 자네 일인가? 이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게."

315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제우스가 기르신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백성의 우두머리시여, 혹시 제 아버지 소식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제 집은 먹혀 들어가고 기름진 밭은 망가졌습니다. 집 안에는 적의를 품은 사내들이 가득합니다. 그자들은 늘 제 빽빽한 양 떼와 발을 끌며 걷는 뿔 굽은 소를 잡아먹습니다. 도를 넘는 오만을 부리는 제 어머니의 구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무릎 앞에 찾아왔습니다. 왕의 눈으로 보셨든, 떠돌던 다른 누구에게서 말을 들으셨든, 그분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분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으로 그분을 낳으셨습니다. 저를 어려워하거나 가엾게 여겨 말씀을 누그러뜨리지 마시고, 보신 그대로 제게 낱낱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던 트로이인의 땅에서 혹시 제 아버지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왕께 무슨 말을 약속하고 지키셨거나 무슨 일을 맡아 해내신 적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떠올리시고 제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332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몹시 속을 끓이며 말했다. "허, 저들은 겁쟁이인 주제에 굳센 마음을 지닌 사내의 잠자리에 들려 하다니! 오디세우스는 저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길 걸세. 암사슴이 갓 태어나 아직 젖을 빠는 새끼 사슴들을 힘센 사자의 덤불 굴에 재워 두고, 산기슭과 풀 우거진 골짜기를 뒤지며 풀을 뜯을 때가 있지. 그때 사자가 제 굴로 돌아와 어미와 새끼 모두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기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도 저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길 걸세.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부디 오디세우스가 일찍이 잘 지은 도시 레스보스에서 필로멜레이데스와 시비가 붙자 맞붙어 씨름하다가 그를 힘껏 메어꽂아 모든 아카이아인을 기쁘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구혼자들 사이에 나타난다면! 저들은 모두 명이 짧아지고 쓰디쓴 혼인을 치르게 될 걸세. 자네가 내게 묻고 간청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야기를 비켜 가며 엉뚱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네를 속이지도 않겠네. 바다에 사는, 거짓 없는 노인이 내게 해 준 말은 한 마디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겠네."

351 "신들께서는 이리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나를 아직 이집트에 붙잡아 두셨네. 내가 그분들께 흠 없는 큰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신들은 사람들이 늘 당신들의 명령을 기억하기를 바라시거든. 물결이 거세게 부딪치는 바다 한가운데, 이집트 앞바다에 사람들이 파로스라고 부르는 섬이 하나 있었네. 맑은 소리를 내며 부는 순풍을

뒤에 받은 우묵한 배가 온종일 달려야 닿을 만큼 떨어진 곳이었지. 거기에는 배를 대기 좋은 포구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서 검은 물을 길어 균형 잡힌 배를 바다로 띄웠네. 신들은 나를 거기에 스무 날 동안 붙잡아 두셨고, 바다 위로 불어 배를 바다의 넓은 등으로 실어 보내 줄 바람은 한 번도 불지 않았네. 어떤 여신이 나를 가엾게 여겨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양식도 사내들의 기운도 다 떨어지고 말았을 걸세. 바다 노인, 굳센 프로테우스의 딸 에이도테아였지. 내가 그 여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크게 움직였던 모양이네. 전우들과 떨어져 홀로 헤매는 나를 그 여신이 만났네. 전우들은 굶주림에 배를 쥐어짜이며 늘 섬을 돌아다니면서 굽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낚고 있었지. 여신은 내 곁에 다가와 서서 목소리를 내어 말했네."

371 "'나그네, 그대는 어쩌면 그토록 어리석고 생각이 모자라는가? 아니면 일부러 손을 놓고서 고통을 겪는 것을 즐기는가? 이렇게 오래 섬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벗어날 길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니, 그대 전우들의 가슴은 점점 사그라든다.'"

375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네. '여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제 뜻으로 여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께 제가 죄를 지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신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들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불사의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 제 발을 묶어 길을 막으셨는지, 제 귀향을, 물고기 많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말입니다.'"

382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에이도테아가 곧 대답했네. '그렇다면 나그네, 숨김없이 다 말해 주마. 바다에 사는, 거짓 없는 노인이 이곳을 자주 드나든다. 이집트의 프로테우스, 죽지 않는 신으로, 온 바다의 깊은 곳을 다 알고 포세이돈을 섬기는 종이다.

사람들은 그가 내 아버지이고 나를 낳았다고들 한다. 그대가 어떻게든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그대의 길과 뱃길의 길이와 귀향을, 물고기 많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일러 줄 것이다. 제우스가 기른 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가 멀고 고된 길을 떠나 있는 동안 그대 집 홀에서 벌어진 나쁜 일과 좋은 일도 일러 줄 것이다.'"

394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네. '그러면 여신께서 몸소 그 신 같은 노인을 붙잡을 매복을 궁리해 주십시오. 노인이 저를 미리 보거나 미리 알아채고 피해 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죽을 운명의 사내가 신을 꺾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398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에이도테아가 곧 대답했네. '그렇다면 나그네, 숨김없이 다 말해 주마.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걸릴 무렵이면, 바다에 사는, 거짓 없는 노인이 서풍의 입김을 받아 검게 이는 잔물결에 덮인 채 바다에서 나와 우묵한 동굴 아래 누워 잠을 잔다. 그 둘레에는 아름다운 바다 여신의 새끼들인 물범들이 잿빛 바다에서 솟아올라 떼 지어 잠을 자는데, 깊은 바다의 쓰디쓴 냄새를 내뿜는다. 새벽이 밝아 오면 내가 그대를 그리로 데려가 나란히 눕혀 주겠다. 그대는 갑판 튼튼한 배들 곁에 있는 전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셋을 잘 골라 두어라. 이제 그 노인의 술수를 모두 일러 주마. 노인은 먼저 물범들을 세며 하나하나 돌아볼 것이다. 다섯씩 세어 가며 모두 보고 나면, 양 떼 한가운데 누운 목자처럼 그 한가운데 누울 것이다. 그가 자리에 누운 것을 보거든 그때는 힘과 완력을 다 쏟아라. 그가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버둥거려도 그 자리에 붙들어 두어라. 노인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이 되어 보려 할 것이고, 물이 되고 무섭게 타오르는 불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대들은 흔들림 없이 붙잡고 더욱 세게 눌러라. 그러다 그대들이 잠든 모습을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와 노인이 몸소 말로 그대에게 묻거든, 영웅이여, 그때는 힘을

늦추고 노인을 풀어 주어라. 그리고 신들 가운데 누가 그대를 괴롭히는지, 그대의 귀향을, 물고기 많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여신이 물결치는 바다 속으로 잠겨 들자, 나는 배들이 모래밭에 서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는 내내 내 가슴은 이리저리 들끓었네. 배와 바다로 내려가 저녁을 차리자 거룩한 밤이 찾아왔고, 그제야 우리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누워 잠이 들었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길이 넓은 바다의 기슭을 따라 걸으며 신들께 거듭 간절히 빌었네. 그리고 무슨 일에서든 가장 믿을 만한 전우 셋을 데리고 갔네."

435 "그사이 여신은 바다의 넓은 품속으로 잠겨 들어가 물범 가죽 넉 장을 바다에서 가져왔는데, 모두 갓 벗긴 가죽이었고 여신은 그것으로 제 아버지를 속일 꾀를 꾸미고 있었네. 여신은 바닷가 모래밭에 잠자리를 파 놓고 앉아 기다렸고, 우리는 여신 바로 곁으로 다가갔네. 여신은 우리를 나란히 눕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죽을 덮어 주었네. 그때 그 매복은 참으로 끔찍할 뻔했네. 바다에서 자란 물범들의 지독한 냄새가 끔찍이도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누가 바다 짐승 곁에 누워 잠을 자겠나? 그러나 여신이 몸소 우리를 구해 주고 큰 도움을 궁리해 냈네. 여신은 아주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암브로시아를 가져와 저마다의 코밑에 대 주어 짐승의 냄새를 없애 주었네. 우리는 참는 마음으로 아침 내내 기다렸네. 물범들이 바다에서 떼 지어 나와 파도치는 바닷가에 줄지어 눕자, 한낮에 노인이 바다에서 나와 살진 물범들을 찾아내고는 모두 돌아보며 수를 세었네. 노인은 우리를 맨 먼저 짐승들 틈에 넣어 세었고, 속임수가 있으리라고는 마음속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네. 그러고 나서 노인도 누웠네. 우리는 고함을 지르며 덤벼들어 두 팔로 노인을 끌어안았네. 노인도 교활한 재주를 잊지 않았네. 맨 처음에는 갈기가 탐스러운 사자가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뱀이 되고 표범이 되고

커다란 멧돼지가 되었고, 흐르는 물이 되고 잎이 높이 달린 나무가 되었네. 우리는 참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었네. 마침내 술수를 아는 노인이 지쳐서 내게 말로 물었네."

462 "'아트레우스의 아들, 신들 가운데 누가 그대와 함께 꾀를 궁리해 주어, 숨어 기다리다가 마다하는 나를 붙잡게 했느냐? 그대는 무엇이 필요하냐?'"

464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네. '노인장, 아시면서 어찌 저를 따돌리려고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 섬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벗어날 길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제 가슴은 속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장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들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불사의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 제 발을 묶어 길을 막으셨는지, 제 귀향을, 물고기 많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말입니다.'"

471 "내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이 곧 대답했네. '그대는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 훌륭한 제물을 바치고 나서 배에 올랐어야 했다. 그래야 포도주빛 바다를 건너 한시라도 빨리 고향에 닿았을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강, 이집트강[2]의 물로 다시 가서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께 신성한 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보고 잘 지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갈 운명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야 신들이 그대가 바라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481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네. 아득한 바다를 건너 이집트로 다시 가라고 하니, 멀고 고된 길이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노인에게 말로 대답했네."

485 "'노인장,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은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네스토르와 제가 트로이에서 떠나오며 두고 온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무사히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제 배 위에서 쓰라린 파멸을 맞았거나, 전쟁을 끝까지 치러 내고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서 죽었습니까?'"

491 "내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이 곧 대답했네. '아트레우스의 아들, 어찌하여 그런 것을 캐묻느냐? 그대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내 속을 알아낼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을 낱낱이 듣고 나면 그대는 오래도록 울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쓰러졌고 많은 이가 살아남았다.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귀향길에 죽은 이는 둘뿐이다. 싸움터에서 죽은 이들은 그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살아서 넓은 바다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

499 "'아이아스는 노가 긴 배들과 함께 쓰러졌다. 포세이돈은 처음에 그를 기라이의 큰 바위들로 몰아갔다가 바다에서 구해 주었으니, 아테나의 미움을 받았어도 그는 죽음의 운명을 벗어났을 것이다. 방자한 말을 내뱉어 크게 미혹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신들의 뜻을 거슬러 바다의 큰 아가리를 벗어났다고 떠벌렸다. 포세이돈은 그가 큰소리치는 것을 듣고 곧 억센 두 손에 삼지창을 들고 기라이 바위를 내리쳐 둘로 쪼갰다. 한쪽은 그 자리에 남고 쪼개진 조각은 바다로 떨어졌는데, 아이아스가 처음 걸터앉아 크게 미혹에 빠졌던 바로 그 조각이었다. 조각은 그를 끝없이 물결치는 바다 아래로 끌고 갔다. 그렇게 그는 짠물을 들이켜고 거기서 죽었다.'"

512 "'그대의 형은 우묵한 배를 타고 죽음의 운명을 피해 달아났다. 존귀한 헤라가 그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말레아의 가파른 곶에 막 이르려 할 때, 돌풍이 그를 낚아채 몹시 신음하는 그를 물고기 많은 바다로 실어 가서 들판 끝자락으로 데려갔다. 예전에는 티에스테스가 집을 짓고 살았고 그때는 티에스테스의 아들 아이기스토스가 살던 곳이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무사히 돌아갈 길이 보이고 신들이 바람을

되돌려 주어 일행이 고향에 닿자, 아가멤논은 기뻐하며 고향 땅에 발을 디디고는 고향 땅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반가운 땅을 보자 그에게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꾀가 음흉한 아이기스토스가 데려다 세워 둔 파수꾼이 망대에서 그를 보았다. 아이기스토스는 그에게 금 두 탈란톤을 품삯으로 주기로 했고, 파수꾼은 아가멤논이 몰래 지나가 거센 용맹을 떠올리는 일이 없도록 한 해 동안 지키고 있었다. 파수꾼은 백성의 목자에게 소식을 알리러 집으로 갔다. 아이기스토스는 곧 교활한 계략을 궁리해 냈다. 고장에서 가장 뛰어난 사내 스무 명을 골라 매복을 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잔치를 차리게 했다. 그러고는 흉한 일을 꾀하며 말과 수레를 몰고 백성의 목자 아가멤논을 부르러 갔다. 파멸이 닥친 줄 모르는 그를 데려와서는 저녁을 먹이고는, 누가 구유 곁에서 소를 잡듯이 죽였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따르던 전우들도, 아이기스토스의 사람들도 하나 남김없이 홀에서 죽었다.'"

538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네. 나는 모래밭에 앉아 울었고, 내 가슴은 더 살고 싶지도 햇빛을 보고 싶지도 않았네. 울며 뒹굴다 지쳤을 때에야 바다에 사는, 거짓 없는 노인이 내게 말했네."

543 "'아트레우스의 아들, 더는 이렇게 오래도록 끝없이 울지 마라. 운다고 무슨 끝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고향 땅에 닿을 수 있을지 애써 보아라. 그대는 그자를 살아 있을 때 붙잡거나, 아니면 오레스테스가 먼저 그자를 죽였을 테니 그대는 장례 잔치에 가게 될 것이다.'"

548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비통하던 내 가슴과 굳센 마음이 가슴속에서 다시 따뜻해졌네. 나는 노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네."

551 "'그 두 사람 일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을 대 주십시오. 아직 살아서 넓은 바다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비통하더라도 듣고 싶습니다.'"

554 "내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이 곧 대답했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다. 이타카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 나는 그가 섬에서, 님프 칼립소의 집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칼립소가 그를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어서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다. 노 달린 배도 전우도 없으니, 바다의 넓은 등 너머로 그를 실어 보내 줄 이가 없다. 그러나 제우스가 기른 메넬라오스여, 그대는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에서 죽어 운명을 맞을 몫이 아니다. 불사의 신들이 그대를 땅끝 엘리시온 들판[3]으로 보낼 것이다. 금발의 라다만티스가 사는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더없이 편한 곳이다. 눈도 내리지 않고 혹독한 겨울도 비도 없으며, 오케아노스가 늘 맑은 소리로 부는 서풍의 입김을 올려 보내 사람들의 몸을 식혀 준다. 그대는 헬레네를 아내로 맞았으니 신들에게는 제우스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노인이 물결치는 바다 속으로 잠겨 들자, 나는 신에 버금가는 전우들과 함께 배로 갔는데, 가는 내내 내 가슴은 이리저리 들끓었네. 배와 바다로 내려가 저녁을 차리자 거룩한 밤이 찾아왔고, 그제야 우리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누워 잠이 들었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우리는 맨 먼저 배들을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리고 균형 잡힌 배마다 돛대를 세우고 돛을 실었네. 전우들도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네. 나란히 줄지어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네. 나는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강, 이집트강으로 다시 가서 배를 세우고 흠 없는 큰 제물을 바쳐 영원히 사는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힌 다음, 아가멤논의 명성이 꺼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무덤을 쌓았네. 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불사의 신들이 순풍을 주시어 나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서둘러 보내 주셨네. 자, 이제 열하루째, 열이틀째 되는 날까지 내 홀에 머물게. 그때 내가 자네를 잘 보내 주겠네. 빛나는 선물로 말 세

필과 반들반들하게 다듬은 수레를 주고, 그다음에는 아름다운 잔을 주겠네. 그 잔으로 불사의 신들께 술을 따라 바치며 평생토록 나를 기억하게."

593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저를 여기 오래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한 해라도 왕 곁에 앉아 견딜 수 있고, 집 생각도 부모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왕의 이야기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우니까요. 그러나 성스러운 필로스에서는 벌써 전우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데, 왕께서는 저를 이렇게 오래 여기 붙잡아 두십니다. 주실 선물이 있다면 간직할 보물로 주십시오. 말은 이타카로 데려가지 않고 왕께 자랑거리로 여기 남겨 두겠습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넓은 들판에는 로토스가 많고, 방동사니와 밀과 스펠트 밀과 이삭이 넓게 퍼지는 흰 보리가 자라지만, 이타카에는 넓은 경주로도 풀밭도 없습니다. 염소를 먹이는 땅이지만, 말을 먹이는 땅보다 제게는 더 사랑스럽습니다. 바다에 기대어 누운 섬 가운데 말을 몰 만하거나 풀밭이 좋은 섬은 하나도 없고, 이타카는 그 가운데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609 그가 이렇게 말하자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가 빙그레 웃으며 그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611 "젊은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자네는 좋은 핏줄을 타고났군. 그렇다면 그 선물은 바꿔 주겠네. 나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집에 쌓아 둔 보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주겠네. 잘 만든 술동이를 주겠네. 온통 은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는 금으로 마무리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일세. 시돈인의 왕, 영웅 파이디모스가 내게 준 것인데,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에 묵었을 때였네. 그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620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잔치 손님들이 신 같은 왕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양을 몰고 오고 사내들의 기운을 돋우는 포도주를 가져왔으며, 머릿수건이 고운 그들의 아내들이 빵을 보내오니, 그렇게 그들은 홀에서 저녁 준비에 바빴다. 그동안 구혼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집 앞, 잘 다져 놓은 마당에서 전처럼 오만을 부리며 원반과 창을 던지며 즐겼다. 안티노오스와 신을 닮은 에우리마코스는 앉아 있었다. 구혼자들의 우두머리로, 빼어남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자들이었다. 프로니오스의 아들 노에몬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안티노오스에게 말로 물었다.

632 "안티노오스, 텔레마코스가 모래 많은 필로스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우리가 속으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 사람이 내 배를 끌고 갔으니 말일세. 나는 그 배를 타고 땅이 넓은 엘리스로 건너가야 하는데, 거기 내 암말 열두 마리와 그 젖을 먹는, 힘든 일을 견디는 길들지 않은 노새들이 있네. 그 가운데 한 마리를 몰고 와 길들이고 싶네."

638 노에몬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마음속으로 놀랐다. 그들은 텔레마코스가 넬레우스의 필로스로 갔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어디 이 근처 들판에 양 떼 곁이나 돼지치기 곁에 있으리라 여겼다.

641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말을 받았다. "숨김없이 말해 주게. 그가 언제 떠났나? 어떤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갔나? 이타카에서 골라 뽑은 자들인가, 아니면 그 집 품팔이꾼과 종들인가? 그 녀석이라면 그런 짓도 해낼 수 있겠지.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 주게.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그가 자네 뜻을 거슬러 억지로 검은 배를 빼앗아 갔나, 아니면 그가 말로 매달리기에 자네가 기꺼이 내주었나?"

648 프로니오스의 아들 노에몬이 대답했다. "내가 기꺼이 내주었네. 그런 사람이 마음에 시름을 안고 청하는데 다른 누구라도 어쩌겠나? 그

청을 마다하기는 어려웠을 걸세. 그를 따라간 젊은이들은 우리 다음으로 이 고장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네. 배에 오르는 이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멘토르가 보였는데, 멘토르였는지 신이었는지는 모르겠네. 무엇이든 멘토르와 꼭 닮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네. 어제 이른 아침에 나는 고귀한 멘토르를 여기서 보았는데, 그때 그는 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단 말일세."

657 이렇게 말하고 노에몬은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다. 두 사람의 굳센 마음은 몹시 노여웠다. 그들은 구혼자들을 한데 불러 앉히고 시합을 그치게 했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안티노오스는 비통해하고 있었다. 검게 휩싸인 그의 속은 노기로 가득 차올랐고,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 같았다.

663 "허, 텔레마코스가 이번 길을 방자하게도 큰일을 해내듯 해치웠네.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리라 여겼는데 말일세.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뜻을 거슬러 새파란 녀석이 배를 끌어내고 고장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골라 그냥 떠나 버렸으니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올 걸세. 제우스께서 녀석이 젊음의 한창때에 이르기 전에 그 힘을 꺾어 버리시기를! 자, 내게 날랜 배 한 척과 전우 스무 명을 주게. 녀석이 돌아오는 길에 이타카와 험한 사모스 사이의 해협에서 숨어 기다리며 지키겠네. 아버지를 찾아 떠난 녀석의 뱃길이 비참하게 끝나도록 말일세."

67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옳다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은 곧 일어나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갔다.

675 페넬로페는 구혼자들이 속으로 깊이 꾸미고 있는 계략을 오래 모르고 있지 않았다. 그 꾀를 엿들은 전령 메돈이 왕비에게 일러 주었으니, 메돈은 안뜰 밖에 있었고 그들은 안에서 꾀를 짜고 있었다.

메돈이 페넬로페에게 알리러 집 안을 가로질러 가서 문지방을 넘어서자, 페넬로페가 그에게 말했다.

681 "전령, 당당한 구혼자들이 무엇 하러 자네를 보냈나?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하녀들에게 일손을 놓고 저희에게 잔치를 차려 주라고 이르라던가? 구혼도 그만두고 다른 데서 어울리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먹는 저녁이 저들의 마지막 저녁, 정말 마지막 저녁이 되기를! 당신들은 자주 모여들어 많은 살림을, 슬기로운 텔레마코스의 재산을 거덜 내고 있소. 어릴 때 당신들은 아버지들에게서, 오디세우스가 당신들의 부모와 어떻게 지냈는지 들은 적이 없소? 그는 고장에서 누구에게도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없었소. 신 같은 왕들의 법도란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아끼는 것이지만,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모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소. 그런데 당신들의 속과 흉한 짓은 이렇게 드러나고, 베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은 뒷날 어디에도 없구려."

696 생각 깊은 메돈이 말을 받았다. "왕비님, 부디 그것이 가장 큰 화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그보다 훨씬 크고 고약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기를! 저들은 텔레마코스 도련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카로운 청동으로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아버지 소식을 들으러 성스러운 필로스와 고귀한 스파르타로 떠났습니다."

703 메돈이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다. 오래도록 말문이 막혔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낭랑하던 목소리가 막혔다. 한참 만에야 페넬로페는 메돈에게 말로 대답했다.

707 "전령, 내 아이가 어찌하여 떠났나? 그 애가 날랜 배에 오를 까닭은 하나도 없었네. 배는 사내들에게 바다의 말이 되어 드넓은 물

위를 건너가게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제 이름조차 남지 않게 하려고 그랬단 말인가?"

711 생각 깊은 메돈이 대답했다. "어떤 신이 도련님을 부추겼는지, 아니면 도련님 스스로 마음이 일어 필로스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귀향 소식이나, 아버지께서 어떤 운명을 맞으셨는지 알아보시려고 가셨습니다."

715 이렇게 말하고 메돈은 오디세우스의 집 안으로 떠났다. 마음을 갉아먹는 슬픔이 페넬로페를 휩쌌다. 집 안에 의자가 많았지만 페넬로페는 더는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고, 공들여 지은 방의 문지방에 주저앉아 애처롭게 흐느꼈고, 집 안에 있던 하녀들도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그 둘레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들 가운데서 페넬로페가 북받치는 울음 속에 말했다.

722 "들어 보아라, 얘들아. 올림포스의 신께서는 나와 함께 태어나 자란 여인들 가운데 누구보다 내게 고통을 많이 주셨다. 나는 먼저 사자 같은 마음을 지닌 훌륭한 남편을 잃었다. 다나오스인들 가운데 온갖 빼어남으로 이름난 훌륭한 분, 헬라스와 아르고스 한복판까지 명성이 널리 퍼진 분이었다. 이제는 또 회오리바람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아무 영광도 없이 홀에서 낚아채 가 버렸다. 그 애가 떠나는 줄도 나는 듣지 못했다. 모진 것들, 너희는 그 애가 우묵한 검은 배에 오른 때를 속으로 똑똑히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를 잠자리에서 깨울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그 애가 이 길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더라면, 아무리 길을 서둘렀어도 그 애는 여기 남았거나, 아니면 홀에 죽은 나를 두고 떠났을 것이다. 누가 어서 돌리오스 노인을 불러오너라. 내가 이리 올 때 아버지께서 딸려 보내 주신 내 종으로, 나무가 우거진 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이다. 어서 라에르테스 곁에 앉아 이 일을 모두 일러 드리게 하겠다. 혹시 그분이 속으로 무슨 꾀를 짜내 백성 앞에 나가

하소연하실지도 모른다. 저들은 그분의 핏줄이자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의 핏줄을 끊어 버리려 하니까."

742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새아기, 무자비한 청동으로 저를 죽이시든 홀에 그냥 두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말씀은 숨기지 않을게요. 저는 이 일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시키는 대로 빵과 달콤한 술을 내드렸고요. 도련님은 열이틀째 되는 날이 오기 전에는, 아니면 새아기가 몸소 도련님을 찾다가 떠났다는 걸 듣기 전에는 새아기께 말하지 않겠다고 제게 큰 맹세를 받았어요. 새아기가 우시다가 고운 얼굴을 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몸에 걸치시고,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가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아테나께 기도하시면, 그 여신이 도련님을 죽음에서라도 구해 주실 거예요. 시름에 시달리는 노인을 더 시름겹게 하지는 마세요. 복된 신들께서 아르케이시오스의 아드님 집안을 아주 미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붕 높은 집과 멀리 떨어진 기름진 밭을 다스릴 사람이 아직 어딘가 남아 있을 거예요."

758 유모가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었다. 페넬로페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몸에 걸친 뒤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가, 바구니에 보릿가루를 담고 아테나에게 기도했다.

762 "들어 주소서,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따님, 지칠 줄 모르는 여신이시여.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언젠가 홀에서 여신께 소나 양의 살진 넓적다리뼈를 태워 바친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일을 떠올리시어 제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 주시고, 못되게 오만한 구혼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767 이렇게 말하고 페넬로페가 높이 외쳐 부르짖자 여신이 그 기도를 들었다. 구혼자들은 그늘진 홀 안에서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다.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770 "많은 이가 구혼하는 왕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혼인을 마련하시는군. 제 아들에게 죽음이 닥쳐왔다는 건 조금도 모르시고."

772 누군가 이렇게 말하곤 했으나, 그들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안티노오스가 말을 꺼내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774 "이 사람들아, 그런 방자한 말은 모두 삼가게. 누가 안에까지 일러바칠지 모르니. 자,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 모두 속으로 옳다고 여긴 그 일을 해치우세."

778 이렇게 말하고 안티노오스는 가장 뛰어난 사내 스무 명을 골라 날랜 배와 바닷가로 갔다. 그들은 맨 먼저 배를 깊은 바다로 끌어내리고, 검은 배에 돛대를 세우고 돛을 실었으며, 가죽 고리에 노를 끼워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춘 다음 흰 돛을 활짝 폈다. 기세 높은 시종들이 그들의 무기를 날라 왔다. 그들은 배를 물가에서 떨어진 앞바다에 띄워 매어 두고 배에서 내려, 거기서 끼니를 들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787 한편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위층 방에 그대로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 죽음을 피할지 아니면 방자한 구혼자들에게 쓰러질지 이리저리 궁리했다. 사자가 사람들 무리 속에서 겁에 질려, 사람들이 교활한 올가미처럼 둥글게 저를 에워쌀 때면 이리저리 궁리할 때가 있다. 꼭 그처럼 궁리하던 페넬로페에게 깊고 달콤한 잠이 찾아왔다. 페넬로페는 몸을 뒤로 기댄 채 잠이 들었고, 온몸의 마디가 풀렸다.

795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여신은 허깨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기개 높은 이카리오스의 딸 이프티메를 닮아 있었다. 페라이에 집을 두고 사는 에우멜로스가 아내로 맞은 여인이었다. 여신은 슬피 울며 탄식하는 페넬로페를 달래 울음과 눈물 섞인 탄식을 그치게 하려고, 그 허깨비를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보냈다. 허깨비는 빗장 끈 곁으로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 페넬로페의 머리맡에 서서 말을 건넸다.

804 "페넬로페, 가슴이 그토록 시름에 잠긴 채 자고 있소? 편히 사는 신들께서는 당신이 울고 슬퍼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오. 당신 아들은 아직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아이는 신들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소."

808 그러자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꿈의 문간에서 아주 달콤하게 졸면서 허깨비에게 대답했다.

810 "아우, 어찌 여기 왔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두고 살아서, 전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잖소. 당신은 내 속과 마음을 괴롭히는 숱한 괴로움과 아픔을 그치라고 하는구려. 나는 먼저 사자 같은 마음을 지닌 훌륭한 남편을 잃었소. 다나오스인들 가운데 온갖 빼어남으로 이름난 훌륭한 분, 헬라스와 아르고스 한복판까지 명성이 널리 퍼진 분이었소. 이제는 또 사랑하는 아들이 우묵한 배를 타고 떠났소. 고생도 모르고 회의에서 말하는 법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요. 나는 남편보다 그 아이 때문에 더 슬프오. 그 아이가 간 나라 사람들한테서든 바다에서든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떨리고 두렵소. 적의를 품은 자들이 여럿 그 아이를 노려 일을 꾸미고 있소. 그 아이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죽이려 하고 있소."

824 어렴풋한 허깨비가 대답했다. "마음을 놓으시오. 속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른 사내들도 곁에 서 주기를 빌곤 하는 그런 길잡이가 그 아이와 함께 가고 있소. 팔라스 아테나 말이오. 그 여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신이 슬피 우는 당신을 가엾게 여겨,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나를 보냈소."

830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당신이 정말 신이고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자, 그 가엾은 사람 이야기도 들려주시오.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 살아서 햇빛을 보고 있소, 아니면 벌써 죽어 하데스의 집에 가 있소?"

835 어렴풋한 허깨비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낱낱이 말해 줄 수 없소. 바람 같은 헛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소."

838 이렇게 말하고 허깨비는 문설주의 빗장 곁으로 빠져나가 바람의 입김 속으로 사라졌다. 이카리오스의 딸은 잠에서 벌떡 깨어났다. 깊은 밤에 그토록 뚜렷한 꿈이 찾아왔기에 페넬로페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842 구혼자들은 배에 올라 물길을 따라 나아가며, 텔레마코스에게 가파른 죽음을 안길 궁리를 속으로 하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 이타카와 험한 사모스 사이에 바위가 많은 섬이 하나 있었다. 크지 않은 아스테리스섬으로, 거기에는 양쪽으로 배를 대기 좋은 포구가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은 거기서 숨어 그를 기다렸다.

---

1.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다. 한 탈란톤이 얼마만 한 무게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호메로스에서는 귀한 선물이나 상으로 내주는 금을 셀 때 쓴다.

2. 나일강을 가리킨다. 호메로스에는 나일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강도 그 땅과 같은 이름 아이깁토스(Aigyptos)로 부른다.

3. 엘리시온 들판은 신들이 아끼는 사람을 죽음 없이 데려가 살게 한다는, 땅끝의 들판이다. 오케아노스는 사람 사는 땅을 빙 둘러 흐른다고 여긴 큰 강으로, 해와 별이 그 물에서 떠올라 그 물로 진다.

제5권

1 새벽 여신이 불사의 신들과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려고, 당당한 티토노스 곁의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신들은 회의 자리에 앉았고 그 가운데에는 높은 데서 천둥 치는 제우스, 가장 큰 권능을 지닌 신이 있었다.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의 숱한 시름을 떠올리며 신들에게 이야기했다. 님프의 집에 붙잡혀 있는 그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7 "아버지 제우스와 영원히 사는 다른 복된 신들이시여, 이제는 왕홀을 쥔 왕이 누구든 기꺼이 다정하고 너그럽게 굴려 하지 말고, 속에 바른 도리를 새기려 하지도 말 일입니다. 차라리 늘 모질게 굴고 못된 짓만 저지를 일입니다. 신 같은 오디세우스가 다스리던 백성 가운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너그러운 분이었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섬에서, 님프 칼립소의 집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며 누워 있습니다. 칼립소가 그를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어서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노 달린 배도 전우도 없으니, 바다의 넓은 등 너머로 그를 실어 보내 줄 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또 저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소식을 들으러 성스러운 필로스와 고귀한 스파르타로 떠났습니다."

21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내 딸아, 무슨 말이 네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왔느냐?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서 저들에게 앙갚음을

하리라는 그 생각은 바로 네가 궁리해 낸 것이 아니냐? 텔레마코스는 네가 솜씨 좋게 이끌어 주어라. 너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가 아무 탈 없이 고향 땅에 닿고, 구혼자들은 배를 타고 헛걸음으로 되돌아가게 해라."

28 이렇게 말하더니 제우스는 사랑하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헤르메스야, 너는 다른 일에서도 우리의 심부름꾼이니, 머리채 고운 님프에게 우리가 굳게 정한 뜻을 알려라.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다만 그는 신들의 배웅도 죽을 운명의 인간들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단단히 묶은 뗏목을 타고 고난을 겪으며 가다가 스무 날째에 흙이 기름진 스케리아, 신들과 가까운 핏줄인 파이아케스인의 땅에 닿는다. 그들은 마음 깊이 그를 신처럼 받들고 배에 태워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보내 줄 것이며, 청동과 황금과 짠 옷을 넉넉히, 한없이 많은 선물을 줄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제 몫의 전리품을 받아 무사히 돌아왔다 해도 결코 가져오지 못했을 만큼 많은 선물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보고 지붕 높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

43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는 그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곧 발에 아름다운 신을 매었다. 거룩한 황금 신으로, 바람의 입김과 함께 그를 물 위로도 끝없는 땅 위로도 날라 주는 신이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마음 내키는 사람의 눈을 홀려 잠재우기도 하고 잠든 사람을 다시 깨우기도 하는 지팡이였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르고스를 죽인 굳센 신은 날아갔다. 피에리아에 내려선 그는 높은 하늘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물결 위를 내달렸다. 갈매기가 거둘 것 없는 바다의 무시무시한 물굽이를 오가며 물고기를 잡다가 촘촘한 날개를 짠물에 적실 때가 있다. 꼭 그처럼 헤르메스는 숱한 물결을 타고 달렸다. 멀리 떨어진 그 섬에 이르자 헤르메스는

보랏빛 바다에서 뭍으로 올라 걸어가, 머리채 고운 님프가 사는 커다란 동굴에 이르렀다. 님프는 안에 있었다. 화덕에는 큰불이 타올라 잘 쪼개지는 백향목과 향나무가 타는 냄새가 섬 곳곳에 멀리까지 퍼졌고, 님프는 안에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베틀 앞을 오가면서 황금 북으로 천을 짜고 있었다. 동굴 둘레에는 오리나무와 백양나무와 향기로운 측백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날개가 긴 새들, 올빼미와 매와 혀가 긴 바다까마귀가 거기 깃들었는데, 바다까마귀는 바다 일에 마음을 쓰는 새였다. 우묵한 동굴 둘레로는 한창 무르익은 포도나무가 뻗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샘 네 개가 나란히 맑은 물을 흘려보냈는데,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저마다 다른 쪽으로 흘렀다. 둘레에는 제비꽃과 미나리가 자라는 부드러운 풀밭이 꽃을 피우고 있어서, 불사의 신이라도 그곳에 오면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는 거기 서서 그 모든 것을 보며 감탄했다. 마음껏 감탄하고 나서 그는 곧 넓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는 그를 마주 보자 대번에 알아보았다. 불사의 신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나 헤르메스는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를 안에서 만나지 못했으니, 오디세우스는 늘 그랬듯이 바닷가에 앉아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제 마음을 찢으며 울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둘 것 없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는 헤르메스를 반들반들 빛나는 의자에 앉히고 물었다.

87 "황금 지팡이의 헤르메스, 어찌 내게 왔소? 존귀하고 반가운 손님이지만, 전에는 자주 오지 않았잖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해 주라고 내 마음이 시키오. 자, 안으로 더 들어오시오. 당신 앞에 손님 선물을 내놓겠소."

92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암브로시아를 가득 담은 식탁을 그 앞에 차려 놓고 붉은 넥타르를 섞었다.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는 마시고 먹었다. 배불리 저녁을 먹어 마음이 든든해지자, 그는 칼립소에게 말로 대답했다.

97 "여신인 당신이 신인 내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는구려. 당신이 시키니 사실대로 말하겠소.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제우스께서 이리 가라고 이르셨소. 신들께 제물과 골라 뽑은 큰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의 도시 하나 가까이 없는 곳까지, 누가 이렇게 끝도 없는 짠물을 제 발로 건너오고 싶겠소? 그러나 다른 어떤 신도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뜻을 피해 가거나 헛되게 할 수는 결코 없소. 제우스께서 말씀하시기를, 프리아모스의 도시 둘레에서 아홉 해 동안 싸우고 열째 해에 도시를 무너뜨린 뒤 집으로 떠난 사내들 가운데 누구보다 불행한 사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하셨소. 그들은 귀향길에 아테나에게 죄를 지었고, 여신은 그들에게 사나운 바람과 높은 물결을 일으켰으니, 그때 다른 훌륭한 전우들은 모두 죽었고, 그 사람만은 바람과 물결이 이리로 실어다 닿게 했소. 제우스께서는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보내라고 이르셨소. 그는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진 이곳에서 죽을 몫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보고 지붕 높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그의 운명이오."

116 헤르메스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는 몸서리를 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모진 신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보다 시샘이 많구려. 여신이 어떤 사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삼아 드러내 놓고 잠자리를 같이하면 당신들은 언짢아하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오리온을 데려갔을 때도, 편히 사는 신들이여, 당신들은 그렇게 언짢아했고, 마침내 황금 옥좌의 순결한 아르테미스가 오르티기아에서 부드러운 화살로 그를 찾아가 죽였소. 머리채 고운 데메테르가 제

마음에 이끌려 세 번 갈아엎은 묵정밭에서 이아시온과 사랑과 잠자리로 어울렸을 때도, 제우스는 오래지 않아 그 일을 알아채고 번쩍이는 벼락을 던져 그를 죽였소. 신들이여, 이제는 또 죽을 운명의 사내가 내 곁에 있다고 당신들이 언짢아하는구려. 그 사내가 용골에 걸터앉아 홀로 떠밀려 왔을 때 내가 그를 구해 주었소. 제우스가 포도주 빛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날랜 배를 번쩍이는 벼락으로 내리쳐 산산이 부수었기 때문이오. 그때 다른 훌륭한 전우들은 모두 죽었고, 그 사람만은 바람과 물결이 이리로 실어다 닿게 했소. 나는 그를 다정하게 아끼고 돌보아 주었고, 언제까지나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 주겠다고 했소. 그러나 다른 어떤 신도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뜻을 피해 가거나 헛되게 할 수는 결코 없으니, 제우스가 그를 재촉하며 명령한다면 거둘 것 없는 바다 위로 가 버리라지. 하지만 나는 결코 그를 보내 줄 수 없소. 내게는 노 달린 배도 전우도 없으니, 바다의 넓은 등 너머로 그를 실어 보내 줄 이가 없소. 다만 그가 아무 탈 없이 고향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기꺼이 일러 주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소."

145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제우스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시오. 그분이 뒷날 앙심을 품고 당신에게 모질게 굴지 않도록 말이오."

148 이렇게 말하고 아르고스를 죽인 굳센 신은 떠나갔다. 존귀한 님프는 제우스의 전갈을 듣고서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에게 갔다. 칼립소가 찾아가 보니 그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두 눈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귀향을 그리며 슬퍼하는 사이 달콤한 목숨이 흘러가 버리고 있었다. 님프는 이제 더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밤이면 그는 우묵한 동굴에서 바라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바라는 여신 곁에 누워 잤다. 그러나 낮이면 바위와 바닷가에 앉아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제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거둘 것 없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그의 곁에 다가서서 말을 걸었다.

160 "가엾은 사람, 이제 더는 여기서 슬퍼하지 말고 목숨을 사그라뜨리지도 마라. 이제 내가 기꺼이 그대를 떠나보내겠다. 자, 긴 나무를 베어 청동 연장으로 다듬어 맞추어 넓은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높직이 갑판을 박아라. 그것이 아득한 바다 위로 그대를 실어 가도록. 나는 그대가 굶주리지 않도록 마음에 흡족할 만큼 빵과 물과 붉은 포도주를 실어 주고 옷을 입혀 주겠다. 그리고 그대가 아무 탈 없이 고향 땅에 닿도록 뒤에서 순풍을 보내 주겠다.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그 신들은 생각하는 데도 이루는 데도 나보다 뛰어나니까."

171 칼립소가 이렇게 말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몸서리를 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여신이여, 당신은 나를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꾀를 꾸미고 있구려. 뗏목을 타고 바다의 큰 아가리를 건너라니. 그 바다는 무시무시하고 고되어서, 날래게 달리는 균형 잡힌 배들도 제우스의 순풍을 받아 기뻐하면서도 건너지 못하오. 여신이여, 당신이 내게 다른 재앙이나 해를 꾸미지 않겠다고 큰 맹세를 해 주지 않는 한, 나는 당신 뜻을 거슬러서는 뗏목에 오르지 않겠소."

180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빙그레 웃으며 그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그대는 정말 못된 사람이로구나. 그래도 어리석지는 않다.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해내다니. 땅과 그 위의 넓은 하늘과 흘러내리는 스틱스강 물이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그것이 복된 신들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맹세다. 그대에게 다른 재앙이나 해를 꾸미지 않겠다. 나는 내게 그만한 일이 닥친다면 나 자신을 위해 궁리했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있다.

내 생각은 바르고, 내 가슴속 마음도 무쇠가 아니라 가엾게 여길 줄 안다."

192 이렇게 말하고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재빨리 앞장서자 오디세우스는 여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여신과 사내는 우묵한 동굴에 이르렀고,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가 일어난 바로 그 의자에 앉았다. 님프는 죽을 운명의 인간이 먹는 온갖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그 앞에 차려 놓고, 자신은 신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았다. 하녀들이 여신 앞에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놓았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시며 흡족해지자,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먼저 말을 꺼냈다.

203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이렇게 지금 당장 집으로,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떠나고 싶으냐? 그래도 잘 가라. 하지만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이 그대의 몫인지 속으로 안다면, 그대는 날마다 늘 그리는 아내를 보고 싶어 애태운다 해도 여기 나와 함께 머물며 이 집을 지키고 죽지 않는 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생김새로도 몸매로도 그 여인보다 못하지 않다고 자부한다. 죽을 운명의 여인이 생김새나 모습으로 불사의 여신과 겨루는 것은 결코 걸맞지 않은 일이다."

214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존귀한 여신이여, 이 일로 내게 노여워하지 마시오. 나도 다 잘 알고 있소.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마주 보기에 생김새도 키도 당신보다 못하오. 그 사람은 죽을 운명이고 당신은 죽지도 늙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날마다 집에 돌아가 귀향의 날을 보기를 바라고 그리워하오. 어떤 신이 포도주 빛 바다 위에서 또다시 나를 쳐부순다 해도, 나는 시름을 견디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참아 내겠소. 나는 이미 물결 속에서도 싸움터에서도 숱한 고통을 겪고 숱한 고생을 했소. 이번 일도 거기에 하나 더 보태지면 그만이오."

225 그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은 우묵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서로 곁에 머물며 사랑을 즐겼다.

228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오디세우스는 곧 외투와 윗옷을 입었고, 님프 자신은 얇고 우아한 은빛 큰 겉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황금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너울을 썼다. 그러고는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를 보낼 채비를 궁리했다. 여신은 그에게 손에 꼭 맞는 커다란 청동 도끼를 주었다. 양쪽으로 날을 세운 도끼였고, 거기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더없이 아름다운 자루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어서 잘 다듬은 자귀도 주었다. 그리고 키 큰 나무들이 자라는 섬 끝자락으로 앞장서 갔는데, 거기에는 오리나무와 백양나무와 하늘까지 닿는 전나무가 있었고, 오래전에 말라 바싹 마른 나무들이라 물에 가볍게 뜰 터였다. 키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을 보여주고 나서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는 집으로 돌아갔고,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베었다. 일은 빠르게 나아갔다. 그는 나무 스무 그루를 모두 쓰러뜨려 청동 도끼로 다듬고, 솜씨 있게 깎아 먹줄에 맞춰 곧게 폈다. 그사이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송곳을 가져오자, 그는 나무마다 구멍을 뚫어 서로 맞추고 나무못과 이음목으로 뗏목을 단단히 짜 맞추었다. 배 짓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넓은 짐배의 바닥을 둥그렇게 다듬어 만들 때가 있다. 꼭 그처럼 넓게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만들었다. 그는 촘촘한 버팀목에 맞추어 갑판을 세우고 긴 널빤지를 대어 마무리했다. 그 위에 돛대를 세우고 돛대에 맞는 활대를 달았으며, 배를 몰 수 있도록 키도 만들었다. 그리고 물결을 막는 울타리가 되도록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뗏목 둘레를 빈틈없이 막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수북이 깔았다. 그사이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돛을 만들 천을 가져왔고, 그는 그것도 솜씨 좋게 지었다. 그는 뗏목에 활대 줄과 돛줄과 아래 돛 줄을 매고, 지렛대로 뗏목을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렸다.

262 넷째 날이 되자 모든 일이 끝났다. 닷새째 되는 날 고귀한 칼립소는 그를 목욕시키고 향기로운 옷을 입혀 섬에서 떠나보냈다. 여신은 뗏목에 검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하나와 물을 담은 큰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자루에 양식도 넣어 주었으며, 마음에 흡족할 만큼 찬거리도 많이 실어 주었다. 그리고 해롭지 않고 따뜻한 순풍을 보내 주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순풍을 반기며 돛을 폈다. 그는 앉아서 솜씨 있게 키를 잡고 배를 몰았다. 플레이아데스와 늦게 지는 보오테스와, 사람들이 수레라고도 부르는 큰곰자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꺼풀 위로는 잠이 내려앉지 않았다. 큰곰자리는 제자리에서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았고, 별들 가운데 홀로 오케아노스의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다.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그 별자리를 왼쪽에 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에게 일러 두었다. 그는 열이레 동안 바다를 건너 나아갔고, 열여드레째 되는 날 파이아케스인의 땅의 그늘진 산들이 나타났다. 그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 땅은 아득한 바다 위에 놓인 방패처럼 보였다.

282 대지를 흔드는 왕 포세이돈이 에티오피아인들에게서 돌아오다가 멀리 솔리모이족의 산에서 그를 보았다.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가 눈에 띄었다. 포세이돈은 속으로 더욱 노여워하며 머리를 흔들고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286 "허, 내가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가 있는 사이에 신들이 오디세우스를 두고 정녕 생각을 바꾸었구나. 그는 벌써 파이아케스인의 땅 가까이 와 있다. 그를 옭아맨 크나큰 고난의 굴레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몫이다. 그래도 나는 그를 아직 실컷 재앙 속으로 몰아넣을 테다."

291 이렇게 말하고 포세이돈은 구름을 모으고 손에 삼지창을 들어 바다를 휘저었다. 온갖 바람의 돌풍을 모두 일으켜 땅과 바다를 함께

구름으로 덮자, 하늘에서 밤이 내리덮쳤다. 동풍과 남풍과 사납게 부는 서풍과, 맑은 하늘에서 태어난 북풍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큰 물결을 굴려 댔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다. 그는 속을 끓이며 제 늠름한 마음에 대고 말했다.

299 "아아, 가련한 이 몸, 끝내 내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 여신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일까 두렵다. 여신은 내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바다에서 고통을 다 채우리라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제우스가 넓은 하늘을 저런 구름으로 휘감고 바다를 휘저으니, 온갖 바람의 돌풍이 몰아치는구나. 이제 가파른 파멸이 내게 틀림없이 닥쳤다. 그때 넓은 트로이 땅에서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을 위해 애쓰다 죽은 다나오스인들은 세 곱절, 네 곱절 복되다. 펠레우스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둘러싸고 트로이인들이 내게 청동 창을 수없이 던지던 그날 나도 차라리 죽어 운명을 맞았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장례를 받았을 테고 아카이아인들이 내 명성을 널리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비참한 죽음에 붙잡힐 운명이구나."

313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큰 물결이 무시무시하게 덮쳐 와 위에서 그를 내리치고 뗏목을 빙글 돌려 놓았다. 그는 뗏목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고 손에서 키를 놓쳤다. 뒤엉킨 바람들이 몰아쳐 온 무시무시한 돌풍이 돛대를 한가운데서 부러뜨렸고, 돛과 활대는 멀리 바다로 떨어졌다. 물결은 그를 오랫동안 물속에 처박아 두었고, 고귀한 칼립소가 준 옷이 물을 먹어 무겁게 짓누르는 바람에 그는 큰 물결의 기세에 눌려 금세 떠오르지 못했다. 한참 만에야 그는 물 위로 떠올라 입에서 쓰디쓴 짠물을 뱉어 냈고, 머리에서도 짠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렇게 지쳤어도 그는 뗏목을 잊지 않았다. 물결 속에서 뒤쫓아가 뗏목을 붙잡고, 죽음의 끝을 피하려고 그 한가운데에 앉았다. 큰 물결이 물살을 따라 뗏목을 이리저리 실어 갔다. 늦여름의 북풍이 들판 위로

엉겅퀴 덤불을 날려 보낼 때가 있다. 덤불은 서로 촘촘히 엉겨 붙은 채 이리저리 굴러간다. 꼭 그처럼 바람이 바다 위로 뗏목을 이리저리 실어 갔다. 남풍이 북풍에게 뗏목을 던져 실어 가게 하는가 하면, 동풍이 서풍에게 넘겨주어 뒤쫓게 하기도 했다.

333 카드모스의 딸, 발목이 고운 이노가 그를 보았다. 레우코테아라고도 하는 이노는 전에는 사람의 말을 하는 죽을 운명의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넓은 바다에서 신들의 명예를 나누어 받고 있었다. 이노는 고통을 겪으며 떠도는 오디세우스를 가엾게 여겨, 날아오르는 바다오리처럼 물속에서 솟아올라 단단히 묶은 뗏목 위에 앉아 말했다.

339 "가엾은 사람,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어찌하여 이토록 끔찍이 그대에게 노여워하며 숱한 재앙을 심어 대는가? 그러나 그가 아무리 벼른다 해도 그대를 아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라. 그대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 같지는 않구나. 이 옷을 벗고 뗏목은 바람에 실려 가게 내버려 두고, 두 팔로 헤엄쳐 파이아케스인의 땅으로 귀향하도록 애써라. 그곳에서 그대는 벗어날 운명이다. 자, 이 불멸의 머릿수건을 가슴 밑에 둘러라. 그러면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죽지도 않을 테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나 두 손으로 뭍을 붙잡거든 그것을 풀어 뭍에서 멀리 포도주 빛 바다로 도로 던지고, 그대는 고개를 돌려라."

351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머릿수건을 건넨 다음, 바다오리처럼 물결치는 바다 속으로 도로 잠겨 들었다. 검은 물결이 여신을 덮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속을 끓이며 제 늠름한 마음에 대고 말했다.

356 "아아, 불사의 신들 가운데 누가 또 내게 속임수를 짜고 있는 것은 아닐까? 뗏목에서 내리라고 이르다니. 아니, 아직은 따르지 않겠다. 여신이 내가 달아날 곳이라고 한 땅이 내 눈에는 아직 멀리 보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나무들이 이음매에 맞물려 있는 동안은 여기 머물며 고통을 겪더라도 참아 내다가, 물결이 뗏목을 산산이 흩어 버리면 그때는 헤엄치겠다. 그보다 나은 수는 생각해 낼 수 없으니까."

365 그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무시무시하고 고약한 큰 물결을 일으켜 지붕처럼 그를 덮치게 했다. 물결이 그를 내리치자 뗏목의 긴 나무들이 흩어졌다. 거센 바람이 바싹 마른 왕겨 더미를 휘몰아칠 때가 있다. 바람은 왕겨를 이리저리 흩어 놓는다. 꼭 그처럼 물결이 뗏목의 긴 나무들을 흩어 놓았다. 오디세우스는 나무 하나에 올라타 경주마를 몰듯 두 다리로 감싸고, 고귀한 칼립소가 준 옷을 벗었다. 그러고는 곧 머릿수건을 가슴 밑에 두르고, 헤엄치려고 두 팔을 활짝 펴고 바다로 엎드려 뛰어들었다. 대지를 흔드는 왕이 그것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377 "그렇게 숱한 재앙을 겪으며 바다 위를 떠돌다가 제우스가 기른 사람들 틈에 섞여 보아라. 그래도 나는 네가 재앙이 모자랐다고 불평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380 이렇게 말하고 포세이돈은 갈기 고운 말들에 채찍질을 하여, 이름난 집이 있는 아이가이로 갔다.

382 그러나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다른 생각을 해냈다. 여신은 다른 바람들의 길을 묶어 놓고 모두 그치고 잠들라고 일렀다. 그리고 날랜 북풍을 일으켜 그의 앞쪽 물결을 부수었다. 제우스의 핏줄인 오디세우스가 죽음을 피하고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노 젓기를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들 틈에 섞일 때까지.

388 거기서 그는 이틀 밤 이틀 낮을 거센 물결에 떠밀려 다녔고, 그의 가슴은 몇 번이고 파멸을 내다보았다. 머리채 고운 새벽 여신이 셋째 날을 가져오자 그제야 바람이 그치고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해졌다. 큰

물결에 들려 올라간 그는 앞을 날카롭게 내다보다가 가까이 있는 땅을 보았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모진 고통을 겪으며 오랫동안 시들어 갈 때가 있다. 몹쓸 어떤 신이 그를 덮쳐 괴롭히는데, 마침내 신들이 반갑게도 그를 재앙에서 풀어 주면, 되살아난 아버지의 목숨이 자식들에게는 더없이 반갑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에게는 땅과 숲이 반가웠고, 그는 어서 두 발로 뭍을 밟고 싶어 서둘러 헤엄쳤다. 뭍에서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큼 떨어진 곳에 이르자, 바다의 바위에 부딪치는 굉음이 들려왔다. 큰 물결이 마른 뭍에 부딪쳐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며 포효했고, 온 사방이 바다의 물보라에 휩싸였다. 배를 품어 줄 포구도 물결을 막아 줄 곳도 없고, 툭 튀어나온 곶과 암초와 바위 벼랑뿐이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다. 그는 속을 끓이며 제 늠름한 마음에 대고 말했다.

408 "아아, 제우스께서 생각지도 못한 땅을 보게 해 주셨고 나는 이 큰 바다를 가르며 건너왔건만, 잿빛 바다에서 빠져나갈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구나. 바깥쪽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솟아 있고 그 둘레에서 물결이 철썩이며 으르렁거린다. 매끈한 벼랑이 치솟아 있고 바로 앞부터 바다가 깊어,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뭍으로 올라서려다 큰 물결이 나를 낚아채 울퉁불퉁한 바위에 내던질까 두렵다. 그러면 내 애씀은 헛일이 될 것이다. 더 앞으로 헤엄쳐 가서 비스듬히 물결을 받는 바닷가나 바다의 포구를 찾아보려 해도, 다시 돌풍이 나를 낚아채 몹시 신음하는 나를 물고기 많은 바다로 실어 갈까 두렵다. 아니면 어떤 신이 이름난 암피트리테가 숱하게 기르는 큰 바다 짐승 하나를 바다에서 내게 덤벼들게 할지도 모른다. 이름난, 땅을 뒤흔드는 신이 내게 얼마나 노여워하는지 나는 안다."

424 그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 큰 물결이 그를 울퉁불퉁한 바닷가로 실어 갔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의 속에

생각을 넣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졌을 것이다. 그는 덤벼들어 두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큰 물결이 지나갈 때까지 신음하며 매달려 있었다. 그렇게 그 물결은 피했지만, 되밀려 온 물결이 다시 덤벼들어 그를 내리쳐 멀리 바다로 내던졌다. 바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의 억센 두 손에서 살갗이 벗겨졌다. 문어를 굴에서 끌어낼 때가 있다. 그러면 빨판마다 자잘한 돌이 촘촘히 달라붙어 따라 나온다. 꼭 그처럼 그의 억센 두 손에서 벗겨진 살갗이 바위에 붙어 남았다. 큰 물결이 그를 덮었다.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슬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더라면, 가엾은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정해진 몫을 넘어 죽었을 것이다. 그는 뭍으로 부서져 오르는 물결에서 빠져나와, 비스듬히 물결을 받는 바닷가나 바다의 포구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땅 쪽을 바라보며 물가를 따라 헤엄쳐 갔다. 그러다 아름답게 흐르는 강의 어귀에 헤엄쳐 이르렀는데, 바위가 없이 매끈하고 바람도 막아 주는 곳이라,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로 보였다. 그는 흘러나오는 강의 신을 알아보고 속으로 기도했다.

445 "들어 주소서, 왕이시여, 어느 신이시든. 바다에서 포세이돈의 꾸짖음을 피해 달아나며, 숱한 기도를 받는 왕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떠돌다 찾아온 사람은 불사의 신들께도 존귀합니다. 숱한 고생을 겪은 끝에 이제 왕의 물결과 왕의 무릎 앞에 찾아온 저처럼 말입니다. 왕이시여, 가엾게 여기소서. 저는 왕께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451 그가 이렇게 말하자 강의 신은 곧 흐름을 멈추고 물결을 붙잡아 그의 앞을 잔잔하게 해 주어, 강어귀로 그를 구해 들였다. 그는 두 무릎과 억센 두 손을 꺾고 주저앉았다. 바다에 짓눌려 그의 가슴은 꺾여 있었다. 온몸이 부어올랐고 입과 콧구멍에서는 바닷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는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기운이 다해 누워 있었고, 끔찍한 피로가 그를 덮쳤다. 이윽고 숨을 돌리고 가슴에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여신의 머릿수건을 몸에서 풀어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에 던졌다. 큰 물결이 그것을 물살을 따라 도로 실어 가자 이노가 곧 사랑스러운 두 손으로 받았다. 오디세우스는 강에서 물러나 골풀 덤불 아래 몸을 눕히고 곡식을 내는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속을 끓이며 제 늠름한 마음에 대고 말했다.

465 "아아, 나는 무슨 일을 겪으려나? 끝내 내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 강가에서 괴로운 밤을 지새우면, 기운이 다한 나를 모진 서리와 촉촉한 이슬이 한꺼번에 덮쳐 숨이 끊어질 듯한 내 목숨을 꺾어 버릴까 두렵다. 새벽녘에는 강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다고 비탈을 올라 그늘진 숲으로 들어가 빽빽한 덤불 속에서 잠이 든다면, 추위와 피로가 나를 놓아주고 달콤한 잠이 찾아온다 해도 짐승들의 먹이와 밥이 될까 두렵다."

474 그렇게 궁리하던 그에게는 그편이 더 나아 보였다. 그는 숲으로 갔다. 숲은 물가 가까이, 사방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는 한 뿌리에서 나란히 자란 덤불 두 그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하나는 야생 올리브나무였고 하나는 올리브나무였다. 축축하게 부는 바람의 기운도 그 덤불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고, 빛나는 해도 햇살로 비추지 못했으며, 비도 스며들지 못했다. 그만큼 덤불은 서로 촘촘히 얽혀 자라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곧 제 손으로 넓은 잠자리를 긁어모았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두세 사람은 넉넉히 덮어 줄 만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한가운데 누워 낙엽을 몸 위에 수북이 끼얹었다. 이웃이 아무도 없는 들판 끝자락에 사는 사람이 다른 데서 불을 얻어 올 수 없으니 불씨를 지키려고, 타다 남은 장작을 검은 잿더미 속에 묻어 둘 때가 있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는 낙엽으로 몸을

덮었다. 아테나가 그의 두 눈에 잠을 쏟아부어 사랑스러운 눈꺼풀을 감싸 덮고, 괴롭고 고된 피로를 어서 그치게 해 주었다.

제6권

1 그렇게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잠과 피로에 지쳐 거기서 잠들었다. 그사이 아테나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고장과 도시로 갔다. 파이아케스인들은 예전에 땅이 넓은 히페레이아에 살았는데, 그곳은 오만한 사내들인 키클롭스 가까이였고, 힘이 더 센 키클롭스는 그들을 괴롭히곤 했다. 그래서 신을 닮은 나우시토오스가 그들을 일으켜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스케리아에 자리 잡게 하고, 도시 둘레에 성벽을 두르고 집들을 짓고 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밭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나우시토오스는 이미 죽음의 운명에 꺾여 하데스의 집으로 간 뒤였고, 그때는 신들에게서 지혜를 얻은 알키노오스가 다스리고 있었다.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궁리하던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는 그 알키노오스의 집으로 갔다. 여신은 공들여 꾸민 방으로 들어갔다. 생김새와 모습이 불사의 여신들 같은 아가씨, 기개 높은 알키노오스의 딸 나우시카아가 거기서 자고 있었고, 카리테스에게서 아름다움을 받은 시녀 둘이 문설주 양쪽에 하나씩 곁에서 자고 있었으며, 반들거리는 문짝은 닫혀 있었다. 여신은 바람의 입김처럼 아가씨의 침대로 다가가 머리맡에 서서, 나우시카아와 동갑이며 나우시카아가 마음으로 아끼는 동무인, 배로 이름난 디마스의 딸 모습을 하고 말을 건넸다. 그렇게 그 딸의 모습을 빌려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말했다.

25 "나우시카아, 네 어머니는 어쩌다 이렇게 게으른 너를 낳으셨니? 반들거리는 고운 옷들은 손도 안 댄 채 쌓여 있는데 네 혼인 날은 가까웠고, 그날엔 너도 고운 옷을 입어야 하고 너를 데려갈 사람들에게도 내줘야 하잖아.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 좋은 소문이 나고,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도 기뻐하셔. 자, 날이 밝으면 빨래하러 가자. 나도 너를 도우러 함께 갈게. 네가 어서 채비를 마치도록. 너도 이제 오래 처녀로 지내지는 않을 테니까. 네 핏줄이 난 이 고장의 모든 파이아케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벌써 너에게 구혼하고 있잖아. 자, 날이 밝기 전에 이름난 아버지께 노새와 수레를 마련해 달라고 졸라. 허리띠와 겉옷과 반들거리는 덮개를 실어 가게. 너도 걸어가는 것보다 수레를 타고 가는 편이 훨씬 나아. 빨래터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41 이렇게 말하고 빛나는 눈의 아테나는 올림포스로 떠나갔다. 사람들 말로는 그곳이 신들이 사는 자리로, 언제나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 그곳은 바람에 흔들리지도 비에 젖지도 않고 눈이 덮이지도 않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활짝 펼쳐져 있고 하얀 빛이 그 위를 감돌며, 복된 신들은 날마다 거기서 즐겁게 지낸다. 아가씨에게 일러 준 다음 빛나는 눈의 여신은 그리로 떠나갔다.

48 곧 아름다운 옥좌의 새벽 여신이 찾아와 고운 겉옷을 입은 나우시카아를 깨웠다. 아가씨는 곧 꿈을 이상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려고 집 안을 가로질러 갔다. 두 사람은 안에 있었다. 어머니는 시녀들과 함께 화덕 곁에 앉아 바다처럼 짙은 자줏빛 실을 물레로 잣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름난 왕들과 함께 당당한 파이아케스인들이 그를 부른 회의에 가려고 문밖으로 나서는 참이었다. 나우시카아는 아버지와 마주치자 바짝 다가서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57 "아버지, 높고 바퀴가 좋은 수레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름난 옷들을 강으로 가져가 빨려고요. 더러워진 채 쌓여 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가장 높은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려면 몸에 깨끗한 옷을 입으셔야 마땅하고요. 홀에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섯이나 있잖아요. 둘은 장가를 들었고 셋은 한창때의 총각이에요. 그 애들은 늘 새로 빤 옷을 입고 춤추러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일이 다 제 마음에 걸려요."

66 나우시카아는 이렇게 말했다. 꽃다운 혼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워서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말로 대답했다. "얘야, 노새도 다른 무엇도 너에게 아까울 것 없다. 가거라. 종들이 덮개를 단, 높고 바퀴가 좋은 수레를 마련해 줄 것이다."

71 이렇게 말하고 알키노오스가 종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 말을 따랐다. 종들이 밖에서 바퀴가 잘 굴러가는 노새 수레를 마련하고 노새들을 끌어다 수레에 매는 동안, 아가씨는 방에서 빛나는 옷을 가져와 반들반들 다듬은 수레에 실었다. 어머니는 바구니에 마음에 흡족할 만큼 온갖 음식을 담고 찬거리도 넣고, 염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부어 주었다. 아가씨가 수레에 오르자 어머니는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한 뒤 몸에 바르도록 황금 병에 담은 맑은 올리브기름도 주었다. 나우시카아는 채찍과 반들거리는 고삐를 잡고 노새들을 몰려고 채찍질을 했다. 노새들은 달그락 소리를 내며 쉬지 않고 힘껏 내달려 옷과 아가씨를 실어 갔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시녀들도 함께 갔다.

85 그들은 더없이 아름다운 강의 흐름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빨래터들이 있었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씻어 낼 만큼 맑은 물이 철철 흘러넘쳤다. 그들은 수레에서 노새들을 풀어, 소용돌이치는 강가에서 꿀처럼 달콤한 풀을 뜯게 몰아 보내고, 수레에서 옷을 손으로

내려 검은 물에 담근 다음 빨래 구덩이에서 서로 다투어 재빨리 발로 밟았다. 다 빨아 때를 모두 씻어 낸 다음에는, 바다가 뭍 쪽으로 자갈을 가장 깨끗이 씻어 놓은 바닷가에 옷을 줄지어 널었다. 그러고는 목욕을 하고 올리브기름을 반들반들하게 바른 다음 강둑에서 끼니를 들며 옷이 햇볕에 마르기를 기다렸다. 아가씨와 시녀들은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머릿수건을 벗어 던지고 공놀이를 했고, 하얀 팔의 나우시카아가 그들에게 노래를 이끌었다. 화살을 쏟아붓는 아르테미스가 산을 따라, 높고 긴 타이게토스산이나 에리만토스산을 따라 멧돼지와 날랜 사슴을 사냥하며 즐겁게 다닐 때가 있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들, 들판에 사는 님프들이 여신과 함께 뛰놀고, 레토는 속으로 기뻐한다. 아르테미스는 그들 모두보다 머리와 이마가 높이 솟아, 모두가 아름다워도 여신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꼭 그처럼 혼인하지 않은 처녀 나우시카아는 시녀들 가운데서 돋보였다.

110 그러나 노새를 수레에 매고 고운 옷을 개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 눈매 고운 아가씨를 보고, 그 아가씨가 그를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도시로 데려가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공주가 시녀에게 공을 던졌는데, 공은 시녀를 빗나가 깊은 소용돌이에 떨어졌다.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앉아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궁리했다.

119 "아아,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의 땅에 왔는가? 오만하고 사나워 도리를 모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나그네를 반기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인가? 아가씨들의 여린 외침이 내 둘레에 울렸다. 높은 산봉우리와 강의 샘과 풀 우거진 풀밭에 사는 님프들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 와 있는 것일까? 자, 내가 몸소 가서 알아보아야겠다."

127 이렇게 말하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덤불 밑에서 기어 나와, 억센 손으로 빽빽한 숲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 하나를 꺾어 몸에서 사내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그러고는 걸어 나갔다. 산에서 자란 사자가 제 힘을 믿고 비에 젖고 바람을 맞으며 나아갈 때가 있다. 두 눈은 이글거리고, 사자는 소나 양이나 들사슴을 쫓아간다. 배고픔이 양 떼를 노려 단단한 우리 안까지 들어가라고 사자를 몰아세운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는 벌거벗은 몸으로나마 머리채 고운 아가씨들 틈에 끼어들려 했다. 그만큼 궁했다. 짠물에 더럽혀진 그의 모습이 아가씨들에게는 무시무시하게 보여서, 그들은 튀어나온 바닷가 여기저기로 흩어져 달아났고, 알키노오스의 딸만 홀로 남았다. 아테나가 그 가슴에 용기를 넣어 주고 팔다리에서 두려움을 거두어 갔다. 아가씨는 마주 선 채 버티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궁리했다. 눈매 고운 아가씨의 무릎을 잡고 빌까[1], 아니면 그냥 떨어져 서서 상냥한 말로 빌어 도시를 가르쳐 주고 옷을 달라고 할까. 그렇게 궁리하던 그에게는 떨어져 서서 상냥한 말로 비는 편이 더 나아 보였다. 무릎을 잡았다가 아가씨가 속으로 노여워할까 두려웠다. 그는 곧 상냥하고 꾀바른 말을 꺼냈다.

149 "아가씨, 무릎을 잡고 빕니다. 여신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시라면, 저는 생김새와 키와 몸매로 보아 아가씨를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 아르테미스께 가장 가깝게 견주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시라면, 이런 꽃다운 아가씨가 춤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이 아가씨 때문에 늘 기쁨으로 따뜻해질 테니, 아가씨의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는 세 곱절 복되고 형제들도 세 곱절 복됩니다. 그러나 구혼 선물을 누구보다 많이 바쳐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갈 사람이야말로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복된 사람일 겁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니 경외감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언젠가 델로스에서 아폴론의 제단 곁에 이런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갓 돋은 종려나무의 어린 줄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도 갔었고 많은 사람이 저를 따랐지요. 제게 고약한 시름을 안기게 될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보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 나무는 땅에서 솟아오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꼭 그처럼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우러르며 넋을 잃었고, 아가씨의 무릎을 잡기가 몹시 두렵습니다. 고된 슬픔이 제게 닥쳤습니다. 어제, 스무 날째 되는 날에야 저는 포도주 빛 바다를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물결과 날랜 돌풍이 오기기아섬에서부터 저를 내내 실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신이 저를 이곳에 내던졌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재앙을 겪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고생이 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신들이 아직 많은 일을 이루실 테니까요. 그러니 아가씨,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숱한 재앙을 겪고 나서 제가 맨 처음 찾아온 분이 아가씨입니다. 이 도시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게 도시를 가르쳐 주시고, 이리로 오실 때 옷가지를 싸 오신 보자기라도 있으면 몸에 두를 넝마를 주십시오. 신들께서 아가씨가 속으로 바라는 것을 모두 주시기를! 남편과 집을 주시고 훌륭한 한마음도 주시기를! 남편과 아내가 생각을 같이하며 한마음으로 집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고 훌륭한 일은 없으니, 적들에게는 크나큰 괴로움이고 벗들에게는 기쁨이며, 누구보다 그 두 사람 자신이 그 기쁨을 가장 잘 압니다."

186 하얀 팔의 나우시카아가 대답했다. "나그네, 당신은 못되거나 생각 없는 사람 같지 않구려.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 몸소 사람들에게, 훌륭한 이에게든 못된 이에게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오. 당신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도 그분이시니, 그래도

당신은 참아 내야 하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우리 도시와 우리 땅에 왔으니, 고생에 지친 탄원자가 찾아왔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 옷이든 다른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을 것이오. 도시도 가르쳐 주고 이 백성의 이름도 일러 주겠소. 이 도시와 땅에 사는 이들은 파이아케스인이고, 나는 기개 높은 알키노오스의 딸이오. 파이아케스인의 힘과 권세가 그분에게서 나오오."

198 이렇게 말하더니 나우시카아는 머리채 고운 시녀들에게 일렀다. "시녀들아, 거기 서라. 사내 하나를 보고 어디로 달아나느냐? 설마 적의를 품은 사내라고 여기는 것이냐? 적의를 품고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땅에 올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불사의 신들께 무척 사랑받으니까. 우리는 물결이 거세게 부딪치는 바다 한가운데, 세상 맨 끝에 떨어져 살고,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와 오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떠돌다 이리로 온 불운한 사람이니 이제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 나그네와 거지는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 말이다. 주는 것은 작아도 정이 담겨 있다. 자, 시녀들아, 손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리고, 바람을 막아 주는 곳에서 강물에 씻겨 드려라."

211 나우시카아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멈춰 서서 서로를 불러 세웠고, 기개 높은 알키노오스의 딸 나우시카아가 이른 대로 바람을 막아 주는 곳에 오디세우스를 앉혔다. 시녀들은 그 곁에 겉옷과 윗옷을 옷으로 내려놓고, 황금 병에 담은 맑은 올리브기름을 주며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권했다. 그때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시녀들 가운데서 말했다. "시녀들이여, 거기 그렇게 좀 떨어져 서 주시오. 내 손으로 어깨의 짠물을 씻어 내고 몸에 올리브기름을 바르겠소. 내 살갗에 기름이 닿은 지 정말 오래되었소. 당신들 앞에서는 씻지 않겠소. 머리채 고운 아가씨들 사이에 가서 알몸이 되기는 부끄러우니까."

223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떨어져 가서 아가씨에게 알렸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강물로 등과 넓은 어깨를 덮은 짠물을 씻어 내고, 머리에서 거둘 것 없는 바다의 거품 찌꺼기를 닦아 냈다. 온몸을 다 씻고 기름을 반들반들하게 바른 다음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준 옷을 입자,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그를 보기에 더 크고 더 다부지게 만들고, 머리에서는 히아신스꽃 같은 곱슬머리를 늘어뜨려 주었다. 솜씨 좋은 사람이 은에 금을 입힐 때가 있다.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나에게서 온갖 기술을 배운 장인이라, 그가 만든 것은 우아하다. 꼭 그처럼 아테나가 그의 머리와 어깨에 우아함을 쏟아부었다. 그는 바닷가로 떨어져 가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빛나며 앉았다. 아가씨는 그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러고는 머리채 고운 시녀들에게 말했다.

239 "하얀 팔의 시녀들아,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할 말이 있다. 이 사람이 신에 버금가는 파이아케스인들 사이에 섞이게 된 것은 올림포스에 사는 모든 신의 뜻을 거스른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볼품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 같구나.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 불리며 여기 살고, 여기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시녀들아, 손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려라."

247 나우시카아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그 말을 귀담아듣고 따라, 오디세우스 곁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차려 놓았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허겁지겁 마시고 먹었다. 오랫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터였다.

251 하얀 팔의 나우시카아는 다른 생각을 해냈다. 아가씨는 옷을 개어 아름다운 수레에 싣고, 발굽이 단단한 노새들을 맨 다음 몸소 수레에 올라, 오디세우스를 재촉하며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나그네, 이제 일어나 도시로 갑시다. 슬기로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당신을 데려다주겠소. 거기서 당신은 파이아케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렇게 하시오. 당신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 같지는 않구려. 우리가 들판과 사람들이 일구는 밭을 지나는 동안에는 시녀들과 함께 노새와 수레를 따라 서둘러 걸어오시오. 길은 내가 앞장서 이끌겠소. 그러나 도시에 다다르면 사정이 다르오. 도시 둘레에는 높은 성벽이 있고, 도시 양쪽에는 아름다운 포구가 있으며, 들어가는 입구는 좁소. 양 끝이 휜 배들이 길가로 끌어 올려져 있는데, 저마다 제 배를 대어 둘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이오. 거기에는 아름다운 포세이돈 신전 둘레에 회의장이 있는데, 끌어다 땅에 박은 돌을 짜 맞추어 지었소. 사람들은 거기서 검은 배의 장비, 밧줄과 돛을 손질하고 노를 깎아 다듬소. 파이아케스인들은 활이나 화살통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돛대와 배의 노와 균형 잡힌 배에 마음을 쓰니, 그 배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잿빛 바다를 건너다니오. 나는 그들의 쓰라린 입방아를 피하고 싶소. 뒷날 누가 나를 헐뜯지 않도록 말이오. 이 고장에는 몹시 방자한 자들이 있으니, 어느 못된 자가 우리를 마주치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오. '나우시카아를 따라오는 저 잘생기고 큰 나그네는 누구야? 어디서 저자를 찾아냈지? 저 아가씨의 남편이 되겠군. 먼 데서 온 사람들 가운데 길을 잃은 자를 제 배에서 데려왔겠지. 가까이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아가씨가 빌고 빌던 어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가씨가 평생토록 그를 차지하려나. 몸소 나서서 다른 데서 남편을 찾아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지. 이 고장에서 그토록 많고 훌륭한 파이아케스인들이 구혼하는데도 업신여기니 말이야.' 그들은 이렇게 말할 테고, 그것이 내게는 수치가 될 것이오. 나 역시 그런 짓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언짢게 여길 것이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도 그분들의 뜻을 거슬러, 버젓이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사내들과 어울리는 여자 말이오. 나그네, 그러니 내 말을 어서 알아들으시오. 그래야 내 아버지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배웅과 귀향을 얻을 수 있소.

길가에서 백양나무가 우거진 아테나의 빛나는 숲을 만날 텐데, 그 안에는 샘이 흐르고 둘레에는 풀밭이 있으며, 거기에 내 아버지의 땅과 꽃이 한창인 과수원이 도시에서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큼 떨어져 있소. 우리가 도시로 가서 아버지의 집에 닿을 때까지 거기 앉아 잠시 기다리시오. 우리가 집에 닿았겠다 싶거든, 그때 파이아케스인의 도시로 들어가 기개 높은 내 아버지 알키노오스의 집을 물으시오. 파이아케스인의 다른 집들은 영웅 알키노오스의 집과는 전혀 다르게 지어졌으니, 그 집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철없는 아이라도 길을 안내할 수 있소. 집과 안뜰이 당신을 감싸거든 어서 홀을 지나 내 어머니에게 가시오. 어머니는 화덕 곁에서 불빛을 받으며 기둥에 기대앉아 바다처럼 짙은 자줏빛 실을 물레로 잣고 계실 텐데, 보기에도 놀라운 모습이오. 시녀들이 그 뒤에 앉아 있을 것이오. 거기에는 아버지의 옥좌가 어머니 곁에 기대어 놓여 있어서, 아버지는 거기 앉아 불사의 신처럼 포도주를 드시오. 아버지를 지나쳐 가서 내 어머니의 무릎을 두 팔로 끌어안으시오. 그래야 당신이 아무리 먼 데서 왔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어서 귀향의 날을 보게 될 것이오. 어머니께서 당신을 마음속으로 좋게 여기시기만 하면,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보고 잘 지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갈 희망이 생길 것이오."

316 이렇게 말하고 나우시카아는 빛나는 채찍으로 노새들을 쳤다. 노새들은 곧 강의 물줄기를 떠나, 발을 잘 놀리며 바삐 달렸고, 아가씨는 시녀들과 오디세우스가 걸어서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고삐를 잘 다루며 생각해서 채찍을 썼다. 해가 질 무렵 일행은 아테나의 이름난 신성한 숲에 이르렀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거기 앉아 곧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기도했다. "들어 주소서,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따님, 지칠 줄 모르는 여신이시여. 이름난, 땅을 뒤흔드는 신이 저를 쳐부술 때 쳐부서지는 저를 전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이번만은 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가 파이아케스인들에게 반가운 사람으로, 가엾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가게 해 주소서."

328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팔라스 아테나가 그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아테나는 아직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형제인 포세이돈을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포세이돈은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가 제 땅에 닿을 때까지 그에게 품은 노여움을 사납게 불태웠다.

---

1. 호메로스의 사람들은 탄원할 때 상대의 무릎을 끌어안거나 턱을 만지며 빌었다. 이렇게 탄원하는 사람은 제우스가 지켜 준다고 여겨, 함부로 물리치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믿었다.

제7권

1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 노새 두 마리는 힘차게 아가씨를 도시로 실어 갔다. 아버지의 이름 높은 궁전에 이르자 아가씨는 문간에 수레를 세웠고, 불사의 신들과 같은 오라비들이 둘레에 몰려와 서서 수레에서 노새를 풀고 옷가지를 안으로 날라 들였다. 나우시카아는 제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서는 아페이레에서 온 늙은 여인, 방 시중을 드는 에우리메두사가 불을 피워 주었다. 에우리메두사는 오래전 양 끝이 휜 배들이 아페이레에서 실어 온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알키노오스에게 명예의 몫으로 골라 바쳤으니, 알키노오스는 모든 파이아케스인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백성은 신의 말을 듣듯 그의 말을 들었다. 하얀 팔의 나우시카아를 그 집에서 길러 낸 것도 이 여인이었다. 그 늙은 여인이 이제 아가씨를 위해 불을 지피고 방 안에 저녁을 차렸다.

14 그때 오디세우스도 도시로 가려고 일어섰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를 아끼는 마음에서, 기상 높은 파이아케스인 누구와 마주치더라도 빈정대는 말을 듣거나 누구냐는 물음을 받지 않도록 그의 둘레에 짙은 안개를 부어 감쌌다. 그가 막 사랑스러운 도시로 들어서려 할 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물동이를 든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그와 마주쳤다. 여신이 그의 앞에 멈춰 서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물었다.

22 "얘야, 이 고장 사람들을 다스리는 알키노오스라는 분의 집으로 나를 데려다주지 않겠느냐? 나는 먼먼 나라에서 숱한 고생을 겪고 이곳에 온 나그네라, 이 도시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아무도 모른단다."

27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그럼요, 나그네 어르신, 말씀하신 그 집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무랄 데 없는 우리 아버지 댁 바로 가까이에 사시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따라오세요. 길은 제가 앞장설게요.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마시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리 너그럽게 봐주지 않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을 반가이 맞아 아껴 주지도 않아요. 대지를 흔드는 신께서 내려 주신 날래고 빠른 배를 믿고 큰 바다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배는 새의 날개처럼, 아니 생각처럼 빨라요."

37 이렇게 말하고 팔라스 아테나가 날쌔게 앞장섰고, 오디세우스는 여신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따랐다. 배로 이름난 파이아케스인들은 그가 자기들 사이로 도시를 지나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머리채 고운 아테나, 무서운 여신이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신묘한 안개를 그 위에 부어 놓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포구들과 균형 잡힌 배들, 영웅들이 모이는 회의장, 뾰족한 말뚝 울타리를 둘러친 길고 높은 성벽을 보며 놀라워했다. 보기에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왕의 이름 높은 궁전에 이르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48 "나그네 어르신, 이게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하신 그 집이에요. 들어가시면 제우스가 기른 왕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마음속으로 조금도 겁내지 마시고요. 대담한 사람은 어디 먼 데서 왔더라도 무슨 일에서든 더 잘 해내는 법이거든요. 홀에 들어가시면 맨 먼저 안주인을 찾으세요. 아레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인데, 알키노오스 왕을 낳은 바로 그 핏줄에서 나신 분이에요. 맨 처음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과 페리보이아 사이에서 나우시토오스가 태어났어요. 페리보이아는 여인 가운데 생김새가 가장 빼어났고, 기개 높은 에우리메돈의 막내딸이었지요. 에우리메돈은 한때 기세 높은 거인족을 다스린 왕이었는데, 무모한 백성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고 말았어요. 포세이돈이 그 딸과 살을 섞어 낳은 아들이 기상 높은 나우시토오스로, 그분이 파이아케스인을 다스렸어요. 나우시토오스는 렉세노르와 알키노오스를 낳았고요. 렉세노르는 아들 없이 홀에서 갓 신랑이 되었을 때 은활의 아폴론에게 맞아 죽고, 외동딸 아레테 하나만 남겼어요. 알키노오스 왕은 그 딸을 아내로 맞아 높이 받들었는데, 지금 남편 밑에서 살림을 맡아 사는 여인들 가운데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만큼 받들어지지는 못해요. 그렇게 왕비님은 사랑하는 자식들과 알키노오스 왕에게서 진심으로 존중을 받아 왔고 지금도 그래요. 백성들도 왕비님을 신처럼 우러러보아, 도시를 지나가실 때면 인사말로 맞아요. 왕비님은 훌륭한 지혜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으셔서, 마음에 드는 이들이라면 남자들 사이의 다툼도 풀어 주세요. 그분이 어르신을 마음속으로 좋게 여기시기만 하면, 어르신은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보고 지붕 높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갈 희망이 생길 거예요."

78 이렇게 말하고 빛나는 눈의 아테나는 거둘 것 없는 바다를 건너 떠나갔다. 여신은 사랑스러운 스케리아를 뒤로하고 마라톤과 길이 넓은 아테네에 이르러, 에레크테우스의 튼튼한 집으로 들어갔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오스의 이름난 궁전으로 다가갔다. 청동 문지방에 이르기 전에 그는 멈춰 서서 가슴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굴렸다. 기개 높은 알키노오스의 지붕 높은 집 안에는 해나 달처럼 환한 빛이 어려 있었다. 문지방에서 안쪽 깊숙한 곳까지 이쪽저쪽으로 청동 벽이 뻗어 있었고, 그 위로는 검푸른 유리로 된 돌림띠가 둘러 있었다. 황금 문짝들이 튼튼한 집을 안쪽에서 막아 지켰다. 청동 문지방에는 은

문설주가 서 있었고, 그 위에 은 상인방이 얹혀 있었으며, 문고리는 황금이었다. 문 양쪽에는 황금 개와 은 개가 있었다. 헤파이스토스가 솜씨 좋은 마음으로 빚어 기개 높은 알키노오스의 집을 지키게 한 개들로, 죽지도 늙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켰다. 안에는 문지방에서 안쪽 깊숙한 곳까지 이쪽저쪽 벽을 따라 의자들이 죽 붙어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에는 여인들의 솜씨인 곱게 자은 얇은 덮개가 깔려 있었다.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은 그 의자에 앉아 먹고 마셨으니,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마다 넘쳐 났다. 잘 다듬은 받침대 위에는 황금 소년상들이 불타는 횃불을 손에 들고 서서, 밤이면 집 안에서 잔치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집 안에는 하녀 쉰 명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맷돌에 사과 빛 낟알을 갈았고, 어떤 이들은 앉아서 베를 짜거나 물렛가락을 돌렸다. 앉아서 일하는 그들의 손이 키 큰 백양나무 잎처럼 쉼 없이 나풀거렸고, 촘촘하게 짠 아마포에서는 매끄러운 올리브기름이 방울져 떨어졌다. 파이아케스 사내들이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날랜 배를 모는 데 능한 만큼 여인들은 베 짜는 솜씨가 뛰어났으니, 아테나가 그들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솜씨와 훌륭한 생각을 넉넉히 내려 주었다. 안뜰 밖, 대문 가까이에는 네 마지기쯤 되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양쪽으로 울타리가 둘러쳐 있었다. 그곳에는 키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배나무와 석류나무, 열매가 탐스러운 사과나무, 달콤한 무화과나무, 무성한 올리브나무였다. 이 나무들의 열매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떨어져 없어지거나 끊기는 일이 없이 한 해 내내 맺혔다. 서풍이 언제나 불어와 어떤 열매는 맺게 하고 어떤 열매는 익게 했다. 배가 익으면 그 위에 배가 또 익고, 사과 위에 사과가, 포도송이 위에 포도송이가, 무화과 위에 무화과가 익어 갔다. 거기에는 또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밭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한쪽 평평한 땅에서는 포도 말리는 마당이 햇볕에 말라 가고, 다른 쪽에서는 포도를

땄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포도를 밟아 즙을 냈다. 앞쪽에는 꽃을 막 떨군 풋포도가 달려 있었고, 다른 송이들은 검붉게 물들어 갔다. 맨 끝줄 너머에는 갖가지 채소를 가지런히 심은 밭이 한 해 내내 싱싱하게 빛났다. 그 안에는 샘이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정원 곳곳으로 물을 흩뿌렸고, 다른 하나는 맞은편에서 안뜰 문지방 밑을 지나 높은 집 쪽으로 흘러갔는데, 도시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길었다. 알키노오스의 집에는 신들이 내린 이토록 빛나는 선물이 있었다.

133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거기 서서 바라보았다. 마음껏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나서 그가 재빨리 문지방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아르고스를 죽인 눈 밝은 신께 잔을 들어 술을 따라 바치고 있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 생각이 나면 마지막으로 이 신께 술을 바치곤 했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가 둘러 부어 준 짙은 안개에 싸인 채 홀을 가로질러 걸어가 아레테와 알키노오스 왕 앞에 이르렀다. 오디세우스가 두 팔로 아레테의 무릎을 끌어안자, 바로 그때 신이 내린 안개가 그에게서 걷혀 흩어졌다. 홀 안에 웬 사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간청했다.

146 "신에 버금가는 렉세노르의 따님, 아레테 왕비님, 숱한 고생 끝에 저는 왕비님의 부군과 왕비님의 무릎 아래, 그리고 여기 잔치하시는 분들 앞에 왔습니다. 신들께서 이분들께 복된 삶을 내려 주시고, 저마다 집 안의 재산과 백성이 준 명예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니 제가 어서 고향에 닿을 수 있도록 저를 바래다줄 채비를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벌써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153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화덕 곁 잿더미 속, 불 옆에 주저앉았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한참 만에야 늙은 영웅

에케네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에케네오스는 파이아케스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고, 옛일을 많이 알아 말솜씨가 빼어난 이였다. 그가 좋은 뜻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 말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손님이 화덕 곁 잿더미 속 맨바닥에 앉아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왕의 말씀을 기다리느라 꼼짝 않고 있습니다. 자, 손님을 일으켜 은못 박은 의자에 앉히시고, 전령들에게 포도주를 섞으라고 이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께도 술을 따라 바칠 수 있습니다. 제우스께서는 존중받아야 할 탄원자들 곁을 늘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림 맡은 여인에게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손님께 저녁을 내드리게 하십시오."

167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알키노오스는 그 말을 듣자, 슬기롭고 온갖 꾀를 지닌 오디세우스의 손을 잡고 화덕에서 일으켜 번쩍이는 의자에 앉혔다. 그 자리에는 씩씩한 아들 라오다마스가 앉아 있었는데, 왕은 바로 곁에 앉아 있던 이 아들, 누구보다 아끼던 아들을 일으켜 자리를 내주게 했다.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아름다운 황금 물병에 담아 와 은대야 위로 부어 손을 씻게 하고, 곁에 반들반들한 식탁을 펴 놓았다.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고,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 여러 가지 찬을 곁들였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먹고 마셨다. 그러자 기운찬 알키노오스가 전령에게 말했다.

179 "폰토노오스, 술동이에 술을 섞어 홀 안의 모든 이에게 돌리시오. 그래야 우리가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께도 술을 따라 바칠 수 있소. 제우스께서는 존중받아야 할 탄원자들 곁을 늘 지켜 주시는 분이오."

182 그가 이렇게 말하자 폰토노오스가 마음을 달게 하는 포도주를 섞어, 먼저 잔마다 신께 바칠 몫을 조금씩 따른 다음 모두에게 돌렸다.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마음껏 마시고 나자 알키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186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들어 보시오.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소. 이제 잔치를 마쳤으니 저마다 집에 돌아가 쉬시오. 내일 아침에는 원로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 홀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신들께 훌륭한 제물을 바칩시다. 그런 다음 손님을 바래다줄 일을 궁리합시다. 손님이 아무리 먼 곳에서 왔더라도 우리가 바래다주어 수고도 괴로움도 없이 서둘러 기쁘게 고향 땅에 닿게 하고, 제 땅을 밟기 전에는 도중에 아무 해도 재앙도 겪지 않게 해야 하오. 그 뒤로는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운명과 엄한 실 잣는 여신들이 갓 태어난 그에게 실로 자아 준 일을 무엇이든 겪어야 할 것이오.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불사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신들이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일을 꾀하고 있소. 지금까지 신들은 우리가 이름 높은 큰 제물을 바칠 때면 늘 똑똑히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앉아 잔치를 즐겼소. 길 가던 나그네가 혼자서 신과 마주치더라도 신들은 조금도 몸을 숨기지 않소. 우리는 키클롭스나 거인족의 사나운 무리처럼 신들과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이오."

207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마음에 그런 생각은 두지 마십시오. 저는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과는 생김새도 몸집도 닮지 않았고,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과 닮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큰 고생을 짊어진 이가 있다면, 고통으로 치면 저는 바로 그런 이들과 견줄 만합니다. 신들의 뜻으로 제가 겪은 고생을 다 털어놓는다면 그보다 더 많은 불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시름에 잠겨 있어도 지금은 저녁을 먹게 해 주십시오. 지긋지긋한 배보다 더 염치없는 것은 없습니다. 몹시 지치고 가슴에 슬픔을 품은 사람에게도 배는 저를 잊지 말라고 억지로 다그칩니다. 저 또한 가슴에 슬픔을 품고 있는데도 배는 늘 먹고 마시라고 시키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깡그리

잊게 하며 배를 가득 채우라고 몰아세웁니다. 여러분은 날이 밝는 대로 서둘러, 고생은 숱하게 겪었으나 이 불행한 저를 고향 땅에 데려다주십시오. 제 재산과 종들과 지붕 높은 큰 집을 보고 나면 그때는 목숨이 저를 떠나도 좋습니다."

226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옳다고 하며 손님을 바래다주라고 했다. 이치에 꼭 맞는 말이었다.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마음껏 마시고 나자 그들은 잠을 자러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았고, 그 곁에 아레테와 신을 닮은 알키노오스가 앉았다. 시녀들은 잔치 그릇들을 치웠다. 하얀 팔의 아레테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가 입은 고운 겉옷과 윗옷을 보자마자 시녀들과 함께 몸소 지은 옷이라는 것을 알아본 아레테는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37 "손님, 이것부터 내가 먼저 묻겠소.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그 옷은 누가 주었소? 바다를 떠돌다 이리로 왔다고 하지 않았소?"

24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왕비님, 하늘에 사는 신들께서 제게 시름을 하도 많이 안겨 주셔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비님께서 묻고 캐물으시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바다 한가운데 오기기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틀라스의 딸, 속임수에 능한 칼립소가 삽니다. 머리채 고운 무서운 여신으로, 신들도 죽을 인간들도 그 여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불행한 저를 홀로 그 여신의 화덕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우스께서 포도주 빛 바다 한가운데서 제 날랜 배를 번쩍이는 벼락으로 내리쳐 산산이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른 훌륭한 전우들은 모두 죽었고, 저는 양 끝이 휜 배의 용골을 두 팔로 끌어안고 아흐레 동안 떠밀려 다녔습니다. 열흘째 되는 검은 밤에 신들이 저를 오기기아섬에 닿게 해 주었습니다. 머리채 고운 칼립소, 무서운 여신이 사는 곳입니다. 칼립소는 저를 받아들여 다정하게 아끼고

돌보아 주었고, 언제까지나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속 마음을 끝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곱 해를 꼼짝없이 머물며, 칼립소가 준 불멸의 옷을 늘 눈물로 적셨습니다. 여덟째 해가 돌아오자 칼립소는 제우스께서 전갈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여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더러 돌아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묶은 뗏목에 저를 태워 떠나보냈습니다. 빵과 달콤한 술을 넉넉히 주고 불멸의 옷을 입혀 주었으며, 해롭지 않고 따뜻한 순풍을 보내 주었습니다. 열이레 동안 바다를 건너다니다가 열여드레째 되는 날 이 나라의 그늘진 산들이 나타나자, 불운한 제 가슴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그 고난을 일으켰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람을 몰아붙여 제 앞길을 막고 말할 수 없이 바다를 휘저었고, 물결은 거세게 신음하는 저를 뗏목 위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폭풍이 뗏목을 산산이 흩어 놓았지만, 저는 헤엄을 쳐서 이 큰 바다를 가로질렀고, 마침내 바람과 물결이 저를 실어다 이 나라 땅에 닿게 했습니다. 뭍으로 올라서려는데 물결이 저를 사납고 반갑지 않은 곳의 큰 바위들에 내던져 부딪치게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나 헤엄쳐서 강에 이르렀습니다. 바위가 없이 매끈하고 바람도 막아 주는 곳이라,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로 보였습니다. 저는 남은 기운을 추스르며 뭍으로 쓰러지듯 나왔고, 거룩한 밤이 찾아오자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강에서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 덤불 속에 누워 나뭇잎을 끌어모아 몸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신이 끝없는 잠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지칠 대로 지친 채 나뭇잎 속에서 밤새 잤고, 새벽이 지나고 한낮이 되도록 잤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달콤한 잠이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따님의 시녀들이 노는 것을 보았는데, 따님도 그 가운데 계셨고 여신 같았습니다. 저는 따님께

탄원했습니다. 따님은 훌륭한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사람은 늘 생각이 모자라는 법이라, 그 나이에 낯선 이를 만나 그렇게 처신하리라고는 누구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님은 제게 빵과 반짝이는 포도주를 넉넉히 주셨고, 강에서 씻게 하시고 이 옷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괴롭지만 이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298 알키노오스가 대답했다. "손님, 내 딸이 이 일만은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려. 당신이 맨 먼저 그 아이에게 탄원했는데도 시녀들과 함께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으니 말이오."

30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영웅이시여, 그 일로 나무랄 데 없는 따님을 꾸짖지 마십시오. 따님은 시녀들과 함께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혹시 왕께서도 언짢아하실까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의 무리는 의심이 많은 법입니다."

308 알키노오스가 대답했다. "손님, 내 가슴속 마음은 까닭 없이 성을 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오. 무엇이든 도리에 맞는 것이 더 낫소.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부디 지금 모습 그대로인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서 내 딸을 아내로 맞아 여기 머물며 내 사위라 불린다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스스로 원해 머문다면 집과 재산을 내주겠소. 그러나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붙잡아 둘 파이아케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런 일은 아버지 제우스께서도 반기지 않으실 것이오. 당신이 똑똑히 알도록 말해 두겠는데, 당신을 바래다줄 날은 내일로 정하겠소. 그때 당신은 잠에 겨워 누워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잔잔한 바다를 저어 당신이 고향과 집에, 어디든 당신이 바라는 곳에 닿을 때까지 데려다줄 것이오. 그곳이 에우보이아보다 훨씬 더 멀다 해도 상관없소. 우리 백성 가운데 금발의 라다만티스를 태우고 대지의 아들 티티오스를 만나러 갔던 이들이 에우보이아를 보았는데,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들 하오. 그들은 거기까지 갔다가 힘들이지 않고 일을 마치고 그날로 집에 돌아왔소. 내 배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 젊은이들이 노깃으로 바닷물을 얼마나 잘 떠 올리는지 당신도 몸소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오."

329 그 말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하며 기도했다. 그가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알키노오스가 말한 것을 모두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곡식을 내는 땅 위에서 그의 명성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고향에 돌아갈 것입니다."

334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하얀 팔의 아레테는 시녀들에게 주랑 아래 침대를 놓고, 그 위에 고운 자줏빛 깔개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담요를 펴고, 덮고 잘 두툼한 외투를 얹어 두라고 일렀다. 시녀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홀에서 나갔다. 서둘러 튼튼한 침대를 펴 놓고 나서 시녀들은 오디세우스 곁에 다가서서 말로 재촉했다. "손님, 일어나 주무시러 가십시오. 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343 시녀들이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반가웠다. 그렇게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소리 울리는 주랑 아래 구멍 뚫어 짠 침대에서 잠들었고, 알키노오스는 높은 집 안쪽 깊숙한 방에 누웠다. 안주인인 아내가 그 곁에 잠자리를 함께 펴고 누웠다.

제8권

1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알키노오스가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제우스의 핏줄인,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도 일어났다. 알키노오스는 배들 곁에 마련된 파이아케스인의 회의장으로 앞장서 갔고, 그곳에 이르자 두 사람은 반들반들한 돌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사이 팔라스 아테나는 슬기로운 알키노오스의 전령 모습을 하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궁리하던 여신은 사람마다 곁에 다가서서 이렇게 말했다.

11 "자,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회의장으로 가십시오. 바다를 떠돌다 얼마 전 슬기로운 알키노오스의 집에 온 손님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생김새가 불사의 신들과 같은 분입니다."

15 이렇게 말하며 여신은 사람마다 기운과 마음을 북돋웠다. 금세 회의장과 자리마다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테나가 그의 머리와 어깨에 신묘한 기품을 부어 주고 보기에 더 크고 더 듬직하게 만들어 놓았으므로, 많은 이들이 라에르테스의 슬기로운 아들을 보고 감탄했다. 그가 모든 파이아케스인에게 호감을 사고 두려움과 존경을 받으며, 파이아케스인들이 오디세우스의 솜씨를 시험하려고 내놓을 여러 시합을 거뜬히 해내도록 하려는 여신의 뜻이었다. 사람들이 다 모여 한자리에 들어차자 알키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26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들어 보시오.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소. 여기 이 손님이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오. 해 뜨는 쪽 사람들에게서인지 해 지는 쪽 사람들에게서인지, 떠돌다가 내 집에 왔소. 이 손님은 바래다주기를 재촉하며 그 약속을 굳게 지켜 달라고 비오. 우리도 예전처럼 서둘러 그를 바래다줍시다. 내 집에 온 사람 가운데 바래다주기를 기다리며 여기서 오래 슬퍼하며 머문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소. 자, 처음 바다에 나가는 검은 배를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리고, 고장에서 지금까지 가장 뛰어나다고 꼽힌 젊은이 쉰두 명을 뽑으시오. 모두 노 젓는 자리에 노를 단단히 매어 둔 다음 배에서 내려 내 집으로 와서 서둘러 잔치를 준비하시오. 모두에게 넉넉히 내가 대겠소.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이르겠소. 그리고 왕홀을 든 다른 왕들은 내 아름다운 집으로 오시오. 홀에서 손님을 정답게 대접합시다. 아무도 마다하지 마시오. 신과 같은 노래꾼 데모도코스도 부르시오. 신께서 그에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노래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주를 누구보다 넉넉히 내려 주셨소."

46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앞장서자 왕홀을 든 이들이 함께 따라갔고, 전령은 신과 같은 노래꾼을 데리러 갔다. 뽑힌 젊은이 쉰두 명은 왕이 이른 대로 거둘 것 없는 바닷가로 내려갔다. 배와 바다에 이르자 그들은 검은 배를 깊은 바다로 끌어내리고, 검은 배에 돛대를 세우고 돛을 실었으며, 가죽 고리에 노를 끼워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춘 다음 흰 돛을 활짝 폈다. 그리고 배를 물가에서 떨어진 앞바다에 띄워 매어 두고 슬기로운 알키노오스의 큰 집으로 갔다. 주랑과 안뜰과 방들이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무척 많았다. 알키노오스는 그들을 위해 양 열두 마리와 흰 엄니의 돼지 여덟 마리, 발을 끌며 걷는 소 두 마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손질하여 흥겨운 잔치를 차렸다.

62 전령이 정다운 노래꾼을 데리고 가까이 왔다. 무사 여신은 이 노래꾼을 무척 아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주었으니, 두 눈은 빼앗고 달콤한 노래를 주었다. 폰토노오스가 잔치하는 이들 한가운데에 은못 박은 의자를 놓아 그를 앉히고 높은 기둥에 기대게 했다. 전령은 낭랑한 리라를 그의 머리 바로 위 못에 걸어 두고, 손으로 더듬어 잡는 법을 일러 주었다. 그리고 곁에 바구니와 아름다운 식탁을 놓고, 마음이 내킬 때 마시도록 포도주 잔도 놓아 주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무사 여신이 노래꾼을 부추겨 영웅들의 이름난 일을 노래하게 했다. 그 무렵 명성이 넓은 하늘에까지 닿은 노래의 한 가락으로, 오디세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다툰 이야기였다. 두 사람이 일찍이 신들께 제물을 바치는 풍성한 잔치 자리에서 사나운 말로 맞서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다. 아가멤논이 신탁을 물으려고 성스러운 피토의 돌 문지방을 넘어섰을 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바로 그렇게 일러 준 일이 있었다. 위대한 제우스의 뜻에 따라 트로이인과 다나오스인에게 재앙의 시작이 굴러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83 널리 이름난 노래꾼이 이것을 노래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억센 두 손으로 커다란 자줏빛 겉옷을 집어 머리 위로 끌어당겨 잘생긴 얼굴을 가렸다. 눈썹 아래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파이아케스인들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웠다. 신과 같은 노래꾼이 노래를 멈출 때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머리에서 겉옷을 걷어 낸 뒤, 손잡이 둘 달린 잔을 들어 신들께 술을 따라 바쳤다. 그러나 파이아케스인 가운데 뛰어난 이들이 노랫말을 즐기며 다시 노래하라고 부추겨 노래꾼이 또 노래를 시작하면, 오디세우스는 다시 머리를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른 이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곁에 앉아 있던

알키노오스만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알아차렸으며 그가 무겁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다. 알키노오스는 곧 노 젓기를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 가운데서 말했다.

97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들어 보시오. 우리는 이제 고루 나눈 잔치와, 풍성한 잔치의 짝인 리라를 마음껏 즐겼소. 이제 밖으로 나가 온갖 시합을 겨루어 봅시다. 손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가 주먹 싸움과 씨름과 멀리뛰기와 달리기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말이오."

104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앞장서자 모두 함께 따라갔다. 전령은 낭랑한 리라를 못에 걸어 두고, 데모도코스의 손을 잡아 홀 밖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시합을 구경하러 가는 다른 파이아케스 귀족들이 가는 바로 그 길로 그를 데려갔다. 그들이 회의장으로 가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함께 따라갔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섰다. 아크로네오스와 오키알로스와 엘라트레우스, 나우테우스와 프림네우스와 앙키알로스와 에레트메우스, 폰테우스와 프로레우스, 토온과 아나베시네오스, 그리고 텍톤의 아들 폴리네오스의 아들 암피알로스가 일어섰다. 사람을 죽이는 아레스와 같은 나우볼로스의 아들 에우리알로스도 일어섰는데, 나무랄 데 없는 라오다마스 다음으로는 모든 파이아케스인 가운데 생김새도 몸집도 가장 빼어난 젊은이였다. 나무랄 데 없는 알키노오스의 세 아들, 라오다마스와 할리오스와 신에 버금가는 클리토네오스도 일어섰다. 먼저 그들은 달리기를 겨루었다. 출발점에서부터 경주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들판에 먼지를 일으키며 날듯이 내달았다. 달리기에서 단연 뛰어난 이는 나무랄 데 없는 클리토네오스였다. 노새 두 마리가 묵정밭을 가는 한 고랑 길이만큼 앞서 내달려 구경꾼들에게 이르렀고, 다른 이들은 뒤처졌다. 다음에는 힘겨운 씨름을 겨루었는데, 이번에는

에우리알로스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이겼다. 멀리뛰기에서는 암피알로스가 누구보다 앞섰고, 원반던지기에서는 엘라트레우스가 단연 으뜸이었으며, 주먹 싸움에서는 알키노오스의 훌륭한 아들 라오다마스가 으뜸이었다. 모두가 시합을 마음껏 즐기고 나자 알키노오스의 아들 라오다마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133 "벗들이여, 이리 오게. 저 손님이 무슨 시합을 알고 익혔는지 물어보세. 몸집으로 보면 못난 사람이 아니네. 넓적다리와 정강이, 위쪽의 두 팔, 굵은 목덜미를 보게. 대단한 힘이네. 한창때가 지난 것도 아닌데, 숱한 불행에 짓눌려 꺾였을 뿐이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억센 사내라도 바다보다 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없네."

140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했다. "라오다마스, 자네 말이 참으로 옳네. 이제 자네가 몸소 가서 그에게 겨루자고 청하고 그 말을 전하게."

143 알키노오스의 훌륭한 아들은 그 말을 듣자 한가운데로 나가 서서 오디세우스에게 말을 걸었다. "나그네 어르신, 이리 와서 당신도 시합을 겨루어 보시오. 혹시 익힌 것이 있다면 말이오. 당신은 시합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제 발과 손으로 이루는 일보다 더 큰 명성은 없소. 자, 겨루어 보고 마음에서 시름을 떨쳐 버리시오. 당신의 길도 이제 오래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오. 배는 벌써 바다에 끌어내려 두었고 함께 갈 뱃사람들도 채비를 마쳤소."

15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라오다마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놀리듯 이런 일을 시키오? 내 마음속에는 시합보다 시름이 더 크오. 나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고 숱한 고생을 했소. 이제는 귀향을 애타게 바라며 당신들의 회의장에 앉아 왕과 온 백성에게 비는 몸이오."

158 그러자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하며 맞대 놓고 꾸짖었다. "이보게, 내가 보기에 자네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있는 시합을 잘 아는 사내 같지가 않네. 노 젓는 자리가 많은 배를 타고 들락거리며 장사치

뱃사람들을 부리는 우두머리 같네. 짐을 잘 기억하고 돌아오는 짐과 움켜쥘 잇속을 살피는 자 말일세. 자네는 시합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네."

165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노려보며 말했다. "이보게, 자네 말이 곱지 않네. 무모한 사내 같군. 신들은 모든 사람에게 고운 것을 다 주지는 않는 법이네. 생김새도, 생각도, 말솜씨도 말일세. 어떤 사내는 생김새가 보잘것없어도 신이 그 모습에 말로 화관을 씌워 주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네. 그는 상냥한 염치를 지니고 흔들림 없이 말하여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돋보이고, 도시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우러러보네. 또 어떤 사내는 생김새가 불사의 신들과 닮았어도 그 말에는 고운 맛이 둘러 있지 않네. 자네가 바로 그렇군. 생김새는 빼어나서 신이라도 달리 빚지 못하겠지만 생각은 텅 비었네. 자네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여 내 가슴속 마음을 휘저어 놓았네. 나는 자네 말처럼 시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네. 한창때를 믿고 내 두 손을 믿던 동안에는 으뜸가는 축에 들었다고 생각하네. 지금은 불행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사내들의 싸움과 사나운 물결을 헤치며 숱한 일을 견뎌 왔으니 말일세. 그래도 숱한 불행을 겪은 몸이지만 시합을 겨루어 보겠네. 자네 말이 가슴을 물어뜯어 나를 부추겼으니."

186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겉옷을 걸친 채로 벌떡 일어나, 파이아케스인들이 서로 던지던 것보다 더 크고 두툼하며 훨씬 무거운 원반을 집어 들었다. 그는 원반을 빙 돌려 억센 손에서 날려 보냈다. 돌이 윙 소리를 내자 긴 노를 젓는 파이아케스인들, 배로 이름난 사내들이 돌이 날아가는 기세에 눌려 땅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원반은 손을 떠나 가볍게 날아가 모든 이의 표지를 넘어갔다. 사내의 모습을 한 아테나가 떨어진 자리에 표지를 놓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195 "손님, 당신의 표지는 눈먼 사람이라도 더듬어 보면 가려낼 수 있겠소. 다른 표지들 무리에 섞여 있지 않고 훨씬 앞에 있으니 말이오. 이번 시합만큼은 걱정하지 마시오. 파이아케스 사람 누구도 여기까지 던지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넘지도 못할 것이오."

199 그 말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경기장에서 친절한 동무를 만난 것이 반가웠다. 그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파이아케스인 가운데서 말했다.

202 "젊은이들, 이제 여기까지 던져 보게. 나는 곧 하나를 더 던질 텐데, 아마 이만큼이나 이보다 더 멀리 날아갈 걸세. 자네들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슴과 마음이 시키는 이는 누구든 이리 나와 겨루어 보게. 주먹 싸움이든 씨름이든 달리기든 나는 조금도 마다하지 않겠네. 파이아케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네. 라오다마스만은 빼고 말일세. 그는 나를 손님으로 맞아 준 사람이니, 누가 자기를 아껴 주는 이와 싸우겠는가?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를 맞아 준 주인에게 시합을 걸어 다투는 사내는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일세. 제 앞길을 모두 스스로 깎아 버리는 셈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깔보지도 않겠네. 맞서서 겨루며 서로 알아보고 싶네. 사내들 사이에 있는 시합이라면 무엇이든 나는 서툴지 않네. 잘 다듬은 활을 다룰 줄도 잘 알지. 적의 무리 속에서 화살을 쏘면 내가 맨 먼저 사람을 맞힐 걸세. 많은 전우가 내 곁에 서서 사람들을 겨누어 쏘더라도 말이네. 트로이 땅에서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활을 쏠 때, 활로 나를 앞선 사람은 필록테테스 하나뿐이었네. 지금 땅 위에서 빵을 먹고 사는 다른 인간들 가운데서라면 내가 훨씬 낫다고 말하겠네. 그러나 옛사람들과는 겨루고 싶지 않네. 헤라클레스나 오이칼리아의 에우리토스와는 말일세. 그들은 불사의 신들과도 활 솜씨를 다투곤 했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에우리토스는 일찍 죽어 제 집에서 늙지도

못했네. 그가 활쏘기를 겨루자고 아폴론에게 도전하자 아폴론이 노하여 그를 죽였지. 창이라면 나는 다른 누가 화살을 쏘아 보내는 만큼 멀리 던진다네. 오직 달리기에서만은 파이아케스 사람 누가 나를 앞지를까 두렵네. 거센 물결 속에서 참담하게 시달린 데다 배 위에서 몸을 돌볼 양식도 넉넉지 않았으니, 그래서 내 팔다리가 풀려 버렸네."

234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알키노오스만이 그에게 대답했다.

236 "손님, 당신이 우리에게 한 말은 언짢은 말이 아니었소. 이 사내가 경기장에서 당신 곁에 다가서서 꾸짖은 것에 화가 나서, 당신이 지닌 빼어남을 드러내 보이려 한 것이오. 제 속으로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당신의 빼어남을 흠잡지 못할 것이오. 자, 이제 내 말을 들어 보시오. 훗날 당신이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 곁에 앉아 잔치를 벌일 때, 우리의 빼어남을 떠올리며 다른 영웅에게도 들려줄 수 있도록 말이오. 제우스께서 조상 때부터 줄곧 우리에게 맡겨 오신 일이 어떤 것인지 말이오. 우리는 나무랄 데 없는 주먹꾼도 씨름꾼도 아니오. 그러나 발이 빨라 잘 달리고, 배를 부리는 데는 으뜸이오. 우리는 언제나 정다운 잔치와 리라와 춤, 갈아입을 옷과 따뜻한 목욕과 잠자리를 좋아하오. 자, 파이아케스의 춤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은 춤을 추어 보이시오. 손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가 뱃일과 달리기와 춤과 노래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말이오. 누가 얼른 가서 데모도코스에게 낭랑한 리라를 가져다주시오. 우리 집 어딘가에 놓여 있을 것이오."

256 신을 닮은 알키노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전령이 왕의 집에서 우묵한 리라를 가져오려고 일어섰다. 고을에서 뽑은 심판관 아홉 명이 모두 일어섰다. 경기 때마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춤출 자리를 고르게 다지고 경기장을 아름답고 넓게 터놓았다. 전령이

낭랑한 리라를 데모도코스에게 가져오자 그는 한가운데로 나아갔고, 춤에 능한 갓 피어난 젊은이들이 그 둘레에 둘러서서 발로 신이 내린 듯한 춤마당을 굴렀다. 오디세우스는 번득이는 발놀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266 데모도코스는 리라를 타며 아레스와 고운 관을 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두 신이 처음 헤파이스토스의 집에서 몰래 살을 섞은 이야기였다. 아레스는 선물을 많이 주고 헤파이스토스 왕의 침대와 잠자리를 더럽혔다. 두 신이 사랑으로 몸을 섞는 것을 본 헬리오스가 곧바로 헤파이스토스에게 알리러 왔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자 헤파이스토스는 속으로 앙갚음을 궁리하며 대장간으로 가서, 모루 받침에 커다란 모루를 올려놓고 끊을 수도 풀 수도 없는 사슬을 두들겨 만들었다. 두 신을 그 자리에 꼼짝없이 붙잡아 둘 사슬이었다. 아레스에게 노한 그는 그렇게 덫을 다 만들고 나서, 아끼는 침대가 놓인 방으로 가 침대 기둥 둘레에 빙 돌아가며 사슬을 쏟아부었다. 지붕 들보에서도 많은 사슬이 가는 거미줄처럼 드리워졌는데, 복된 신들조차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교묘하게 만든 덫이었다. 침대 둘레에 덫을 모두 둘러치고 나서 헤파이스토스는 잘 지은 도시 렘노스로 가는 척했다. 렘노스는 그가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끼는 곳이었다. 황금 고삐의 아레스도 허투루 망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솜씨로 이름난 헤파이스토스가 멀리 떠나는 것을 보자마자, 아레스는 고운 관을 쓴 키테라의 여신과의 사랑을 애타게 그리며 널리 이름난 헤파이스토스의 집으로 갔다. 아프로디테는 힘이 막강한 아버지, 크로노스의 아들에게서 막 돌아와 앉아 있었다. 아레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여신의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292 "이리 오오, 내 사랑. 침대로 가서 함께 누워 즐깁시다.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이 고장에 없소. 벌써 말소리 거친 신티에스족을

찾아 렘노스로 떠났을 것이오."

295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반가웠다. 두 신은 침대에 올라 누웠다. 그러자 지혜 많은 헤파이스토스가 교묘하게 만든 사슬이 둘레로 쏟아져 내려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들어 올릴 수도 없게 되었고, 그제야 두 신은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았다. 두 발이 굽은 널리 이름난 신이 렘노스 땅에 닿기 전에 되돌아와 가까이 다가왔다. 헬리오스가 그를 위해 망을 보다가 알려 주었다. 헤파이스토스는 가슴이 쓰라린 채 제 집으로 가서 문간에 섰고, 사나운 노여움에 사로잡혀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지르며 모든 신에게 외쳤다.

306 "아버지 제우스와 영원히 사는 다른 복된 신들이시여, 이리 오셔서 우습고도 참을 수 없는 꼴을 보십시오.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는 제가 절름발이라고 늘 저를 업신여기고 파괴를 일삼는 아레스를 사랑합니다. 아레스는 잘생기고 다리가 성한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탓은 다른 누구도 아닌 두 부모에게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낳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신이 제 침대에 올라가 사랑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가슴이 쓰립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해도 이제는 저렇게 잠깐이라도 누워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곧 둘 다 자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테지요.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저 낯 두꺼운 딸 때문에 제가 손에 쥐여 드린 구혼 선물을 모두 돌려주실 때까지, 이 덫과 사슬이 두 신을 붙잡아 둘 것입니다. 딸은 아름답지만 제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니까요."

321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신들이 청동 바닥을 깐 집으로 모여들었다.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 왔고, 복을 주는 헤르메스가 왔으며,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 왔다. 여신들은 부끄러워 저마다 집에 머물렀다. 좋은 것을 베푸는 신들이 문간에 서서 지혜 많은 헤파이스토스의 솜씨를

바라보자, 복된 신들 사이에서 꺼지지 않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329 "못된 짓은 잘되지 않는 법이오. 느린 자가 빠른 자를 따라잡는구려.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 가운데 누구보다 빠른 아레스를, 느린 데다 절름발이인 헤파이스토스가 솜씨로 붙잡지 않았소. 그러니 아레스는 남의 아내를 범한 값을 물어야 하오."

333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335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 길잡이, 좋은 것을 베푸는 이여, 너라면 저렇게 단단한 사슬에 꽁꽁 묶이더라도 황금빛 아프로디테 곁에 누워 자고 싶어?"

338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가 대답했다.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여,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야! 저 사슬보다 세 곱절이나 되는 끝없는 사슬이 나를 휘감고 너희 신들과 여신들이 모두 지켜본대도, 나는 황금빛 아프로디테 곁에서 자겠어."

34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웃지 않고, 솜씨로 이름난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레스를 풀어 주라고 줄곧 간청했다. 포세이돈이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47 "그를 풀어 주시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불사의 신들 앞에서 그가 마땅한 값을 다 치르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오."

349 두 발이 굽은 널리 이름난 신이 말을 받았다.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여, 그런 일을 내게 시키지 마시오. 하찮은 자를 위한 보증은 하찮은 보증일 뿐이오. 아레스가 빚도 사슬도 벗어나 달아나 버리면, 내가 불사의 신들 앞에서 무슨 수로 당신을 묶어 두겠소?"

354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말을 받았다. "헤파이스토스, 아레스가 빚을 피해 달아나 버리면 내가 몸소 그 값을 치르겠소."

357 두 발이 굽은 널리 이름난 신이 대답했다. "당신 말을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하는 것은 마땅하지도 않소."

359 이렇게 말하고 기운찬 헤파이스토스는 사슬을 풀었다. 그토록 단단한 사슬에서 풀려나자 두 신은 곧바로 튀어 일어나, 아레스는 트라키아로 가고 웃음을 사랑하는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의 파포스로 갔다. 그곳에 여신의 성역과 향 피우는 제단이 있었다. 거기서 카리테스가 여신을 씻기고, 영원히 사는 신들의 몸에 감도는 불멸의 기름을 발라 준 뒤, 보기에도 놀랍도록 고운 옷을 입혀 주었다.

367 널리 이름난 노래꾼이 이것을 노래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들으면서 속으로 즐거워했고, 긴 노를 젓는 다른 파이아케스인들, 배로 이름난 사내들도 즐거워했다.

370 알키노오스는 아무도 겨룰 수 없는 할리오스와 라오다마스에게 둘이서만 춤을 추라고 일렀다. 두 사람은 슬기로운 폴리보스가 만들어 준 아름다운 자줏빛 공을 손에 들었다. 한 사람이 몸을 뒤로 젖혔다가 그늘진 구름을 향해 공을 던져 올리면, 다른 사람은 땅에서 높이 뛰어올라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가볍게 받아 냈다. 공을 곧장 위로 던지는 솜씨를 겨루고 나자, 두 사람은 많은 것을 길러 내는 땅 위에서 자주 자리를 바꾸어 가며 춤을 추었다. 경기장에 둘러선 다른 젊은이들이 발로 박자를 맞추자 요란한 소리가 일었다.

381 그때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오스에게 말을 걸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하신 분이여, 이곳 춤꾼들이 으뜸이라고 장담하시더니 과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고 있자니 놀라움에 넋을 잃을 지경입니다."

385 그 말에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알키노오스는 기뻐하며, 곧 노젓기를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 가운데서 말했다.

387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들어 보시오. 내가 보기에 이 손님은 참으로 의젓한 사람이오. 자, 마땅히 그에게 손님 선물을 줍시다. 이 고장에서는 빼어난 왕 열두 명이 우두머리로서 다스리고, 나 자신이 열셋째 왕이오. 여러분은 저마다 그에게 깨끗이 빤 겉옷과 윗옷, 그리고 귀한 황금 한 탈란톤씩을 가져다주시오. 어서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가져옵시다. 손님이 손에 그 선물을 쥐고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 자리에 갈 수 있게 말이오. 그리고 에우리알로스는 말과 선물로 몸소 손님의 마음을 풀어 주시오.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했으니 말이오."

39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옳다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마다 선물을 가져오라고 전령을 보냈다.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하신 분이여, 그렇다면 분부하신 대로 제가 손님의 마음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 온통 청동으로 된 칼을 드리겠습니다. 손잡이는 은이고, 갓 켜 낸 상아로 만든 칼집이 둘러 있습니다. 손님께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406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은못 박은 칼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쥐여 주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나그네 어르신, 부디 평안하시오. 혹 내가 심한 말을 했다면, 당장 회오리바람이 그 말을 낚아채 날려 보내기를 바라오. 신들께서 당신이 아내를 보고 고향에 닿게 해 주시기를 비오. 당신은 벌써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재앙을 겪고 있으니 말이오."

41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젊은이, 자네도 부디 평안하게. 신들께서 자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말로 내 마음을 풀어 주며 내게 준 이 칼을 훗날 아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416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은못 박은 칼을 어깨에 둘러멨다. 해가 지자 이름난 선물들이 그에게 와 있었다. 당당한 전령들이 그것을 알키노오스의 집으로 날랐고, 나무랄 데 없는 알키노오스의 아들들이

받아서 그 더없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존귀한 어머니 곁에 놓았다.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알키노오스가 그들을 이끌고 가서 모두 높은 의자에 앉자, 기운찬 알키노오스가 아레테에게 말했다.

424 "부인, 여기 가장 좋은 훌륭한 궤를 가져오시오. 거기에 당신이 몸소 깨끗이 빤 겉옷과 윗옷을 넣어 두시오. 그리고 손님을 위해 불에 청동 솥을 올려 물을 데우시오. 손님이 목욕을 하고, 나무랄 데 없는 파이아케스인들이 이리로 가져온 선물이 모두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본 다음, 잔치를 즐기며 노래 가락도 들을 수 있게 말이오. 나도 이 더없이 아름다운 내 황금 잔을 그에게 주겠소. 그가 평생 나를 기억하며 제 집에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 술을 따라 바칠 수 있도록 말이오."

433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레테는 하녀들에게 되도록 빨리 불 위에 큰 세발솥을 걸라고 일렀다. 하녀들은 목욕물 데우는 세발솥을 활활 타는 불 위에 걸고 물을 부은 다음, 장작을 가져다 밑에 불을 지폈다. 불길이 세발솥의 배를 휘감고 물이 데워지는 동안, 아레테는 방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궤를 손님에게 가져와 파이아케스인들이 그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인 옷과 황금을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몸소 고운 겉옷과 윗옷을 넣고서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43 "이제 손수 뚜껑을 살피고 얼른 끈으로 묶어 두시오. 검은 배를 타고 가다가 달콤한 잠에 빠졌을 때, 길에서 누가 당신 물건에 손대지 못하도록 말이오."

446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 말을 듣자 곧 뚜껑을 맞추고, 일찍이 존귀한 키르케가 가르쳐 준 교묘한 매듭으로 얼른 끈을 묶었다. 그러자 곧바로 살림 맡은 여인이 그에게 욕조에 들어가 목욕하라고 권했다. 따뜻한 목욕물을 보자 그는 마음이 반가웠다. 머리 고운 칼립소의 집을 떠나온 뒤로는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일이 드물었지만,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신처럼 늘 보살핌을 받았다.

454 하녀들이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준 뒤 고운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자, 그는 욕조에서 나와 술 마시는 사내들에게로 갔다. 신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받은 나우시카아는 튼튼하게 지은 지붕을 받친 기둥 곁에 서서, 오디세우스를 눈앞에 바라보며 감탄했다. 나우시카아가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61 "나그네, 잘 가시오.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언젠가 나를 기억해 주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내게 목숨을 빚졌으니 말이오."

463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기개 높은 알키노오스의 따님 나우시카아 아가씨, 헤라의 남편, 우렛소리 요란한 제우스께서 부디 제가 집에 돌아가 귀향의 날을 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저는 날마다 언제까지나 신께 하듯 아가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제 목숨을 살려 주셨으니까요."

469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알키노오스 왕 곁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은 벌써 고기를 몫몫이 나누고 포도주를 섞고 있었다. 전령이 정다운 노래꾼, 백성에게 존경받는 데모도코스를 데리고 가까이 와서, 잔치하는 이들 한가운데에 앉히고 높은 기둥에 기대게 했다. 그때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흰 엄니의 돼지 등심에서 고기를 한 점 베어 내어 전령에게 말했다. 둘레에 기름진 비계가 두툼하게 붙은 고기였고, 베어 내고도 더 많이 남아 있었다.

477 "전령, 자, 이 고기를 데모도코스에게 갖다주어 먹게 하시오. 슬픔에 잠긴 몸이지만 나는 그를 반가이 맞이하고 싶소.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서 노래꾼들은 존경과 염치를 받을 몫이 있소. 무사 여신이 그들에게 노래의 가락을 가르쳐 주었고, 노래꾼의 무리를 아끼기 때문이오."

482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전령이 고기를 가져가 영웅 데모도코스의 손에 쥐여 주었고, 데모도코스는 그것을 받아 들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데모도코스에게 말했다.

487 "데모도코스, 나는 모든 인간 가운데 당신을 가장 높이 칭송하오. 제우스의 따님인 무사 여신이 당신을 가르쳤거나 아폴론이 가르쳤을 것이오. 아카이아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겪었으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아카이아인들의 운명을 당신은 마치 몸소 그 자리에 있었거나 거기 있던 이에게 들은 것처럼 참으로 제대로 노래하니 말이오. 자, 이제 노래를 바꾸어 나무 말을 지은 이야기를 노래해 주시오. 에페이오스가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고,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일리오스를 무너뜨린 사내들을 그 속에 가득 채워 계략으로 성채 위로 끌어들인 그 말 말이오. 당신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준다면, 나는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소. 신께서 기꺼이 당신에게 신묘한 노래를 내려 주셨다고 말이오."

499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래꾼은 신에게 이끌려 노래를 시작해 펼쳐 보였다. 노래꾼이 노래를 꺼낸 곳은, 아르고스인들이 막사에 불을 지르고 갑판 튼튼한 배에 올라 떠나가던 대목이었다. 그때 다른 이들은 벌써 이름 높은 오디세우스를 둘러싸고 말 속에 숨은 채 트로이인의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트로이인들이 몸소 그 말을 성채 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말은 그렇게 서 있었고, 트로이인들은 그 둘레에 앉아 이러쿵저러쿵 갈피 없는 말을 숱하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의견은 세 갈래로 갈렸다. 무자비한 청동으로 속이 빈 나무를 꿰뚫어 버리자는 이도 있었고, 산꼭대기로 끌고 가 바위 아래로 내던지자는 이도 있었으며, 신들을 달랠 큰 봉헌물로 그대로 두자는 이도 있었다. 결국 마지막 뜻대로 되고 말 운명이었다. 아르고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모두 트로이인에게 살육과 죽음의 운명을 안기려고 들어앉은 큰 나무 말을 도시가 제 안에 품어 들이는 날, 도시는 망하게 되어 있었다.

노래꾼은 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숨어 있던 속 빈 매복처를 버리고 말에서 쏟아져 나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야기를 노래했다. 그들이 저마다 여기저기서 가파른 도시를 짓밟았고, 오디세우스는 신에 버금가는 메넬라오스와 함께 아레스처럼 데이포보스의 집으로 갔다고 노래했다. 그곳에서 오디세우스는 가장 끔찍한 싸움을 무릅쓰고, 기상 높은 아테나의 힘을 입어 마침내 이겼다고 노래했다.

521 널리 이름난 노래꾼이 이것을 노래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녹아내리듯 무너졌고 눈물이 눈꺼풀 아래로 흘러 두 뺨을 적셨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 때가 있다. 그 남편은 제 도시와 백성 앞에서, 도시와 자식들에게서 무자비한 날을 막아 내려다 쓰러진 사람이다. 여인은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죽어 가는 것을 보고 그 몸 위에 쓰러져 날카롭게 울부짖는다. 그러나 뒤에서 적들이 창으로 여인의 등과 어깨를 내리치며 고된 일과 비참함을 견디라고 여인을 종으로 끌고 가니, 여인의 두 뺨은 더없이 가엾은 슬픔으로 여위어 간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는 눈썹 아래로 가엾은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른 이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곁에 앉아 있던 알키노오스만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알아차렸으며 그가 무겁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다. 알키노오스는 곧 노 젓기를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 가운데서 말했다.

536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들어 보시오. 이제 데모도코스는 낭랑한 리라를 멈추게 하시오. 그가 부르는 이 노래가 모두를 즐겁게 하지는 못하는 듯하오. 우리가 저녁을 들고 신과 같은 노래꾼이 노래를 시작한 뒤로 손님은 한시도 비통한 울음을 그치지 않았소. 큰 슬픔이 그의 가슴을 휘감은 게 틀림없소. 자, 노래꾼은 그만 멈추어, 손님을 맞은 우리나 손님이나 모두 함께 즐겁게 지냅시다. 그러는 편이 훨씬 아름답소. 이 모든 것은 존중받아야 할 손님을 위해

마련한 것이오. 우리가 정을 담아 그에게 주는 배웅과 정다운 선물 말이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그네와 탄원하는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는 법이오. 그러니 손님, 이제 내가 묻는 말에 잇속을 따지는 꾀로 숨기지 마시오. 털어놓는 편이 더 아름답소. 당신 고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도시 안팎에 사는 다른 이들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름을 말해 주시오.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아예 이름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소. 누구나 처음 태어나면 낳아 준 부모가 이름을 지어 붙여 주니까 말이오. 당신의 땅과 고장과 도시도 말해 주시오. 우리 배들이 스스로 생각해 그곳을 겨냥해 당신을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말이오. 파이아케스인에게는 키잡이가 없고, 다른 배들이 지닌 키도 없소. 배들이 스스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의 도시와 기름진 들판을 알며, 안개와 구름에 싸인 채 큰 바다를 누구보다 빨리 건너가오. 그 배들은 해를 입거나 망가질까 두려워할 일이 결코 없소. 그러나 일찍이 내 아버지 나우시토오스가 하시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소. 우리가 누구든 해 입지 않게 바래다주니 포세이돈께서 우리를 언짢아하신다고 하셨소. 그리고 언젠가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잘 만든 배가 사람을 바래다주고 아득한 바다를 건너 돌아올 때 포세이돈께서 그 배를 부숴 버리고, 우리 도시를 큰 산으로 둘러 덮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소. 노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소. 그 일은 신께서 마음 내키시는 대로 이루실 수도 있고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오. 자, 이것을 말해 주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당신은 어디를 떠돌았고 어떤 사람들의 땅에 갔소? 그 사람들과 살기 좋은 그들의 도시를 말해 주시오. 모질고 사나워 도리를 모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나그네를 반기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인지 말이오. 아르고스인, 다나오스인과 일리오스의 운명을 듣고 당신이 왜 마음속으로 울며 슬퍼하는지도 말해 주시오. 그 운명은

신들이 지어낸 것이오. 신들은 사람들에게 파멸의 실을 자아 주어 뒷사람들에게도 노래가 되게 하였소. 혹시 당신의 인척 가운데 훌륭한 이가 일리오스 앞에서 죽기라도 했소? 사위나 장인 말이오. 제 피붙이와 핏줄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아니겠소. 아니면 당신 마음에 꼭 맞는 훌륭한 전우가 죽기라도 했소? 생각 깊은 전우는 형제 못지않은 법이오."

제9권

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하신 분이여, 여기 이분처럼 목소리가 신들과 같은 노래꾼의 노래를 듣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온 백성이 기쁨에 잠기고, 잔치하는 이들이 집 안에 줄지어 앉아 노래꾼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곁의 식탁마다 빵과 고기가 수북하고, 술 따르는 이가 술동이에서 포도주를 떠다 잔마다 부어 줄 때보다 더 흐뭇한 일은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마음이 기울어 제 비통한 시름을 물으시니, 저는 더욱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무엇을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사는 신들께서 제게 시름을 하도 많이 안겨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제 먼저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도록, 그리고 제가 무자비한 날을 벗어난 뒤에는 멀리 떨어진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의 손님 벗으로 남도록 말입니다.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꾀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내 명성은 하늘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나는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이타카에 삽니다. 그 섬에는 잎이 흔들리는 빼어난 네리톤산이 솟아 있고, 둘레에는 둘리키온과 사메와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같은 많은 섬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타카는 바다에 낮게 누워 서쪽 어둠을 향해 가장 멀리 나앉아 있고, 다른 섬들은 떨어져서 새벽과 해 뜨는 쪽에 있습니다. 거친 땅이지만 젊은이를 잘 길러 내는 곳이라, 나는

내 땅보다 더 달콤한 것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여신 중에 고귀한 칼립소가 나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우묵한 동굴에 붙잡아 두었고, 속임수에 능한 아이아이아의 키르케도 나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홀에 붙들어 두었지만, 내 가슴속 마음을 끝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부모와 멀리 떨어진 남의 땅에서 기름진 집에 살더라도 고향과 부모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우스께서 트로이를 떠나온 내게 안기신 시름 많은 귀향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39 일리오스에서 나를 싣고 온 바람이 키코네스족의 땅 이스마로스에 닿게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도시에서 여인들과 많은 재물을 빼앗아 나누었는데, 누구도 제 몫을 덜 받고 떠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날랜 걸음으로 서둘러 달아나자고 일렀지만, 크게 어리석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바닷가에서 양을 많이 잡고 발을 끌며 걷는 뿔 굽은 소도 잡았습니다. 그사이 달아난 키코네스족이 이웃의 다른 키코네스족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들보다 수도 많고 더 용맹하며 내륙에 사는 자들로, 말 위에서도 싸울 줄 알고 필요하면 땅에 내려서도 싸울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몰려왔는데, 철 따라 돋는 나뭇잎과 꽃처럼 많았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내린 사나운 운명이 불운한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는 숱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랜 배들 곁에 진을 치고 싸웠고, 양쪽이 청동 날을 단 창을 서로 던졌습니다. 새벽부터 신성한 낮이 차오르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가 더 많은 그들을 막아 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해가 소의 멍에를 풀 무렵으로 기울자, 마침내 키코네스족이 아카이아인을 꺾어 물리쳤습니다. 배마다 정강이받이를 잘 댄 전우가 여섯 명씩 죽었고, 나머지 우리는 죽음과 운명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62 거기서 우리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더 멀리 배를 몰았습니다. 죽음을 벗어나 기뻤지만 정다운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키코네스족의 손에 들판에서 죽은 가엾은 전우들을 하나하나 세 번씩 부르기 전에는 양 끝이 흰 배들을 더 멀리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우리 배들에 북풍을 일으켜 신묘한 회오리바람으로 몰아치고 땅과 바다를 함께 구름으로 덮자, 하늘에서 밤이 내리덮쳤습니다. 배들은 이리저리 비스듬히 떠밀렸고, 거센 바람이 돛을 셋으로 넷으로 찢어발겼습니다.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 돛을 배 안으로 끌어내리고, 배를 힘껏 저어 뭍으로 몰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틀 밤 이틀 낮을 줄곧 누운 채 지침과 괴로움으로 속을 태웠습니다. 머리채 고운 새벽 여신이 셋째 날을 가져오자 우리는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끌어 올린 다음 앉아 있었고, 바람과 키잡이들이 배를 몰아갔습니다. 그대로였다면 나는 무사히 고향 땅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레아곶을 돌아갈 때 물결과 물살과 북풍이 나를 밀어내어 키테라를 지나쳐 떠돌게 했습니다.

82 거기서 나는 사나운 바람에 실려 물고기 많은 바다 위를 아흐레 동안 떠밀려 다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로토파고이)의 땅에 올랐습니다. 꽃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뭍에 내려 물을 길었고, 전우들은 날랜 배들 곁에서 곧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맛보고 나자, 나는 전우들을 보내 이 땅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내들인지 알아 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을 뽑고 셋째로 전령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가서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우리 전우들을 해칠 생각이 없었고, 도리어 로토스를 맛보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꿀처럼 달콤한 로토스 열매를 먹은 자는 누구든 소식을 전하러 돌아오려고도, 귀향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 머물며 로토스를 뜯어 먹고 귀향을 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우는 그들을 억지로 배로 끌고 와 우묵한 배의 노 젓는 자리 밑으로 끌어다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다운 전우들에게 날랜 배에 서둘러 오르라고 일렀습니다. 누구라도 로토스를 먹고 귀향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줄지어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105 거기서 우리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더 멀리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방자하고 법도를 모르는 키클롭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불사의 신들을 믿고 제 손으로 나무를 심지도 땅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밭을 갈지도 않는데 밀과 보리, 큼직한 송이로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까지 모든 것이 절로 자라났고, 제우스의 비가 그것들을 키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논하는 회의도 법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꼭대기의 우묵한 동굴에 살면서 저마다 제 자식과 아내에게 법을 내릴 뿐, 서로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116 그 포구 바깥에는 나지막한 섬이 하나 뻗어 있었습니다. 키클롭스의 땅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숲이 우거진 섬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발길이 들염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숲속에서 산꼭대기를 쫓아다니며 고생하는 사냥꾼들도 그 섬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거기에는 들염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섬은 가축 떼도 쟁기질도 차지하지 않아 늘 씨 뿌리지도 갈지도 않은 채 사람 없이 비어 있었고, 매매 우는 염소들만 먹여 살렸습니다. 키클롭스에게는 뺨을 붉게 칠한 배도 없고, 갑판 튼튼한 배를 지어 줄 배목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서로 오가듯 사람 사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볼일을 다 보았을 것이고, 그런 목수들이 이 섬도 살기 좋게 일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섬은 결코 나쁜 땅이 아니어서 철마다 모든 것을 내었을 것입니다. 잿빛 바닷가를 따라 물기 많고 부드러운 풀밭이 있어 포도나무가 시들 줄 모르고 자랐을 것이고, 땅이 평평해 갈기 좋은 데다 땅 밑이 무척 기름지니 철마다 키 큰 곡식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 섬에는 배 대기 좋은 포구도 있어서 밧줄이 필요 없었습니다. 닻돌을 던질 것도 고물 밧줄을 맬 것도 없이, 배를 뭍에 올려놓고 뱃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자고 재촉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포구 맨 안쪽 동굴 밑에서는 샘이 솟아 맑은 물이 흘렀고, 그 둘레에는 백양나무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배를 몰아 들어갔습니다. 어떤 신이 캄캄한 밤에 우리를 이끌어 주었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들 둘레에 안개가 짙게 끼었고, 달도 구름에 가려 하늘에서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판 튼튼한 배들이 뭍에 닿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섬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뭍으로 밀려와 부서지는 긴 물결도 보지 못했습니다. 배들이 뭍에 닿자 우리는 돛을 모두 내리고 파도치는 바닷가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깊이 잠들어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152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우리는 섬에 감탄하며 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들인 님프들이 전우들이 저녁거리를 얻도록 산에 사는 염소들을 몰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곧 배에서 굽은 활과 자루가 긴 사냥창을 가져와 세 무리로 나뉘어 염소를 쏘았고, 신이 곧 넉넉한 사냥감을 내려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배가 열두 척이었는데, 배마다 염소가 아홉 마리씩 돌아갔고, 나 혼자에게는 열 마리를 골라 주었습니다.

161 그렇게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앉아서 한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키코네스족의 신성한 도시를 빼앗을 때

저마다 항아리에 잔뜩 퍼 담아 둔 터라, 배에는 아직 붉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키클롭스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피우는 연기를 보고 그들의 목소리와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제야 우리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회의를 열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172 "내 정다운 전우들이여, 다른 이들은 이제 여기 머물러 있게. 나는 내 배와 내 전우들을 데리고 가서 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보겠네. 오만하고 사나워 도리를 모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나그네를 반기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인지 말일세."

177 이렇게 말하고 나는 배에 올라 전우들에게도 배에 오르고 고물 밧줄을 풀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줄지어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가까운 그 땅에 이르자, 땅끝 바닷가 가까이에 월계수로 지붕을 덮은 높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거기서는 양과 염소 같은 가축 떼가 많이 밤을 지냈고, 둘레에는 땅에 깊이 박은 돌과 키 큰 소나무와 잎이 높이 우거진 참나무로 높은 울타리를 둘러쳐 놓았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사내가 잠자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가축을 쳤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지내며 법도에 어긋난 일만 알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괴물이었습니다. 빵을 먹고 사는 사내 같지 않고, 높은 산들 가운데 다른 봉우리들에서 홀로 떨어져 우뚝 솟은 숲이 우거진 봉우리 같았습니다.

193 그때 나는 다른 정다운 전우들에게 배 곁에 머물며 배를 지키라고 이르고, 전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열두 명을 골라 길을 나섰습니다. 나는 검고 달콤한 포도주를 채운 염소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마로스를 지키는 아폴론의 사제, 에우안테스의 아들 마론이 준 술이었습니다. 그가 포이보스 아폴론의 나무 우거진 성스러운 숲에 살았으므로, 우리는 그를 공경하여 그와 아들과 아내를 지켜 주었고, 그는 내게 빛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잘 다듬은 황금 일곱 탈란톤과 온통 은으로 된 술동이를 주었고, 그다음에는 물을 섞지 않은 달콤한 포도주를 항아리 열두 개에 가득 퍼 담아 주었습니다. 신의 음료였습니다. 그 집의 종이나 시녀 가운데 그 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와 살림 맡은 여인 단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 꿀처럼 달콤한 붉은 포도주를 마실 때면, 그는 잔 하나 가득 채운 술에 물을 스무 잔이나 부어 섞었습니다. 그래도 술동이에서는 신묘하게 달콤한 향내가 피어올라, 그때는 정말 마시지 않고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힘을 두른 사나운 사내, 법도도 도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내를 만나게 되리라고 내 굳센 마음이 곧바로 짐작했으므로, 나는 그 술로 큰 가죽 부대를 가득 채우고 가죽 자루에 양식도 넣어 가져갔습니다.

216 우리는 서둘러 동굴에 이르렀지만 그는 안에 없었습니다. 기름진 가축 떼를 몰고 풀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간 우리는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시렁마다 치즈가 그득했고, 우리마다 새끼 양과 새끼 염소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따로 가두어, 먼저 난 것은 먼저 난 것끼리, 나중 난 것은 나중 난 것끼리, 갓 난 것은 또 갓 난 것끼리 떼어 놓았습니다. 그가 젖을 짜 담는 잘 만든 그릇들, 들통과 사발이 모두 유장으로 넘쳐 났습니다. 그때 전우들이 맨 먼저 내게 간청했습니다. 치즈를 좀 집어 들고 돌아가자고, 그런 다음 우리에서 새끼 염소와 새끼 양을 몰아 날랜 배에 싣고 서둘러 짠 바다로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내를 직접 보고, 그가 내게 손님 선물을 줄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그는 전우들에게 결코 사랑스러운 이가 될 리 없었습니다.

231 우리는 거기서 불을 피워 제물을 바치고, 우리도 치즈를 집어먹으며 동굴 안에 앉아 그가 가축 떼를 몰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저녁 지을 때 쓰려고 마른 장작을 한 아름 무겁게 지고 왔는데, 그것을 동굴 안에 내던지자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동굴 안쪽 깊숙이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젖을 짜는 기름진 가축을 모두 넓은 동굴로 몰아넣고, 숫양과 숫염소 같은 수컷들은 문밖의 깊은 울타리 바깥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문짝 돌을 높이 들어 올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육중한 바위였습니다. 바퀴 넷 달린 튼튼한 수레 스물두 대로도 그것을 땅에서 들어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가파르게 솟은 바위를 그는 입구에 갖다 막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양과 매매 우는 염소의 젖을 차례대로 짜고, 어미마다 새끼를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곧 흰 젖의 절반은 엉기게 하여 엮은 바구니에 모아 두고, 나머지 절반은 그릇에 담아 세워 두었습니다. 가져다 마시고 저녁에 곁들일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불을 지폈고, 그제야 우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252 "나그네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물길을 따라 배를 저어 왔느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느냐,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떠돌며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해적들처럼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냐?"

25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굵은 목소리와 그 거대한 몸집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259 "우리는 트로이에서 돌아오던 아카이아인이오. 고향으로 가려고 서둘렀는데, 온갖 바람에 밀려 큰 바다 위를 떠돌다가 다른 길, 다른

물길로 여기까지 왔소. 아마 제우스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셨나 보오. 우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오. 그분의 명성은 지금 하늘 아래 가장 크오. 그토록 큰 도시를 무너뜨리고 숱한 백성을 죽였으니 말이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무릎 앞에 이르렀소. 우리에게 손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선물이라도 주기를 바라오. 그것이 나그네에 대한 도리이니 말이오. 어르신, 신들을 두려워하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탄원하는 사람들이오. 제우스께서는 탄원자와 나그네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분, 나그네를 지키는 제우스로서 존중받아야 할 나그네들 곁을 늘 지켜 주시는 분이오."

272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곧 대답했습니다. "나그네, 너는 어리석구나. 아니면 아주 먼 데서 왔거나. 나더러 신들을 두려워하라느니 피하라느니 하다니. 우리 키클롭스는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도, 복된 신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가 훨씬 더 세니까. 제우스의 미움을 피하려고 너나 네 전우들을 살려 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이 시키지 않는 한은. 그런데 말해 봐라. 잘 만든 배를 어디에 대 놓고 왔느냐? 저 땅끝이냐, 아니면 가까운 데냐? 알고 싶구나."

281 그는 이렇게 떠보았지만, 많은 것을 아는 나를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속임수가 담긴 말로 그에게 되받아 말했습니다.

283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내 배를 부숴 버렸소. 당신네 땅끝 곶으로 몰아붙여 바위에 내던졌고, 바람이 바다에서 그 배를 실어 왔소. 나는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가파른 파멸을 겨우 벗어났소."

287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벌떡 일어나 전우들에게 손을 뻗더니, 둘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강아지처럼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골이 땅으로 흘러나와 땅을 적셨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마디마디 잘라 저녁을

지었고, 산에서 자란 사자처럼 내장과 살과 골수 찬 뼈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습니다. 그 끔찍한 짓을 보며 우리는 울면서 제우스께 두 손을 쳐들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넋이 나갔습니다. 키클롭스는 사람 고기를 먹고 그 위에 물 타지 않은 젖을 마셔 커다란 배를 채운 뒤, 동굴 안 가축들 사이에 길게 뻗고 누웠습니다. 나는 기개 높은 마음속으로, 그에게 다가가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손으로 더듬어 찾은 다음 횡격막이 간을 감싸고 있는 가슴팍을 찌를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높은 입구에 갖다 막은 육중한 바위를 우리 손으로는 밀어낼 수 없었으니, 그랬다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서 가파른 파멸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음하며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307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그는 불을 지피고 이름난 가축들의 젖을 차례대로 짜고 어미마다 새끼를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또 둘을 한꺼번에 움켜쥐어 아침을 지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그는 큰 문짝 돌을 가볍게 치우고 기름진 가축 떼를 동굴 밖으로 몰아냈고, 그러고는 화살 통에 뚜껑을 덮듯 손쉽게 다시 입구를 막았습니다. 키클롭스는 요란하게 휘파람을 불며 기름진 가축 떼를 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는 남아서 속으로 앙갚음을 궁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갚아 주고 싶었고, 아테나께서 내게 자랑할 승리를 내려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318 내 마음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으로 보였습니다. 양 우리 곁에 키클롭스의 큰 몽둥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 올리브나무로, 마르면 들고 다니려고 베어 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큰 바다를 건너는 노가 스무 개 달린 검은 배, 폭 넓은 짐배의 돛대만 했습니다. 길이도 굵기도 꼭 그만해 보였습니다. 나는 다가가서 한 발쯤 잘라 내어 전우들 곁에 놓고 깎아 다듬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이

매끈하게 다듬자 나는 곁에 서서 끝을 뾰족하게 깎고, 곧 활활 타는 불에 넣어 단단하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던 똥 밑에 잘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이들에게, 달콤한 잠이 그를 찾아올 때 누가 감히 나와 함께 말뚝을 들어 올려 그의 눈에 대고 비벼 돌릴지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뽑힌 이들은 바로 내가 고르고 싶었던 네 명이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다섯째로 꼽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가 털빛 고운 가축 떼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 기름진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넓은 동굴로 몰아넣었고, 깊은 울타리 바깥에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짐작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신이 그렇게 시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문짝 돌을 높이 들어 올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양과 매매 우는 염소의 젖을 차례대로 짜고, 어미마다 새끼를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또 둘을 한꺼번에 움켜쥐어 저녁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는 검은 포도주를 담은 나무 사발을 손에 들고 키클롭스 곁에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347 "키클롭스, 자, 사람 고기를 먹었으니 이 포도주를 마셔 보시오. 우리 배에 어떤 술이 실려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오. 당신이 나를 가엾게 여겨 집으로 보내 줄까 하여 바치는 술로 이것을 가져왔는데, 당신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미쳐 날뛰는구려. 모진 사람, 당신이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짓을 했으니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당신을 찾아오겠소?"

353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받아서 들이켰습니다. 그 달콤한 술을 마시고 몹시 기뻐하며 내게 또 달라고 했습니다.

355 "기꺼이 더 다오. 그리고 지금 당장 네 이름을 말해 봐라. 네가 기뻐할 손님 선물을 주마. 우리 키클롭스에게도 곡식을 내는 땅이

큼직한 송이로 포도주를 내 주고 제우스의 비가 그것을 키워 주지만, 이것은 암브로시아와 넥타르에서 흘러나온 한 줄기로구나."

36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에게 반짝이는 포도주를 다시 건넸습니다. 세 번 갖다주자, 그는 어리석게도 세 번 다 들이켰습니다. 포도주가 키클롭스의 정신을 휘감자, 그제야 나는 상냥한 말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364 "키클롭스, 내 이름난 이름을 물었으니 일러 주겠소. 그 대신 약속한 대로 내게 손님 선물을 주시오. 내 이름은 아무도(Outis)[1]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전우들도 모두 나를 아무도라고 부르오."

368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곧 대답했습니다. "아무도는 그 전우들 가운데 맨 나중에 먹고 다른 놈들은 먼저 먹어 주마. 그게 네 손님 선물이다."

371 그렇게 말하더니 키클롭스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굵은 목을 한쪽으로 꺾은 채 누워 있는데,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목구멍에서 포도주와 사람 살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에 짓눌린 그가 끄윽끄윽 게워 냈습니다. 그때 나는 수북한 잿더미 속에 말뚝을 찔러 넣어 달구면서,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는 자가 없도록 전우들을 말로 다독였습니다. 올리브나무 말뚝이 아직 푸른 생나무인데도 금세 불이 붙을 듯 무시무시하게 벌건 빛을 내자, 나는 그것을 불에서 꺼내 가까이 가져갔고 전우들은 내 둘레에 섰습니다. 어떤 신이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우들은 끝이 뾰족한 올리브나무 말뚝을 들어 그의 눈에 내리박았고, 나는 위에서 몸을 실어 말뚝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송곳으로 배 만들 재목에 구멍을 뚫을 때면, 아래에서 일꾼들이 가죽끈 양쪽 끝을 잡고 번갈아 당기고, 송곳은 쉬지 않고 빙빙 돌아갑니다. 꼭 그처럼 우리는 불에 달군 말뚝을 붙잡고 그의 눈 속에서 돌렸고, 뜨거운 피가 말뚝 둘레로

흘러내렸습니다. 타들어 가는 눈알에서 뿜어 나온 열기가 눈꺼풀과 눈썹을 모조리 그슬렸고, 눈 뿌리가 불에 타며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커다란 도끼나 자귀를 찬물에 담가 담금질하면 쇠가 요란하게 쉬익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해야 쇠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꼭 그처럼 올리브나무 말뚝 둘레에서 그의 눈이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키클롭스가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자 바위 동굴이 쩌렁쩌렁 울렸고, 우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말뚝을 눈에서 뽑아 미친 듯이 날뛰며 손에서 내던지고는, 둘레의 바람 부는 산마루마다 동굴에 사는 키클롭스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고함을 들은 키클롭스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 동굴 둘레에 서서, 무엇 때문에 그리 괴로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403 "폴리페모스야, 무엇이 그리 괴로워 거룩한 밤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느냐? 설마 누가 네 양 떼를 억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 누가 꾀나 힘으로 너를 죽이려 드는 것은 아니겠지?"

407 힘센 폴리페모스가 동굴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벗들아, 아무도 날 죽인다! 힘이 아니라 꾀로!"

409 그러자 그들이 날개 돋친 말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혼자 있는데 아무도 너를 힘으로 누르지 않는다면, 큰 제우스가 내리는 병이니 피할 길이 없다. 네 아버지 포세이돈 왕께나 빌어라."

413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고, 내 가슴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이름과 나무랄 데 없는 내 꾀(mētis)가 그를 감쪽같이 속여 넘겼기 때문입니다. 키클롭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다가 두 손으로 더듬어 입구에서 바위를 치우고, 몸소 입구에 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혹시 누가 양들 틈에 섞여 밖으로 나가면 붙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속으로 그만큼 어리석은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일이 가장 잘될지, 전우들과 나 자신이 죽음을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 온갖 계략과 꾀를 짜냈습니다. 큰 재앙이 가까이 닥쳐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잘 먹여 기른 털북숭이 숫양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잘생긴 양들로, 털빛이 검보랏빛이었습니다. 나는 법도에 어긋난 일만 아는 그 거대한 키클롭스가 잠자리로 쓰는 잘 꼰 버들가지로 그 양들을 소리 없이 세 마리씩 묶었습니다. 가운데 양이 사람을 하나 싣고, 양옆의 두 마리가 함께 걸으며 전우를 지켜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 세 마리가 사람 하나씩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축 가운데 단연 으뜸가는 숫양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등을 붙잡고 털 많은 배 밑으로 몸을 웅크려 매달렸습니다. 두 손으로는 신묘한 양털을 꽉 움켜쥐고, 견디는 마음으로 몸을 비튼 채 꼼짝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음하며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437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수컷 가축들이 풀밭으로 앞다투어 달려 나갔습니다. 암컷들은 젖을 짜지 못해 젖통이 터질 듯 부풀어 우리 둘레에서 매매 울었습니다. 주인은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며 똑바로 서 있는 양들의 등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어리석은 그는 털북숭이 양들의 가슴 밑에 사람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숫양은 가축 가운데 맨 나중에 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털의 무게와 빈틈없이 궁리하는 나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힘센 폴리페모스가 그 숫양을 더듬어 보고 말했습니다.

447 "내 숫양아, 어째서 오늘은 가축들 가운데 맨 나중에 동굴을 나서느냐? 전에는 양들 뒤에 처지는 일이 없었지. 늘 성큼성큼 걸어 가장 먼저 풀밭의 부드러운 꽃을 뜯고, 가장 먼저 강물에 이르고, 저녁이면 가장 먼저 우리로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맨 꼴찌로구나. 네 주인의 눈 때문에 서러워서냐? 못된 놈이 몹쓸 전우들과 함께 술로 내

정신을 꺾어 놓고 눈을 멀게 했지. 그 아무도라는 놈 말이다. 장담하건대 그놈은 아직 파멸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가 나처럼 생각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놈이 내 기운을 피해 어디 숨어 있는지 말해 줄 텐데. 그러면 그놈의 골이 얻어맞아 동굴 바닥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가 내게 안긴 이 재앙에서 내 가슴도 한결 후련해질 텐데."

461 이렇게 말하고 그는 숫양을 문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동굴과 울타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르자, 나는 먼저 숫양 밑에서 몸을 풀고 이어 전우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배에 닿을 때까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다리가 길고 기름이 오른 가축들을 서둘러 몰았습니다. 죽음을 벗어난 우리를 보고 정다운 전우들은 반가워했지만,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썹을 치켜 저마다에게 눈짓하여 울지 못하게 하고, 털빛 고운 가축들을 서둘러 배에 잔뜩 싣고 짠 바다로 떠나자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줄지어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큼 멀어지자, 나는 키클롭스에게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475 "키클롭스, 우묵한 동굴에서 힘으로 마구 잡아먹은 것이 알고 보니 힘없는 사내의 전우들은 아니었구나. 모진 사람, 네 집에 온 나그네들을 먹어 치우는 데 거리낌이 없었으니 네 못된 짓이 결국 너를 덮치고야 말았다. 그래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너를 벌했다."

480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가슴속으로 더욱 노하여, 큰 산꼭대기를 뜯어내 던졌습니다. 바위는 뱃머리가 검푸른 배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하마터면 키 끝에 닿을 뻔했습니다. 바위가 떨어지자 바다가 솟구쳤고, 바다에서 되밀려 오는 큰 물살이 배를 순식간에 뭍 쪽으로 떠밀어 기슭에 닿게 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아주 긴 장대를 잡아 배를 옆으로 밀어내고, 머리를 끄덕여 전우들을 재촉하며 재앙을 벗어나도록 노에

몸을 실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숙여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를 헤쳐 앞서보다 두 배쯤 멀어지자 나는 또 키클롭스에게 소리쳐 말하려 했고, 전우들은 저마다 사방에서 상냥한 말로 나를 말렸습니다.

494 "모진 사람, 어찌하여 사나운 사내의 성을 돋우려 하오? 방금도 그자가 바다에 바위를 던져 배를 다시 뭍으로 밀어붙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소. 우리 가운데 누가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을 그자가 듣기라도 하면, 뾰족한 바위를 던져 우리 머리와 배의 널빤지를 함께 박살 낼 것이오. 그자는 그만큼 멀리 던지니 말이오."

500 전우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 기개 높은 마음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난 마음으로 그에게 되받아 말했습니다.

502 "키클롭스,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 가운데 누가 네 눈이 어쩌다 이렇게 흉하게 멀었느냐고 묻거든,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가 네 눈을 멀게 했다고 말해라. 이타카에 집이 있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말이다."

506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아, 옛날에 일러 준 예언이 정녕 내게 들이닥쳤구나. 일찍이 이곳에 훌륭하고 큰 예언자가 하나 있었다. 에우리모스의 아들 텔레모스인데, 예언에 뛰어나 키클롭스 사이에서 예언을 하며 늙었지. 그가 내게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오디세우스의 손에 눈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늘 크고 잘생긴 사내가 엄청난 힘을 두르고 이곳에 오리라고 기다렸는데, 이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놈이 술로 나를 꺾어 놓고 내 눈을 멀게 했구나. 자, 오디세우스, 이리 오너라. 손님 선물을 주고, 이름난 땅을 뒤흔드는 신께 너를 바래다주시라고 부탁하마.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자부하신다. 그분만이 마음 내키면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복된 신들도 죽을 인간들도 다른 누구도 그러지 못한다."

522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대지를 흔드는 신조차네 눈만은 고쳐 주지 못할 것이 분명한 만큼, 너에게서 혼과 목숨을 빼앗아 하데스의 집으로 보내 버릴 수 있다면 좋겠다."

526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별이 총총한 하늘로 손을 뻗고 포세이돈 왕께 기도했습니다. "들어 주소서, 대지를 떠받치는 검푸른 머리채의 포세이돈이여. 제가 정녕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께서 제 아버지라고 자부하신다면,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 이타카에 집이 있는 라에르테스의 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잘 지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갈 운명이라면,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뒤늦게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집에 가서도 재앙을 만나게 하소서."

536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검푸른 머리채의 신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서보다 훨씬 큰 바위를 들어 올려 빙빙 돌리더니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 던졌습니다. 바위는 뱃머리가 검푸른 배 바로 뒤에 떨어졌는데, 하마터면 키 끝에 닿을 뻔했습니다. 바위가 떨어지자 바다가 솟구쳤고, 물결이 배를 앞으로 밀어 섬 기슭에 닿게 했습니다.

543 우리는 다른 배들, 갑판 튼튼한 배들이 한데 모여 기다리던 그 섬에 이르렀습니다. 전우들은 배 둘레에 앉아 슬피 울며 줄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르러 우리는 배를 모래밭에 올려놓고 파도치는 바닷가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묵한 배에서 키클롭스의 가축들을 끌어내어 나누었는데, 누구도 제 몫을 덜 받고 떠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가축을 나눌 때 정강이받이를 잘 댄 전우들은 숫양을 따로 나 혼자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그 숫양을 검은 구름의 제우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로노스의 아들께 제물로 잡아 넓적다리뼈를 태워 바쳤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께서는 제물을

거들떠보지 않으시고, 갑판 튼튼한 배들과 내 정다운 전우들을 모두 어떻게 없애 버릴지 궁리하고 계셨습니다.

556 그렇게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앉아서 한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제야 우리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전우들을 재촉하여 배에 오르고 고물 밧줄을 풀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줄지어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565 거기서 우리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더 멀리 배를 몰았습니다. 죽음을 벗어나 기뻤지만 정다운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

1. 그리스어 우티스(Outis)는 '아무도 ~않다'를 뜻하는 낱말을 이름처럼 쓴 것이다. 눈이 먼 키클롭스가 "아무도 나를 죽이려 한다"고 외치자 이웃들은 아무 일도 없는 줄 안다(9.408~412). 또 '아무도 ~않다면'(mē tis)은 '꾀'(mētis)와 소리가 같아, 오디세우스는 바로 뒤(9.414)에서 이 말장난을 한 번 더 쓴다.

제10권

1 그다음 우리는 아이올리아섬에 이르렀습니다. 불사의 신들이 아끼는 히포테스의 아들 아이올로스가 사는 곳으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이었는데, 섬 둘레는 깨뜨릴 수 없는 청동 성벽이 온통 감싸고 매끄러운 바위 절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의 홀에는 자식이 열둘 있었는데, 딸이 여섯, 한창때의 아들이 여섯이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랑하는 아버지와 믿음직한 어머니 곁에서 잔치를 벌였고, 곁에는 먹을 것이 셀 수 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낮이면 고기 굽는 냄새가 밴 집 안이 안뜰까지 떠들썩하게 울렸고, 밤이면 그들은 저마다 존귀한 아내 곁에서 담요를 덮고 구멍 뚫어 짠 침대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시와 아름다운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올로스는 한 달 내내 나를 정답게 대하며 일리오스와 아르고스인의 배와 아카이아인의 귀향을 하나하나 물었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나도 길을 떠나게 해 달라고, 바래다 달라고 청하자 그는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바래다줄 채비를 해 주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를 바람지기로 삼아 마음대로 바람을 잠재우기도 일으키기도 하게 해 두었으니, 그는 아홉 살배기 소의 가죽을 벗겨 부대를 만들고 그 안에 울부짖는 바람들의 길을 묶어 가두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은 끈으로 그 부대를 우묵한 배에 묶어 바람이 조금도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를 위해 서풍의 입김을 내보내 배들과 우리를 실어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28 우리는 아흐레 동안 밤낮없이 배를 몰았고,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고향 땅이 눈앞에 나타났고, 가까이 다가가자 불을 지피는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고향 땅에 더 빨리 닿으려고 나는 줄곧 돛 아랫줄을 손수 다루며 전우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터라, 지친 나에게 그때 달콤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전우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내가 기개 높은 히포테스의 아들 아이올로스에게서 금과 은을 선물로 받아 집으로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38 "허, 이 사람은 어느 사람들의 도시와 땅에 가든 모두에게 사랑받고 대접받는구먼. 트로이에서 빼앗은 아름다운 보물도 잔뜩 싣고 가는데, 똑같은 길을 다 마치고도 우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니 말일세. 이번에도 아이올로스가 정을 담아 이것을 선물로 주었네. 자, 어서 이게 무엇인지, 부대 안에 금과 은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세."

46 전우들이 이렇게 말하자 못된 생각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대를 풀자 바람이란 바람이 모두 튀어나왔고, 폭풍이 곧바로 그들을 낚아채 울부짖는 그들을 고향 땅에서 먼바다로 휩쓸어 갔습니다. 잠에서 깬 나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죽어 버릴까, 아니면 말없이 견디며 산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을까, 나무랄 데 없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따져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견디고 남았습니다. 나는 얼굴을 감싼 채 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들은 사나운 폭풍에 실려 다시 아이올리아섬으로 떠밀려 갔고, 전우들은 신음했습니다.

56 우리는 뭍에 내려 물을 길었고, 전우들은 날랜 배들 곁에서 곧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맛보고 나자, 나는 전령 하나와 전우 하나를 데리고 아이올로스의 이름난 집으로 갔습니다. 가 보니

그는 아내와 자식들 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설주 곁 문지방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64 "오디세우스, 어찌하여 다시 왔소? 어떤 못된 신이 당신을 덮쳤소? 우리는 당신이 고향과 집에, 어디든 당신이 바라는 곳에 닿도록 정성껏 보내 주지 않았소?"

67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가슴이 쓰라린 채 그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못된 전우들과 그 모진 잠이 나를 미혹에 빠뜨렸소. 벗들이여, 부디 바로잡아 주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지 않소."

70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매달렸지만,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72 "어서 이 섬에서 꺼져라, 살아 있는 자 가운데 가장 몹쓸 놈. 복된 신들에게 미움받는 사내를 보살피거나 바래다주는 것은 내 도리가 아니다. 꺼져라. 신들에게 미움받는 몸으로 여기 왔으니."

76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무겁게 신음하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더 멀리 배를 몰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탓에 바래다주는 바람은 더는 나타나지 않았고, 고된 노질에 사내들의 마음이 지쳐 갔습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밤낮없이 배를 몰았고, 이레째 되는 날 라모스의 가파른 도시,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의 텔레필로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양 떼를 몰고 들어오는 목자가 다른 목자를 부르면, 몰고 나가는 목자가 대답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내라면 그곳에서 소를 치고 또 은빛 양 떼를 쳐서 품삯을 두 몫이나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밤의 길과 낮의 길이 서로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난 포구에 들어갔습니다. 포구 양쪽으로 가파르게 솟은 바위가 죽 둘러쳐 있었고, 입구에는 앞으로 내민 곶 두 개가 서로 마주 보고 튀어나와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좁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양 끝이 흰 배들을 그 안으로 몰고 들어가, 우묵한 포구 안쪽에 서로 바짝 붙여 매어 두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크든 작든 물결이 이는 일이 없이 사방이 하얗게 잔잔했습니다. 나만 홀로 검은 배를 포구 밖 맨 끝자락에 세워 두고 바위에 밧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험한 바위 언덕에 올라가 망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소가 일한 자취도 사람이 일한 자취도 보이지 않았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우들을 보내 이 땅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내들인지 알아 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을 뽑고 셋째로 전령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 수레들이 높은 산에서 도시로 나무를 실어 나르는 평평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도시 앞에서 그들은 물을 길으러 나온 처녀, 라이스트리고네스족 안티파테스의 기품 있는 딸을 만났는데, 처녀는 사람들이 도시로 물을 길어 가는 샘, 맑은 물이 흐르는 아르타키아 샘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전우들은 처녀 곁에 다가서서 이 사람들의 왕은 누구이며 누구를 다스리느냐고 물었고, 처녀는 곧바로 아버지의 지붕 높은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름난 집에 들어가 보니 산꼭대기만 한 여인이 있었고, 그들은 그 여인을 보고 질겁했습니다. 여인은 곧 회의장에서 이름난 안티파테스, 제 남편을 불러왔는데, 그자는 전우들에게 비참한 파멸을 꾸몄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우 하나를 움켜쥐어 끼니를 지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뛰쳐나와 달아나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도시 곳곳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굳센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이 여기저기서 셀 수 없이 몰려왔는데, 사람 같지 않고 거인족 같았습니다. 그들이 바위 위에서 사람이 겨우 들 만한 큰 돌을 던지자, 곧 배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 소리와 배들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꿰어 끔찍한 잔칫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깊은 포구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뱃머리가 검푸른 배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우들을 재촉하며 재앙을 벗어나도록 노에 몸을 실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 모두 힘껏 바닷물을 저어 젖혔습니다. 내 배는 다행히 머리 위로 드리운 바위들에서 벗어나 바다로 빠져나왔지만, 다른 배들은 모두 그곳에서 한꺼번에 부서졌습니다.

133 거기서 우리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더 멀리 배를 몰았습니다. 죽음을 벗어나 기뻤지만 정다운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이아이아섬에 이르렀습니다. 머리채 고운 키르케, 사람의 말을 하는 무서운 여신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키르케는 흉한 마음을 품은 아이에테스의 친누이로, 두 남매는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는 헬리오스와 오케아노스의 딸인 어머니 페르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배를 몰아 배 대기 좋은 포구의 뭍에 댔는데, 어떤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뭍에 내려 이틀 밤 이틀 낮을 누운 채 지침과 괴로움으로 속을 태웠습니다. 머리채 고운 새벽 여신이 셋째 날을 가져오자, 나는 창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둘러 배 곁을 떠나 둘러볼 만한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인간들이 일한 자취를 보거나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험한 바위 언덕에 올라가 망을 보니, 길 넓은 땅에서 빽빽한 덤불과 숲 사이로 키르케의 홀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빛 어린 연기를 보자 나는 가서 알아볼까 하고 속으로도 마음으로도 곰곰이 따져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먼저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가서 전우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들을 보내 알아 오게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 끝이 휜 배 가까이 갔을 때, 홀로 걷는 나를 어떤 신이 가엾게 여겨 뿔이 높은 큰 사슴 한 마리를 바로 내 길 위로 보내 주었습니다. 사슴은 햇볕의 기운에 지쳐 물을 마시려고 숲속 풀밭에서 강으로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사슴이 강에서 나올 때 내가 등 한가운데 등뼈를 찌르자 청동 창이 몸을 꿰뚫고 나갔고, 사슴은 비명을 지르며 흙먼지 속에 쓰러져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나는 발로 딛고 서서 상처에서 청동 창을 뽑아 사슴을 땅에 뉘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덤불 가지와 버들가지를 꺾어 한 발쯤 되는 밧줄을 양쪽으로 잘 꼬아 엮은 다음,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네 발을 한데 묶었습니다. 워낙 큰 짐승이라 한 손으로 어깨에 메고 갈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목에 둘러메고 창에 몸을 기댄 채 검은 배로 갔습니다. 나는 사슴을 배 앞에 내려놓고, 전우들 곁에 하나하나 다가서서 상냥한 말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174 "벗들이여,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정해진 날이 오기 전에는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걸세. 자, 날랜 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동안 끼니를 챙기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마세."

178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곧 내 말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거둘 것 없는 바닷가에서 얼굴의 덮개를 벗고 사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워낙 큰 짐승이었습니다. 실컷 눈으로 보고 나서 그들은 손을 씻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앉아서 한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제야 우리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회의를 열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189 "고생하는 전우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게. 벗들이여, 우리는 어디가 서쪽 어둠이고 어디가 새벽인지,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는 해가 어디서 땅 밑으로 지고 어디서 떠오르는지 알지 못하네. 자, 아직 무슨 꾀가 남아 있을지 서둘러 궁리해 보세. 나는 없다고 생각하네만. 험한 바위 언덕에 올라가 보니, 끝없는 바다가 화관처럼 둘러싼 섬이었네.

섬은 낮게 누워 있고, 한가운데에서 빽빽한 덤불과 숲 사이로 연기가 오르는 것을 이 눈으로 보았네."

198 내가 이렇게 말하자, 라이스트리고네스족 안티파테스가 저지른 짓과 사람을 잡아먹는 기개 높은 키클롭스의 폭력을 떠올린 그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굵은 눈물을 쏟으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며 슬퍼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3 나는 정강이받이를 잘 댄 전우들을 모두 두 무리로 나누어 세고, 양쪽에 우두머리를 하나씩 정했습니다. 한쪽은 내가 이끌고, 다른 쪽은 신을 닮은 에우릴로코스가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청동 투구에 제비를 넣고 재빨리 흔들었고, 기개 높은 에우릴로코스의 제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전우 스물두 명과 함께 울면서 길을 떠났고, 뒤에 남은 우리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안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반들반들한 돌로 지은 키르케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 둘레에는 산에 사는 늑대와 사자들이 있었는데, 키르케가 해로운 약을 먹여 홀려 놓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고 도리어 긴 꼬리를 흔들며 둘레를 맴돌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개들이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 둘레를 꼬리 치며 맴돌 때가 있습니다. 주인은 늘 개들의 마음을 달래 줄 먹을 것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꼭 그처럼 발톱이 억센 늑대와 사자들이 전우들 둘레를 꼬리 치며 맴돌았습니다. 전우들은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머리채 아름다운 여신의 문간에 서서, 안에서 키르케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키르케는 커다란 불멸의 베틀을 오가며 베를 짜고 있었습니다. 여신들의 솜씨답게 곱고 우아하고 빛나는 베였습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 폴리테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전우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믿음직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226 "벗들이여, 안에서 누군가 큰 베틀을 오가며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네. 바닥이 온통 그 소리로 울리는군. 여신인지 여인인지 모르겠네. 자, 어서 소리쳐 불러 보세."

229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소리쳐 불렀습니다. 키르케가 곧 나와서 번쩍이는 문을 열고 그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두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우릴로코스만은 속임수가 있다고 짐작하고 밖에 남았습니다. 키르케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등받이 의자와 큰 의자에 앉히고, 치즈와 보릿가루와 노란 꿀을 프람노스 포도주에 섞어 주면서, 그들이 고향 땅을 아주 잊어버리도록 음식에 해로운 약을 섞었습니다. 키르케가 그것을 주자 그들이 들이켰고, 그러자 키르케는 곧바로 지팡이로 그들을 쳐서 돼지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도 목소리도 털도 생김새도 돼지가 되었지만, 정신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울면서 갇혀 있었고, 키르케는 그들에게 땅바닥에서 자는 돼지들이 늘 먹는 도토리와 상수리와 산수유 열매를 던져 주었습니다.

244 에우릴로코스는 곧 날랜 검은 배로 돌아와 전우들의 소식과 그들의 쓰라린 운명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에 가슴이 꿰뚫려 아무리 애를 써도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마음은 울음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놀라 그에게 캐묻자, 그제야 그는 다른 전우들의 파멸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251 "빛나는 오디세우스, 당신이 이른 대로 우리는 덤불 사이로 걸어갔소. 골짜기 안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반들반들한 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찾아냈소. 거기서 누군가 큰 베틀을 오가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는데, 여신인지 여인인지 몰랐소. 우리가 소리쳐 부르자 그 여인이 곧 나와서 번쩍이는 문을 열고 우리를 불러들였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두 따라 들어갔소. 나는 속임수가 있다고

짐작하고 밖에 남았소. 그런데 그들은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고, 아무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소. 나는 오랫동안 앉아서 지켜보았소."

261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은못 박은 커다란 청동 칼을 어깨에 둘러메고 활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같은 길로 다시 앞장서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 손으로 내 무릎을 붙잡고 애원하며, 울부짖듯 내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266 "제우스가 기른 이여, 가기 싫은 나를 그리로 끌고 가지 말고 여기 남겨 두시오. 당신도 돌아오지 못하고 당신 전우들 가운데 누구 하나 데려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아오. 차라리 여기 있는 이들과 함께 서둘러 달아납시다. 아직은 사악한 날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오."

27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에우릴로코스, 자네는 여기 이곳 우묵한 검은 배 곁에 남아 먹고 마시게. 나는 가겠네. 어쩔 수 없는 굳은 필연이 나를 몰아세우니."

274 이렇게 말하고 나는 배와 바다를 떠나 올라갔습니다. 신성한 골짜기를 지나 약을 많이 아는 키르케의 큰 집에 막 이르려 할 때, 황금 지팡이의 헤르메스가 집으로 가는 나와 마주쳤습니다. 수염이 막 돋기 시작한, 한창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281 "가엾은 사람, 이 땅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혼자 산등성이로 헤매고 다니느냐? 그대의 전우들은 저기 키르케의 집에서 돼지처럼 빽빽한 우리에 갇혀 있다. 그들을 풀어 주러 이리 오는 것이냐? 장담하건대 그대 자신도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처럼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자, 내가 그대를 재앙에서 건져 내고 구해 주마. 자, 이 좋은 약을 가지고 키르케의 집으로 가거라. 그대의 머리에서 사악한 날을 막아 줄 것이다. 키르케의 흉악한 꾀를 모두 일러 주마. 키르케는 그대에게 보리 음료를 만들어 주고 그 음식에 약을 탈 것이다. 그래도

그대를 홀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줄 이 좋은 약이 그렇게 두지 않을 테니까. 이제 하나하나 일러 주겠다. 키르케가 기다란 지팡이로 그대를 치거든, 그때 그대는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죽일 듯이 키르케에게 덤벼들어라. 그러면 키르케는 겁을 먹고 그대에게 함께 눕자고 청할 것이다. 그때는 여신의 잠자리를 마다하지 마라. 그래야 키르케가 그대의 전우들을 풀어 주고 그대도 보살펴 줄 것이다. 다만 복된 신들의 큰 맹세를 하라고 시켜라. 그대에게 다른 재앙이나 해를 꾸미지 않겠다고, 그대가 옷을 벗었을 때 그대를 비천하고 사내답지 못한 자로 만들지 않겠다고."

302 이렇게 말하고 아르고스를 죽인 신은 땅에서 약초를 뽑아 내게 주고 그 생김새를 보여 주었습니다. 뿌리는 검고 꽃은 젖처럼 하얬습니다. 신들은 그것을 몰리라고 부릅니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캐기는 어렵지만, 신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르메스는 숲이 우거진 섬을 지나 높은 올림포스로 떠났고, 나는 키르케의 집으로 갔는데, 가는 내내 내 가슴은 이리저리 들끓었습니다. 나는 머리채 아름다운 여신의 문간에 섰습니다. 거기 서서 소리쳐 부르자 여신이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신은 곧 나와서 번쩍이는 문을 열고 나를 불러들였고, 나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신은 나를 데리고 들어가 은못 박은 아름다운 의자, 정교하게 꾸민 의자에 앉혔습니다. 발밑에는 발판이 있었습니다. 여신은 내가 마시도록 황금 잔에 보리 음료를 만들어 주고, 마음속으로 흉계를 품은 채 그 안에 약을 넣었습니다. 여신이 그것을 주어 내가 들이켰지만 나를 홀리지는 못하자, 여신은 지팡이로 나를 치며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돼지우리로 가서 다른 전우들 틈에 누워라."

321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죽일 듯이 키르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여신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내

칼 밑으로 파고들어 내 무릎을 붙잡고, 울부짖듯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325 "그대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냐? 이 약을 마시고도 홀리지 않다니 놀랍구나. 이 약을 마시고 이빨 울타리를 한번 넘긴 사람치고 견뎌 낸 자는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그대 가슴에는 홀릴 수 없는 마음이 들어 있구나. 그대가 바로 길도 재주도 많다는 오디세우스로구나. 트로이에서 날랜 검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가 올 것이라고, 황금 지팡이의 아르고스를 죽인 신이 늘 내게 말했다. 자,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리고 우리 둘이 내 잠자리에 오르자. 잠자리와 사랑으로 몸을 섞고 서로 믿게 되도록."

336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키르케, 당신은 홀에서 내 전우들을 돼지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나더러 당신에게 상냥하게 굴라고 하오? 이제 나를 여기 붙잡아 두고 흉계를 품은 채 방으로 들어가 당신 잠자리에 오르라니, 내가 옷을 벗으면 나를 비천하고 사내답지 못한 자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오? 여신이여, 당신이 내게 다른 재앙이나 해를 꾸미지 않겠다고 큰 맹세를 해 주지 않는 한, 나는 당신 잠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소."

345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은 내가 시킨 대로 곧 맹세했습니다. 맹세를 다 마치자 그제야 나는 키르케의 더없이 아름다운 잠자리에 올랐습니다.

348 그사이 집 안에서는 시녀 넷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르케의 집에서 시중드는 이들로, 샘과 숲과 바다로 흘러드는 신성한 강에서 태어난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의자마다 고운 자줏빛 깔개를 덮고 그 밑에는 아마포를 깔았습니다. 또 하나는 의자 앞에 은 식탁을 펴 놓고 그 위에 황금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셋째는 은 술동이에 마음을 달게 하는 달콤한 포도주를 섞고 황금 잔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넷째는

물을 길어 와 큰 세발솥 밑에 불을 많이 지폈고, 물이 데워졌습니다. 번쩍이는 청동 솥에 물이 끓자, 그 시녀는 나를 욕조에 앉히고 큰 세발솥에서 물을 떠다 알맞게 섞어, 마음을 갉아먹는 지침이 내 팔다리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머리와 어깨 위로 부어 씻겨 주었습니다. 시녀는 나를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준 뒤 고운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고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은못 박은 아름다운 의자, 정교하게 꾸민 의자에 앉혔습니다. 발밑에는 발판이 있었습니다.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아름다운 황금 물병에 담아 와 은대야 위로 부어 손을 씻게 하고, 곁에 반들반들한 식탁을 펴 놓았습니다.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고,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 여러 가지 찬을 곁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먹으라고 권했지만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딴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고, 마음은 불길한 일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75 키르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깊은 슬픔에 잠겨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곁에 다가서서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378 "오디세우스, 어찌하여 그렇게 벙어리처럼 앉아 속만 태우며 먹을 것에도 마실 것에도 손을 대지 않느냐? 또 무슨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이미 굳은 맹세를 했다."

382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키르케, 도리를 아는 사내라면 누가 전우들을 풀어 주고 제 눈으로 보기 전에 먹고 마실 생각을 하겠소? 당신이 정녕 기꺼이 먹고 마시라고 권한다면, 내 정다운 전우들을 풀어 주어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오."

388 내가 이렇게 말하자 키르케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홀을 가로질러 나가 돼지우리 문을 열고, 아홉 살배기 살진 돼지처럼 생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마주 보고 늘어서자 여신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저마다에게 다른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존귀한 키르케가 앞서 준 해로운 약 때문에 돋았던 털이 그들의 팔다리에서 빠져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내가 되었는데, 전보다 더 젊고 훨씬 잘생기고 보기에도 더 컸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저마다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에게 그리움 섞인 울음이 북받쳐 올라 집 안이 무시무시하게 울렸고, 여신도 그들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400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가 내 곁에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이제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가거라. 먼저 배를 뭍으로 끌어올리고 재물과 배의 연장들을 모두 동굴에 갖다 두어라.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정다운 전우들을 데려오너라."

406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내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나는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 보니 정다운 전우들이 날랜 배 곁에서 굵은 눈물을 쏟으며 가엾게 울고 있었습니다. 들에 사는 송아지들이 배불리 풀을 뜯고 외양간으로 돌아오는 무리 지은 어미 소들을 맞아 다 함께 마주 뛰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 우리도 더는 송아지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송아지들은 쉴 새 없이 음매 울며 어미들 둘레를 뛰어다닙니다. 꼭 그처럼 전우들은 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내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마치 고향 땅, 자기들이 태어나 자란 거친 이타카의 도시에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울부짖듯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419 "제우스가 기른 이여, 당신이 돌아오니 우리는 고향 땅 이타카에 닿은 것처럼 기쁘오. 자, 다른 전우들의 파멸을 들려주시오."

422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배를 뭍으로 끌어올리고 재물과 배의 연장들을 모두 동굴에 갖다 두세. 그러고 나서 모두 서둘러 나를 따라오게. 키르케의 신성한 집에서 전우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걸세.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끝없이 넘쳐 나네."

428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곧 내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에우릴로코스만은 전우들을 모두 붙잡아 말리며 그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431 "아, 가엾은 사람들이여,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바라는가? 키르케의 홀로 내려가자고? 그 여인은 우리 모두를 돼지나 늑대나 사자로 만들어 억지로 그 큰 집을 지키게 할 걸세. 키클롭스가 저지른 짓과 똑같이 말일세. 그때도 우리 전우들이 그자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고, 이 대담한 오디세우스가 함께 따라갔지. 그들도 이 사람의 무모한 짓 때문에 죽었네."

43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속으로 곰곰이 따져 보았습니다. 그가 내 가까운 인척인데도, 튼튼한 허벅지 곁에서 날이 긴 칼을 뽑아 그의 머리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릴까 했습니다. 그러나 전우들이 저마다 사방에서 상냥한 말로 나를 말렸습니다.

443 "제우스의 핏줄이여, 당신이 그렇게 하라면 이 사람은 여기 배 곁에 남아 배를 지키게 둡시다. 우리는 키르케의 신성한 집으로 이끌어 주시오."

446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배와 바다를 떠나 올라갔습니다. 나의 무서운 꾸지람이 두려워 에우릴로코스도 우묵한 배 곁에 남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449 그사이 키르케는 집 안에서 다른 전우들을 정성껏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준 뒤 두툼한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 보니 그들은 모두 홀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알아보자 그들은 슬피 울었고, 집 안이 온통 울음소리로 울렸습니다.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가 내 곁에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457 "이제 더는 그렇게 섧게 울지 마라. 그대들이 물고기 많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뭍에서 사나운 사내들이 그대들을 얼마나 해쳤는지 나도 다 안다. 자, 먹을 것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거친 이타카, 고향 땅을 처음 떠나올 때 같은 기운을 가슴에 다시 얻을 때까지. 지금 그대들은 지치고 기가 꺾여 늘 고된 떠돌이 길만 떠올리고, 마음이 즐거울 틈이 없다. 그대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466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우리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다 채우도록 날마다 그곳에 앉아 한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다 되어 계절이 돌고 달이 기울고 긴 날들이 다 지나가자, 정다운 전우들이 나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472 "이상한 사람, 살아 돌아가 지붕 높은 집과 고향 땅에 닿는 것이 당신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면, 이제는 고향 땅을 생각하시오."

475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내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앉아서 한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전우들은 그늘진 홀 여기저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키르케의 더없이 아름다운 잠자리에 올라 여신의 무릎을 잡고 애원했고, 여신은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신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483 "키르케, 나를 집으로 보내 주겠다던 약속을 지켜 주시오. 내 마음은 벌써 떠나고 싶어 안달하고, 다른 전우들의 마음도 그렇소. 당신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들은 내 둘레에서 울며 내 가슴을 갉아먹소."

487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가 곧 대답했습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는 내 집에 머물지 마라. 그러나 그대들은 먼저 다른 길을 다 가서 하데스와 무서운 페르세포네의 집에 이르러야 한다. 테베의 테이레시아스, 눈먼 예언자의 혼백에게 신탁을 물어야 한다. 그의 정신은 아직 흔들림이 없다. 죽은 그에게도 페르세포네가 슬기를 주어 혼자서만 생각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이들은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496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울었고, 내 가슴은 더 살고 싶지도 햇빛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울며 뒹굴다 지쳐서야 나는 여신에게 대답했습니다.

501 "키르케, 누가 이 길을 이끌어 주겠소? 검은 배를 타고 하데스에게 가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소."

503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가 곧 대답했습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배를 이끌어 줄 길잡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펴고 앉아 있으면 북풍의 입김이 배를 실어 갈 것이다. 배를 타고 오케아노스를 건너면 나지막한 바닷가와 페르세포네의 숲이 나온다. 키 큰 백양나무와 열매를 일찍 떨구는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거기 소용돌이 깊은 오케아노스 가에 배를 대고, 그대는 곰팡내 나는 하데스의 집으로 걸어가거라. 거기서 피리플레게톤강과, 스틱스강 물에서 갈라져 나온 코키토스강이 아케론강으로 흘러든다. 울부짖는 두 강이 만나는 곳에 바위가 하나 있다. 영웅이여, 내가 이르는 대로 그곳에 바짝 다가가서 가로세로 한 자쯤 되는 구덩이를 파고, 그 둘레에 모든 죽은 이를 위해 부어 바칠 것을 부어라. 먼저 꿀 섞은 우유를, 그다음에는 달콤한 포도주를, 셋째로는 물을 붓고 그 위에 흰 보릿가루를 뿌려라. 그리고 죽은 이들의 힘없는 머리들에게 간절히 빌며 약속해라. 이타카에 돌아가면 새끼 낳지 않은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홀에서 제물로 바치고 장작더미에 좋은 것들을 가득 쌓겠다고, 테이레시아스에게는 따로 그대들의 가축 가운데 가장 빼어난 온통 검은 숫양을 바치겠다고. 기도로 이름난 죽은 이들의 무리에게 빌고 나면, 숫양 한 마리와 검은 암양 한 마리를 에레보스[1] 쪽으로 머리를 돌려 제물로 잡고, 그대 자신은 강물 쪽으로 몸을 돌려 서 있어라. 그러면 죽은 이들의 혼백이 숱하게 몰려올 것이다. 그때 전우들을 재촉하여, 무자비한 청동에 목이 따여 누워 있는 양들의 가죽을 벗겨 불태우고 신들께, 굳센 하데스와 무서운 페르세포네께 기도하라고 일러라. 그대 자신은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앉아, 테이레시아스에게 묻기 전에는 죽은 이들의 힘없는 머리들이 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라. 백성의 우두머리여, 그러면 곧 예언자가 와서 그대의 길과 뱃길의 길이와 귀향을, 물고기 많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일러 줄 것이다."

541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곧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키르케는 내게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고, 님프 자신은 얇고 우아한 은빛 큰 겉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황금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너울을 썼습니다. 나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전우들 곁에 하나하나 다가서서 상냥한 말로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548 "이제 더는 누워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지 말고 떠나세. 존귀한 키르케가 내게 길을 일러 주었네."

550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나는 전우들을 모두 무사히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엘페노르라는 가장 어린 전우가 있었는데, 싸움에 아주 용감하지도 않고 생각이 그리 야무지지도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키르케의 신성한 집에서 전우들과 떨어져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이 움직이는 왁자한 소리와 발소리를 듣자 그는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어 긴 사다리로 돌아 내려가는 것을 잊고 지붕에서 곧장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졌고, 그의 혼백은 하데스로 내려갔습니다.

561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아마 사랑하는 고향 땅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키르케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정해 주었네. 하데스와 무서운 페르세포네의 집으로 가서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신탁을 물어야 하네."

566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나 울며 슬퍼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569 우리가 굵은 눈물을 쏟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가는 동안, 키르케는 어느새 검은 배 곁으로 가서 숫양 한 마리와 검은 암양 한 마리를 매어 두었습니다. 여신은 우리 곁을 가볍게 지나쳐 갔습니다. 신이 원하지 않는데, 이리저리 오가는 신을 누가 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1. 에레보스(Erebos)는 땅 밑, 저승으로 이어지는 어둠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제물의 머리를 그 어둠 쪽, 곧 땅 밑으로 향하게 하라는 뜻이다.

제11권

1 배가 있는 바닷가로 내려간 우리는 먼저 배를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리고, 검은 배에 돛대를 세우고 돛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려다 배에 싣고, 우리도 굵은 눈물을 쏟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머리채 고운 키르케, 사람의 말을 하는 무서운 여신이 뱃머리가 검푸른 배 뒤쪽에서 돛을 가득 채우는 순풍을 보내 주었는데, 훌륭한 길동무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배 안의 연장들을 하나하나 손본 다음 앉아 있었고, 바람과 키잡이가 배를 몰아갔습니다. 배는 온종일 돛을 활짝 편 채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습니다.

13 배는 물살 깊은 오케아노스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킴메리오이족의 고장과 도시가 있었는데, 안개와 구름에 싸여 있었습니다. 빛나는 해가 별이 총총한 하늘로 오를 때도,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도 그들을 햇살로 비추어 보는 일이 없었고, 가엾은 인간들 위로 끔찍한 밤이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러 배를 뭍에 대고 양들을 끌어낸 다음, 오케아노스의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 키르케가 일러 준 곳에 이르렀습니다.

23 거기서 페리메데스와 에우릴로코스가 제물을 붙잡았고, 나는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가로세로 한 자쯤 되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둘레에 모든 죽은 이를 위해 부어 바칠 것을 부었습니다. 먼저 꿀 섞은 우유를, 그다음에는 달콤한 포도주를, 셋째로는 물을 붓고

그 위에 흰 보릿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힘없는 머리들에게 간절히 빌며 약속했습니다. 이타카에 돌아가면 새끼 낳지 않은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홀에서 제물로 바치고 장작더미에 좋은 것들을 가득 쌓겠다고, 테이레시아스에게는 따로 우리 가축 가운데 가장 빼어난 온통 검은 숫양을 바치겠다고. 맹세와 기도로 죽은 이들의 무리에게 빌고 나서 나는 양들을 붙잡아 구덩이 위에서 목을 땄고, 검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죽은 이들의 혼백이 에레보스에서 몰려나왔습니다. 신부들과 장가들지 못한 젊은이들, 고생을 많이 한 노인들, 갓 슬픔을 안은 여린 처녀들, 그리고 청동 날을 단 창에 찔린 숱한 사내들,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싸움터에서 죽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혼백이 신묘한 울부짖음을 내며 구덩이 둘레로 여기저기서 몰려들자, 파랗게 질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나는 전우들을 재촉하여, 무자비한 청동에 목이 따여 누워 있는 양들의 가죽을 벗겨 불태우고 신들께, 굳센 하데스와 무서운 페르세포네께 기도하라고 일렀습니다. 나 자신은 허벅지 곁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앉아, 테이레시아스에게 묻기 전에는 죽은 이들의 힘없는 머리들이 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51 맨 먼저 전우 엘페노르의 혼백이 왔습니다. 다른 일에 쫓기던 우리가 그의 몸을 울어 주지도 묻어 주지도 못한 채 키르케의 홀에 남겨 두고 왔으니, 그는 아직 길 넓은 땅 밑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자 나는 눈물이 났고 마음속으로 가엾게 여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57 "엘페노르, 어떻게 이 안개 낀 어둠 속으로 왔나? 걸어온 자네가 검은 배를 탄 나보다 먼저 왔구먼."

59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어떤 신이 내린 몹쓸

운명과 말할 수 없이 많은 술이 나를 미혹에 빠뜨렸소. 키르케의 집에서 누워 자다가 긴 사다리로 돌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깜박 잊고 지붕에서 곧장 거꾸로 떨어졌소. 목뼈가 부러졌고, 내 혼백은 하데스로 내려왔소. 이제 여기 없는 이들, 뒤에 남은 이들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무릎을 잡고 비오. 당신 아내와, 어린 당신을 길러 준 아버지와, 당신이 홀에 홀로 두고 온 텔레마코스의 이름으로 비오. 당신이 이곳 하데스의 집을 떠나 잘 만든 배를 아이아이아섬에 대리라는 것을 나는 아오. 왕이여, 그곳에 가거든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오. 떠나면서 나를 울어 주지도 묻어 주지도 않은 채 버려두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신들의 노여움을 부르는 까닭이 되지 않도록 말이오. 내가 지녔던 무구와 함께 나를 태우고, 잿빛 바닷가에 무덤을 쌓아 주시오. 뒷사람들도 이 불운한 사내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이 일을 다 해 주고, 살아서 내가 전우들과 함께 젓던 노를 내 무덤 위에 꽂아 주시오."

79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가엾은 사람, 자네를 위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겠네."

81 우리 둘은 그렇게 슬픈 말을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쪽에서 피 위로 칼을 뻗어 지키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전우의 허깨비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84 그때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혼백이 왔습니다. 기개 높은 아우톨리코스의 딸 안티클레이아였습니다. 내가 신성한 일리오스로 떠날 때는 살아 계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를 보자 나는 눈물이 났고 마음속으로 가엾게 여겼지만, 가슴이 몹시 아파도 테이레시아스에게 묻기 전에는 어머니가 먼저 피에 가까이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90 이윽고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이 황금 왕홀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가엾은 사람, 어찌하여

햇빛을 떠나 죽은 이들과 이 즐거움 없는 곳을 보러 왔느냐? 자, 구덩이에서 물러서고 날카로운 칼을 치워라. 내가 피를 마시고 그대에게 숨김없는 사실을 말해 주겠다."

9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뒤로 물러서서 은못 박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가 검은 피를 마시고 나자, 나무랄 데 없는 예언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100 "빛나는 오디세우스, 그대는 꿀처럼 달콤한 귀향을 찾고 있지만 신이 그 길을 고되게 만들 것이다. 땅을 뒤흔드는 신이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노하여, 그는 마음속에 앙심을 품었다. 그래도 그대가 그대 마음과 전우들의 마음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비록 고통을 겪더라도 그대들은 아직 고향에 닿을 수 있다. 그대가 보랏빛 바다를 벗어나 잘 만든 배를 트리나키아섬에 처음 댈 때, 그대들은 거기서 풀을 뜯는 헬리오스의 소와 살진 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듣는 헬리오스의 가축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해치지 않고 귀향만 생각한다면, 비록 고통을 겪더라도 그대들은 아직 이타카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해친다면, 그때는 그대의 배와 전우들에게 파멸이 닥칠 것이라고 나는 예언한다. 그대 자신은 설령 벗어난다 해도,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뒤늦게 비참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재앙을 만날 것이다. 방자한 사내들이 신에 버금가는 그대의 아내에게 구혼하며 구혼 선물을 내밀고, 그대의 살림을 먹어 치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돌아가서 그들의 폭력을 갚아 줄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홀에서 꾀로든 드러내 놓고 날카로운 청동으로든 구혼자들을 죽이고 나면, 손에 잘 맞는 노를 하나 들고 길을 떠나거라. 바다를 모르고 소금 섞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때까지 가거라. 그들은 뱃을 붉게 칠한 배도, 배의 날개인 손에 잘 맞는 노도

모른다. 그대에게 아주 뚜렷한 표지를 일러 주마. 그대가 놓치지 않을 표지다.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나그네가 그대더러 빛나는 어깨에 곡식을 까부르는 넉가래를 메고 있다고 말하거든, 그때 손에 잘 맞는 노를 땅에 꽂고, 포세이돈 왕께 숫양과 황소와 암퇘지를 올라타는 수퇘지를 훌륭한 제물로 바쳐라.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께 차례대로 빠짐없이 신성한 큰 제물을 바쳐라. 그대에게는 바다에서 아주 부드러운 죽음이 찾아와, 넉넉한 노년에 지친 그대를 데려갈 것이다. 그대 둘레의 백성은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이르는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다."

13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여, 이 일들은 신들께서 몸소 실을 자아 정해 두신 일이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저기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혼백이 보입니다. 피 가까이 말없이 앉아 계신데, 아들인 저를 마주 보지도 말을 건네지도 못하십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145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곧 대답했습니다. "쉬운 말을 일러 주어 그대 마음에 새겨 주마. 죽은 이들 가운데 그대가 피 가까이 오게 하는 이는 그대에게 숨김없는 사실을 말할 것이고, 그대가 막는 이는 다시 물러갈 것이다."

150 이렇게 말하고 테이레시아스 어른의 혼백은 예언을 다 들려준 뒤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머물러 있었고, 마침내 어머니가 와서 검은 피를 마시더니 곧 나를 알아보고 울부짖듯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155 "내 아들아, 산 몸으로 어떻게 이 안개 낀 어둠 속으로 왔느냐? 산 사람이 이곳을 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사이에는 큰 강들과 무서운 물줄기들이 가로놓여 있고, 무엇보다 먼저 오케아노스가 있어서 잘 만든

배가 없으면 걸어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다. 이제야 트로이에서 배와 전우들과 함께 오랫동안 떠돌다가 여기 온 것이냐? 아직 이타카에 가지 못했고, 홀에서 아내도 보지 못했느냐?"

163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신탁을 물어야 할 일이 있어 하데스에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아카이아 땅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우리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트로이인과 싸우려고 고귀한 아가멤논을 따라 좋은 말이 많은 일리오스로 처음 길을 나선 뒤로, 저는 늘 고난을 겪으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긴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어떤 운명이 어머니를 쓰러뜨렸습니까? 오랜 병이었습니까, 아니면 화살을 쏟아붓는 아르테미스가 찾아와 부드러운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까? 제가 두고 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제 명예의 몫이 아직 그들 곁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다른 사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제가 더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들 하는지. 버젓이 혼례를 올려 맞은 제 아내의 뜻과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 곁에 머물며 모든 것을 굳게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아내로 맞아 갔는지."

180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존귀한 어머니가 곧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참는 마음으로 네 홀에 꿋꿋이 머물러 있고, 밤이고 낮이고 눈물을 쏟으며 비참하게 시들어 간다. 네 아름다운 명예의 몫은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다. 텔레마코스가 평온하게 성역의 땅을 거두고, 재판하는 사내라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고루 나눈 잔치를 벌인다. 모두가 그를 부르니까. 네 아버지는 그곳 시골에 머물며 도시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에게는 침대도 외투도 반들거리는 깔개도 잠자리로 없다. 겨울이면 집 안에서 종들이 자는 곳, 불 가까운 잿더미 속에서 자고 살갗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다. 여름이 오고 무르익은 가을이 오면,

포도밭 비탈 여기저기에 떨어진 나뭇잎을 쌓아 낮은 잠자리를 마련한다. 거기 누워 그는 슬퍼하며 네 귀향을 그리고, 가슴속 슬픔을 키운다. 그에게 고된 노년이 닥쳤다. 나도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운명을 맞았다. 눈 밝은, 화살을 쏟아붓는 여신이 홀에 찾아와 부드러운 화살로 나를 쏘아 죽인 것도 아니고, 끔찍하게 시들게 하여 팔다리에서 목숨을 앗아가곤 하는 병이 나를 찾아온 것도 아니다. 빛나는 오디세우스야, 너를 그리는 마음과 네 슬기와 네 다정함이 꿀처럼 달콤한 내 목숨을 앗아갔다."

204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백을 끌어안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세 번 다가가 끌어안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세 번 다 그림자처럼, 꿈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슬픔이 더욱 커졌고, 나는 어머니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210 "어머니, 붙잡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저를 왜 기다려 주지 않으십니까? 하데스에서나마 서로 두 팔로 끌어안고 차가운 울음을 실컷 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니면 위엄 있는 페르세포네가 저를 더 슬피 울며 탄식하게 하려고 이 허깨비를 제게 보냈습니까?"

215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존귀한 어머니가 곧 대답했습니다. "아아, 내 아들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운한 아이야, 제우스의 딸 페르세포네가 너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니, 이것이 인간의 법도이다. 힘줄이 더는 살과 뼈를 붙들고 있지 않고, 목숨이 흰 뼈를 떠나자마자 타오르는 불의 거센 기운이 그것들을 사그라뜨린다. 혼백은 꿈처럼 날아가 이리저리 떠돈다. 어서 빨리 햇빛 쪽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을 알아 두었다가 나중에 네 아내에게 들려주어라."

225 우리 둘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 위엄 있는 페르세포네가 부추겨 보낸 여인들, 영웅들의 아내와 딸이었던 여인들이 모두 왔습니다. 여인들은 검은 피 둘레에 떼 지어 모여들었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에게 물어볼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튼튼한 허벅지 곁에서 날이 긴 칼을 뽑아 들고, 모두가 한꺼번에 검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차례로 다가와 저마다 제 가문을 밝혔고, 나는 모두에게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235 거기서 나는 맨 먼저 지체 높은 아버지의 딸 티로를 보았습니다. 티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살모네우스의 자식이라고 하고, 아이올로스의 아들 크레테우스의 아내였다고 했습니다. 티로는 신 같은 강 에니페우스를 사랑했습니다. 땅 위를 흐르는 강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강이었는데, 티로는 에니페우스의 아름다운 물줄기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대지를 떠받치는, 땅을 뒤흔드는 신이 그 강의 모습을 하고 소용돌이치는 강어귀에서 티로 곁에 누웠습니다. 산만 한 자줏빛 물결이 활처럼 휘어 둘레에 솟아올라 신과 죽을 운명의 여인을 감추었고, 신은 처녀의 띠를 풀고 잠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랑의 일을 다 마치자 신은 티로의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248 "여인아, 이 사랑을 기뻐하여라. 한 해가 돌아오면 그대는 빛나는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불사의 신들과 함께한 잠자리는 헛되지 않으니까. 그대는 그 아이들을 보살펴 길러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되 입을 다물고 내 이름을 말하지 마라. 나는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다."

253 이렇게 말하고 신은 물결치는 바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티로는 아이를 배어 펠리아스와 넬레우스를 낳았고, 두 아들은 모두 위대한 제우스의 굳센 시종이 되었습니다. 펠리아스는 땅이 넓은 이올코스에서 양을 많이 치며 살았고, 넬레우스는 모래 많은 필로스에서 살았습니다.

여인들의 여왕인 티로는 크레테우스에게도 아이손과 페레스와 전차 타고 싸우기를 즐기는 아미타온을 낳아 주었습니다.

260 그다음에는 아소포스강의 딸 안티오페를 보았습니다. 안티오페는 제우스의 품에서도 잠을 잤다고 자랑했고, 두 아들 암피온과 제토스를 낳았습니다. 둘 다 힘이 셌어도 땅이 넓은 테베에 성탑 없이는 살 수 없었으므로, 이들은 처음으로 일곱 성문의 테베에 터전을 닦고 성탑을 둘렀습니다.

266 그다음에는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를 보았습니다. 알크메네는 위대한 제우스의 품에 안겨, 대담하게 버티는 사자의 마음을 지닌 헤라클레스를 낳았습니다. 기세 높은 크레온의 딸 메가라도 보았는데, 기운이 지칠 줄 모르는 암피트리온의 아들이 아내로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271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아름다운 에피카스테도 보았습니다. 에피카스테는 알지 못한 채 제 아들과 혼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아들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했고 신들은 곧 그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신들의 끔찍한 뜻 때문에 사랑스러운 테베에서 고통을 겪으며 카드모스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에피카스테는 슬픔에 사로잡혀 높은 들보에 올가미를 높이 걸어 목을 매고, 굳센 문지기 하데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에리니에스가 이루어 내는 숱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281 더없이 아름다운 클로리스도 보았습니다. 오래전 넬레우스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 셀 수 없이 많은 구혼 선물을 주고 아내로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클로리스는 한때 미니아이족의 오르코메노스를 힘으로 다스린 이아소스의 아들 암피온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클로리스는 필로스의 왕비가 되어 넬레우스에게 빛나는 자식들, 네스토르와

크로미오스와 늠름한 페리클리메노스를 낳아 주었습니다. 이들 다음으로 기품 있는 페로를 낳았는데, 보는 이마다 감탄하는 처녀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이들이 모두 페로에게 구혼했지만, 넬레우스는 이피클로스의 힘이 지키는 뿔 굽고 이마 넓은 소 떼를 필라케에서 몰고 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딸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소들이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예언자 하나만이 그 소들을 몰아 오겠다고 나섰지만, 신이 정한 모진 운명과 끔찍한 사슬과 들판의 소치기들이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다 달이 차고 날이 다 지나 한 해가 돌아오고 계절이 다시 찾아오자, 마침내 이피클로스의 힘이 신의 뜻을 모두 일러 준 그를 풀어 주었고, 그렇게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298 틴다레오스의 아내 레다도 보았습니다. 레다는 틴다레오스에게 마음 굳센 두 아들, 말을 길들이는 카스토르와 주먹 싸움에 뛰어난 폴리데우케스를 낳아 주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땅이 두 사람을 산 채로 품고 있었으니, 그들은 땅 밑에서도 제우스에게서 명예를 받아 하루씩 번갈아 어떤 날은 살아 있고 어떤 날은 다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과 같은 명예를 몫으로 받았습니다.

305 그다음에는 알로에우스의 아내 이피메데이아를 보았습니다. 이피메데이아는 포세이돈과 살을 섞었다고 했고, 신에 버금가는 오토스와 멀리까지 이름난 에피알테스, 두 아들을 낳았지만 둘 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내는 땅이 기른 이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키가 컸고, 이름난 오리온 다음으로는 가장 잘생겼습니다. 아홉 살에 이미 몸통 너비가 아홉 자, 키가 아홉 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의 불사의 신들에게까지 소란한 전쟁의 싸움을 일으키겠다고 을러댔고,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올림포스 위에 오사산을, 오사산 위에 잎이 흔들리는 펠리온산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한창때에 이르렀더라면

그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고운 레토가 낳은 제우스의 아들이, 그들의 관자놀이 밑에 구레나룻이 돋고 턱이 고운 솜털로 덮이기도 전에 둘을 죽였습니다.

321 파이드라와 프로크리스와, 흉한 마음을 품은 미노스의 딸 아름다운 아리아드네도 보았습니다. 테세우스가 일찍이 아리아드네를 크레타에서 신성한 아테네의 언덕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 전에 디오니소스의 고발로 아르테미스가 바닷물이 사방을 감싼 디아섬에서 아리아드네를 죽였으니 함께 살아 보지 못했습니다.

326 마이라와 클리메네와, 사랑하는 남편을 팔고 값진 황금을 받은 가증스러운 에리필레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영웅들의 아내와 딸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거룩한 밤이 다 가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날랜 배로 전우들에게 가든 여기서 자든 말입니다. 나를 바래다주는 일은 신들과 여러분이 맡아 주실 것입니다.

33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그늘진 홀 안의 사람들은 이야기에 홀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하얀 팔의 아레테가 먼저 말을 꺼냈다.

336 "파이아케스인들이여, 이 사내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오? 생김새와 키와 속에 든 고른 생각이 말이오. 더욱이 이 사람은 내 손님이오. 그러나 여러분도 저마다 그 명예를 나누어 가지고 있소. 그러니 서둘러 떠나보내지 말고, 이토록 아쉬운 처지의 사람에게 선물을 아끼지 마시오. 신들의 뜻으로 여러분의 홀에는 재물이 많이 쌓여 있소."

342 그들 가운데서 늙은 영웅 에케네오스도 말했다. 파이아케스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이였다. "벗들이여, 사려 깊은 왕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한 바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소. 그 말씀을 따릅시다. 그러나 행동도 말도 여기 계신 알키노오스께 달려 있소."

347 알키노오스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서 노 젓기를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을 다스리는 한,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손님은 귀향을 몹시 바라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물을 모두 마련할 때까지 내일까지는 참고 머물러 주시오. 그를 바래다주는 일은 모든 사내가,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맡을 것이오. 이 고장의 힘은 내게 있으니 말이오."

354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하신 분이여, 여러분이 나더러 한 해라도 이곳에 머물라 하시고, 바래다줄 채비를 서둘러 주시며 빛나는 선물을 주신다면 나는 그것도 바라겠습니다. 손에 더 많은 것을 들고 사랑하는 고향 땅에 닿는다면 그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온 것을 이타카에서 보는 모든 사람에게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을 것입니다."

362 알키노오스가 대답했다. "오디세우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결코 사기꾼이나 협잡꾼이 아니오. 검은 땅은 널리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 내지만, 그들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데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오. 그러나 당신의 말에는 고운 맵시가 있고, 그 안에는 훌륭한 생각이 들어 있소. 당신은 노래꾼처럼 솜씨 있게, 모든 아르고스인과 당신 자신이 겪은 비참한 시름을 이야기해 주었소. 자, 이것을 말해 주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당신과 함께 일리오스로 갔다가 거기서 운명을 맞은 신에 버금가는 전우들 가운데 누구를 보았소? 이 밤은 참으로 길고 끝이 없소. 아직 홀에서 잠자리에 들 때가 아니오. 그 놀라운 일들을 내게 들려주시오. 당신이 홀에서 당신의 시름을 견디며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고귀한 새벽 여신이 올 때까지라도 견딜 수 있소."

377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하신 분이여, 긴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왕께서 아직 더 듣기를 바라신다면, 나는 이보다 더 가엾은 다른 이야기도 마다하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죽은 내 전우들의 시름 말입니다. 그들은 트로이인의 비통한 함성은 벗어났지만, 못된 여인의 뜻 때문에 귀향길에 죽었습니다."

385 순결한 페르세포네가 여인들의 혼백을 여기저기로 흩어 보내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혼백이 슬픔에 잠겨 왔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기스토스의 집에서 죽어 운명을 맞은 다른 이들의 혼백이 그 둘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피를 마시자 곧 나를 알아보고, 굵은 눈물을 쏟으며 소리 높여 울면서 나를 붙잡으려고 두 팔을 뻗었지만, 그에게는 예전에 굽은 팔다리에 깃들어 있던 단단한 힘도 기운도 더는 없었습니다.

395 그를 보자 나는 눈물이 났고 마음속으로 가엾게 여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긴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어떤 운명이 당신을 쓰러뜨렸소? 포세이돈이 끔찍한 바람의 거센 입김을 일으켜 배 위에서 당신을 쓰러뜨렸소? 아니면 뭍에서 소 떼와 아름다운 양 떼를 몰아가려다가, 혹은 도시와 여인들을 두고 싸우다가 사나운 사내들에게 해를 입었소?"

404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곧 대답했습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포세이돈이 끔찍한 바람의 거센 입김을 일으켜 배 위에서 나를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뭍에서 사나운 사내들이 나를 해친 것도 아니오. 아이기스토스가 내게 죽음과 운명을 꾸며 저주받을 아내와 함께 나를 죽였소. 나를 집으로 불러 저녁을 먹이고는, 누가 구유 곁에서 소를 잡듯이 죽였소. 그렇게 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다른 전우들도 내 둘레에서 쉴 새 없이 죽어 갔소. 큰 권세를 지닌 부자의 집에서 혼인 잔치나 추렴 잔치나 풍성한 잔치를 벌일 때면 흰 엄니의 돼지들을 잡소. 꼭 그처럼 전우들이 도륙되었소. 당신은 이미 숱한 사내들의 죽음을 보았소. 한 사람씩 쓰러지는 것도, 거센 싸움판에서 죽어 가는 것도 보았소. 그러나 그 광경을 보았다면 당신도 마음속으로 무엇보다 슬퍼했을 것이오. 술동이와 음식이 가득한 식탁 둘레에 우리가 홀 안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바닥은 온통 피로 끓어올랐소. 나는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의 가장 애처로운 목소리도 들었소. 꾀가 음흉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내 곁에서 그 여인을 죽였소. 나는 칼에 찔려 죽어 가면서 손을 들어 땅을 쳤소. 그런데 낯 두꺼운 그 여인은 나를 버려두고 가 버렸소. 내가 하데스로 가는데도 손으로 내 눈을 감겨 주지도, 입을 다물려 주지도 않았소. 이처럼 마음속에 그런 짓을 품는 여인보다 더 끔찍하고 더 염치없는 것은 없소. 그 여인이 꾸민 짓이 바로 그렇게 몹쓸 짓이었소. 버젓이 혼례를 올린 제 남편을 죽일 꾀를 꾸몄으니 말이오. 나는 자식들과 종들에게 반가운 얼굴로 집에 돌아가리라 생각했소. 그런데 그 여인은 더없이 흉한 일을 꾸며 제 몸에 치욕을 끼얹었고, 뒷날의 여인들에게도, 행실 바른 여인에게까지 치욕을 남겼소."

435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아,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께서는 처음부터 여인들의 꾀를 빌려 아트레우스의 핏줄을 지독하게도 미워하셨구려. 헬레네 때문에 우리가 숱하게 죽었고, 당신이 멀리 나가 있는 동안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당신을 칠 덫을 꾸몄으니 말이오."

440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곧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아내에게 너무 너그럽게 굴지 마시오. 잘 아는 일이라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지 말고, 어떤 것은 말하되 어떤 것은 숨겨 두시오. 그러나

오디세우스, 당신은 아내 손에 죽지는 않을 것이오. 이카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참으로 슬기롭고 속으로 좋은 생각을 품을 줄 아는 여인이오. 우리가 싸움터로 떠날 때 그 여인은 갓 혼인한 새색시였고, 품에는 젖먹이 아들이 안겨 있었소. 그 아이는 지금쯤 사내들 축에 끼어 앉아 있겠지. 복 받은 아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는 아버지를 끌어안을 테니 말이오. 그것이 도리이니. 그런데 내 아내는 내 아들을 실컷 바라볼 틈도 주지 않고, 그 전에 나를 죽여 버렸소.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가슴에 새겨 두시오. 사랑하는 고향 땅에 배를 댈 때는 드러내 놓지 말고 몰래 대시오. 이제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소. 자, 이것을 말해 주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오르코메노스에서든, 모래 많은 필로스에서든, 넓은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 곁에서든, 혹시 내 아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고귀한 오레스테스는 아직 땅 위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오."

462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내게 그런 것을 묻소?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조금도 모르오. 바람 같은 헛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소."

465 우리 둘은 그렇게 슬픈 말을 주고받으며, 굵은 눈물을 쏟으면서 비통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혼백과 파트로클로스와 나무랄 데 없는 안틸로코스와 아이아스의 혼백이 왔습니다. 아이아스는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다음으로는 다른 모든 다나오스인 가운데 생김새도 몸집도 가장 빼어난 이였습니다.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혼백이 나를 알아보고, 울부짖듯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473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모진 사람, 이번에는 또 무슨 더 큰 일을 속으로 꾸미는 것이오? 생각

없는 죽은 이들, 지쳐 쓰러진 인간들의 허깨비가 사는 하데스로 어떻게 감히 내려왔소?"

47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아카이아인 가운데 단연 으뜸인 이여, 나는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을 일이 있어 왔소. 험한 이타카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무슨 계책을 일러 줄까 해서였소. 나는 아직 아카이아 땅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우리 땅을 밟지도 못했소. 늘 재앙을 겪고 있소. 그러나 아킬레우스, 당신보다 더 복 받은 사내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오. 당신이 살아 있을 때 우리 아르고스인은 당신을 신들과 똑같이 받들었고, 지금은 이곳에서 죽은 이들 사이에 큰 힘을 떨치고 있으니 말이오. 그러니 아킬레우스, 죽었다고 조금도 슬퍼하지 마시오."

487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곧 대답했습니다. "빛나는 오디세우스, 내게 죽음을 달래는 말은 하지 마시오. 죽어 스러진 모든 이들을 다스리느니, 차라리 살림이 넉넉지 못한 땅 없는 사내 밑에서 남의 땅을 부치는 품팔이가 되고 싶소. 자, 내 당당한 아들 소식을 들려주시오. 그 아이가 맨 앞에서 싸우려고 싸움터에 나갔는지 아닌지.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에 대해서도 무슨 소식을 들었거든 말해 주시오. 아직도 많은 미르미돈족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노년이 손발을 묶어 놓아 헬라스와 프티아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업신여기는지. 나는 이제 햇빛 아래에서 그분을 도와 드릴 수 없으니 말이오. 넓은 트로이 땅에서 아르고스인을 지키며 가장 뛰어난 적들을 죽이던 그때의 내가 아니오. 그때 같은 몸으로 잠깐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께 폭력을 휘두르고 명예를 빼앗는 자들은 누구든 내 기운과 당해 낼 수 없는 내 손에 질겁하게 해 줄 텐데."

504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소.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 대해서는 당신이 묻는 대로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하겠소. 내가 몸소 그를 균형 잡힌 우묵한 배에 태워 스키로스에서 정강이받이를 잘 댄 아카이아인에게로 데려갔소. 트로이 도시를 두고 우리가 계책을 의논할 때면 그는 늘 맨 먼저 말했고, 말을 그르치는 법이 없었소. 그를 이기는 이는 신에 버금가는 네스토르와 나 둘뿐이었소. 트로이인의 들판에서 청동을 들고 싸울 때면, 그는 사내들의 무리 속이나 떼 지은 군사들 틈에 머물러 있지 않았소. 누구에게도 제 기운을 굽히지 않고 훨씬 앞서 내달려, 끔찍한 싸움판에서 숱한 사내들을 죽였소. 그가 아르고스인을 지키며 죽인 사람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소. 그러나 텔레포스의 아들, 영웅 에우리필로스를 청동으로 쓰러뜨린 일만은 말하겠소. 그 둘레에서 그의 전우인 케테이오이족이 여인에게 바친 선물 때문에 숱하게 죽어 갔소. 그는 고귀한 멤논 다음으로 내가 본 가장 잘생긴 사내였소. 우리 아르고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에페이오스가 만든 말 속으로 내려갔을 때, 촘촘한 매복처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은 모두 내게 맡겨져 있었소. 그때 다른 다나오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눈물을 훔쳤고 저마다 팔다리를 떨었소. 그러나 그가 고운 얼굴빛이 하얘지거나 뺨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소. 그는 말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내게 거듭 졸랐고, 칼자루와 청동이 묵직한 창을 더듬으며 트로이인에게 재앙을 안길 생각만 했소. 그리고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가파른 도시를 무너뜨렸을 때, 그는 제 몫과 훌륭한 명예의 선물을 받아 상처 하나 없이 배에 올랐소. 날카로운 청동에 맞지도 않았고 가까이 붙어 싸우다 찔리지도 않았소. 싸움에서는 흔히 그런 일이 생기는 법인데 말이오. 아레스는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니까."

538 내가 이렇게 말하자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혼백은, 내가 그의 아들이 빼어나다고 말해 준 것이 기뻐 아스포델 풀밭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541 죽은 이들의 다른 혼백들은 슬픔에 잠겨 서서 저마다 제 시름을 물었습니다. 오직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혼백만이, 배들 곁에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두고 판정을 다투었을 때 내가 그를 이긴 일로 아직도 노하여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 무구는 아킬레우스의 존귀한 어머니가 상으로 내놓았고, 트로이인의 아들들과 팔라스 아테나가 판정했습니다. 그런 시합에서 이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무구 때문에 땅이 그토록 훌륭한 사람, 아이아스를 덮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아이아스는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다음으로는 다른 모든 다나오스인 가운데 생김새도 무공도 뛰어난 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냥한 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553 "나무랄 데 없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여, 그 저주받을 무구 때문에 품은 노여움을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것이오? 신들은 그 무구로 아르고스인에게 재앙을 내렸소. 당신 같은 성탑을 그들이 잃었으니 말이오. 우리 아카이아인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죽음만큼이나 당신의 죽음을 줄곧 슬퍼하고 있소.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오. 제우스께서 창 잘 쓰는 다나오스인의 군대를 지독하게 미워하시어 당신에게 그 운명을 지우셨소. 자, 왕이여, 이리 와서 내 말과 이야기를 들어 보시오. 당신의 기운과 굳센 마음을 누그러뜨리시오."

563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죽은 이들의 다른 혼백들을 따라 에레보스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가 노한 채로나마 내게 말을 걸었거나 내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속 마음은 죽은 다른 이들의 혼백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568 거기서 나는 제우스의 빛나는 아들 미노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황금 왕홀을 들고 앉아 죽은 이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고, 죽은 이들은 문이 넓은 하데스의 집에서 앉거나 서서 왕 둘레에 모여 판결을 구했습니다.

572 그다음에는 거대한 오리온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스포델 풀밭에서 들짐승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외딴 산에서 온통 청동으로 된, 결코 부러지지 않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몸소 잡았던 짐승들이었습니다.

576 영광스러운 대지의 아들 티티오스도 보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아홉 마지기에 걸쳐 누워 있었습니다. 독수리 두 마리가 양쪽에 앉아 뱃가죽 안으로 파고들어 간을 쪼고 있었는데, 그는 손으로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일찍이 제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내 레토가 춤마당 아름다운 파노페우스를 지나 피토로 갈 때 티티오스가 레토를 겁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582 지독한 고통을 겪는 탄탈로스도 보았습니다. 그는 호수 안에 서 있었고, 물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애를 썼지만 물을 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마시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물은 빨려 들어가 사라졌고, 발밑에는 검은 땅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신이 물을 말려 버렸습니다. 잎이 높이 우거진 나무들, 배나무와 석류나무, 열매가 탐스러운 사과나무, 달콤한 무화과나무, 무성한 올리브나무가 머리 위로 열매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손으로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바람이 그것들을 그늘진 구름으로 휙 날려 버렸습니다.

593 지독한 고통을 겪는 시시포스도 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붙들고 손과 발로 버티며 그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곤 했지만, 막 꼭대기를 넘기려 할 때면 거센 무게가 바위를 되돌려

놓았고, 뻔뻔한 바위는 다시 들판으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렸고, 팔다리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머리 위로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601 그다음에는 힘센 헤라클레스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의 허깨비였습니다. 그 자신은 불사의 신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위대한 제우스와 황금 신을 신은 헤라의 딸, 발목 고운 헤베를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둘레에서는 죽은 이들이 새 떼처럼 사방으로 질겁하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는 캄캄한 밤 같은 모습으로, 덮개 벗긴 활에 화살을 메긴 채 언제라도 쏠 듯이 무섭게 둘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무시무시한 황금 칼끈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곰과 멧돼지와 눈 번득이는 사자들, 접전과 싸움과 살육과 사람 죽이는 일 같은 놀라운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칼끈을 솜씨껏 지어낸 장인은 다시는 그런 것을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를 눈으로 보자마자 알아보고, 울부짖듯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617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아, 가엾은 사람, 그대도 내가 햇빛 아래에서 짊어졌던 것 같은 몹쓸 운명을 끌고 다니는구나. 나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었지만 끝없는 고난을 겪었다. 나보다 훨씬 못난 사내에게 매여, 그자가 내게 모진 시련을 시켰다. 한번은 그 개를 끌고 오라고 나를 이리로 보냈다. 이보다 더 힘든 시련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게지. 그러나 나는 그 개를 하데스에게서 끌어 올려 데려갔다. 헤르메스와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나를 이끌어 주었다."

627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머물러, 옛날에 죽은 영웅들 가운데 누가 또 오지 않을까 기다렸으니, 그랬다면 내가 보고 싶던 더 옛사람들, 신들의 영광스러운 자식인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셀 수 없는 죽은 이들의 무리가 신묘한 소리를 내며 몰려들었고, 파랗게 질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위엄 있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서 무시무시한 괴물 고르고의 머리를 내게 보낼까 두려웠습니다.

636 나는 곧 배로 가서 전우들에게 배에 오르고 고물 밧줄을 풀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살의 물결이 배를 오케아노스강을 따라 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질로, 나중에는 고운 순풍으로.

제12권

1 배는 오케아노스강의 물살을 벗어나 넓은 길이 열린 바다의 물결로 나아가, 이른 아침에 태어난 새벽 여신의 집과 춤마당이 있고 헬리오스가 떠오르는 곳, 아이아이아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러 배를 모래밭에 올려놓고 파도치는 바닷가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깊이 잠들어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8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죽은 엘페노르의 시신을 가져오라고 전우들을 키르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곶이 바다 쪽으로 가장 멀리 튀어나온 곳에서 서둘러 통나무를 베어, 굵은 눈물을 쏟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시신과 그의 무구가 다 타자, 우리는 무덤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돌기둥을 끌어다 세운 다음, 무덤 꼭대기에 손에 잘 맞는 노를 꽂았습니다.

16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나하나 치르는 동안, 우리가 하데스에서 돌아온 것을 키르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신은 곧 채비를 하고 찾아왔고, 시녀들이 빵과 고기를 넉넉히, 반짝이는 붉은 포도주도 함께 들고 따라왔으며,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는 우리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21 "모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죽는데, 그대들은 살아서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으니 두 번 죽는 셈이로구나. 자, 오늘은 온종일 여기서 먹을 것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날이 밝으면 배를 타고

떠나거라. 내가 길을 가르쳐 주고 하나하나 일러 주겠다. 그대들이 못된 꾀에 걸려 바다에서나 뭍에서나 재앙을 겪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28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우리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앉아서 한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전우들은 배의 고물 밧줄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키르케는 내 손을 잡고 사랑하는 전우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앉히고, 곁에 누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물었고, 나는 여신에게 모든 것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존귀한 키르케가 내게 말했습니다.

37 "그 일들은 그렇게 모두 끝났다. 이제 내가 일러 주는 것을 들어라. 신께서도 몸소 그대에게 떠올려 주실 것이다. 그대는 먼저 세이렌에게 이를 것이다. 세이렌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홀린다. 누구든 모르고 가까이 가서 세이렌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이렌이 풀밭에 앉아 맑은 노래로 그를 홀리니,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집에 돌아온 그의 곁에 서서 반기지 못한다. 그 둘레에는 썩어 가는 사내들의 뼈가 수북이 쌓여 있고, 뼈에 붙은 살가죽이 말라 간다. 그러니 그곳을 지나쳐 배를 몰고, 꿀처럼 달콤한 밀랍을 이겨 전우들의 귀를 막아라. 다른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그러나 그대가 듣고 싶거든, 날랜 배 안에서 전우들에게 그대의 손발을 묶어 돛대 받침에 똑바로 세우게 하고 밧줄 끝을 돛대에 매게 해라. 그러면 그대는 두 세이렌의 목소리를 즐기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풀어 달라고 전우들에게 애원하고 명령하거든, 그들은 그때 그대를 더 많은 밧줄로 묶어야 한다. 전우들이 세이렌 곁을 지나 배를 몰고 나면, 그다음에 그대가 어느 길로 갈지는 내가 끝까지 일러 주지 않겠다. 그대가 몸소 마음속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두 길을 다 일러 주겠다. 한쪽에는 머리 위로 드리운 바위들이 있고, 거기에 눈이 검푸른 암피트리테의 큰 물결이 부딪쳐 으르렁거린다. 복된 신들은 그

바위를 떠도는 바위(플랑크타이)라고 부른다. 그곳은 날짐승도 지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제우스께 암브로시아를 날라 가는 겁 많은 비둘기들조차 지나가지 못한다. 매끄러운 바위가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를 채 가니, 아버지께서는 수를 채우려고 다른 비둘기를 들여보내신다. 그곳에 이른 사람들의 배치고 거기서 빠져나간 배는 아직 하나도 없으니, 바다의 물결과 사나운 불길의 회오리가 배의 널빤지와 사람들의 몸뚱이를 한데 휩쓸어 간다. 바다를 건너는 배 가운데 거기를 지나간 배는 모두가 아는 아르고호 하나뿐이었다. 아이에테스에게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 배도 하마터면 그곳의 큰 바위들에 내던져질 뻔했지만, 이아손을 아끼던 헤라가 그 배를 지나가게 해 주었다."

73 "다른 쪽에는 바위 봉우리가 둘 있다. 하나는 날카로운 꼭대기로 넓은 하늘에 닿아 있고, 검푸른 구름이 그 둘레를 감싸고 있는데, 구름은 결코 걷히지 않아서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 꼭대기에는 맑은 하늘이 드는 일이 없다. 그 바위는 깎아 다듬은 듯 매끄러워서, 손이 스물이고 발이 스물이라 해도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내는 거기 오르지도 발을 딛지도 못할 것이다. 봉우리 한가운데에는 서쪽 어둠, 에레보스 쪽으로 난 어둑한 동굴이 있다. 빛나는 오디세우스, 그대들은 그 동굴 곁으로 우묵한 배를 몰아야 할 것이다. 우묵한 배에서 한창때의 사내가 활을 쏘아도 그 속 빈 동굴에 닿지는 못할 것이다. 거기 스킬라가 살면서 무시무시하게 짖어 댄다. 그 목소리는 갓 난 강아지 소리만 하지만, 스킬라 자신은 끔찍한 괴물이다. 신이라도 그 괴물과 마주치면 보고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스킬라에게는 발이 열둘 있는데 모두 흉하게 매달려 있고, 아주 긴 목이 여섯 있으며, 목마다 무시무시한 머리가 달려 있다. 머리에는 이빨이 세 줄로 빽빽이 촘촘하게 나 있고, 검은 죽음으로 가득하다. 스킬라는 몸 한가운데까지는 속 빈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머리들은 무시무시한 굴 밖으로 내밀고서 바위 둘레를 더듬으며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돌고래와 바다 개, 그리고 울부짖는 암피트리테가 셀 수 없이 기르는 더 큰 바다 짐승이라도 걸리면 잡아먹는다. 뱃사람치고 배와 함께 그 곁을 아무 탈 없이 빠져나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다. 스킬라는 머리 하나마다 사내 하나씩을 뱃머리가 검푸른 배에서 낚아채 간다."

101 "오디세우스, 다른 바위 봉우리는 더 나지막하다. 둘은 서로 가까이 있어서 화살을 쏘면 닿을 만하다. 그 봉우리에는 잎이 무성한 큰 야생 무화과나무가 있고, 그 밑에서 고귀한 카립디스가 검은 물을 빨아들이는데, 카립디스는 하루에 세 번 물을 뿜어 올리고 세 번 무시무시하게 빨아들인다. 빨아들일 때에는 부디 그곳에 있지 마라. 대지를 흔드는 신이라도 재앙에서 그대를 건져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스킬라의 바위에 바짝 붙어 서둘러 배를 몰고 지나가거라. 배에서 전우들을 한꺼번에 다 잃느니, 여섯 명을 잃고 슬퍼하는 편이 훨씬 낫다."

111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여신이여, 자, 이것을 숨김없이 말해 주시오. 내가 그 끔찍한 카립디스는 어떻게든 피해 빠져나가고, 스킬라가 내 전우들을 해치려 들 때 그 괴물은 막아 낼 수 있겠소?"

115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가 곧 대답했습니다. "모진 사람, 또 싸움과 수고를 생각하는구나. 불사의 신들에게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 괴물은 죽을 운명이 아니라 죽지 않는 재앙이다. 무시무시하고 고약하고 사나워서 싸워 이길 수 없다. 막아 낼 길이 없으니, 그 괴물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가장 낫다. 그대가 바위 곁에서 무장을 하느라 머뭇거리면, 그 괴물이 다시 덤벼들어 그만큼의 머리로 그대에게 닥쳐 그만큼의 사내를 채 갈까 두렵다. 그러니 힘껏 배를 몰고, 스킬라의 어머니 크라타이이스를 큰 소리로 불러라. 스킬라를

인간들에게 재앙으로 낳은 여신이다. 그러면 크라타이이스가 스킬라를 말려,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127 "그다음에 그대는 트리나키아섬에 이를 것이다. 거기에는 헬리오스의 소와 살진 양이 많이 풀을 뜯는데, 소 떼가 일곱, 아름다운 양 떼가 일곱이고 떼마다 쉰 마리씩이며, 그것들은 새끼를 낳지도 않고 줄어드는 일도 없다. 여신들이 그 짐승을 치는데, 머리채 고운 님프 파에투사와 람페티아다. 고귀한 네아이라가 높이 떠가는 헬리오스에게 낳아 준 딸들이다. 존귀한 어머니는 딸들을 낳아 기른 다음, 멀리 트리나키아섬에 보내 살게 하여 아버지의 양과 뿔 굽은 소를 지키게 했다. 그대가 그것들을 해치지 않고 귀향만 생각한다면, 비록 고통을 겪더라도 그대들은 아직 이타카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해친다면, 그때는 그대의 배와 전우들에게 파멸이 닥칠 것이라고 나는 예언한다. 그대 자신은 설령 벗어난다 해도, 전우들을 모두 잃고 뒤늦게 비참하게 돌아갈 것이다."

142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곧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는 섬 안쪽으로 떠나갔고, 나는 배로 가서 전우들에게 배에 오르고 고물 밧줄을 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줄지어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머리채 고운 키르케, 사람의 말을 하는 무서운 여신이 뱃머리가 검푸른 배 뒤쪽에서 돛을 가득 채우는 순풍을 보내 주었는데, 훌륭한 길동무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배 안의 연장들을 하나하나 손본 다음 앉아 있었고, 바람과 키잡이가 배를 몰아갔습니다.

153 그때 나는 비통한 가슴으로 전우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여신 중에 고귀한 키르케가 내게 일러 준 예언을 한두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겠네. 그러니 내가 말하겠네. 알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죽음과 운명을 피해 달아나든지 하세. 키르케는 먼저 신묘한 세이렌의 목소리와 꽃 핀 풀밭을 피하라고 일렀네. 그 목소리는 나만 들으라고 했네. 그러니 자네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꼼짝 못 하도록 돛대 받침에 나를 똑바로 세워 모진 밧줄로 묶고, 밧줄 끝을 돛대에 매어 두게. 내가 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명령하거든, 자네들은 그때 더 많은 밧줄로 나를 더 꽁꽁 묶게."

165 해롭지 않은 순풍이 배를 밀어 주어, 내가 이렇게 전우들에게 하나하나 일러 주는 사이 잘 만든 배는 순식간에 두 세이렌의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곧 바람이 멎고,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신이 물결을 잠재웠습니다. 전우들은 일어나 돛을 말아 우묵한 배 안에 내려놓고, 노 젓는 자리에 앉아 반들반들한 전나무 노로 물을 하얗게 일으켰습니다. 나는 날카로운 청동으로 커다란 밀랍 덩어리를 잘게 잘라 억센 두 손으로 주물렀는데, 히페리온의 아들 헬리오스 왕의 햇살과 내 손의 큰 힘에 눌려 밀랍은 곧 말랑말랑해졌고, 나는 전우들의 귀를 차례대로 모두 막았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내 손발을 함께 묶어 나를 돛대 받침에 똑바로 세우고, 밧줄 끝을 돛대에 맸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노로 잿빛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노를 저어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세이렌들은 바다를 빨리 달리는 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맑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184 "이리 오시오, 칭송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여. 배를 멈추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 보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검은 배를 몰아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소. 누구든 그 노래를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알고서 돌아가오. 우리는 넓은 트로이 땅에서 아르고스인과 트로이인이 신들의

뜻으로 겪은 모든 고생을 알고, 많은 것을 길러 내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다 아오."

192 세이렌들이 고운 목소리를 내어 이렇게 노래하자 내 가슴은 듣고 싶어 했고, 나는 눈썹을 치켜 전우들에게 나를 풀어 달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앞으로 숙여 노를 저었고, 페리메데스와 에우릴로코스가 곧 일어나 나를 더 많은 밧줄로 묶어 더 꽁꽁 조였습니다. 우리가 세이렌 곁을 지나 그들의 목소리도 노래도 더는 들리지 않게 되자, 정다운 전우들은 곧 내가 귀에 발라 준 밀랍을 떼어 내고 나를 밧줄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201 그러나 그 섬을 떠나자마자 연기와 큰 물결이 보이고 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전우들의 손에서 노가 날아갔고, 노들은 모두 물살을 따라 철썩 소리를 냈으며, 손으로 끝이 뾰족한 노를 젓지 않자 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배 안을 돌아다니며 전우들 곁에 하나하나 다가서서 상냥한 말로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208 "벗들이여, 우리는 재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네. 지금 닥친 이 재앙이, 키클롭스가 우묵한 동굴에서 거센 힘으로 우리를 가두었을 때보다 더 큰 것은 아니네. 그때도 우리는 내 용맹과 계책과 지혜로 빠져나왔으니, 언젠가는 이 일도 떠올리게 될 걸세. 자, 이제 내가 이르는 대로 모두 따르세. 자네들은 노 젓는 자리에 앉아 바다의 깊은 물결을 노로 치게. 혹시 제우스께서 이 파멸을 벗어나 피하게 해 주실지 모르니. 키잡이, 자네에게는 이렇게 이르네. 우묵한 배의 키를 잡고 있으니 마음에 새겨 두게. 배를 이 연기와 물결 밖으로 몰고 저 바위 쪽에 바짝 붙게. 배가 자네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튀어 나가 우리를 재앙 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일세."

222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곧 내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인 스킬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으니, 전우들이

겁을 먹고 노 젓기를 멈추고 배 안에 몸을 웅크려 숨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무장을 하지 말라던 키르케의 고된 당부를 잊고, 이름난 무구를 걸치고 긴 창 두 자루를 손에 쥔 채 뱃머리 갑판에 올라섰습니다. 내 전우들에게 재앙을 안길 바위의 스킬라가 맨 먼저 거기서 나타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도 그 괴물을 볼 수 없었고, 어둑한 바위를 사방으로 살피느라 두 눈이 지쳐 버렸습니다.

234 우리는 슬피 울며 좁은 물길로 배를 몰아 올라갔습니다. 한쪽에는 스킬라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고귀한 카립디스가 짠 바닷물을 무시무시하게 빨아들였습니다. 카립디스가 물을 토해 낼 때면 센 불 위의 솥처럼 온통 들끓으며 소용돌이쳤고, 물보라가 높이 솟구쳐 두 바위 봉우리 꼭대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짠 바닷물을 다시 빨아들일 때면 소용돌이치는 속이 훤히 드러났고, 둘레의 바위가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으며, 밑으로는 검푸른 모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전우들은 파랗게 질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 카립디스 쪽을 바라보는 동안, 스킬라가 우묵한 배에서 내 전우 여섯을 낚아채 갔습니다. 손힘으로나 기운으로나 가장 뛰어난 이들이었습니다. 날랜 배를 돌아보고 전우들을 찾았을 때는, 높이 들려 올라가는 그들의 발과 손이 벌써 보였고, 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바위 쪽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낚시꾼이 곶 위에서 기다란 낚싯대로 작은 물고기들을 미끼로 꾀려고, 들판에 사는 소의 뿔을 바다로 내려뜨릴 때가 있습니다. 낚시꾼은 물고기가 걸리면 퍼덕이는 것을 낚아채 뭍으로 휙 던져 올립니다. 꼭 그처럼 전우들은 퍼덕이며 바위 쪽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스킬라는 동굴 어귀에서 끔찍한 싸움 속에 내게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웠습니다. 바닷길을

헤매며 겪은 그 모든 고생 가운데 내 눈으로 본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260 바위들과 무시무시한 카립디스와 스킬라를 벗어나자, 우리는 곧 신의 나무랄 데 없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이마 넓은 아름다운 소들과 높이 떠가는 헬리오스의 살진 양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직 바다 위 검은 배에 있던 나는 우리에 든 소들의 음매 소리와 양들의 매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눈먼 예언자, 테베의 테이레시아스가 한 말과 아이아이아의 키르케가 한 말이 마음에 떠올랐으니, 키르케는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헬리오스의 섬을 피하라고 내게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나는 비통한 가슴으로 전우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271 "고생하는 전우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게. 테이레시아스의 예언과 아이아이아의 키르케가 한 말을 자네들에게 들려주겠네. 키르케는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헬리오스의 섬을 피하라고 내게 몇 번이고 당부했네. 거기에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재앙이 있다고 했네. 그러니 검은 배를 몰아 그 섬을 지나쳐 가세."

277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우릴로코스가 곧 가증스러운 말로 내게 대답했습니다.

279 "오디세우스, 당신은 모진 사람이오. 당신은 기운이 남아돌고 팔다리는 조금도 지치지 않는구려. 정말이지 당신은 온몸이 쇠로 만들어졌나 보오. 지침과 졸음에 녹초가 된 전우들을 뭍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다니. 바닷물이 사방을 감싼 이 섬에서 맛있는 저녁을 지어 먹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섬을 떠나 아득한 바다에서 빠르게 내리는 밤을 헤매라고 하는구려. 밤에는 배를 망가뜨리는 모진 바람이 일어나오. 남풍이나 사납게 부는 서풍이 갑자기 폭풍으로 몰아치면, 누가 가파른 파멸을 벗어날 수 있겠소? 그런 바람은 신들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배를 산산조각 내고 마오. 그러니 이제는 검은 밤을 따릅시다.

날랜 배 곁에 머물러 저녁을 짓고, 날이 밝으면 배에 올라 넓은 바다로 나갑시다."

294 에우릴로코스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전우들도 옳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어떤 신이 재앙을 꾸미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습니다.

297 "에우릴로코스, 혼자인 나를 자네들이 기어이 억누르는구먼.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내게 굳은 맹세를 하게. 소 떼나 큰 양 떼를 만나더라도 누구도 못된 무모한 짓으로 소든 양이든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겠다고. 그저 불사의 키르케가 준 양식을 조용히 먹게."

303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내가 시킨 대로 곧 맹세했습니다. 맹세를 다 마치자 우리는 단물이 솟는 곳 가까이, 우묵한 포구에 잘 만든 배를 세웠고, 전우들은 배에서 내려 솜씨 있게 저녁을 지었습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은 스킬라가 우묵한 배에서 낚아채 잡아먹은 정다운 전우들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에게 깊고 달콤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삼분의 이쯤 지나 별들이 기울었을 때,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거센 바람을 일으켜 신묘한 회오리바람으로 몰아치고 땅과 바다를 함께 구름으로 덮자, 하늘에서 밤이 내리덮쳤습니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우리는 배를 우묵한 동굴로 끌어들여 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님프들의 아름다운 춤마당과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회의를 열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320 "벗들이여, 날랜 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소들에게는 손대지 마세. 이 소들과 살진 양들은 무서운 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듣는 헬리오스의 것일세."

324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남풍이 그치지 않고 불었고, 동풍과 남풍 말고는 다른

바람이 일지 않았습니다.

327 전우들은 빵과 붉은 포도주가 있는 동안에는 목숨을 아껴 소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 안의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돌며 사냥에 나서서, 굽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며 새며 손에 걸리는 것이면 무엇이든 잡았고, 굶주림이 배를 쥐어짰습니다. 그때 나는 신들께 기도하려고 섬 안쪽으로 떠났습니다. 혹시 어떤 신이 돌아갈 길을 보여 주실까 해서였습니다. 섬을 가로질러 전우들에게서 벗어나자, 나는 바람을 막아 주는 곳에서 손을 씻고 올림포스에 사는 모든 신들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들이 내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사이 에우릴로코스가 전우들에게 못된 꾀를 먼저 꺼냈습니다.

340 "고생하는 전우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게. 가엾은 인간들에게는 어떤 죽음이든 끔찍하지만, 굶어 죽어 운명을 맞는 것이 가장 비참하네. 자, 헬리오스의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몰아다가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께 제물로 바치세. 우리가 고향 땅 이타카에 닿게 되면, 곧바로 높이 떠가는 헬리오스께 풍요로운 신전을 지어 바치고 그 안에 훌륭한 봉헌물을 많이 두세. 그러나 그분이 뿔 곧은 소들 때문에 노하여 배를 없애려 하시고 다른 신들도 그 뜻을 따르신다면, 나는 외딴섬에서 오래 시들어 가느니 차라리 물결을 들이마시고 단숨에 목숨을 잃겠네."

352 에우릴로코스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전우들도 옳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헬리오스의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가까이에서 몰아왔습니다. 이마 넓은 아름다운 뿔 굽은 소들이 뱃머리가 검푸른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갑판 튼튼한 배에 흰 보리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잎이 높이 우거진 참나무에서 연한 잎을 따 들고 소들을 둘러서서 신들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긴 다음, 넓적다리뼈를 발라내어 기름 조각으로 두 겹 싸고, 그 위에

날고기를 얹었습니다. 타오르는 제물 위에 부을 포도주도 없어서, 물을 부어 바치며 내장을 모두 구웠습니다. 넓적다리뼈가 다 타고 내장을 맛본 뒤, 나머지 고기를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었습니다. 그때 깊고 달콤한 잠이 내 눈꺼풀에서 달아났고, 나는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양 끝이 흰 배 가까이 갔을 때, 기름 연기의 달콤한 냄새가 내 둘레에 감돌았습니다. 나는 신음하며 불사의 신들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71 "아버지 제우스와 영원히 사는 다른 복된 신들이시여, 무자비한 잠으로 나를 잠재워 정녕 미혹에 빠뜨리셨군요. 남아 있던 전우들이 끔찍한 일을 꾸며 저질렀습니다."

374 옷자락 긴 람페티아가 높이 떠가는 헬리오스에게 서둘러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들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헬리오스는 곧 가슴 가득 노하여 불사의 신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377 "아버지 제우스와 영원히 사는 다른 복된 신들이시여,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전우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자들이 제 소들을 오만하게 죽였습니다. 저는 별이 총총한 하늘로 오를 때나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나 그 소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자들이 소 값을 마땅히 갚지 않는다면, 저는 하데스로 내려가 죽은 이들 사이에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384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습니다. "헬리오스, 자네는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곡식을 내는 땅 위의 죽을 운명의 인간들 사이에서 계속 빛을 비추게. 그자들의 날랜 배는 내가 곧 포도주 빛 바다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벼락으로 쳐서 산산조각 내겠네."

389 나는 이 이야기를 머리 고운 칼립소에게서 들었습니다. 칼립소는 길잡이 헤르메스에게서 몸소 들었다고 했습니다.

391 배가 있는 바닷가로 내려가자, 나는 전우들에게 하나하나 다가서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곧 신들이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벗긴 가죽이 기어 다니고, 꼬챙이에 꿴 고기가 구운 것이든 날것이든 음매 울며 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397 그 뒤로 엿새 동안 내 정다운 전우들은 헬리오스의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몰아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이레째 날을 가져오자, 회오리바람으로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는 곧 배에 올라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끌어올리고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403 그 섬을 떠나자 다른 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늘과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때 크로노스의 아들이 우묵한 배 위에 검푸른 구름을 드리웠고, 그 아래로 바다가 어두워졌습니다. 배는 그리 오래 달리지 못했습니다. 곧 서풍이 울부짖으며 큰 회오리바람과 함께 사납게 몰아쳤고, 바람의 폭풍이 돛대를 받치는 앞 버팀줄 둘을 모두 끊어 버렸습니다. 돛대가 뒤로 넘어지자 배의 연장들이 모두 배 밑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돛대는 배 고물에서 키잡이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뼈를 한꺼번에 모두 부수었고, 키잡이는 자맥질하는 사람처럼 갑판에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굳센 목숨이 그의 뼈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제우스가 천둥을 울리며 배에 벼락을 내리쳤습니다. 제우스의 벼락을 맞은 배는 온통 빙글빙글 돌았고 유황 냄새로 가득 찼으며, 전우들은 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다까마귀처럼 검은 배 둘레의 물결에 휩쓸려 다녔고, 신이 그들에게서 귀향을 앗아 갔습니다. 나는 배 안을 이리저리 오갔는데, 마침내 거센 물결이 용골에서 뱃전을 떼어 냈고 물결이 벌거벗은 용골을 실어 갔습니다. 물결은 용골에서 돛대도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돛대에는 소가죽으로 만든 버팀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용골과 돛대를 한데 묶고, 그 위에 앉아 사나운 바람에 실려 떠밀려 갔습니다.

426 그때 회오리바람으로 사납게 몰아치던 서풍이 그쳤지만, 곧 남풍이 불어와 내 마음에 고통을 안겼습니다. 끔찍한 카립디스까지 그 길을 다시 거슬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밤새 떠밀려 다녔고, 해가 떠오를 무렵 스킬라의 바위와 무시무시한 카립디스에 이르렀습니다. 카립디스가 짠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순간, 나는 키 큰 야생 무화과나무를 향해 높이 뛰어올라 박쥐처럼 거기 달라붙어 매달렸습니다. 발을 단단히 딛고 버틸 데도, 올라설 데도 없었습니다. 뿌리는 멀리 아래에 있었고, 길고 큰 가지들은 높이 뻗어 카립디스를 그늘로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립디스가 돛대와 용골을 다시 토해 낼 때까지 꼼짝 않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그것들은 늦게야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에서 다투는 젊은이들의 숱한 송사를 판결하던 사람이 저녁을 먹으러 일어날 무렵, 그 나무들이 카립디스에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손발을 놓고 위에서 몸을 떨어뜨려, 기다란 나무들 곁 물 한가운데로 풍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께서는 스킬라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가파른 파멸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447 거기서 나는 아흐레 동안 떠밀려 다녔고, 열흘째 되는 밤에 신들이 나를 오기기아섬에 닿게 해 주었습니다. 머리채 고운 칼립소, 사람의 말을 하는 무서운 여신이 사는 곳입니다. 칼립소는 나를 아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무엇 하러 또 늘어놓겠습니까? 어제 이 집에서 왕과 기품 있는 왕비께 이미 들려드렸으니, 한 번 또렷이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제13권

1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그늘진 홀 안의 사람들은 이야기에 홀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알키노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4 "오디세우스, 당신이 청동 바닥을 깐 내 지붕 높은 집에 왔으니, 비록 숱한 고생을 겪었다 해도 이제 다시 길을 잃고 헤매다 돌아가지는 않으리라 믿소. 그리고 내 홀에서 원로들의 반짝이는 포도주를 늘 마시며 노래꾼의 노래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겠소. 손님에게 줄 옷과 공들여 세공한 황금과 그 밖의 온갖 선물은 파이아케스의 원로들이 이리로 가져와 반들반들 다듬은 궤짝 안에 벌써 넣어 두었소. 자, 그러니 우리가 저마다 큰 세발솥 하나와 솥 하나씩을 그에게 더 줍시다. 그 값은 나중에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메우면 되오. 한 사람이 값을 받지 않고 이만큼 베풀기는 힘든 일이니 말이오."

16 알키노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을 반겼다. 그들은 잠을 자러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그들은 사내를 빛내 주는 청동을 들고 서둘러 배로 갔다.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알키노오스는 뱃사람들이 노를 힘껏 저을 때 걸리적거려 누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몸소 배 안을 오가며 그것들을 노 젓는 자리 밑에 잘 챙겨 넣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알키노오스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차렸다.

24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알키노오스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검은 구름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 소 한 마리를 잡아 바쳤다. 넓적다리뼈를 태우고 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잔치를 즐겁게 벌였고, 그들 가운데서 백성에게 존경받는 신과 같은 노래꾼 데모도코스가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환히 빛나는 해 쪽으로 자꾸만 고개를 돌렸다. 어서 해가 지기를 재촉했으니, 그만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떤 사람이 저녁밥을 몹시 기다릴 때가 있다. 포도주빛 소 두 마리에 이음매가 단단한 쟁기를 매어 온종일 묵정밭을 갈아엎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햇빛이 지는 것이 반갑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의 무릎이 휘청거린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에게는 햇빛이 지는 것이 반가웠다. 그는 곧바로 노 젓기를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들 가운데서 말했다. 무엇보다 알키노오스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을 건넸다.

38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모든 백성 가운데 우뚝하신 분이여,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나서 나를 무사히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도 부디 평안하십시오. 나를 보내 줄 배도, 정다운 선물도 마련되어 내 마음이 바라던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하늘에 사는 신들께서 이것들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고향에 돌아가 나무랄 데 없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무탈한 것을 보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여기 머물며 처음 맞은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신들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빼어남을 내려 주시고, 백성 가운데 아무 재앙도 없기를 빕니다."

4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옳다고 하며 손님을 보내 주라고 했다. 그의 말이 도리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운찬 알키노오스가 전령에게 말했다. "폰토노오스, 술동이에 술을 섞어 홀 안의 모든 이에게

돌리시오. 아버지 제우스께 기도를 올리고 나서 손님을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내 드립시다."

53 그가 이렇게 말하자 폰토노오스는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포도주를 섞어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서서 모두에게 돌렸다.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넓은 하늘에 사는 복된 신들께 술을 따라 바치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일어나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잔을 아레테의 손에 쥐여 드리고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59 "왕비님,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인 늙음과 죽음이 닥칠 때까지 언제까지나 평안하십시오. 나는 이제 떠납니다. 왕비님께서는 이 집에서 자녀들과 백성과 알키노오스 왕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63 이렇게 말하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문지방을 넘어 나갔다. 기운찬 알키노오스는 전령을 함께 딸려 보내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까지 길을 안내하게 했다. 아레테도 하녀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한 하녀에게는 깨끗이 빤 겉옷과 윗옷을 들려 보내고, 또 한 하녀에게는 튼튼한 궤짝을 나르게 했으며, 다른 하녀는 빵과 붉은 포도주를 들고 갔다.

70 그들이 배가 있는 바다로 내려오자, 그를 실어다 줄 당당한 뱃사람들이 곧 그것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모두 받아 우묵한 배에 실었다. 그러고는 오디세우스가 깨지 않고 잠들 수 있도록 우묵한 배의 고물 쪽 갑판에 담요와 아마포를 깔아 주었다. 오디세우스도 배에 올라 말없이 누웠다. 뱃사람들은 저마다 노 젓는 자리에 차례대로 앉아 구멍 뚫린 돌에서 밧줄을 풀었다. 그들이 몸을 뒤로 젖히며 노깃으로 바닷물을 튀겨 올리자, 오디세우스의 눈꺼풀 위로 깊고 달콤한 잠이 내려앉았다. 깨어날 줄 모르는 더없이 달콤한 잠, 죽음과 아주 닮은 잠이었다. 배는 고물을 높이 쳐들며 내달렸다. 들판에서 네 마리 수말이 한 수레에 매여 채찍을 맞고 한꺼번에 뛰쳐나가면, 높이 몸을 솟구치며

재빨리 길을 헤쳐 나간다. 꼭 그처럼 배의 고물이 들려 올랐고, 그 뒤로는 울부짖는 바다의 검붉은 큰 물결이 사납게 일었다. 배는 흔들림 없이 줄곧 내달렸다. 새들 가운데 가장 날랜 새매라도 그 배를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배는 바다의 물결을 가르며 빠르게 달렸다. 신들과 맞먹는 꾀를 지닌 사내를 싣고서였다. 지난날 그는 사람들의 싸움과 모진 물결을 헤쳐 나가며 마음속으로 숱한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겪은 일을 모두 잊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93 이른 아침에 태어난 새벽 여신의 빛을 알리러 오는 가장 환한 별이 떠오를 무렵, 바다를 건너는 배가 섬에 다가갔다.

96 이타카 고을에는 바다 노인 포르키스의 포구가 있었다. 깎아지른 곶 두 개가 포구 쪽으로 몸을 숙이듯 바다로 튀어나와 있어서, 사나운 바람이 일으키는 큰 물결을 밖에서 막아 주었다. 그 안에서는 갑판 튼튼한 배들이 닻 내릴 자리에만 이르면 밧줄로 매어 두지 않아도 그대로 머물렀다. 포구 머리에는 잎이 긴 올리브나무가 서 있었고, 그 곁에 아늑하고 어둑한 동굴이 있었는데, 물의 님프라고 불리는 님프들에게 바쳐진 신성한 동굴이었다. 그 안에는 돌로 된 술동이와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벌들이 거기에 꿀을 쟁여 두었다. 또 돌로 된 아주 긴 베틀이 있어서, 님프들이 그 베틀로 바다처럼 짙은 자줏빛 겉옷을 짰는데 보기에도 놀라웠다. 동굴 안에는 마르지 않는 물이 흘렀다. 동굴에는 문이 두 개 있었는데, 북풍 쪽으로 난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었고, 남풍 쪽 문은 신들의 문이라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불사의 신들이 다니는 길이었다.

113 뱃사람들은 전부터 그곳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로 배를 몰아 들어갔다. 노 젓는 사람들의 손이 그토록 힘차게 배를 밀어붙였으므로, 배는 내달리던 기세 그대로 선체의 절반쯤이 뭍에 올라앉았다. 그들은 노 젓는 자리가 튼튼한 배에서 뭍으로 내려서자, 맨 먼저 오디세우스를

아마포와 반들거리는 담요째로 우묵한 배에서 들어 올려 잠에 굴복한 그를 모래 위에 내려놓았다. 이어서 당당한 파이아케스인들이 기상 높은 아테나의 뜻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준 재물을 꺼냈다. 그들은 그것들을 길에서 비켜난 올리브나무 밑동 곁에 한데 모아 두었다. 오디세우스가 깨기 전에 길 가던 누가 다가와 손대는 일이 없게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은 일찍이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에게 퍼부었던 위협을 잊지 않았고, 제우스의 뜻을 떠보았다.

128 "아버지 제우스여, 인간들이, 그것도 제 핏줄에서 나온 파이아케스인들이 저를 조금도 받들지 않으니, 이제 저는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 더는 존중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디세우스가 숱한 고생을 겪은 뒤에야 집에 돌아가리라 여겼을 뿐, 그의 귀향을 아주 빼앗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에 약속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잠든 그를 날랜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이타카에 내려놓았고, 청동과 황금과 짠 옷을 넉넉히, 한없이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제 몫의 전리품을 받아 무사히 돌아왔다 해도 결코 가져오지 못했을 만큼 많은 선물입니다."

139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허, 널리 힘을 떨치는 땅을 뒤흔드는 이여, 무슨 말을 하는가. 신들은 결코 자네를 업신여기지 않네.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뛰어난 신을 업신여기기란 어려운 일일세. 인간들 가운데 누가 제 힘과 기운만 믿고 자네를 조금도 받들지 않는다면, 뒷날에라도 앙갚음할 길이 언제나 자네에게 있네. 자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

146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대답했다. "검은 구름의 신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곧바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피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호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파이아케스인들의 더없이 아름다운 배를 아득한 바다에서 부숴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그만 물러서서 사람들을 실어다 주는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큰 산으로 둘러 덮고 싶습니다."

153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여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 도시의 온 백성이 그 배가 달려오는 것을 내다볼 때, 뭍 가까이에서 그 배를 날랜 배를 꼭 닮은 바위로 만들어 두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놀랄 걸세.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큰 산으로 둘러 덮게."

159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은 그 말을 듣자 파이아케스인들이 사는 스케리아로 가서 거기서 기다렸다. 바다를 건너는 배가 빠르게 달려와 아주 가까이 다가오자, 포세이돈이 그 곁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내리쳐 배를 돌로 만들고 밑바닥에 뿌리를 박아 놓았다. 그러고는 떠나갔다. 노가 긴 파이아케스인들, 배로 이름난 사내들은 서로 날개 돋친 말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168 "아아, 대체 누가 집으로 달려오던 날랜 배를 바다 위에 붙들어 매었나? 벌써 배가 다 보였는데."

170 누군가 이렇게 말하곤 했으나, 그들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알키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172 "허, 내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하신 예언이 정말로 내게 닥쳤구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누구든 해 입지 않게 바래다주니 포세이돈께서 우리를 언짢아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소. 그리고 언젠가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더없이 아름다운 배가 사람을 바래다주고 아득한 바다를 건너 돌아올 때 포세이돈께서 그 배를 부숴 버리고, 우리 도시를 큰 산으로 둘러 덮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소. 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구려.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앞으로는 누가 우리 도시에 오더라도 사람을 실어다 주는 일을 그만두시오. 그리고 포세이돈께 골라 뽑은 황소 열두 마리를 제물로 바칩시다. 혹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어 우리 도시를 아주 큰 산으로 둘러 덮지 않으실지도 모르오."

184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황소를 마련했다. 이렇게 파이아케스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제단을 둘러서서 포세이돈 왕께 기도하는 사이에, 제 아버지의 땅에서 자고 있던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터라 그는 그 땅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제우스의 딸, 여신 팔라스 아테나가 그의 둘레에 안개를 쏟아부은 까닭이었다. 아테나는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낱낱이 일러 줄 작정이었으니, 구혼자들이 저지른 방자한 짓을 모두 갚기 전에는 아내도, 고을 사람들도, 친구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길게 뻗은 오솔길도, 배를 대기 좋은 포구도, 깎아지른 바위도,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도 그랬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서 제 아버지의 땅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소리 내어 울며 두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고, 비탄에 잠겨 말했다.

200 "아아,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의 땅에 왔는가? 오만하고 사나워 도리를 모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나그네를 반기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인가? 이 많은 재물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나? 나 자신은 또 어디를 헤매야 하나? 차라리 그대로 파이아케스인들 곁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나는 다른 힘센 왕을 찾아갔을 테고, 그 왕이 나를 아껴 고향으로 보내 주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것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여기 남겨 두었다가 남의 먹잇감이 되게 할 수도 없다. 아아, 파이아케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모든 일에 슬기롭고 공정한 자들이 아니었구나.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이타카로 데려다주겠다고 해 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를 다른 땅으로 데려왔으니 말이다. 탄원하는 이를 지키는 제우스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를.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굽어보시고 죄지은 자는 누구든 벌하신다. 자, 이 재물을 세어 보고 살펴보자. 저들이 우묵한 배에 싣고 무엇을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217 이렇게 말하고 그는 더없이 아름다운 세발솥과 솥, 황금과 곱게 짠 옷을 헤아렸다. 그러나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울부짖는 바다의 물가를 따라 힘없이 발을 끌며 고향 땅을 그리워 울었고, 몹시 슬퍼했다. 그때 아테나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양 떼를 치는 젊은 사내의 모습이었는데, 왕의 자식들이 흔히 그렇듯 아주 여리고 고왔다. 두 어깨에는 잘 지은 겉옷을 두 겹으로 둘렀고, 반들거리는 발에는 신을 신었으며, 손에는 투창을 들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젊은이를 보자 반가워 마주 나아가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28 "젊은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이니 반갑소. 부디 나쁜 마음으로 나를 맞지 마시오. 이 재물을 지켜 주고 나도 지켜 주시오. 나는 신께 하듯 당신에게 빌며 당신의 무릎에 매달리오.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여기는 무슨 땅이고 무슨 고장이며, 어떤 사람들이 사오?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어느 섬이오, 아니면 기름진 뭍의 바닷가가 바다 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내린 곳이오?"

236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나그네, 이 땅이 어디냐고 묻다니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이구려. 이 땅은 그렇게까지 이름 없는 곳이 아니오. 새벽과 해가 뜨는 쪽에 사는 사람이든, 그 뒤편 어스름한 어둠 쪽에 사는 사람이든, 아주 많은 이가 이 땅을 아오. 이곳은 바위가 많아 말을 몰기에는 맞지 않지만, 아주 척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넓지도 않소. 여기서는 곡식이 엄청나게 나고 포도주도 나오. 비가 늘 내리고 이슬이 풍성하오. 염소와

소를 치기에도 좋고, 온갖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으며, 사철 마르지 않는 물웅덩이가 있소. 그러니 나그네, 이타카라는 이름은 아카이아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트로이까지도 알려져 있소."

250 아테나가 이렇게 말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뻤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가 일러 준 대로, 그곳이 제 아버지의 땅이라니 반가웠다. 그는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가슴속에 늘 꾀 많은 생각을 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56 "나는 바다 건너 멀리 넓은 크레타에서도 이타카 이야기를 들었소. 그런데 이제 내가 몸소 이 재물을 가지고 이곳에 왔구려. 이만한 재물을 자식들에게도 남겨 두고 나는 도망쳐 나왔소. 이도메네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발 빠른 오르실로코스를 내가 죽였기 때문이오. 그는 넓은 크레타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내들을 날랜 발로 모두 이긴 자였소. 트로이에서 얻은 전리품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싸움과 모진 물결을 헤쳐 나가며 마음속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그자가 그 전리품을 내게서 몽땅 빼앗으려 했소. 내가 트로이인들의 땅에서 그의 아버지 비위를 맞추며 그 밑에서 시중들지 않고 따로 다른 전우들을 이끌었다는 까닭이었소. 그래서 나는 그가 들에서 돌아올 때 전우 하나와 함께 길가에 숨어 기다리다가 청동 날 박힌 창으로 그를 맞혔소. 아주 캄캄한 밤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고, 나는 남몰래 그의 목숨을 빼앗았소. 날카로운 청동으로 그를 죽이고 나서 나는 곧장 배로 가서 당당한 페니키아인들에게 간절히 사정하고, 그들 마음에 찰 만큼 전리품을 내주었소. 그리고 나를 배에 태워 필로스나, 에페이오이족이 다스리는 고귀한 엘리스에 내려 달라고 했소. 그러나 그들은 몹시 내키지 않았는데도 바람의 힘에 떠밀려 그곳에서 밀려나고 말았소. 그들이 나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오. 거기서 떠밀려 헤매다가 우리는

밤에 이곳에 닿았소. 서둘러 노를 저어 포구로 들어왔는데, 몹시 시장했으면서도 저녁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그냥 배에서 내려 그 자리에 드러누웠소. 지친 내게 달콤한 잠이 찾아왔고, 그들은 내 재물을 우묵한 배에서 꺼내 내가 누워 있던 모래 위에 내려놓았소. 그러고는 살기 좋은 시돈 땅으로 배를 타고 떠나갔고, 나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홀로 남았소."

28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는 빙그레 웃으며 손으로 그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여신의 모습은 아름답고 훤칠하며 빛나는 솜씨를 아는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여신은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91 "그대를 온갖 속임수로 앞지르려면, 신이 맞선다 해도, 어지간히 약삭빠르고 교활해야 할 것이다. 모진 사람, 온갖 꾀를 지닌 자, 속임수에 물릴 줄 모르는 자여. 그대는 제 땅에 와서도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이야기를 그칠 생각이 없구나. 그런 말이 뼛속까지 좋은가 보다. 자, 이제 이런 말은 그만두자. 우리 둘 다 잇속에 밝으니. 그대는 모든 인간 가운데 생각과 말로 단연 으뜸이고, 나는 모든 신들 가운데 꾀와 잇속 밝은 재주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도 그대는 온갖 고난 속에서 언제나 그대 곁에 서서 지켜 주고 파이아케스인 모두에게 그대가 사랑받게 해 준 나,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제 나는 다시 여기 왔다. 그대와 함께 꾀를 짜고, 당당한 파이아케스인들이 내 뜻과 생각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그대에게 준 재물을 숨겨 주려고 왔다. 또 잘 지은 그대 집에서 그대가 견뎌야 할 시름이 얼마나 되는지 일러 주려고 왔다. 그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참아 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에게도 그대가 떠돌다 돌아왔다고 털어놓지 마라. 말없이 숱한 고통을 견디며 사람들의 횡포를 받아 내라."

31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여신이시여,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여신을 마주쳐서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신께서는 무엇으로든 모습을 바꾸시니까요.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트로이에서 싸우는 동안에는 여신께서 제게 너그러우셨지만,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가파른 도시를 무너뜨리고 배에 올랐을 때 어떤 신이 아카이아인들을 흩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우스의 따님이시여, 저는 여신을 뵙지 못했고, 여신께서 제 배에 오르셔서 제게 닥친 고통을 막아 주시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속 마음이 찢긴 채 늘 떠돌았습니다. 신들께서 저를 불행에서 풀어 주실 때까지, 곧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기름진 고장에서 여신께서 말로 저를 북돋우시고 몸소 도시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신의 무릎을 잡고 빕니다. 저는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이타카에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땅을 헤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신께서 제 마음을 속이시려고 놀리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고향 땅에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29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그대 가슴속에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 있구나. 그러니 나는 불운한 그대를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다. 그대는 말솜씨가 좋고 생각이 날래며 분별이 있다. 다른 사람이라면 떠돌다 돌아와서 반가운 마음에 어서 집으로 가 자식들과 아내를 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먼저 아내를 시험해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그대 아내는 늘 그렇게 그대 홀에 머물러 있고,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밤과 낮을 늘 그렇게 보내고 있다.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대가 전우들을 모두 잃고 돌아오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형제인 포세이돈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대에게 노여움을 품은 신이다. 자, 그대가 믿을 수 있도록 이타카의 터전을 보여 주겠다. 여기가 바다 노인 포르키스의 포구다. 포구 머리에는 이 잎이 긴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 곁에 아늑하고 어둑한 동굴, 물의 님프라고 불리는 님프들에게 바쳐진 신성한 동굴이 있다. 이것이 그 지붕 덮인 동굴이다. 그대가 님프들에게 흠 없는 큰 제물을 수없이 바치던 곳이다. 그리고 저것은 숲으로 뒤덮인 네리톤산이다."

352 이렇게 말하고 여신이 안개를 흩어 버리자 땅이 드러났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제 땅이 반가워 기뻐하며 곡식을 내는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곧 두 손을 들고 님프들에게 기도했다.

356 "제우스의 따님들, 물의 님프들이시여, 다시는 뵙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정다운 기도로 인사드리니 기뻐하소서. 전리품을 몰아오는 제우스의 따님께서 기꺼이 저를 살려 두시고 제 사랑하는 아들을 키워 주신다면, 지난날처럼 선물도 바치겠습니다."

361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용기를 내라. 그런 일로 속을 썩이지 마라. 자, 이 재물부터 지금 곧 신비로운 동굴 깊숙한 곳에 두자. 그래야 그대에게 고스란히 남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일이 가장 잘되도록 우리가 궁리해 보자."

366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어둑한 동굴로 들어가 동굴 안에서 숨길 만한 구석을 찾았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스인들이 준 황금과 닳지 않는 청동과 잘 지은 옷을 모두 가까이 날라 왔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가 그것들을 잘 놓아두고 입구에 돌을 막아 두었다. 둘은 신성한 올리브나무 밑동 곁에 앉아 방자한 구혼자들을 파멸시킬 궁리를 했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375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염치없는 구혼자들에게 어떻게 손을 댈지 궁리해 보아라. 그자들은 벌써

세 해째 그대 홀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신에 버금가는 그대 아내에게 구혼하고 구혼 선물을 내밀고 있다. 그대 아내는 그대가 돌아오기를 늘 마음속으로 애타게 기다리며 슬퍼하면서도, 모두에게 기대를 품게 하고 사내마다 약속을 하며 전갈을 보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38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아아, 여신께서 이 모든 일을 도리에 맞게 일러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처럼 제 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자, 제가 저들에게 앙갚음할 꾀를 짜 주십시오. 우리가 트로이의 반들거리는 머릿수건을 벗겨 냈을 때처럼, 크나큰 용기를 불어넣으시며 몸소 제 곁에 서 주십시오. 빛나는 눈의 여신이시여, 그때처럼 열의를 품고 곁에 서 주신다면, 존귀한 여신이시여, 여신께서 기꺼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여신과 함께 삼백 명의 사내와도 싸우겠습니다."

392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물론 나는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낼 때 그대가 나를 놓칠 일은 없다. 그대의 살림을 먹어 치우는 구혼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피와 골로 끝없이 넓은 땅바닥을 더럽히리라. 자, 그대를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잘 굽는 팔다리의 고운 살갗을 쭈글쭈글하게 하고, 머리에서 금빛 머리털을 없애고, 걸친 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싫어할 누더기를 그대에게 입히겠다. 전에는 더없이 아름답던 두 눈도 흐리멍덩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대는 모든 구혼자에게도, 홀에 두고 떠난 아내와 아들에게도 볼품없는 꼴로 보일 것이다. 그대는 먼저 돼지치기에게 가거라. 그대 돼지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대에게 한결같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대 아들과 분별 있는 페넬로페를 아낀다. 그가 돼지들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돼지들은 까마귀 바위 곁, 아레투사 샘가에서 풀을 뜯으며 마음껏 도토리를 먹고 검은 물을

마신다. 그런 것을 먹고 마셔야 돼지에게 기름진 비계가 붙는다. 그대는 거기 머물며 그의 곁에 앉아 모든 것을 물어보아라. 그동안 나는 여인들이 아름다운 스파르타로 가서 그대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불러오겠다, 오디세우스. 그 아이는 그대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는지 소식을 들으러 땅이 넓은 스파르타로 메넬라오스를 찾아갔다."

41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어찌하여 그 아이에게 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이도 거둘 것 없는 바다 위를 떠돌며 고통을 겪고, 그사이 남들이 그 아이 살림을 먹어 치우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그 아이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내가 몸소 그 아이를 보냈다. 그곳에 가서 좋은 명성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 아이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아트레우스의 아들 집에 편히 앉아 있고, 곁에는 한없이 많은 것이 놓여 있다. 물론 젊은이들이 검은 배를 타고 숨어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보다 먼저 그대의 살림을 먹어 치우는 구혼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땅에 묻힐 것이다."

429 이렇게 말하고 아테나가 지팡이로 그를 건드렸다. 잘 굽는 팔다리의 고운 살갗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에서 금빛 머리털이 없어지고, 온몸의 살갗이 늙은 노인의 살갗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더없이 아름답던 두 눈도 흐리멍덩해졌다. 여신은 그에게 다른 고약한 누더기와 윗옷을 걸쳐 주었다. 해지고 때 묻고 지독한 연기에 그을린 옷이었다. 그 위에 털이 다 빠진 날랜 사슴의 커다란 가죽을 입혔다. 또 짚고 다닐 지팡이 하나와 군데군데 해진 볼품없는 자루를 주었는데, 자루에는 꼬아 만든 끈이 어깨걸이로 달려 있었다.

439 두 사람은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 헤어졌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찾아 고귀한 스파르타로 떠났다.

제14권

1 오디세우스는 포구를 떠나 숲이 우거진 땅을 지나 산마루를 넘는 험한 오솔길을 올라갔다. 아테나가 고귀한 돼지치기가 있는 곳이라고 일러 준 길이었는데, 그 돼지치기는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손수 얻은 종들 가운데 주인의 살림을 누구보다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

5 오디세우스는 그가 문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사방이 훤히 내다보이는 자리에 높은 울타리를 둘러친 안뜰이 있었는데, 크고 아름다우며 빙 둘러 돌아갈 수 있게 지은 것이었다. 주인이 떠나고 없는 동안 돼지치기가 안주인이나 늙은 라에르테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돼지들을 위해 지은 것으로, 날라 온 돌로 쌓고 그 위에 가시덤불로 담을 얹었다. 바깥쪽에는 참나무의 검은 속살을 빙 둘러 쪼개 낸 말뚝을 촘촘하고 빽빽하게, 이쪽저쪽 끝까지 박아 두었다. 안뜰 안에는 돼지들의 잠자리로 우리 열두 개를 서로 붙여 지었는데, 우리마다 땅바닥에서 자는 돼지 쉰 마리, 새끼를 낳는 암퇘지들이 갇혀 있었다. 수퇘지들은 밖에서 잤고 수가 훨씬 적었으니, 신에 버금가는 구혼자들이 먹어 치워 그 수를 줄인 까닭이었다. 돼지치기가 살진 돼지들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을 늘 그들에게 보내야 했으니, 이제 수퇘지는 삼백예순 마리였다. 곁에는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치기가 기른 개 네 마리가 늘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들짐승처럼 사나웠다. 돼지치기는 빛깔 좋은 쇠가죽을 잘라 제 발에 맞게 신을 짓고 있었다. 다른 일꾼 셋은 떼 지어 모은 돼지들을 몰고 저마다 이리저리 흩어져 나가 있었고, 넷째 일꾼은

돼지치기가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보냈는데, 돼지 한 마리를 몰고 가서 방자한 구혼자들이 그것을 잡아 고기로 배를 채우게 해야 했다.

29 갑자기 짖어 대는 개들이 오디세우스를 보았다. 개들은 요란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오디세우스는 꾀를 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하마터면 그는 제 농장 곁에서 험한 꼴을 당할 뻔했다. 그러나 돼지치기가 날랜 발로 재빨리 뒤쫓아 문간으로 뛰쳐나왔고, 그 바람에 손에 들었던 가죽이 떨어졌다. 그는 개들을 큰 소리로 꾸짖고 돌멩이를 잇따라 던져 이리저리 쫓아 버렸다. 그러고는 주인에게 말했다.

37 "노인장, 하마터면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당신을 물어뜯을 뻔했구려. 그랬다면 당신이 내게 수치를 뒤집어씌웠을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신들께서 내게 다른 고통과 한숨을 내려 주셨으니, 나는 신에 버금가는 주인을 그리며 슬퍼하고 애태우며 여기 앉아, 남들이 먹을 살진 돼지를 기르고 있소. 그런데 그분은 아직 살아서 햇빛을 보고 계신다 해도, 아마 먹을 것을 애타게 찾으며 말이 다른 사람들의 고장과 도시를 떠돌고 계실 것이오. 자, 따라오시오. 오두막으로 갑시다, 노인장. 빵과 포도주로 마음껏 배를 채운 다음, 당신도 어디서 왔으며 어떤 시름을 견뎌 왔는지 말해 주시오."

48 이렇게 말하고 고귀한 돼지치기는 오두막으로 앞장서 갔다. 그는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 앉게 했다. 무성한 잎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털이 덥수룩한 들염소의 가죽을 펼쳤는데, 크고 털이 수북한 그 가죽은 그가 깔고 자던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그가 이렇게 맞아 주는 것이 기뻐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53 "주인장, 당신이 이렇게 기꺼이 나를 맞아 주었으니, 제우스와 다른 불사의 신들께서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비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손님,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 찾아온다 해도 손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내게 도리가 아니오. 나그네와 거지는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 말이오. 우리가 주는 것은 작아도 정이 담겨 있소. 젊은 주인들이 휘두르는 집에서 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종들의 법도라서 그렇소. 신들께서 그분의 귀향을 막아 버리셨소. 그분이 계셨더라면 나를 살뜰히 아껴 주시고, 마음 넉넉한 주인이 제 종에게 주듯 내게도 집과 땅과 많은 이가 탐내는 아내를, 그런 살림을 마련해 주셨을 것이오. 종이 주인을 위해 애써 일하고 신께서 그 일을 키워 주시면 주인은 그렇게 해 주기 마련이오. 내가 맡아 일하는 이 일도 그렇게 늘어 가고 있소. 그러니 그분이 여기서 늙으셨다면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소. 헬레네의 족속은 숱한 사내들의 무릎을 풀어 놓았으니, 차라리 무릎이 꺾여 송두리째 망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분도 아가멤논의 명예를 위해 트로이인들과 싸우러 좋은 말이 많은 일리오스로 가셨소."

72 이렇게 말하고 그는 띠를 둘러 윗옷을 재빨리 여미고, 새끼 돼지 떼가 갇혀 있는 우리로 갔다. 거기서 두 마리를 골라 들고 와서 둘 다 잡았다. 털을 그슬리고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었다. 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는 꼬챙이에 꿴 채 뜨거운 것을 가져다 오디세우스 앞에 놓고, 그 위에 흰 보릿가루를 뿌리고, 나무 사발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은 다음, 자신은 손님과 마주 앉아 어서 들라고 권하며 말했다.

80 "손님, 종들에게 있는 새끼 돼지 고기라도 이제 드시오. 살진 돼지는 구혼자들이 먹어 치우니 말이오. 그자들은 신의 눈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가엾게 여길 줄도 모르오. 그러나 복된 신들께서는 모진 짓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올바름과 도리에 맞는 일을 높이 여기시오. 남의 땅을 쳐들어가는 사납고 못된 적들이라도 제우스께서 전리품을 주셔서 배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신의 눈길을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도 떨어지기 마련이오. 그런데 이자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하오. 어떤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줄 아는 것이오. 그러니 그자들은 도리에 맞게 구혼하지도 않고 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태평하게 남의 재산을 거리낌 없이 마구 먹어 치우며 아끼는 법이 없소. 제우스께서 내리시는 밤과 낮이 몇이든, 그자들은 날마다 제물을 한 마리나 두 마리만 잡는 법이 없고, 포도주도 거리낌 없이 퍼마시며 축내고 있소. 그분의 살림은 정말 엄청났으니 말이오. 검은 뭍에서도, 이타카에서도, 그만한 살림을 가진 영웅은 아무도 없었소. 스무 사람의 재산을 합쳐도 그만큼 많지는 않았소. 내가 당신에게 낱낱이 일러 주겠소. 뭍에 소 떼가 열두 무리 있고, 양 떼도 그만큼, 돼지 떼도 그만큼, 너른 염소 떼도 그만큼 있는데, 남의 땅에서 온 목자들과 그분의 목자들이 치고 있소. 여기 이 섬에도 너른 염소 떼가 모두 열한 무리나 섬 끝자락에서 풀을 뜯고 있고, 믿음직한 사내들이 지키고 있소. 그 목자들이 저마다 날마다 살진 염소들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놈을 한 마리씩 그자들에게 몰고 가오. 나는 여기서 이 돼지들을 지키고 돌보며, 돼지들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을 잘 골라 그자들에게 보내고 있소."

109 돼지치기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말없이 게걸스럽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서 구혼자들에게 닥칠 재앙의 씨를 심고 있었다. 그가 저녁을 먹고 먹을 것으로 마음을 든든히 채우자, 돼지치기는 제가 마시던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그에게 건넸다. 오디세우스는 그 잔을 받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15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 그렇게 큰 부자에 그렇게 힘센 분이었다면, 제 재산으로 당신을 사들인 그분은 대체 누구요? 그분이 아가멤논의 명예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말해 주시오.

혹시 내가 어디선가 그런 분을 알았을지도 모르오. 내가 그분을 보았다고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는 제우스와 다른 불사의 신들께서나 아실 것이오. 나는 숱한 곳을 떠돌았으니 말이오."

121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치기가 대답했다. "노인장, 누가 떠돌다 와서 그분 소식을 전한다 해도 그분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믿게 하지는 못할 것이오. 떠돌이 사내들이란 그저 먹고 잘 곳이 아쉬워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 없소. 떠돌다가 이타카 고을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내 안주인을 찾아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안주인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하며 하나하나 캐물으시는데, 슬퍼하시는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오. 남편이 먼 데서 죽으면 아내가 그러는 것이 도리이니 말이오. 노인장, 당신도 누가 외투와 윗옷을 옷으로 준다면 금세 이야기를 지어낼 것이오. 그러나 그분은 이미 목숨이 떠나 버렸고, 개들과 날랜 새들이 그 뼈에서 살갗을 뜯어냈을 것이오. 아니면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그분을 뜯어먹었고, 그 뼈는 두꺼운 모래에 덮인 채 뭍에 누워 있을 것이오. 이렇게 그분은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시름이 남았소. 누구보다 내게 그렇소. 내가 어디를 가든 다시는 그렇게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처음 태어나 부모님 손에 자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소. 고향 땅에 돌아가 내 눈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제는 그분들 때문에 그리 슬퍼하지 않고, 떠나신 오디세우스를 향한 그리움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소. 손님,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가 송구스럽소. 그분이 나를 그토록 아끼고 마음 깊이 돌봐 주셨으니 말이오. 그래서 그분이 멀리 계셔도 나는 그분을 형님이라 부르오."

148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을 받았다. "여보시오, 당신은 한사코 고개를 젓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더 말하지

않는구려. 당신 마음은 늘 믿으려 들지 않으니 말이오. 그러나 나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걸고 말하겠소. 오디세우스는 돌아오고 있소. 그분이 돌아와 자기 집에 들어서는 그때 곧바로 기쁜 소식을 전한 값을 내게 주시오. 외투와 윗옷, 고운 옷을 내게 입혀 주시오. 그 전에는, 아무리 궁하다 해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가난에 굴복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는 내게 하데스의 문만큼이나 미우니 말이오. 이제 신들 가운데 먼저 제우스께서, 그리고 손님을 맞는 이 식탁과 내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화덕이 증인이 되어 주소서. 이 모든 일은 정녕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바로 이해 안에, 이 달이 기울고 새 달이 차오를 무렵 오디세우스가 여기 집으로 돌아와, 여기서 그분의 아내와 빛나는 아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누구든 벌할 것이오."

165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노인장, 나는 그 기쁜 소식의 값을 치를 일이 없을 것이고, 오디세우스께서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니 편히 마시오.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이 일은 내게 떠올리게 하지 마시오. 누가 믿음직한 주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 가슴속 마음이 쓰라리니 말이오. 맹세는 그만둡시다. 다만 나도 페넬로페 마님도, 늙은 라에르테스 어른도,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도 바라는 대로 오디세우스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랄 뿐이오. 이제 나는 오디세우스께서 낳으신 아들 텔레마코스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소. 신들께서 그 아이를 어린나무처럼 길러 주셨으니, 나는 그 아이가 몸과 생김새가 남달리 빼어나서 사내들 가운데 제 사랑하는 아버지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으리라 여겼소. 그런데 불사의 신들 가운데 누가,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아이의 반듯한 생각을 흐려 놓았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러 성스러운 필로스로 떠났는데, 당당한 구혼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이를 숨어 기다리고 있으니, 신에

버금가는 아르케이시오스의 핏줄이 이타카에서 이름도 없이 끊어지게 하려는 속셈이오. 그러나 그 아이 일도 그만둡시다. 붙잡히든 달아나든,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그 아이 위로 손을 펴 주시든 말이오. 자, 노인장, 당신의 시름을 내게 들려주시오.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요? 무슨 배를 타고 왔소? 뱃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타카로 데려왔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걸어서 여기 왔을 리는 없을 테니 말이오."

19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숨김없이 다 말하겠소. 이 오두막 안에서 우리 둘이 오래도록 먹을 것과 달콤한 술을 두고 조용히 잔치를 벌이고 다른 이들은 저마다 일하러 간다 해도, 신들의 뜻으로 내가 겪어 온 마음의 시름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 해를 꼬박 들여도 쉽사리 끝내지 못할 것이오."

199 "나는 넓은 크레타 태생으로, 부잣집 아들이오. 그 집 홀에는 다른 아들들도 많이 태어나 자랐는데, 그들은 정실 아내에게서 난 적자들이었소. 나는 돈으로 사 온 첩이 낳은 아들이었소. 그러나 힐락스의 아들 카스토르는 나를 적자들과 똑같이 귀히 여겼소. 나는 그분의 핏줄이라고 자부하오. 그분은 그 무렵 크레타 고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복과 재산과 영광스러운 아들들 덕에 신처럼 존경받았소. 그러나 죽음의 운명이 그분을 하데스의 집으로 데려가자, 기세 높은 아들들이 제비를 뽑아 그분의 재산을 나눠 가졌고, 내게는 아주 조금만 주고 집 한 채를 떼어 주었을 뿐이오. 그래도 나는 내 빼어남 덕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았소. 나는 쓸모없는 자도, 싸움에서 달아나는 자도 아니었으니 말이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소. 그래도 그루터기만 보아도 당신은 나를 알아볼 것이오. 지금은 끔찍한 불행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말이오. 아레스와 아테나는 내게 용기와 적진을

뚫는 힘을 주었소. 적들에게 재앙을 심으려 가장 뛰어난 사내들을 골라 매복하러 갈 때면, 내 굳센 마음은 한 번도 죽음을 내다보지 않았소. 나는 언제나 맨 앞장서 뛰어나가 적들 가운데 발이 나만 못한 자를 창으로 잡았소. 싸움터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소. 그러나 들일이나, 빛나는 자식들을 키우는 집안 살림은 내게 맞지 않았소. 내가 좋아한 것은 언제나 노를 단 배와 싸움과 반들반들 다듬은 투창과 화살이었소. 남들은 몸서리치는 끔찍한 것들이지만, 내게는 어떤 신이 내 마음에 심어 준 그런 것들이 좋았소.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일이 다르니 말이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트로이 땅을 밟기 전에, 나는 아홉 번이나 사내들과 날랜 배를 이끌고 남의 땅 사람들을 치러 갔고, 아주 많은 것을 손에 넣었소.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골랐고, 그 뒤에 제비를 뽑아서도 많이 받았소. 그래서 내 집 살림은 금세 불어났고, 나는 크레타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소. 그러나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께서 숱한 사내들의 무릎을 풀어 놓은 그 끔찍한 원정을 꾸미셨을 때, 사람들은 나와 이름 높은 이도메네우스에게 배를 이끌고 일리오스로 가라고 했소. 거절할 길이 없었소. 고을 사람들의 입이 무서웠으니 말이오. 그곳에서 우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아홉 해 동안 싸웠고, 열 해째 되는 해에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소. 그러나 어떤 신이 아카이아인들을 흩어 버렸소. 그런데 가련한 내게 꾀 깊은 제우스께서 재앙을 꾸미셨소. 나는 겨우 한 달 동안만 자식들과 처음 맞은 아내와 재산을 누리며 집에 머물렀소. 그 뒤에 내 마음이 이집트로 배를 타고 가라고 나를 부추겼소. 신에 버금가는 전우들과 함께 배를 잘 차려 가라고 말이오. 나는 배 아홉 척을 차렸고, 사람들이 금세 모여들었소. 그 뒤로 엿새 동안 내 정다운 전우들은 잔치를 벌였고, 나는 신들께 바치고 그들 자신이 잔치를 차릴 수 있도록 제물로 쓸 짐승을 많이 내주었소. 이레째 되는 날 우리는 넓은

크레타를 떠나 세차고 좋은 북풍을 타고 마치 물살을 따라 내려가듯 쉽게 바다를 건넜는데, 내 배는 한 척도 상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으며, 바람과 키잡이들이 배를 바로 몰았소."

257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물이 고운 이집트강에 닿았고, 나는 이집트강에 양 끝이 휜 배들을 세웠소. 그리고 정다운 전우들에게 배 곁에 그대로 머물며 배를 지키라고 이르고, 정찰병들을 망보는 자리로 내보냈소. 그런데 전우들은 오만에 빠져 제 기운만 믿고 날뛰며, 곧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더없이 아름다운 들판을 휩쓸었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끌고 오고 사내들은 죽였소. 금세 함성이 도시까지 닿았소. 함성을 들은 그곳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쳐들어왔소. 온 들판이 보병과 말과 청동의 번득임으로 가득 찼소.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께서 내 전우들에게 비참한 겁을 불어넣으셔서, 아무도 버티고 맞서 싸우지 못했으니, 재앙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싼 까닭이었소. 그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날카로운 청동으로 죽였고, 나머지는 산 채로 끌고 가 억지로 종살이를 시켰소. 그때 제우스께서 몸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 주셨소. 차라리 그곳 이집트에서 죽어 내 운명을 맞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직도 재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오. 나는 곧바로 잘 만든 투구를 머리에서 벗고 방패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창을 손에서 내던졌소. 그러고는 왕의 말 앞으로 나아가 그의 무릎을 잡고 입을 맞추었소. 왕은 나를 구해 주고 가엾게 여겨, 눈물을 흘리는 나를 수레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소. 물론 많은 사람이 물푸레나무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소. 몹시 노해 있었으니 말이오. 그러나 왕이 그들을 막아섰소. 나쁜 짓을 누구보다 언짢아하시는, 나그네를 지키는 제우스의 노여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오."

285 "나는 그곳에 일곱 해를 머물며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소. 모두가 내게 선물을 주었으니 말이오. 그러나 여덟 해째 되는 해가 돌아왔을 때, 속임수에 능한 페니키아 사람 하나가 찾아왔소. 남의 것을 갉아먹는 욕심꾸러기로, 이미 사람들에게 숱한 몹쓸 짓을 저지른 자였소. 그자는 꾀를 부려 나를 꼬드겨 데리고 갔고, 우리는 그자의 집과 재산이 있는 페니키아에 닿았소. 그곳에서 나는 그자 곁에 꼬박 한 해를 머물렀는데, 달과 날이 다 차고 한 해가 다시 돌아와 철이 바뀌자, 그자는 리비아로 가는, 바다를 건너는 배에 나를 태웠소. 거짓을 꾸며, 나더러 자기와 함께 짐을 실어 나르자고 했지만, 실은 그곳에서 나를 팔아 엄청난 값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소. 나는 그런 낌새를 느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자를 따라 배에 올랐소. 배는 세차고 좋은 북풍을 타고 크레타 한복판 위쪽을 지나 내달렸소. 그러나 제우스께서는 그들에게 파멸을 꾸미고 계셨소. 우리가 크레타를 떠나자 다른 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늘과 바다뿐이었소. 그때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우묵한 배 위에 검푸른 구름을 드리우셨고, 그 아래로 바다가 어두워졌소. 그와 함께 제우스께서 천둥을 울리며 배에 벼락을 내리치셨소. 제우스의 벼락을 맞은 배는 온통 빙글빙글 돌았고 유황 냄새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모두 배에서 떨어졌소. 그들은 바다까마귀처럼 검은 배 둘레의 물결에 휩쓸려 다녔고, 신께서 그들에게서 귀향을 앗아 가셨소. 그러나 마음에 고통을 품은 나에게는 제우스께서 몸소, 내가 아직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뱃머리가 검푸른 배의 어마어마한 돛대를 손에 쥐여 주셨소. 나는 그 돛대를 끌어안고 사나운 바람에 떠밀려 다녔소. 아흐레 동안 떠밀려 다녔고, 열흘째 되는 캄캄한 밤에 굽이치는 큰 물결이 나를 테스프로티아인의 땅에 닿게 했소. 그곳에서 테스프로티아인의 왕, 영웅 페이돈이 값도 받지 않고 나를 돌보아 주었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찬 바람과 지친 몸에

짓눌린 나를 만나 손을 잡아 일으켜, 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데려갔소. 그리고 외투와 윗옷을 옷으로 입혀 주었소."

321 "나는 거기서 오디세우스 소식을 들었소. 왕은 오디세우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그를 손님으로 맞아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소.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모은 재물, 청동과 황금과 공들여 벼린 쇠를 내게 보여 주었소. 왕의 홀에 쌓여 있는 그 보물은 열 대째 자손까지도 먹여 살릴 만큼 많았소. 왕의 말로는 오디세우스가 도도나에 갔다고 했소. 잎이 높이 우거진 신의 참나무에서 제우스의 뜻을 들으려고 간 것인데, 오래 떠나 있던 터라 기름진 이타카 고을로 드러내 놓고 돌아가야 할지 몰래 돌아가야 할지 물으려 한다는 것이었소. 왕은 집에서 신께 술을 따라 바치며 내 앞에서 맹세했소. 배를 이미 바다에 띄워 두었고, 그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데려다줄 전우들도 채비를 마쳤다고 말이오. 그러나 왕은 나를 먼저 보냈소. 마침 테스프로티아인들의 배가 밀이 많이 나는 둘리키온으로 떠나려던 참이었소. 왕은 그들에게 나를 아카스토스 왕에게 정성껏 데려다주라고 일렀소.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나를 두고 나쁜 꾀가 들어, 내가 고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려 했소. 바다를 건너는 배가 뭍에서 멀리 떠나오자, 그들은 곧바로 나를 종으로 만들 궁리를 했소. 내 외투와 윗옷을 벗기고, 다른 고약한 누더기와 윗옷을 걸쳐 주었소. 지금 당신이 눈앞에 보는 이 해진 옷이오. 저녁 무렵 그들은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이타카의 밭에 닿았소. 그곳에서 그들은 갑판 튼튼한 배 안에 나를 잘 꼰 밧줄로 단단히 묶어 두고, 자기들은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서 서둘러 저녁을 먹었소. 그러나 신들께서 몸소 내 묶인 줄을 쉽게 풀어 주셨소. 나는 누더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반들반들한 키를 타고 내려가 가슴을 바다에 댄 다음, 두 팔로 물을 헤치며 헤엄쳐 금세 그들에게서 멀리 벗어났소. 그러고는 꽃이 만발한 덤불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몸을

웅크리고 엎드려 있었소. 그들은 크게 아쉬워하며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더 멀리 뒤져 봐야 득 될 것이 없어 보였는지 다시 우묵한 배로 돌아갔소. 신들께서 몸소 나를 쉽게 숨겨 주시고, 이렇게 사리를 아는 사람의 농장으로 데려다주셨소. 내게는 아직 살아갈 몫이 남아 있는가 보오."

360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 가엾은 손님, 당신이 겪은 일과 떠돌아다닌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내 마음이 몹시 흔들렸소. 그러나 오디세우스 이야기만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소. 그 말로는 나를 믿게 하지 못할 것이오. 당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 무엇 하러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오? 내 주인의 귀향이라면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분은 모든 신들에게 단단히 미움을 받았소. 그러니 트로이인들 사이에서 쓰러지게 하지도 않고, 전쟁을 끝낸 뒤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서 숨지게 하지도 않았소. 그랬다면 온 아카이아인이 그분께 무덤을 쌓아 드렸을 테고, 그분은 아들에게도 뒷날까지 큰 명성을 남기셨을 것이오. 그런데 이제는 회오리바람이 그분을 아무 영광도 없이 낚아채 가 버렸소. 나는 돼지들 곁에 떨어져 살며 도시에도 가지 않소. 어디서 소식이 왔을 때 사려 깊은 페넬로페 마님이 와 보라고 하시면 모를까.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곁에 앉아 이것저것 캐묻소. 오래전에 떠나신 주인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도 있고, 그분의 살림을 값도 치르지 않고 먹어 치우며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소. 그러나 나는 아이톨리아 사람 하나가 이야기로 나를 속인 뒤로는 무엇을 캐묻고 따질 마음이 없소. 그자는 사람을 죽이고 숱한 땅을 떠돌다가 내 집에 왔고, 나는 그를 반갑게 맞았소. 그자는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이도메네우스의 집에서 그분이 폭풍에 부서진 배를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여름이나 가을이면 신에 버금가는 전우들과 함께 재물을 잔뜩 싣고 돌아오실 거라고 했소. 시름 많은 노인장, 당신도 어떤 신이 내게로

이끌어 주었으니 거짓말로 내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나를 홀리려 들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받들고 아끼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지키는 제우스를 두려워하고 당신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오."

39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당신 가슴속 마음은 정말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구려. 맹세까지 했는데도 당신을 돌려세우지 못하고 믿게 하지도 못하니 말이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약속을 합시다.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께서 앞으로 우리 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오. 당신 주인이 이 집에 돌아오면, 당신은 내게 외투와 윗옷을 옷으로 입혀 내가 마음 두고 있는 둘리키온으로 보내 주시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당신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종들을 시켜 나를 큰 바위에서 내던지게 하시오. 그러면 다른 거지도 남을 속이지 않으려 조심할 것이오."

401 고귀한 돼지치기가 대답했다. "손님, 내가 당신을 오두막에 데려와 손님 선물을 주고 나서 다시 당신을 죽여 그 목숨을 빼앗는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내 좋은 평판과 빼어남이 참으로 대단하겠구려. 그러고 나서야 나는 기꺼이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 빌 수 있겠소!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었소. 동료들이 어서 돌아와야 오두막에서 맛있는 저녁을 지을 텐데."

409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돼지들과 돼지치는 사내들이 가까이 돌아왔다. 그들은 돼지들을 늘 자던 우리에 가두어 재웠고, 우리에 갇히는 돼지들이 한없이 꽥꽥거렸다. 고귀한 돼지치기가 동료들을 불러 말했다.

414 "돼지들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을 데려오게. 먼 데서 오신 손님을 위해 잡으려 하네. 우리도 덕을 좀 보세. 흰 엄니의 돼지들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고생을 견뎌 왔는데, 남들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 수고를 먹어 치우고 있으니 말일세."

418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무자비한 청동 도끼로 장작을 팼다. 일꾼들은 아주 살진 다섯 살배기 돼지를 끌고 들어와 화덕 곁에 세웠다. 돼지치기는 불사의 신들을 잊지 않았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흰 엄니 돼지의 머리털을 잘라 불 속에 던지고, 지혜 많은 오디세우스가 제 집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모든 신들께 빌었다. 그러고는 쪼개지 않고 남겨 둔 참나무 장작을 높이 쳐들어 돼지를 내리쳤고, 돼지는 목숨이 끊어졌다. 일꾼들이 돼지의 멱을 따고 털을 그슬려 곧바로 각을 떴다. 돼지치기는 모든 부위에서 맏몫으로 조금씩 떼어 낸 날고기를 기름진 비계 위에 얹어 신께 바치고, 그것에 보릿가루를 뿌려 불 속에 던졌다. 그들은 나머지 고기를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고 정성껏 구워서 모두 꼬챙이에서 빼냈다. 그리고 그것을 고기 판 위에 한데 모아 쏟자, 돼지치기가 고기를 나누려고 일어섰다. 그는 무엇이 도리에 맞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 고기를 모두 일곱 몫으로 갈랐다. 한 몫은 님프들과 마이아의 아들 헤르메스께 기도하며 바쳐 두고, 나머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흰 엄니 돼지의 등심을 통째로 주어 그를 높였고, 그것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말했다.

440 "에우마이오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몫으로 높여 주니, 당신이 내게 그렇듯 아버지 제우스께도 사랑받기를 비오."

442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어서 드시오, 이상한 손님. 여기 있는 것으로나마 즐기시오. 신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은 주시고 저것은 거두시니 말이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소."

446 그는 이렇게 말하고 영원히 사는 신들께 맏물을 태워 바쳤고, 반짝이는 포도주를 신께 따라 바친 다음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의 손에 잔을 쥐여 주었다. 그러고는 제 몫 앞에 앉았다. 메사울리오스가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주인이 떠나고 없는 동안 돼지치기가 안주인이나 늙은 라에르테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얻은 종이었다. 타포스인들에게서 제 재산을 들여 사 온 것이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메사울리오스가 빵을 치웠고, 그들은 빵과 고기로 배를 채운 뒤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457 달도 없는 사나운 밤이 찾아왔다. 제우스는 밤새 비를 뿌렸고, 늘 물기를 머금은 서풍이 거세게 불었다.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를 떠보려고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돼지치기가 그를 그토록 아껴 주었으니, 혹시 제 외투를 벗어 주거나 동료 가운데 누구에게 그러라고 이르지 않을까 해서였다.

462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이제 들어 보시오.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나 하겠소. 사람을 홀리는 포도주가 시키는구려. 포도주는 아무리 지혜 많은 사람도 큰 소리로 노래하게 하고 실없이 웃게 하며, 춤까지 추게 하고,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말도 내뱉게 하오. 그러나 이미 큰 소리로 말을 꺼냈으니 숨기지 않겠소. 트로이 아래에서 매복을 짜서 이끌고 가던 그때처럼 내가 젊고 힘이 든든하다면 좋으련만. 그때 오디세우스와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이끌었고, 셋째로 나도 함께 지휘했소. 그들이 나를 불러 주었기 때문이오. 우리가 도시와 높은 성벽에 이르자, 우리는 성 둘레 빽빽한 덤불 속, 갈대밭과 늪지에 무기를 둘러쓰고 웅크리고 누워 있었소. 북풍이 몰아치며 꽁꽁 얼어붙는 사나운 밤이 찾아왔소. 위에서는 서리처럼 차가운 눈이 내렸고, 방패마다 얼음이 엉겨 붙었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투와 윗옷이 있어서 방패로 어깨를 감싼 채 편히 잠들었소. 그러나 나는 얼어붙을 줄은 몰랐던 터라 어리석게도 길을 나설 때 외투를 동료들에게 맡겨 두고 왔고, 그래서 방패와 반짝이는

허리띠만 차고 따라나섰소. 그러다 밤이 세 토막으로 나뉘어 마지막 토막에 들어서고 별들이 기울었을 때, 나는 가까이 있던 오디세우스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말을 건넸고, 그는 곧바로 귀를 기울였소."

486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나는 이제 산 사람들 틈에 더는 있지 못할 것 같소. 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소. 외투가 없으니 말이오. 어떤 신이 나를 속여 윗옷 한 벌만 입고 오게 했소. 이제는 피할 길이 없소.'"

490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곧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소. 그는 꾀를 내는 데도 싸우는 데도 그런 사람이었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소. '쉿, 다른 아카이아인이 자네 말을 듣지 못하게 조용히 하게.'"

494 "그러더니 그는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들어 말했소. '벗들이여, 들어 보게. 잠결에 신이 보낸 꿈이 내게 찾아왔네. 우리가 배에서 너무 멀리 나와 있네. 누가 가서 백성의 목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배 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 달라고 일러 줄 수 없겠나?'"

499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가 재빨리 일어나 붉은 외투를 벗어 놓고 배를 향해 달려갔소. 나는 그의 옷을 덮고 기쁘게 누워 있었고, 이윽고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이 빛을 비추었소. 그때처럼 내가 젊고 힘이 든든하다면 좋으련만. 그러면 이 돼지 농장에서도 누군가가 외투를 내주었을 것이오. 훌륭한 사내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이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몸에 누더기를 걸쳤다고 모두 나를 업신여기는구려."

507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노인장,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나무랄 데가 없고, 도리에 어긋나거나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그러니 고생에 지친 탄원자가 찾아왔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 옷이든 다른 무엇이든 오늘

밤은 모자람이 없을 것이오. 그러나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다시 그 누더기를 걸치고 다녀야 하오. 여기에는 갈아입을 외투와 윗옷이 많지 않고, 사람마다 한 벌씩밖에 없으니 말이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이가 몸소 당신에게 외투와 윗옷을 옷으로 주고, 당신 마음과 가슴이 가라는 곳으로 보내 줄 것이오."

518 이렇게 말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 불 가까이에 손님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 위에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깔았다. 오디세우스가 거기 눕자, 에우마이오스는 그 위에 두툼하고 큰 외투를 덮어 주었다. 무서운 폭풍이 일 때 입으려고 갈아입을 옷으로 곁에 두었던 외투였다.

523 이렇게 오디세우스는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젊은 일꾼들도 그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돼지치기는 돼지들과 떨어져 그곳에서 자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고,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멀리 떠나 있는데도 그가 이토록 살림을 극진히 돌보는 것이 기뻤다. 돼지치기는 먼저 날카로운 칼을 튼튼한 어깨에 둘러메고, 바람을 막아 주는 아주 두툼한 외투를 걸쳤다. 잘 자란 큰 염소의 가죽을 집어 들고, 개와 사람을 막아 줄 날카로운 투창도 챙겼다. 그러고는 흰 엄니의 돼지들이 북풍을 피해 우묵한 바위 밑에서 자고 있는 곳으로 잠을 자러 갔다.

제15권

1 팔라스 아테나는 땅이 넓은 스파르타로 갔다. 기상 높은 오디세우스의 빛나는 아들에게 귀향을 일깨우고 어서 돌아가라고 재촉하려는 뜻이었다. 여신은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빛나는 아들이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집 문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네스토르의 아들은 부드러운 잠에 굴복해 있었지만, 텔레마코스는 달콤한 잠에 들지 못했으니, 거룩한 밤 내내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그의 가슴속에서 그를 깨워 두었다.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의 곁에 다가서서 말했다.

10 "텔레마코스, 그대가 재산을 내버려 두고, 그토록 방자한 자들을 그대 집에 남겨 둔 채 집을 떠나 멀리 떠돌고 있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 그자들이 그대 재산을 나누어 모두 먹어 치우고, 그대의 길은 헛걸음이 될까 두렵다. 그러니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에게 어서 그대를 보내 달라고 재촉하여라. 그래야 그대의 나무랄 데 없는 어머니를 아직 집에서 만날 수 있다. 그대 어머니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벌써 에우리마코스에게 시집가라고 다그치고 있으니, 그자가 선물로 다른 구혼자들을 모두 앞지르고 구혼 선물을 잔뜩 늘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대가 바라지 않는 사이에 어머니가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대도 알다시피 여자의 가슴속 마음이란 그런 것이다. 새로 맞을 남편의 집 살림을 불리고 싶어 하고, 처음 맞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나면 앞서 낳은 자식들도 그 남편도 더는 떠올리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대는 돌아가서, 신들께서

그대에게 영광스러운 아내를 보여 주실 때까지 몸소 모든 것을 하녀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이에게 맡겨라.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마음에 잘 담아 두어라. 구혼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죽이려고 이타카와 험한 사모스 사이의 해협에서 일부러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보다 먼저 그대의 살림을 먹어 치우는 구혼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땅에 묻힐 것이다. 잘 만든 배를 섬들에서 멀리 떨어지게 몰고 밤에도 쉬지 말고 배를 저으면, 불사의 신들 가운데 그대를 지키고 돌보는 신이 뒤에서 순풍을 보내 줄 것이다. 이타카의 첫 바닷가에 닿거든 배와 동료들은 모두 도시로 보내고, 그대는 맨 먼저 돼지치기에게 가거라. 그대 돼지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대에게 한결같이 마음이 따뜻하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그를 도시로 보내 사려 깊은 페넬로페에게 그대가 무사히 필로스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라."

43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높은 올림포스로 떠나갔다. 텔레마코스는 발로 네스토르의 아들을 툭 건드려 달콤한 잠에서 깨우고 말을 건넸다.

46 "일어나,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 통굽 말들을 끌어다 수레에 매어 줘. 어서 길을 떠나자."

48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아무리 길이 급해도 이 캄캄한 밤에 수레를 몰 수는 없어. 곧 날이 밝을 거야. 기다려, 영웅 아트레우스의 아들, 창으로 이름난 메넬라오스께서 선물을 가져와 수레에 실어 주시고 다정한 말로 작별 인사를 건네며 보내 주실 때까지. 손님은 우정을 베풀어 준 주인을 평생 잊지 않는 법이니까."

56 그가 이렇게 말하자 곧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이 찾아왔고,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가 머리채 아름다운 헬레네 곁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가까이 왔다.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를 보자 서둘러

반들거리는 윗옷을 몸에 걸치고, 튼튼한 어깨에 큰 겉옷을 두른 다음 문밖으로 나갔다. 영웅 텔레마코스,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가 메넬라오스 곁에 서서 말했다.

64 "제우스가 기르신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백성의 우두머리시여, 이제 저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벌써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7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가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귀향을 바라는 자네를 내가 여기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겠네. 나는 손님을 맞은 주인이 지나치게 아끼거나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을 보면 언짢네. 무슨 일이든 알맞은 것이 낫지. 떠나고 싶지 않은 손님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이나 서둘러 떠나려는 손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나 똑같이 몹쓸 짓일세. 손님이 머물 때는 아껴 주고, 떠나고 싶어 하면 보내 주어야 하네. 그래도 내가 고운 선물을 가져와 수레에 실어 주고 자네가 그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때까지, 그리고 여인들에게 일러 집에 있는 것으로 홀에서 넉넉히 아침을 차리게 할 때까지는 기다리게. 끝없이 넓은 땅을 먼 길 가기 전에 배불리 먹고 떠나면, 그것은 주인에게는 명예와 자랑이요 손님에게는 이로움이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셈일세. 자네가 헬라스와 아르고스 한복판을 두루 돌아보고 싶다면, 내가 몸소 따라가 주겠네. 말을 매어 주고 사람들의 도시로 자네를 이끌면, 아무도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좋은 청동으로 만든 세발솥이나 솥이나, 노새 두 마리나 황금 술잔 같은 것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가져가라고 줄 걸세."

86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제우스가 기르신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백성의 우두머리시여,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떠나올 때 제 재산을 돌봐 줄 사람을 뒤에 남겨 두지

못했으니, 신에 버금가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제가 죽거나, 아니면 홀에 둔 귀한 보물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92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는 그 말을 듣자 곧바로 아내와 하녀들에게 집에 있는 것으로 홀에서 넉넉히 아침을 차리라고 일렀다. 메넬라오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보에토오스의 아들 에테오네우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가까이 오자,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불을 피워 고기를 구우라고 일렀고,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메넬라오스 자신은 향기로운 방으로 내려갔다. 혼자가 아니라 헬레네와 메가펜테스가 함께 갔다. 보물을 쌓아 둔 곳에 이르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잔을 집어 들고, 아들 메가펜테스에게는 은 술동이를 들게 했다. 헬레네는 손수 지은, 온갖 무늬를 놓은 겉옷들이 든 궤짝 곁에 섰다. 여인 중에 고귀한 헬레네는 그 가운데 무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옷, 별처럼 빛나며 다른 옷들 맨 밑에 놓여 있던 옷 하나를 들어 올려 가져갔다. 그들은 집 안을 지나 앞으로 걸어가 텔레마코스에게 이르렀고,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 우렛소리 요란한 헤라의 남편 제우스께서 자네가 마음속에 바라는 대로 자네의 귀향을 이루어 주시기를 비네. 내 집에 쌓아 둔 보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주겠네. 잘 만든 술동이를 주겠네. 온통 은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는 금으로 마무리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일세. 시돈인의 왕, 영웅 파이디모스가 내게 준 것인데,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에 묵었을 때였네. 그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이렇게 말하고 영웅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잔을 그의 손에 쥐여 주었다. 굳센 메가펜테스가 빛나는 은 술동이를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뺨이 고운 헬레네가 겉옷을 손에 들고 곁에 서서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125 "젊은이, 나도 이 선물을 주겠소. 헬레네가 손수 지은 것이니 기념으로 간직하시오. 많은 이가 기다리는 혼례 날에 당신 아내가 입게 하시오. 그때까지는 홀 안,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 두시오. 부디 기쁜 마음으로 잘 지은 집과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바라오."

130 이렇게 말하고 헬레네가 겉옷을 그의 손에 쥐여 주자, 텔레마코스는 기쁘게 받았다. 영웅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선물을 받아 수레 바구니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감탄했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들을 집 안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등받이 의자와 높은 의자에 앉았다.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아름다운 황금 물병에 담아 와 은대야 위로 부어 손을 씻게 하고, 곁에 반들반들한 식탁을 펴 놓았다.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고,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 여러 가지 찬을 곁들였다. 보에토오스의 아들이 곁에서 고기를 썰어 몫을 나누었고,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아들이 술을 따랐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빛나는 아들은 말을 매고 화려하게 꾸민 수레에 올라, 문간과 소리 울리는 주랑을 지나 수레를 몰고 나갔다. 금발의 메넬라오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오른손에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포도주를 황금 잔에 담아 들고 그들을 뒤따랐다. 두 사람이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떠나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는 말들 앞에 서서 잔을 들어 인사하며 말했다.

151 "잘 가게, 젊은이들. 백성의 목자 네스토르께도 내 인사를 전해 주게. 우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트로이에서 싸우는 동안 그분은 내게 아버지처럼 너그러우셨네."

154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제우스가 기르신 분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곳에 가면 이 모든 말씀을 그분께 낱낱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타카로 돌아가 집에 계신 오디세우스를 만나,

제가 왕께 온갖 우정을 받고 많은 귀한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60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오른쪽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안뜰에서 기르던 커다란 흰 거위를 발톱으로 움켜쥔 독수리였다. 사내들과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쫓았지만, 독수리는 그들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들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날아올랐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기뻐했으며, 모두의 가슴속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167 "제우스가 기르신 메넬라오스 왕이시여, 백성의 우두머리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신께서 이 징조를 저희 둘에게 보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왕께 보이신 것입니까?"

169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는 이 징조를 어떻게 풀어야 도리에 맞게 답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옷자락 긴 헬레네가 그보다 먼저 말을 꺼냈다.

172 "내 말을 들어 보시오. 불사의 신들께서 내 마음에 넣어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이루어지리라 믿는 대로 예언하겠소. 이 독수리가 제 혈통과 새끼들이 있는 산에서 내려와 집에서 기르던 거위를 낚아챘듯이, 오디세우스도 숱한 고생을 겪고 숱한 곳을 떠돈 끝에 집으로 돌아와 앙갚음을 할 것이오. 아니, 어쩌면 벌써 집에 와서 구혼자들 모두에게 닥칠 재앙의 씨를 심고 있을 것이오."

179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우렛소리 요란한 헤라의 남편 제우스께서 부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도 왕비님께 신께 하듯 빌겠습니다."

182 이렇게 말하고 그가 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자, 말들은 힘차게 도시를 가로질러 들판으로 내달렸다. 두 말은 온종일 멍에를 양쪽에 진 채 흔들어 댔다.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다. 그들은

페라이에 있는 디오클레스의 집에 이르렀다. 디오클레스는 알페이오스강이 낳은 오르틸로코스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밤을 보냈고, 디오클레스는 그들 앞에 손님 선물을 내놓았다.

189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그들은 말을 매고 알록달록한 수레에 올라 문간과 소리 울리는 주랑을 지나 말을 몰았다. 말을 몰려고 채찍질을 하자 두 말은 기꺼이 날듯이 달렸다. 그들은 곧 필로스의 가파른 도시에 이르렀다. 그때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의 아들에게 말했다.

195 "네스토르의 아들, 내 부탁 하나 약속하고 들어줄 수 있겠어? 우리는 아버지들의 우정 덕에 대대로 손님 벗이라고 자부하고, 나이도 같아. 이번 길은 우리를 더욱 한마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제우스가 기른 친구야, 나를 배 곁을 지나쳐 데려가지 말고 거기 내려 줘. 어르신께서 나를 아끼려고 내 뜻과 달리 집에 붙잡아 두실까 봐 그래. 나는 어서 돌아가야 하거든."

202 그가 이렇게 말하자, 네스토르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약속하고 도리에 맞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궁리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는 말을 돌려 날랜 배가 있는 바닷가로 몰고 가서, 메넬라오스가 준 아름다운 선물, 옷과 황금을 배의 고물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어서 떠나라고 재촉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09 "어서 배에 오르고 동료들에게도 모두 오르라고 해. 내가 집에 가서 어르신께 알리기 전에 말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이것만은 잘 알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굳센지 너를 놓아주지 않으실 거야. 몸소 너를 부르러 여기까지 오실 테고, 빈손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몹시 노하실 테니까."

215 이렇게 말하고 그는 갈기 고운 말들을 몰아 필로스 사람들의 도시로 돌아가 곧 집에 닿았다.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에게 어서 서두르라고 일렀다. "벗들이여, 검은 배에 장비를 제자리에 갖추게. 우리도 배에 올라 어서 길을 떠나세."

22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을 귀담아듣고 따랐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다.

222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바쁘게 일을 서두르며 배의 고물 곁에서 아테나께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먼 나라에서 온 사내 하나가 그에게 가까이 왔다. 아르고스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예언자였다. 그는 핏줄로 따지면 멜람푸스의 후손이었다. 멜람푸스는 일찍이 양들의 어머니인 필로스에 살며, 필로스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훌륭한 집에 사는 부자였다. 그러다 그는 고향과,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당당한 사람, 기상 높은 넬레우스를 피해 남의 고장으로 갔다. 넬레우스가 그의 많은 재산을 꼬박 한 해 동안 힘으로 빼앗아 차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멜람푸스는 넬레우스의 딸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여신 에리니스가 그의 마음에 씌운 무거운 미혹 때문에 필라코스의 홀에서 괴로운 사슬에 묶여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크게 우는 소들을 필라케에서 필로스로 몰고 왔다. 그리고 신에 버금가는 넬레우스에게 그 고약한 짓을 앙갚음하고, 그 딸을 아내로 삼게 하려고 제 형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그는 남의 고장,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로 갔다. 그곳에 살며 많은 아르고스인을 다스리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거기서 아내를 얻고 지붕 높은 집을 지었으며, 굳센 두 아들 안티파테스와 만티오스를 낳았다. 안티파테스는 기상 높은 오이클레스를 낳았고, 오이클레스는 백성을 일깨우는 암피아라오스를 낳았다. 암피아라오스는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와 아폴론이 온갖 사랑을 쏟아 마음 깊이 아낀

사람이었지만, 늙음의 문턱에 이르지 못하고 한 여인이 받은 뇌물 때문에 테베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로는 알크마이온과 암필로코스가 태어났다. 만티오스는 폴리페이데스와 클레이토스를 낳았다.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은 클레이토스가 아름다워서 불사의 신들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를 낚아채 갔다. 그리고 아폴론은 암피아라오스가 죽자 기세 높은 폴리페이데스를 인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자로 만들었다. 폴리페이데스는 아버지에게 노하여 히페레시아로 옮겨 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해 주었다.

256 바로 그 폴리페이데스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이름은 테오클리메노스였다. 그는 텔레마코스 곁에 섰다. 텔레마코스가 날랜 검은 배 곁에서 신께 술을 따라 바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60 "젊은이, 여기서 제물을 바치는 당신을 만났으니, 이 제물과 신께 걸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머리와 당신을 따르는 동료들의 머리에 걸고 비오. 내가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말해 주고 숨기지 마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요?"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손님, 숨김없이 다 말하겠소. 나는 이타카 태생이고 아버지는 오디세우스요. 그런 분이 계셨던 적이 있다면 말이오. 그러나 이제는 비참한 파멸을 맞아 돌아가셨소.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 검은 배를 얻어, 오래전에 떠나신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러 왔던 것이오."

271 신을 닮은 테오클리메노스가 말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같은 핏줄의 사람을 죽이고 고향을 떠나왔소.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에는 그의 형제와 친척이 많은데,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소. 나는 그들이 내리려는 죽음과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오. 사람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내 몫이 되었소. 도망쳐

와서 당신에게 탄원하니 나를 배에 태워 주시오. 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말이오. 그들이 뒤쫓아 오고 있을 것이오."

279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바라는데 균형 잡힌 배에서 당신을 밀어내지는 않겠소. 따라오시오. 저곳에 가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나마 당신을 대접하겠소."

282 이렇게 말하고 그는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청동 창을 받아 양 끝이 흰 배의 갑판에 눕혀 두었다. 그리고 자신도 바다를 건너는 배에 올라 고물에 앉고, 그 곁에 테오클리메노스를 앉혔다. 동료들이 고물 밧줄을 풀었다. 텔레마코스가 동료들에게 어서 돛과 밧줄을 잡으라고 이르자, 그들은 서둘러 따랐다. 그들은 전나무 돛대를 들어 올려 속이 빈 돛대 받침에 세우고 앞 밧줄로 묶은 다음, 잘 꼰 가죽 밧줄로 흰 돛을 끌어 올렸다.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들에게 알맞은 순풍을 보내 주었다. 바람은 하늘을 가르며 세차게 몰아쳤고, 배는 짠 바닷물을 헤치며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그들은 크루노이와 물이 고운 칼키스를 지나갔다.

296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다. 배는 제우스가 보낸 순풍을 타고 서둘러 페아이를 지났고, 에페이오이족이 다스리는 고귀한 엘리스도 지나갔다. 거기서 텔레마코스는 뾰족한 섬들 쪽으로 배를 몰았다. 죽음을 피하게 될지 붙잡히게 될지 마음을 졸이면서였다.

301 그 무렵 오두막에서는 오디세우스와 고귀한 돼지치기가 저녁을 먹고 있었고, 다른 일꾼들도 곁에서 함께 먹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를 떠보려고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돼지치기가 아직도 자기를 살뜰히 아껴 이 농장에 머물라고 할지, 아니면 도시로 가라고 할지 알아보려 한 말이었다.

307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이제 들어 보시오. 나는 당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일 아침 도시로 내려가

빌어먹고 싶소. 그러니 내게 좋은 말로 일러 주고, 나를 그리로 데려다줄 좋은 길잡이를 하나 붙여 주시오. 도시에 가면 누가 술 한 잔과 빵 한 조각이라도 내밀지 않을까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이곳저곳을 떠돌 것이고,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가서 사려 깊은 페넬로페께 소식도 전하고 싶소. 방자한 구혼자들 사이에도 끼어 보겠소. 그자들은 먹을 것을 한없이 가지고 있으니 내게 끼니를 줄지도 모르오. 그러면 나는 그자들이 바라는 일을 무엇이든 곧바로 잘 해낼 것이오. 내가 터놓고 말할 테니 잘 새겨듣고 귀 기울이시오. 모든 사람의 일에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시는 길잡이 헤르메스 덕분에, 시중드는 솜씨로는 나와 겨룰 사람이 아무도 없소. 불을 잘 피우고, 마른 장작을 패고, 고기를 썰어 굽고, 술을 따르는 일, 지체 낮은 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해 주는 그런 일들 말이오."

325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몹시 속을 끓이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아, 손님, 어째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소? 당신은 정말 그곳에서 죽고 싶은 모양이구려. 구혼자들 무리 속에 들어가겠다니 말이오. 그자들의 오만과 횡포는 무쇠 하늘까지 닿았소. 그자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당신 같은 이들이 아니오. 외투와 윗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시중을 드는데, 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곱소. 반들반들 다듬은 식탁에는 빵과 고기와 포도주가 수북이 쌓여 있소. 그러니 여기 머무시오. 당신이 여기 있다고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나도, 내 곁의 다른 동료들도 그렇소.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이가 당신에게 외투와 윗옷을 옷으로 입혀 주고, 당신 마음과 가슴이 가라는 곳으로 보내 줄 것이오."

340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 나를 떠돌이 신세와 끔찍한 비참함에서 쉬게 해 주었으니, 당신이 내게 그렇듯 아버지 제우스께도 사랑받기를 비오. 사람에게 떠도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소. 떠돌이 신세와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 사람은 이 저주받을 배 때문에 몹쓸 시름을 겪게 마련이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나를 붙잡고 그 아이를 기다리라고 하니, 자,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와, 그분이 떠나면서 늙음의 문턱에 남겨 둔 아버지 이야기를 해 주시오. 그분들은 아직 햇빛 아래 살아 계시오, 아니면 벌써 돌아가 하데스의 집에 계시오?"

351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치기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손님, 숨김없이 다 말하겠소. 라에르테스 어른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떠나간 아들과 슬기로운 정실 부인 때문에 지독하게 슬퍼하시며 자기 집에서 팔다리에서 목숨이 빠져나가게 해 달라고 늘 제우스께 비신다오. 그 부인께서 돌아가신 것이 그분을 누구보다 괴롭혔고, 그분을 이르게 늙게 만들었소. 그 부인께서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그리는 슬픔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소. 이곳에 살면서 내게 다정하고 잘해 주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죽지 않기를 바라오. 그 부인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비록 슬픔에 잠겨 계셨어도, 나는 그분께 이것저것 여쭙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웠소. 그분이 기품 있는 딸, 막내로 낳은 옷자락 긴 크티메네와 함께 나를 몸소 키워 주셨기 때문이오. 나는 그 따님과 함께 자랐고, 부인께서는 나를 그 따님보다 조금 덜 귀히 여기셨을 뿐이오. 그러나 우리 둘 다 꽃다운 나이가 되자, 그분들은 그 따님을 사메로 시집보내고 엄청난 예물을 받으셨고, 부인께서는 내게 아주 고운 외투와 윗옷을 옷으로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겨 들판으로 보내셨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를 더욱 아끼셨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잃었소. 그래도 내가 맡아 하는 일은 복된 신들께서 늘려 주시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점잖은 이들에게 베풀기도 했소. 그러나 안주인에게서는 다정한 말씀도 따뜻한 일도 들을 수가 없소. 방자한 사내들이 집에 재앙으로 들이닥쳤으니 말이오. 종들은 안주인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저것 여쭙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들로 무엇이든 가지고 돌아가기를 몹시 바라오. 그런 일이 늘 종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니 말이오."

38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아아,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당신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멀리 떠돌았구려. 자, 이것을 말해 주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당신의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가 살던, 길이 넓은 사람들의 도시가 무너졌소, 아니면 당신이 양 떼나 소 떼 곁에 홀로 있을 때 적들이 배로 붙잡아 와서 이 사람의 집에 팔아넘겼고, 이분이 그 값을 넉넉히 치렀소?"

389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치기가 말을 받았다. "손님, 당신이 그것을 묻고 캐물으니, 이제 조용히 들으며 즐기고 앉아서 포도주를 드시오. 요즘 밤은 끝없이 길어서 잠잘 틈도 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들을 틈도 있소. 때가 되기 전에 누울 것은 없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괴로운 일이니 말이오. 다른 이들 가운데 마음과 가슴이 자라고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고, 날이 밝자마자 아침을 먹은 다음 주인님의 돼지들을 몰고 따라 나가도록 하시오. 우리 둘은 오두막에서 마시고 먹으며 서로의 비참한 시름을 떠올리며 즐깁시다. 숱한 고생을 겪고 숱한 곳을 떠돈 사람은 지난 고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기도 하는 법이오. 당신이 묻고 캐묻는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겠소."

403 "혹시 들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르티기아 너머, 해가 도는 곳에 시리에라는 섬이 있소. 사람이 그리 많이 살지는 않아도 좋은 섬으로, 소와 양을 치기에 좋고 포도주와 밀이 넉넉하오. 그 고을에는 굶주림이 찾아드는 일도, 가련한 인간들에게 닥치는 다른 몹쓸 병도 없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늙으면 은활의 아폴론이 아르테미스와 함께 찾아와 부드러운 화살로 그들을 쏘아 죽이오. 그 섬에는 도시가 두 개 있고,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 있소. 그 두 도시를 다

다스린 왕이 내 아버지, 불사의 신들과 닮은 오르메노스의 아들 크테시오스였소."

"그곳에 배로 이름난 페니키아 사람들이 왔소. 욕심 사나운 장사꾼들로, 검은 배에 온갖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잔뜩 싣고 왔소.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페니키아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아름답고 훤칠하며 빛나는 솜씨를 아는 여인이었소. 교활한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꾀어냈소. 여인이 빨래를 하러 나왔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내가 우묵한 배 곁에서 먼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하며 정을 통했는데, 그런 일은 솜씨 좋은 여자라 해도 여자들의 마음을 홀리게 마련이오. 그 사내가 여인에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여인은 곧바로 내 아버지의 지붕 높은 집을 가리켰소."

"'나는 청동이 많은 시돈 태생이라 자부하고, 아리바스의 딸이오. 내 아버지는 넘치도록 부자였소. 그런데 내가 들에서 돌아오는데 타포스의 해적들이 나를 낚아채, 여기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의 집에 팔아넘겼소. 이 사람이 넉넉한 값을 치렀소.'"

"그러자 몰래 그 여인과 정을 통하던 사내가 말을 받았소.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가지 않겠소?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붕 높은 집과 그분들을 보러 말이오. 그분들은 아직 살아 계시고 부자라는 말을 듣고 있소.'"

"여인이 말을 받아 대답했소. '그것도 좋겠소. 뱃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맹세로 다짐해 준다면 말이오.'"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대로 맹세했소. 그들이 맹세를 마치고 나자, 여인이 다시 그들 가운데서 말을 받아 대답했소."

"'이제 조용히들 하시오. 당신네 동료들 가운데 누구든 길에서든 샘가에서든 나를 마주치더라도 내게 말을 걸지 마시오. 누가 집에 가서

노인께 일러바치면, 노인은 눈치를 채고 나를 괴로운 사슬로 묶고 당신들에게는 파멸을 꾸밀 것이오.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고, 짐 실을 물건을 서둘러 사들이시오. 배에 살림살이가 가득 차거든 곧바로 내게 집으로 전갈을 보내시오. 손에 닿는 황금이라도 가져가겠소. 그리고 기꺼이 뱃삯을 하나 더 치르겠소. 내가 그 집 홀에서 주인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만큼 영리한 아이로 늘 나를 따라 문밖까지 쫓아 나오니, 그 아이를 배에 태워 데려가겠소. 그 아이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데려가 어디서 팔든 당신들에게 엄청난 값을 벌어 줄 것이오.'"

454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갔소. 그들은 꼬박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묵한 배에 재물을 잔뜩 사들였소. 우묵한 배에 짐이 다 실려 떠날 때가 되자, 그들은 여인에게 알리라고 심부름꾼을 보냈소. 아주 약삭빠른 사내 하나가 호박 구슬을 사이사이 꿴 황금 목걸이를 들고 내 아버지의 집에 왔소. 홀에서 하녀들과 내 존귀한 어머니가 그것을 손으로 만져 보고 눈으로 살피며 값을 매기고 있는 사이에, 그 사내는 여인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소.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는 우묵한 배로 돌아갔고, 여인은 내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소. 여인은 문간에서 내 아버지를 모시는 손님들이 쓰던 잔과 식탁을 보았소. 손님들은 회의장으로, 백성들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로 나가고 없었소. 여인은 재빨리 잔 세 개를 품속에 감추어 들고 나갔고, 나는 철없이 그 뒤를 따라갔소. 해가 지고 길이란 길이 모두 어둠에 잠겼소. 우리는 서둘러 걸어 바다를 빨리 달리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배가 있는 이름난 포구에 닿았고, 그들은 우리 둘을 태우고 배에 올라 물길을 따라 나아갔으며, 제우스께서 순풍을 보내 주셨소. 우리는 엿새 동안 밤낮없이 배를 몰았소.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이레째 날을 보내셨을 때, 화살을 쏜아붓는

아르테미스가 그 여인을 쏘았소. 여인은 바닷새처럼 배 밑바닥의 고인 물 속으로 쿵 하고 떨어졌소. 그들은 여인을 물개와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 배 밖으로 내던졌고, 나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홀로 남았소. 바람과 물결이 그들을 실어 이타카에 닿게 했고, 그곳에서 라에르테스께서 손수 재산을 들여 나를 사셨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소." 그러자 제우스의 핏줄인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 당신이 마음속으로 겪은 고통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니 내 가슴속 마음이 몹시 흔들렸소. 그러나 제우스께서는 당신에게 나쁜 일과 함께 좋은 일도 주셨구려. 숱한 고생 끝에 너그러운 사람의 집에 오게 되었으니 말이오. 그분은 당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성껏 대 주고, 당신은 좋은 삶을 살고 있소.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숱한 도시를 떠돌다가 이곳에 왔소."

493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두 사람은 오래 자지 못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 곧 아름다운 옥좌의 새벽 여신이 찾아온 까닭이었다. 한편 텔레마코스의 동료들은 뭍 가까이에서 돛을 풀고 재빨리 돛대를 내리고, 노를 저어 배를 정박할 곳으로 몰아간 다음, 닻돌을 던지고 고물 밧줄을 맸다. 그러고는 그들도 파도치는 바닷가로 내려가 아침을 차리고 반짝이는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503 "자네들은 이제 검은 배를 몰고 도시로 가게. 나는 밭과 목자들을 둘러보고, 내 일을 살펴본 뒤 저녁에 도시로 내려가겠네. 내일 아침에는 길을 함께한 품삯으로 고기와 달게 넘어가는 포도주로 좋은 잔치를 차려 주겠네."

508 신을 닮은 테오클리메노스가 말을 받았다. "젊은이,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오? 바위투성이 이타카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집을 찾아가야 하오? 아니면 곧장 당신 어머니에게, 당신 집으로 가야 하오?"

512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다른 때라면 우리 집으로 가라고 했을 것이오. 손님 대접할 것이 모자라지는 않으니 말이오. 그러나 지금은 당신에게 좋지 않을 것이오. 나는 집에 없을 테고, 어머니는 집에서 구혼자들 앞에 자주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위층 방에서 베를 짜시니 당신을 만나 주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찾아갈 만한 다른 사람을 일러 주겠소. 슬기로운 폴리보스의 빛나는 아들 에우리마코스요. 지금 이타카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우러러보고 있소. 그는 그들 가운데 단연 뛰어난 사내이고, 내 어머니와 혼인하여 오디세우스의 명예를 차지하려고 누구보다 애를 쓰고 있소. 그러나 혼례에 앞서 그자들에게 재앙의 날이 닥칠지는 높은 하늘에 사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나 아실 것이오."

525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오른쪽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아폴론의 날랜 심부름꾼인 새매였는데, 발에 비둘기를 움켜쥐고 털을 뜯어, 배와 텔레마코스 사이로 깃털을 땅에 흩뿌렸다. 테오클리메노스는 그를 동료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불러,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531 "텔레마코스, 저 새는 신의 뜻 없이 오른쪽으로 날아오른 것이 아니오. 마주 보는 순간 나는 저것이 새점인 줄 알았소. 이타카 고을에서 당신 가문보다 더 왕다운 가문은 없고, 당신네는 언제까지나 굳셀 것이오."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손님,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당신은 곧 내게서 우정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복 받은 사람이라 부를 것이오."

539 그러고는 믿음직한 동료 페이라이오스에게 말했다. "클리티오스의 아들 페이라이오스, 나와 함께 필로스에 갔던 동료들

가운데 너는 늘 내 말을 가장 잘 따랐지. 이번에도 이 손님을 너희 집에 데려가서,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극진히 대접하고 잘 모셔 줘."

544 창으로 이름난 페이라이오스가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네가 여기 오래 머문다 해도 내가 이분을 잘 돌볼게. 손님 대접에 모자람은 없을 거야."

547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배에 올라, 동료들에게도 배에 올라 고물 밧줄을 풀라고 일렀다.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다. 텔레마코스는 발에 고운 신을 매어 신고, 배의 갑판에서 날카로운 청동 날을 단 굳센 창을 집어 들었다. 동료들이 고물 밧줄을 풀었다. 그들은 배를 밀어내 도시로 저어 갔다.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가 이른 대로였다. 텔레마코스는 성큼성큼 걸어 나아갔고, 두 발이 그를 금세 안뜰까지 데려다주었다. 그곳에는 돼지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착한 돼지치기가 주인들에게 늘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 그 돼지들 곁에서 잠을 잤다.

제16권

1 오두막에서는 오디세우스와 고귀한 돼지치기가 날이 밝자 불을 피워 아침을 차리고, 목자들은 모아 놓은 돼지 떼와 함께 내보냈는데, 그때 텔레마코스가 다가오자 짖어 대던 개들이 짖지 않고 그의 둘레를 맴돌며 꼬리를 쳤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개들이 꼬리 치는 것을 보았고, 발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그는 곧바로 에우마이오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8 "에우마이오스, 당신 동료나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이 이리로 오는 게 틀림없소. 개들이 짖지 않고 둘레를 맴돌며 꼬리를 치니 말이오. 발소리도 들리오."

11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문간에 섰다. 돼지치기가 놀라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반짝이는 포도주를 섞느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들이 떨어졌고, 그는 주인에게 마주 나아가 그의 머리와 고운 두 눈과 두 손에 입을 맞추며 굵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열 해 만에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길 때가 있다. 늘그막에 얻은 외아들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숱한 고생을 견뎌 온 아들이다. 꼭 그처럼 그때 고귀한 돼지치기는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를 끌어안고,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하듯 온몸에 입을 맞추고는 흐느끼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23 "왔구나, 텔레마코스, 내 달콤한 빛. 네가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난 뒤로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자, 얘야, 어서 들어오너라.

먼 데서 막 돌아와 집 안에 들어선 너를 바라보며 내 마음껏 즐거워하고 싶구나. 너는 들에도 목자들에게도 자주 오지 않고 늘 도시에 머물러 있지. 구혼자들의 몹쓸 무리를 지켜보는 것이 네 마음에 그리 맞는 모양이다."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럴게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보러 여기 왔어요. 아저씨를 제 눈으로 보고, 어머니가 아직 홀에 계신지, 아니면 벌써 다른 사내가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 오디세우스의 침대는 누울 사람이 없어 흉한 거미줄만 쳐져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36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치기가 말을 받았다. "그분은 참는 마음으로 네 홀에 꿋꿋이 머물러 계시고, 밤이고 낮이고 눈물을 쏟으며 비참하게 시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텔레마코스에게서 청동 창을 받아 들었다. 텔레마코스는 돌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다가오자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내주려 했으나, 텔레마코스가 맞은편에서 그를 말리며 말했다.

44 "앉아 계시오, 손님. 우리 농장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있소.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이 여기 있으니 말이오."

4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돌아가 다시 앉았다. 돼지치기가 텔레마코스를 위해 푸른 잎가지를 깔고 그 위에 양털 가죽을 펼치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앉았다. 돼지치기는 그들 앞에 전날 먹다 남긴 구운 고기를 담은 쟁반을 내놓고, 바구니에 빵을 서둘러 수북이 담았으며, 나무 사발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었다. 그러고는 자신은 신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았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텔레마코스가 고귀한 돼지치기에게 말했다.

57 "아저씨, 이 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뱃사람들이 어떻게 이분을 이타카로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이분이

걸어서 여기 오셨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60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얘야, 사실을 다 말해 주마. 이 사람은 넓은 크레타 태생이라고 하고,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숱한 도시를 헤맸다고 하는데, 어떤 신이 이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자아 놓았다는구나. 이번에는 테스프로티아인들의 배에서 도망쳐 나와 내 농장에 왔다. 이제 너에게 이 사람을 맡기마. 네 뜻대로 하거라. 이 사람은 탄원자라고 자처한다."

68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 그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프네요. 제가 어떻게 이 손님을 집에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올 때 그 사람을 물리칠 만큼 제 두 손을 믿지 못해요. 어머니는 마음이 둘로 갈려 갈피를 잡지 못하세요. 남편의 침대와 고을 사람들의 말을 어려워하며 여기 제 곁에 머물러 집을 돌보실지, 아니면 홀에서 구혼하는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선물을 바치는 사내를 따라가실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손님이 아저씨 집에 왔으니, 제가 외투와 윗옷, 고운 옷을 입혀 드리고, 양날 칼과 발에 신을 신발을 드리고, 이분 마음과 가슴이 가라는 곳으로 보내 드릴게요. 아니면 아저씨가 원하시면 이 농장에 붙잡아 두고 돌봐 주세요. 이분이 아저씨와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리로 옷과 먹을 빵을 모두 보낼게요. 하지만 저는 이분이 그곳에, 구혼자들 사이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자들의 오만이 너무 무모하니까요. 그자들이 이분을 놀려 대면 제게도 끔찍한 괴로움이 될 거예요. 아무리 굳센 사내라도 여럿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해내기는 어려워요. 그자들이 훨씬 더 세니까요."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을 받았다. "젊은이, 내게도 대답할 도리가 있으니 말하겠소. 당신 같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구혼자들이 당신 뜻을 거슬러 홀에서 무모한 짓을 꾸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말해 보시오. 당신이 스스로 굴복하고 있소, 아니면 어떤 신의 목소리를 따라 고을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소? 그도 아니면, 큰 싸움이 벌어져도 사내가 믿고 기대는 형제들을 탓하는 것이오? 내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젊다면,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거나 오디세우스 자신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내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홀에 가서 그자들 모두에게 재앙이 되지 못할 경우, 낯선 사내가 곧바로 내 목을 베어 가도 좋소. 혹시 내가 혼자라 그 무리에 짓눌린다 해도, 내 홀에서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이런 볼썽사나운 짓을 늘 보느니 말이오. 손님들이 떠밀려 다니고, 그자들이 아름다운 집 안에서 하녀들을 볼썽사납게 끌고 다니고, 포도주를 퍼내 축내고, 끝도 없이 이룰 수도 없는 일에 매달려 공연히 빵을 먹어 치우는 꼴을 보느니 말이오."

112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손님, 숨김없이 다 말하겠소. 온 고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이 벌어져도 사내가 믿고 기대는 형제들을 내가 탓하는 것도 아니오.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우리 집안을 그렇게 외줄로 이어 오게 하셨소. 아르케이시오스는 외아들 라에르테스를 낳았고, 그 아버지도 외아들 오디세우스를 낳았고, 오디세우스는 나 하나만 홀에 낳아 두고 떠나서 나를 보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소. 그래서 지금 집 안에는 원수가 셀 수 없이 많소. 둘리키온과 사메와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이 섬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 모두, 그리고 바위투성이 이타카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모두 내 어머니에게 구혼하며 이 집을 거덜 내고 있소. 어머니는 끔찍한 혼인을 마다하지도 못하고 끝을 내지도 못하시오. 그사이 저자들은 내 집을 먹어 치워 바닥내고 있으니, 머지않아 나마저 산산조각 낼 것이오. 그러나 이 일은 신들의 무릎 위에 놓여 있소. 아저씨, 어서 가셔서 분별 있는 페넬로페께 제가 무사히 필로스에서

돌아왔다고 전해 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 테니, 어머니에게만 소식을 전하고 이리로 돌아오세요. 다른 아카이아인은 아무도 알게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제게 해코지를 꾸미고 있으니까요."

135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다, 알아들었다. 생각 있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구나. 자, 이것을 말해 다오. 숨김없이 낱낱이. 내가 같은 길에 불운한 라에르테스께도 가서 소식을 전해 드릴까? 그분은 오디세우스 때문에 몹시 슬퍼하시면서도 지금까지는 일을 돌보시고, 가슴속 마음이 내키면 집에서 종들과 함께 드시고 마시곤 하셨는데, 네가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난 뒤로는 그전처럼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을 돌보러 나가지도 않으신다고 한다. 한숨과 울음 속에 앉아 슬퍼하시니, 뼈에 붙은 살이 말라 간다는구나."

146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더 안된 일이지만, 마음이 아파도 그분은 그냥 두기로 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제 손으로 고를 수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의 귀향의 날을 고를 거예요. 아저씨는 소식을 전하고 곧장 돌아오세요. 그분을 찾아 들판을 헤매지 마시고요. 그 대신 어머니께 살림 맡은 시녀를 되도록 빨리 몰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그 시녀라면 노인께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154 이렇게 말하고 그는 돼지치기를 재촉했다. 돼지치기는 신을 집어 들어 발에 매어 신고 도시로 떠났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농장을 떠나는 것을 아테나가 놓치지 않았다. 여신은 가까이 다가왔다. 그 모습은 아름답고 훤칠하며 빛나는 솜씨를 아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여신은 오두막 문 맞은편에 서서 오디세우스에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텔레마코스는 마주 보면서도 여신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신들은 누구에게나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디세우스와

개들만 여신을 보았는데, 개들은 짖지 않고 낑낑거리며 농장 저편으로 겁을 먹고 달아났다. 여신이 눈썹으로 신호를 보내니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알아차리고 홀에서 나와 안뜰의 큰 담장을 따라 걸어가 여신 앞에 섰고, 아테나가 그에게 말했다.

167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이제 그대 아들에게 말해 주어라. 숨기지 마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 구혼자들에게 내릴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마련해 널리 이름난 도시로 가도록 하여라. 나도 싸우고 싶어 몸이 달아 있으니 그대들 곁을 오래 떠나 있지 않겠다."

172 이렇게 말하고 아테나가 황금 지팡이로 그를 건드렸다. 여신은 먼저 깨끗이 빤 겉옷과 윗옷을 그의 가슴에 둘러 주고, 몸집을 키우고 젊음을 돋우었다. 그의 살갗은 다시 검게 그을린 빛이 되고, 두 볼은 팽팽해졌으며, 턱 둘레에는 검푸른 수염이 났다. 이렇게 해 놓고 여신은 다시 떠나갔고, 오디세우스가 오두막으로 들어오자 사랑하는 아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신이 아닌가 싶어 두려워 눈을 돌리고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81 "손님, 아까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구려. 옷도 다르고 살갗도 전과 같지 않소. 당신은 분명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시오. 부디 자비를 베푸시오. 우리가 기꺼이 받으실 제물과 잘 만든 황금 선물을 바치겠소. 우리를 아껴 주시오."

186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나는 신이 아니오. 어찌하여 나를 불사의 신들에 견주시오? 나는 네 아버지다. 네가 탄식하며 숱한 고통을 겪고 사람들의 횡포를 받아 낸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

190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때까지 내내 참아 왔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땅으로 떨어졌지만, 텔레마코스는 아직 그가

제 아버지라고 믿지 못해 다시 그에게 대답했다.

194 "당신은 오디세우스, 내 아버지가 아니오. 어떤 신이 나를 홀려 더욱 슬퍼하며 탄식하게 하려는 것이오. 신이 몸소 와서 마음먹은 대로 쉽사리 젊은이로도 늙은이로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죽을 운명의 인간이 제 생각만으로 이런 일을 꾸며 낼 수는 없소. 당신은 방금 전만 해도 늙은이였고 볼품없는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과 닮았소."

20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사랑하는 아버지가 집에 와 있는데 지나치게 놀라거나 어리둥절해하는 것은 너답지 않다. 다른 오디세우스는 이제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숱한 고생을 겪고 숱한 곳을 떠돈 끝에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다. 이것은 전리품을 몰아오는 아테나가 한 일이니, 여신은 그럴 힘이 있어서 마음먹은 대로 나를 이렇게 만든다. 어떤 때는 거지와 닮게 만들고, 어떤 때는 고운 옷을 몸에 걸친 젊은이로 만든다.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에게는 죽을 운명의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비참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213 이렇게 말하고 그가 자리에 앉자, 텔레마코스는 훌륭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울었고, 두 사람 모두 가슴속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둘은 목 놓아 날카롭게 울었다. 물수리나 발톱 굽은 독수리가 날개가 돋기도 전에 들판 사람들에게 새끼를 빼앗기면 쉴 새 없이 울부짖을 때가 있다. 꼭 그처럼, 아니 그 새들보다 더 애달프게, 두 사람은 눈썹 아래로 가엾은 눈물을 흘렸다. 텔레마코스가 얼른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울고 있는 사이에 햇빛이 졌을 것이다.

222 "아버지, 뱃사람들이 무슨 배로 아버지를 이리로, 이타카로 모셔 왔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아버지께서 걸어서

여기 오셨을 리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얘야, 사실을 일러 주마. 배로 이름난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바래다준다. 그들은 잠든 나를 날랜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이타카에 내려놓았고, 빛나는 선물, 청동과 황금과 짠 옷을 넉넉히 주었다. 그것들은 신들의 뜻으로 동굴 속에 놓여 있다. 이제 나는 아테나가 일러 준 대로 이리로 왔다. 우리 원수들을 죽일 궁리를 하려고 왔다. 자, 구혼자들을 하나하나 세어 보고 일러 다오. 몇 명이며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나무랄 데 없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헤아려, 우리 둘이 남의 도움 없이 단둘이서 맞설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할지 궁리해 보겠다."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크나큰 명성을 늘 들어 왔습니다. 손으로는 창을 잘 쓰시는 용사요, 생각은 지혜로우시다고요. 그러나 너무 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사람이 많고 굳센 자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구혼자들은 딱 열 명도 스무 명도 아니고,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곧 그 수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둘리키온에서 골라 뽑은 젊은이 쉰두 명이 시종 여섯을 거느리고 왔고, 사메에서는 사내 스물네 명이, 자킨토스에서는 아카이아인의 젊은이 스무 명이 왔습니다. 이타카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들이 모두 열두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 전령 메돈과 신과 같은 노래꾼이 있고, 고기를 나누는 솜씨가 좋은 시종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그들 모두와 맞선다면, 아버지께서 돌아와 그들의 횡포를 앙갚음하시는 일이 쓰디쓰고 끔찍하게 끝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혹시 도와줄 사람을 생각해 내실 수 있다면, 우리 둘을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지 궁리해 보십시오."

258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말해 주마. 잘 새겨듣고 귀 기울여라. 아테나가 아버지 제우스와 함께 우리 둘에게 넉넉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도와줄 사람을 생각해 내야 할지 헤아려 보아라."

262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말씀하신 그 두 분은 훌륭한 도우미이십니다. 저 높이 구름 속에 앉아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불사의 신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들입니다."

266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을 받았다. "우리 홀에서 구혼자들과 우리 사이에 아레스의 기운이 승부를 가를 때, 그 두 분은 치열한 싸움에서 오래 떨어져 계시지 않을 것이다. 자, 너는 이제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가서 방자한 구혼자들 틈에 섞여 있거라. 나는 나중에 돼지치기가 도시로 데려갈 것이다. 비참한 거지, 늙은이와 닮은 꼴로 말이다. 그자들이 집 안에서 나를 업신여기더라도, 내가 험한 꼴을 당하는 동안 네 가슴속 사랑하는 마음은 꾹 참아야 한다. 그자들이 내 발을 붙잡고 집 안을 가로질러 문밖으로 끌어내거나 무엇을 던져 맞히더라도, 너는 지켜보며 참고 있어라. 다만 부드러운 말로 달래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고 일러라. 그러나 그자들은 네 말을 조금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자들의 운명의 날이 벌써 곁에 와 있으니 말이다.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가슴에 새겨 두어라. 지략이 많은 아테나가 내 마음에 일러 주시면 나는 너에게 고개로 신호를 보내겠다. 그것을 알아차리거든 너는 홀에 놓여 있는 아레스의 무기를 모두 들어다 높은 방 깊숙한 곳에 넣어 두고, 구혼자들이 무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묻거든 부드러운 말로 둘러대라."

288 "'연기에 그을지 않게 치워 두었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나면서 남겨 두었던 그때 모습과는 더 이상 닮지 않고, 불기운이 닿은 탓에 몹시 상해 버렸소. 게다가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내 마음에 더 큰

걱정을 넣어 주셨소. 혹시 당신들이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가 서로 다치게 하고, 잔치와 구혼을 욕되게 할까 두렵소. 쇠붙이는 저절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니 말이오.' 그러나 우리 둘을 위해서는 칼 두 자루와 창 두 자루, 손에 쥘 쇠가죽 방패 두 개만 남겨 두어라. 우리가 달려들어 그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팔라스 아테나와 꾀 깊은 제우스께서 그자들을 홀리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가슴에 새겨 두어라. 네가 정말 내 아들이고 우리 핏줄이라면, 오디세우스가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듣게 하지 마라. 라에르테스께서도 알지 못하게 하고, 돼지치기도, 집안사람 누구도, 페넬로페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라. 너와 나 둘이서만 여자들의 속셈을 알아보자. 그리고 남자 종들도 시험해 보자. 누가 우리를 받들고 마음으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의젓한 너를 업신여기는지 말이다."

308 그의 빛나는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어떠한지는 나중에라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게는 경솔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둘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농장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시험하시려면 오래도록 헛되이 다니셔야 할 것이고, 그동안 그자들은 홀에서 태평하게 재산을 거리낌 없이 마구 먹어 치우며 아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누가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누가 죄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을 농장마다 찾아다니며 시험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징조를 알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321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텔레마코스와 그의 동료들을 모두 태우고 필로스에서 오던 잘 지은 배가 이타카에

닿았다. 그들은 깊은 포구 안에 이르자 검은 배를 뭍으로 끌어 올렸고, 기세 높은 시종들이 그들의 장비를 날라 갔다. 그리고 곧바로 더없이 아름다운 선물을 클리티오스의 집으로 가져갔다. 또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전령을 먼저 보내, 사려 깊은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다. 텔레마코스는 들에 있고, 배는 도시로 가라고 일렀다는 소식이었다. 기품 있는 왕비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며 여린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 전령과 고귀한 돼지치기는 같은 소식을 왕비에게 전하러 가다가 서로 마주쳤다. 그들이 신 같은 왕의 집에 이르자, 전령이 하녀들 한가운데서 말했다. "왕비님,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벌써 돌아오셨습니다."

338 돼지치기는 페넬로페 곁에 다가서서, 왕비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하라고 한 말을 모두 전했다. 분부받은 말을 다 전하고 나자 그는 안뜰과 홀을 떠나 돼지들에게로 돌아갔다.

342 구혼자들은 마음이 언짢고 풀이 죽었다. 그들은 홀에서 나와 안뜰의 큰 담장을 따라 걸어가 문 앞에 그대로 앉았다.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그들 가운데서 먼저 말을 꺼냈다.

346 "벗들이여, 텔레마코스가 이번 길을 방자하게도 큰일을 해내듯 해치웠네.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리라 여겼는데 말일세. 자, 검은 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바다에 띄우고, 바다에 익숙한 노잡이들을 모으세. 저쪽 사람들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서둘러 알리도록 말일세."

351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암피노모스가 자리에서 몸을 돌리다가 깊은 포구 안으로 들어오는 배를 보았다. 사람들이 돛을 내리고 손에 노를 쥐고 있었다. 그는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리며 동료들 가운데서 말했다.

355 "이제 소식을 보낼 것 없네. 저들이 벌써 안에 들어왔으니 말일세. 어떤 신이 저들에게 일러 주었거나, 아니면 저들이 지나가는 그 배를 보고도 따라잡지 못했나 보네."

358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일어나 바닷가로 갔다. 곧 검은 배를 뭍으로 끌어 올렸고, 기세 높은 시종들이 그들의 장비를 날라 갔다. 그들은 모두 함께 회의장으로 가서,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함께 앉지 못하게 했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364 "허, 신들께서 저자를 재앙에서 건져 주셨구먼. 낮에는 망보는 자들이 바람 부는 산마루에 번갈아 쉴 새 없이 앉아 있었고, 해가 지면 우리는 한 번도 뭍에서 밤을 보내지 않고 날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며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네. 텔레마코스를 붙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린 것인데, 그사이 어떤 신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버렸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텔레마코스에게 비참한 파멸을 꾸미세. 그 아이가 우리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일세. 그 아이가 살아 있는 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 그 아이는 생각과 꾀가 밝은 데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 편을 조금도 들지 않으니 말일세. 자, 그 아이가 아카이아인들을 회의장에 불러 모으기 전에 서두르세. 그 아이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걸세. 오히려 앙심을 품고 모든 사람 앞에 일어서서,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가파른 죽음을 꾸미다가 놓쳤다고 말할 걸세.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못된 짓을 듣고 우리를 옳다고 하지 않을 걸세. 그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서 우리를 우리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남의 고장으로 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 그러니 우리가 먼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이나 길에서 그 아이를 잡아 버리세. 그런 다음 그 아이의 살림과 재산은 우리끼리 몫에 맞게 나누어 차지하고, 집은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아내로 맞는 사람에게 넘겨주세. 그러나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아이가 살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더는 여기 모여 마음에 드는 그 아이 재산을 넉넉히 먹어 치우지 말고, 저마다 제 집에서 구혼 선물을 내밀며 구혼하세. 그러면 그 여인은 가장 많은 것을 바치고 운명이 정한 사람과 혼인하겠지."

39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그때 암피노모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그는 아레토스의 아들인 니소스 왕의 빛나는 아들로, 밀이 많이 나고 풀이 무성한 둘리키온에서 온 구혼자들을 이끌었으며, 말솜씨로 누구보다 페넬로페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가 좋은 뜻을 품고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400 "벗들이여, 나는 텔레마코스를 죽이고 싶지 않네. 왕가의 핏줄을 죽이는 것은 무서운 일일세. 먼저 신들의 뜻을 물어보세. 큰 제우스의 신탁이 옳다고 하면 내가 몸소 그 아이를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모두 나서라고 하겠네. 그러나 신들께서 말리시면 그만두라고 하겠네."

406 암피노모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을 반겼다. 그들은 곧 일어나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가서 반들반들한 의자에 앉았다.

409 그때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거리낌 없이 오만을 부리는 구혼자들 앞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홀에서 제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꾀를 엿들은 전령 메돈이 왕비에게 일러 주었다. 왕비는 시녀들과 함께 홀로 갔고,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구혼자들 앞에 이르자, 튼튼하게 지은 지붕을 받친 기둥 곁에 서서, 반들거리는 머릿수건을 두 뺨 앞으로 드리웠다. 그러고는 안티노오스를 나무라며 이름을 불러 말했다.

418 "안티노오스, 오만하고 나쁜 꾀를 꾸미는 자여, 이타카 고을에서 당신이 또래들 가운데 생각과 말이 가장 뛰어나다고들 하더니,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려. 미친 사람, 어찌하여 당신은 텔레마코스에게

죽음과 죽을 운명을 꾸미고, 제우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탄원하는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소? 서로 해코지를 꾸미는 것은 신성한 도리가 아니오. 당신 아버지가 고을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쳐 이곳에 왔던 일을 모르오? 사람들이 몹시 노해 있었소. 그가 타포스의 해적들을 따라가 우리와 사이좋던 테스프로티아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오. 사람들은 그를 죽여 그 사랑하는 목숨을 끊고, 그의 넉넉하고 많은 살림을 먹어 치우려 했소.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그들이 그토록 날뛰는데도 막아서서 말렸소.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분의 집을 업신여기며 먹어 치우고, 그분의 아내에게 구혼하고, 그분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나를 몹시 괴롭히고 있소. 그만두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만두라고 이르시오."

434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했다. "이카리오스의 따님, 사려 깊은 페넬로페 님,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일로 속을 썩이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서 땅 위를 보고 있는 한, 왕비님의 아드님 텔레마코스에게 손을 대는 사내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생겨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 말은 정녕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자의 검은 피가 곧 제 창 둘레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께서도 저를 자주 무릎에 앉히시고 구운 고기를 손에 쥐여 주시고 붉은 포도주를 입에 대 주셨습니다. 그러니 텔레마코스는 제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게 구혼자들 손에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신에게서 오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448 에우리마코스는 이렇게 왕비를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실은 자신이 텔레마코스에게 파멸을 꾸미고 있었다. 페넬로페는 반들거리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그리며 울었다. 마침내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을 내려 주었다.

452 저녁 무렵 고귀한 돼지치기가 오디세우스와 그 아들에게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한 살배기 돼지를 잡아 함께 일하며 저녁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때 아테나가 가까이 다가서서,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를 지팡이로 쳐서 다시 늙은이로 만들고 몸에 초라한 옷을 입혔다. 돼지치기가 그를 마주 보고 알아차려, 분별 있는 페넬로페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하고 마음속에 담아 두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뜻이었다. 텔레마코스가 먼저 그에게 말했다. "오셨어요, 고귀한 에우마이오스. 도시에는 무슨 소식이 있어요? 거만한 구혼자들이 매복을 그만두고 벌써 집에 돌아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집으로 가는 저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고 있나요?"

464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도시로 내려가서 그런 것을 묻고 캐물을 마음은 없었다. 소식을 전하고 어서 이리로 돌아오라고 내 마음이 재촉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네 동료들이 보낸 날랜 심부름꾼, 전령 하나가 나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맨 먼저 네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안다. 이 눈으로 보았으니까. 내가 벌써 도시 위쪽, 헤르메스 언덕이 있는 곳을 지나 걸어가고 있을 때, 날랜 배 한 척이 우리 포구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배에는 사내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방패와 양날 창이 가득 실려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바로 그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

47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는 빙그레 웃으며 아버지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돼지치기의 눈은 피했다.

478 그들은 일을 마치고 잔치를 차린 다음 함께 먹었는데, 고루 나눈 잔치에 누구 하나 마음에 모자람이 없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은 잠자리를 생각하고 자리에 누워 잠의 선물을 받았다.

제17권

1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는 발에 고운 신을 매어 신고 손에 꼭 맞는 굳센 창을 집어 들었다. 도시로 가려고 마음이 바빴던 그는 제 돼지치기에게 말했다.

6 "아저씨, 저는 이제 도시로 가요. 어머니가 저를 보셔야 하니까요. 제 얼굴을 직접 보시기 전에는 어머니가 끔찍한 통곡과 눈물 젖은 탄식을 그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께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가엾은 손님을 도시로 데려가서 거기서 끼니를 빌어먹게 해 주세요. 누구든 마음 내키는 사람이 빵 한 조각과 술 한 잔을 줄 거예요. 저는 가슴에 시름을 안고 있는 몸이라 세상 사람을 다 떠맡을 수는 없으니, 손님이 그 일로 몹시 언짢아한다면 그만큼 손님만 더 괴로워지겠지요. 저는 참말을 하는 게 좋거든요."

1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젊은이, 나도 여기 붙잡혀 있고 싶은 마음은 없소. 거지는 들판보다 도시에서 끼니를 빌어먹는 편이 낫소. 누구든 마음 내키는 사람이 내게 줄 것이오. 나는 이제 농장에 머물며 감독이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 다 따를 나이가 아니오. 그러니 가 보시오. 당신이 시킨 대로 여기 이 사람이, 내가 불을 쬐어 몸을 녹이고 햇볕이 따뜻해지는 대로 곧 나를 데려갈 것이오. 내가 걸친 이 옷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새벽녘 서리에 얼어 쓰러질까 걱정이오.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들 하니 말이오."

26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성큼성큼 빠르게 걸어 농장을 빠져나갔다. 속으로 구혼자들에게 닥칠 재앙의 씨를 심으며 살기 좋은 집에 이른 그는, 들고 온 창을 높다란 기둥에 기대 세우고 돌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31 누구보다 먼저 그를 본 것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였다. 공들여 꾸민 높은 의자마다 양털 가죽을 펴고 있던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곧장 그에게로 갔고,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의 다른 하녀들도 그의 둘레로 모여들어 반갑게 맞으며 그의 머리와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36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방에서 나왔다. 아르테미스와도 같고 황금빛 아프로디테와도 같았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그 머리와 고운 두 눈에 입을 맞추고는 흐느끼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1 "왔구나, 텔레마코스, 내 달콤한 빛.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소식을 찾아 내 뜻을 거스르고 몰래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난 뒤로,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자, 네가 본 그대로 내게 낱낱이 이야기해 다오."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어머니, 제 울음을 자아내지 마시고, 가파른 파멸을 겨우 벗어난 제 가슴을 뒤흔들지 마십시오. 그보다 몸을 씻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다음, 시녀들을 데리고 위층 방으로 올라가셔서, 제우스께서 언젠가 앙갚음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모든 신께 흠 없는 큰 제물을 바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회의장으로 가서 손님 한 분을 모셔 오겠습니다. 제가 이리로 올 때 그곳에서부터 저를 따라온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신에 버금가는 동료들과 함께 먼저 보내면서, 페이라이오스에게 그분을 집으로 모셔 가 제가 갈 때까지 정성껏 대접하고 받들어 모시라고 일러 두었습니다."

57 그가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왕비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제우스가

언젠가 앙갚음의 일을 이루어 준다면 모든 신께 흠 없는 큰 제물을 바치겠다고 기도했다.

61 텔레마코스는 창을 들고 홀을 지나 밖으로 나갔고, 날랜 개 두 마리가 그를 따라갔다. 아테나가 그에게 신묘한 기품을 쏟아부어 주니, 다가오는 그를 온 백성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거만한 구혼자들이 그의 둘레로 모여들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재앙을 꾸몄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그들의 큰 무리를 피해, 처음부터 아버지와 벗으로 지내 온 멘토르와 안티포스와 할리테르세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고, 그들은 그에게 이것저것 캐물었다. 그때 창으로 이름난 페이라이오스가 손님을 데리고 도시를 가로질러 회의장으로 가까이 오자, 텔레마코스는 손님을 오래 외면하지 않고 그 곁으로 다가가 섰다. 페이라이오스가 먼저 그에게 말했다.

75 "텔레마코스, 어서 여자들을 우리 집에 보내 줘. 메넬라오스가 너에게 준 선물을 보내 줄게."

77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페이라이오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거만한 구혼자들이 홀에서 몰래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나눠 가진다면, 그자들 가운데 누가 차지하느니 차라리 네가 그 선물을 갖고 누렸으면 해. 하지만 내가 그자들에게 살육과 죽음의 운명을 심어 준다면, 그때는 기뻐하는 나에게 너도 기뻐하며 우리 집으로 날라다 줘."

84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고생에 지친 손님을 집으로 데려갔고, 살기 좋은 집에 이르자 두 사람은 외투를 긴 의자와 높은 의자 위에 벗어 두고, 반들반들 다듬은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하녀들이 그들을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준 뒤 두툼한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자, 그들은 욕조에서 나와 긴 의자에 앉았다.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아름다운 황금 물병에 담아 와 은대야 위로 부어 손을 씻게 하고, 곁에 반들반들한

식탁을 펴 놓았다.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고,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 여러 가지 찬을 곁들였다. 어머니는 그들과 마주 보며 홀의 기둥 곁 긴 의자에 기대앉아 물레가락으로 가는 실을 잣고 있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실컷 먹고 마셔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101 "텔레마코스, 나는 이제 위층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눕겠다. 오디세우스가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일리오스로 떠난 뒤로 그 잠자리는 내게 한숨의 자리가 되어 늘 내 눈물에 젖어 있다. 그런데 너는 거만한 구혼자들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네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어디서 들었다면 그것을 내게 똑똑히 말해 줄 마음조차 먹지 않는구나."

107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사실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필로스로 가서 백성의 목자 네스토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높은 집에 맞아들여, 아버지가 오랜만에 먼 곳에서 막 돌아온 제 아들을 맞듯이 정성껏 아껴 주셨고, 영광스러운 아들들과 함께 저를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에 대해서는,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땅 위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말과 튼튼하게 짜 맞춘 수레를 내주시며 저를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창으로 이름난 메넬라오스께 보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보았습니다. 신들의 뜻에 따라 아르고스인과 트로이인이 그 여인 때문에 숱한 고생을 겪었지요. 함성이 우렁찬 메넬라오스께서 곧바로 무엇이 아쉬워 고귀한 스파르타에 왔느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사실을 낱낱이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24 "'허, 저들은 겁쟁이인 주제에 굳센 마음을 지닌 사내의 잠자리에 들려 하다니! 오디세우스는 저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길 걸세. 암사슴이 갓 태어나 아직 젖을 빠는 새끼 사슴들을 힘센 사자의 덤불

굴에 재워 두고, 산기슭과 풀 우거진 골짜기를 뒤지며 풀을 뜯을 때가 있지. 그때 사자가 제 굴로 돌아와 어미와 새끼 모두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기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도 저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길 걸세.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부디 오디세우스가 일찍이 잘 지은 도시 레스보스에서 필로멜레이데스와 시비가 붙자 맞붙어 씨름하다가 그를 힘껏 메어꽂아 모든 아카이아인을 기쁘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구혼자들 사이에 나타난다면! 저들은 모두 명이 짧아지고 쓰디쓴 혼인을 치르게 될 걸세. 자네가 내게 묻고 간청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야기를 비켜 가며 엉뚱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네를 속이지도 않겠네. 바다에 사는, 거짓 없는 노인이 내게 해 준 말은 한 마디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겠네. 그 노인은 오디세우스가 섬에서, 님프 칼립소의 집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네. 칼립소가 그를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어서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다네. 노 달린 배도 전우도 없으니, 바다의 넓은 등 너머로 그를 실어 보내 줄 이가 없다네.'"

147 "아트레우스의 아드님, 창으로 이름난 메넬라오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불사의 신들께서 순풍을 내려 주셔서 저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빨리 데려다주셨습니다."

150 그가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가슴속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때 신을 닮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152 "라에르테스의 아드님 오디세우스의 존귀하신 부인이시여, 텔레마코스는 똑똑히 알지 못하니, 숨김없이 정확하게 예언해 드릴 제 말을 새겨들으십시오. 이제 신들 가운데 먼저 제우스께서, 그리고 손님을 맞는 이 식탁과 제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화덕이 증인이 되어 주소서. 오디세우스는 정녕 벌써 고향 땅에 와서,

어디 앉아 있든 돌아다니든 이 못된 짓들을 낱낱이 알아보며 구혼자들 모두에게 재앙을 심고 있습니다. 갑판 튼튼한 배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런 새점을 알아보고 텔레마코스에게 소리 높여 일러 주었습니다."

162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손님,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당신은 곧 내게서 우정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복 받은 사람이라 부를 것이오."

166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구혼자들은 오디세우스의 홀 앞, 전부터 늘 오만을 부리던 그 잘 다져 놓은 마당에서 원반과 사냥창을 던지며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어 사방의 들에서 양 떼가 돌아오고, 늘 그래 왔듯이 목자들이 양 떼를 몰고 들어오자, 메돈이 그들에게 말했다. 메돈은 전령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가장 들었고, 그들이 잔치를 벌일 때면 늘 곁에 있었다.

174 "젊은이들이여, 다들 시합으로 마음껏 즐기셨으니 이제 집 안으로 드십시오. 잔치를 차리겠습니다. 때맞추어 저녁을 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177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일어나 그 말을 따라 걸어갔다. 살기 좋은 집에 이르자 그들은 외투를 긴 의자와 높은 의자 위에 벗어 두고, 큰 양과 살진 염소를 잡고, 살진 돼지와 무리에서 고른 암소도 잡아 잔치를 차렸다. 한편 오디세우스와 고귀한 돼지치기는 들에서 도시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돼지치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

185 "손님, 내 주인이 일렀듯이 당신이 오늘 꼭 도시로 가고 싶어 하니 어쩔 수 없구려. 나로서는 당신이 여기 남아서 농장을 지켜 주었으면 싶지만, 나중에 주인께서 나를 꾸짖으실까 봐 그분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터라 그럴 수가 없소. 주인들의 꾸지람은 매서운 법이오. 자,

이제 갑시다. 낮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 저녁 무렵이면 금세 더 추워질 것이오."

19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겠소, 알아들었소. 생각 있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구려. 자, 갑시다.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길을 이끄시오. 혹시 잘라 둔 막대기가 있거든 내가 짚고 갈 수 있게 하나 주시오. 길이 몹시 미끄럽다고들 하니 말이오."

197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어깨에 군데군데 해진 볼품없는 자루를 걸쳤다. 자루에는 꼬아 만든 끈이 어깨걸이로 달려 있었다. 에우마이오스는 그에게 마음에 꼭 맞는 지팡이를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났고, 농장은 뒤에 남은 개들과 목자들이 지켰다. 돼지치기는 주인을 도시로 이끌었다. 주인은 비참한 거지, 늙은이와 닮은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몸에는 초라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204 그들은 험한 길을 따라 걸어 도시 가까이 이르렀고, 잘 지어 놓은 샘에 닿았다.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샘에서 시민들이 물을 길었다. 이타코스와 네리토스와 폴릭토르가 만든 샘이었다. 둘레에는 물을 먹고 자라는 백양나무 숲이 동그랗게 빙 둘러서 있었고, 차가운 물이 높은 바위에서 흘러내렸으며, 그 위에는 님프들의 제단이 쌓여 있어 길 가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그곳에서 돌리오스의 아들 멜란티오스가 그들과 마주쳤다. 멜란티오스는 구혼자들의 저녁거리로 모든 염소 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염소들을 몰고 가던 길이었고, 목자 둘이 함께 따라왔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지독하고 볼썽사나운 말로 꾸짖으며 이름을 불러 말했다. 오디세우스의 가슴이 뒤흔들렸다.

217 "이제 보니 영락없이 못난 놈이 못난 놈을 끌고 가는구나. 신은 언제나 끼리끼리 짝을 지어 주는 법이지. 이 몹쓸 돼지치기야, 이 게걸스러운 놈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잔칫상을 핥고 다니는 성가신 거지 아니냐. 이런 놈은 이 집 저 집 문설주 곁에 서서 어깨를 비벼 대며

칼이나 솥이 아니라 빵 부스러기나 빌어먹지. 이놈을 내게 주어 농장을 지키게 한다면 우리를 치우고 새끼 염소들에게 연한 잎을 날라다 주게 할 텐데. 그러면 유장이라도 마셔서 넓적다리에 살이 두둑이 오를 거다. 하지만 이놈은 못된 짓만 배워 놔서 일하러 다닐 생각은 없고, 고을을 굽실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어 그 밑 빠진 배나 채우고 싶어 하지. 그러니 내 너에게 똑똑히 일러두마. 이 말은 꼭 이루어질 거다. 이놈이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가면, 사내들 손에서 날아온 숱한 발판이 이놈 머리 둘레로 쏟아지고, 집 안에서 이리저리 얻어맞는 동안 이놈 옆구리가 그 발판들을 다 닳게 할 거다."

233 이렇게 말하고 멜란티오스는 곁을 지나가면서 어리석게도 오디세우스의 엉덩이를 걷어찼지만 그를 길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했고, 오디세우스는 꿈쩍 않고 버티고 섰다. 그는 속으로 망설였다. 달려들어 지팡이로 저자의 목숨을 빼앗을까, 아니면 허리를 잡아 번쩍 들어 올려 머리를 땅바닥에 메어꽂을까.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돼지치기는 멜란티오스를 마주 노려보며 꾸짖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큰 소리로 기도했다.

240 "샘의 님프들이여, 제우스의 따님들이시여, 일찍이 오디세우스가 새끼 양과 새끼 염소의 넓적다리뼈를 기름진 비계로 싸서 님프들께 태워 바친 적이 있다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분이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신이 그분을 이끌어 주게 하소서. 그러면 그분이 너의 그 겉멋을 모조리 흩어 버릴 것이다. 너는 지금 그 겉멋을 부리며 오만하게 늘 도시를 쏘다니고, 양 떼는 못된 목자들이 망쳐 놓고 있지 않으냐."

247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말을 받았다. "허, 못된 꾀만 아는 이 개가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구나! 언젠가 내가 이놈을 갑판 튼튼한 검은 배에 태워 이타카에서 먼 곳으로 데려가겠다. 거기서 팔아넘기면 내게 큰 재산을 벌어다 주겠지. 오디세우스가 저 먼 곳에서 귀향의 날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듯이, 은활의 아폴론이 오늘 홀에서 텔레마코스를 쏘아 맞히거나 그놈이 구혼자들 손에 쓰러졌으면 좋겠다."

254 이렇게 말하고 멜란티오스는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 두고 앞서 갔고, 아주 빠르게 주인의 집에 이르렀다. 그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구혼자들 사이, 누구보다 따르던 에우리마코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 고기 몫을 놓아 주었고, 살림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다 놓아 먹게 했다. 오디세우스와 고귀한 돼지치기가 걸어와서 집 가까이 멈춰 서자, 페미오스가 구혼자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려고 막 첫 소리를 띄우는 참이라 우묵한 리라 소리가 그들 둘레로 울려 퍼졌다.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의 손을 잡고 말했다.

264 "에우마이오스, 이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집이 틀림없소. 여러 집 가운데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겠구려. 건물이 잇달아 이어져 있고, 안뜰은 담장과 갓돌로 둘러쳐 있으며, 문은 튼튼한 두 짝 문이니, 어느 누구도 이 집을 힘으로 넘보지 못할 것이오. 안에서는 많은 사내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줄 알겠소. 기름 연기가 피어오르고, 신들이 잔치의 짝으로 만들어 준 리라가 울리니 말이오."

272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금세 알아보는구려. 당신은 다른 일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 말이오.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궁리해 봅시다. 당신이 먼저 살기 좋은 집 안으로 들어가 구혼자들 사이에 끼고 나는 여기 남아 있을까, 아니면 당신만 좋다면 당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앞서 들어갈까. 다만 오래 지체하지는 마시오. 누가 밖에 있는 당신을 보고 무엇을 던지거나 때릴지도 모르오. 그 일을 잘 생각해 두라고 일러 두는 것이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281 "알겠소, 알아들었소. 생각 있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구려. 당신이 앞서 들어가시오. 나는 여기 남아 있겠소. 나는 얻어맞는 일에도 무엇에 맞는 일에도 서툴지 않소. 파도와 전쟁 속에서 숱한 재앙을 겪어 온 터라 내 마음은 꿋꿋하오. 그 재앙들에 이것도 하나 더 얹히라지. 그러나 굶주린 배는 감출 길이 없소. 사람들에게 숱한 재앙을 안기는 저주받을 배요. 이 배 때문에 노 젓는 자리를 잘 갖춘 배들이 채비를 하고 거둘 것 없는 바다로 나가 원수들에게 재앙을 실어 나르기도 하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거기 누워 있던 개 한 마리가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다.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의 개 아르고스였다. 일찍이 오디세우스가 몸소 길렀으나 그 덕을 보기도 전에 신성한 일리오스로 떠나고 말았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아르고스를 데리고 들염소와 사슴과 토끼를 사냥하러 다녔지만, 주인이 떠나고 없는 지금 아르고스는 버림받은 채, 문 앞에 수북이 쌓인 노새와 소의 똥 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오디세우스의 종들이 그 똥을 날라다 넓은 영지에 거름을 주려고 쌓아 둔 것이었다. 그곳에 개 아르고스가 진드기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다.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아보자 아르고스는 꼬리를 흔들고 두 귀를 내렸지만, 제 주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운은 이제 남아 있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에우마이오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그렇게 하고는 곧바로 그에게 물었다.

306 "에우마이오스, 똥 더미에 누운 저 개는 참 놀랍구려. 생김새는 훌륭한데, 그 생김새만큼 달리기도 빨랐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식탁 곁에 두는 개처럼 그저 그런 개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소. 주인들은 그런 개를 보기 좋으라고 기르니 말이오."

311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참으로 이 개는 먼 곳에서 죽은 사람의 개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나며 남겨 두었을 때처럼 생김새도 솜씨도 그대로라면, 그 날램과 힘을 보고 당신은 금세 놀랄 것이오. 깊은 숲 속 깊은 곳에서 이 개가 쫓은 짐승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했소. 발자국을 쫓는 데도 아주 밝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소. 주인은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죽었고, 여자들은 무심해서 돌보아 주지 않소. 종이란 주인이 더는 다스리지 않으면 제 할 일을 도리대로 하려 들지 않는 법이니,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께서는 사람에게 종살이의 날이 닥치면 그 사람의 빼어남을 절반이나 앗아 가시기 때문이오."

324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살기 좋은 집 안으로 들어가, 홀을 곧장 가로질러 당당한 구혼자들에게로 갔다. 아르고스는 스무 해 만에 오디세우스를 보자마자 검은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혔다.

328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가 누구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돼지치기를 보았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여 돼지치기를 제 곁으로 불렀다. 돼지치기는 두리번거리다가 걸상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집어 들었다. 고기 나누는 이가 집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구혼자들에게 고기를 잔뜩 나누어 줄 때 늘 앉던 걸상이었다. 돼지치기는 그 걸상을 텔레마코스의 식탁 맞은편으로 가져다 놓고 거기 앉았다. 전령이 고기 몫을 집어 그 앞에 놓아 주고 바구니에서 빵을 꺼내 주었다.

336 그 뒤를 바짝 따라 오디세우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비참한 거지, 늙은이와 닮은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몸에는 초라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문 안쪽의 물푸레나무 문지방 위에 앉아 사이프러스 나무 문설주에 기대었는데, 일찍이 목수가 솜씨 좋게 깎아 먹줄에 맞춰 곧게 다듬은 문설주였다. 텔레마코스는 돼지치기를 곁으로 불러, 더없이 아름다운 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를 통째로 집고 두 손에 가득 들어갈 만큼 고기를 집어 들고는 그에게 말했다. "이것을 저 손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그리고 구혼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며 빌어 보라고 일러 주세요. 궁한 사람에게 염치는 좋을 게 없으니까요."

34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돼지치기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오디세우스 가까이 서서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50 "손님, 텔레마코스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면서, 구혼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며 빌어 보라고 하오. 빌어먹는 사람에게 염치는 좋을 게 없다는구려."

353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제우스 왕이시여, 텔레마코스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가 속으로 바라는 일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356 이렇게 말하고 그는 두 손으로 받아 발 앞, 볼품없는 자루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노래꾼이 홀에서 노래하는 동안 그것을 먹었다. 그가 다 먹자 신과 같은 노래꾼도 노래를 그쳤고 구혼자들은 홀 안에서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아테나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곁에 다가서서, 구혼자들 사이를 돌며 빵 조각을 얻어 보라고 부추겼다. 그들 가운데 누가 도리를 알고 누가 도리를 모르는지 알아보게 하려는 뜻이었으나, 그렇다고 여신이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재앙에서 건져 줄 생각은 아니었다. 오디세우스는 오른쪽부터 차례로 사내들 하나하나에게 빌러 다니며, 오래전부터 거지였던 것처럼 사방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가엾게 여겨 무언가를 주면서도 그를 보고 놀라, 저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서로 물었다.

369 그때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이름 높은 왕비님의 구혼자들이시여, 이 나그네에 대해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자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치기가 이자를 이리로 데려오더군요. 그러나 이자가 어디 태생이라고 자처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374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안티노오스가 말로 돼지치기를 꾸짖었다. "이 소문난 돼지치기야, 어쩌자고 이자를 도시로 데려왔느냐? 잔칫상을 핥고 다니는 성가신 거지, 떠돌이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넉넉하지 않으냐? 이자들이 여기 몰려와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 치우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차서 너까지 이자를 불러들였느냐?"

380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당신은 귀한 집안 사람이면서도 말을 곱게 하지 않는구려.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장인, 곧 예언자나 병을 고치는 의원이나 나무 다루는 목수, 아니면 노래로 즐거움을 주는 신묘한 노래꾼 같은 이들이라면 몰라도, 누가 몸소 다른 곳에 찾아가서 나그네를 불러오겠소? 이런 사람들은 끝없는 땅 어디서든 사람들이 불러들이오. 그러나 제 살림을 축낼 거지를 불러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당신은 구혼자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유독 오디세우스의 종들에게 모질게 굴었고, 그중에서도 내게 가장 모질었소. 그래도 분별 있는 페넬로페와 신을 닮은 텔레마코스가 홀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나는 개의치 않소."

392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조용히 하세요. 저 사람에게 길게 대꾸하지 마세요. 안티노오스는 늘 모진 말로 사람을 못되게 약 올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부추기는 버릇이 있어요."

396 이렇게 말하더니 그는 안티노오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안티노오스, 당신은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나를 참 잘도 돌봐 주는구려. 억지로 내쫓는 말로 이 손님을 홀에서 몰아내라고 하다니. 신께서 그런 일은 이루지 마시기를! 저 사람에게 집어 주시오.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오. 내가 그러라고 하는 것이오. 그 일로 내 어머니나,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어려워할 것은 없소. 그러나 당신 가슴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구려. 남에게 주기보다 당신이 실컷 먹고 싶을 뿐이니 말이오." 안티노오스가 대답했다. "큰소리치며 혈기를

못 누르는 텔레마코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구혼자들이 모두 저자에게 내가 줄 만큼씩만 내밀어 준다면, 저자는 석 달 동안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 할 걸세."

409 이렇게 말하고 안티노오스는 식탁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집어 들어 보였다. 잔치를 벌이며 반들거리는 발을 올려놓던 발판이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주어 자루를 빵과 고기로 가득 채워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곧 문지방으로 돌아가 아카이아인들이 거저 준 것을 맛보려던 참이었는데, 안티노오스 곁에 멈춰 서서 그에게 말했다.

415 "주시오, 나리. 보아하니 당신은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가장 못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 같구려. 왕처럼 보이니 말이오. 그러니 당신은 다른 이들보다 더 넉넉히 빵을 주어야 하오. 그러면 나는 끝없는 땅 어디서나 당신을 기리겠소. 나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넉넉한 집을 꾸리고 부유하게 살면서 떠돌이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 아쉬워 찾아왔든 자주 베풀었고, 종도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사람들이 잘 살며 부자라 불리는 데 필요한 다른 것들도 많았소.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그 모든 것을 앗아 갔소. 아마 그것이 그의 뜻이었겠소. 제우스는 나를 망치려고, 떠돌아다니는 해적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 이집트로 가게 했소. 나는 이집트강에 양 끝이 휜 배들을 세웠소. 그리고 정다운 전우들에게 배 곁에 그대로 머물며 배를 지키라고 이르고, 정찰병들을 망보는 자리로 내보냈소. 그런데 전우들은 오만에 빠져 제 기운만 믿고 날뛰며, 곧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더없이 아름다운 들판을 휩쓸었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끌고 오고 사내들은 죽였소. 금세 함성이 도시까지 닿았소. 함성을 들은 그곳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쳐들어왔소. 온 들판이 보병과 말과 청동의 번득임으로 가득 찼소.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께서 내 전우들에게 비참한 겁을 불어넣으셔서, 아무도 버티고 맞서 싸우지 못했으니, 재앙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싼

까닭이었소. 그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날카로운 청동으로 죽였고, 나머지는 산 채로 끌고 가 억지로 종살이를 시켰소. 그런데 그들은 나를,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손님인 이아소스의 아들 드메토르에게 넘겨 키프로스로 보냈는데, 드메토르는 키프로스를 힘으로 다스리던 사람이었소. 거기서 나는 이렇게 재앙을 겪으며 지금 이곳으로 왔소." 안티노오스가 대답했다. "어떤 신이 이 재앙을, 잔치의 골칫거리를 데려왔느냐? 거기 그대로 한가운데로 비켜서라. 내 식탁에서 떨어져 있어라. 안 그러면 곧 쓰라린 이집트와 키프로스에 다시 닿게 될 거다. 너는 참 뻔뻔하고 염치없는 거지로구나. 차례로 모든 사람 곁에 다가서니 말이다. 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다. 남의 것을 베푸는 데는 아끼는 마음도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없거든. 저마다 곁에 넉넉히 쌓여 있으니까."

453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허, 당신은 생김새만 그럴듯하고 속은 그만 못하구려. 당신이라면 당신 집 문 앞에 와서 서는 사람에게 소금 한 톨도 주지 않겠구려. 지금 남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빵을 조금 떼어 내게 줄 마음조차 먹지 못하니 말이오. 여기 저렇게 많이 있는데도."

458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안티노오스는 속에서 더욱 화가 치밀어 그를 노려보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네가 이제 욕지거리까지 지껄이니, 이 홀에서 곱게 물러나지는 못할 줄 알아라."

462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발판을 집어 던졌다. 발판은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 등 맨 위쪽에 맞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바위처럼 꿈쩍 않고 섰다. 안티노오스가 던진 것도 그를 비틀거리게 하지 못했다. 그는 잠자코 고개를 저으며 속 깊이 재앙을 꾸몄다. 그러고는 문지방으로 돌아가 앉아, 가득 찬 자루를 내려놓고 구혼자들 가운데서 말했다.

468 "이름 높은 왕비의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소. 사내가 제 재산을 지키려고 소나 하얀 양 떼를 두고 싸우다가 얻어맞을 때에는 속에 괴로움도 슬픔도 없지만, 안티노오스는 비참한 배 때문에 나를 쳤소. 사람들에게 숱한 재앙을 안기는 저주받을 배 때문에 말이오. 거지들에게도 신들과 에리니에스가 있다면, 혼례를 올리기 전에 죽음의 끝이 안티노오스를 덮치기를 바라오."

477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말을 받았다. "나그네, 가만히 앉아서 먹기나 해라. 아니면 딴 데로 가 버리든가. 네가 지껄이는 꼴을 보니, 젊은이들이 네 발이나 손을 붙잡고 집 안을 질질 끌고 다니며 네 살갗을 온통 벗겨 놓을지도 모르겠다."

481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몹시 분개했다.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483 "안티노오스, 가엾은 떠돌이를 친 것은 잘한 짓이 아닐세. 이 몹쓸 사람아, 혹시 하늘에 사는 어떤 신이라면 어쩌려고 그러나. 신들은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온갖 모습으로 바뀌어 도시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오만과 올바름을 지켜보신다네."

488 구혼자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안티노오스는 그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맞는 것을 보고 가슴속에 큰 슬픔이 차올랐지만, 눈꺼풀에서 눈물 한 방울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는 잠자코 고개를 저으며 속 깊이 재앙을 꾸몄다.

492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손님이 홀에서 얻어맞았다는 말을 듣고 하녀들 가운데서 말했다. "활로 이름난 아폴론이 바로 너를 그렇게 쏘아 맞혔으면!" 살림 맡은 여인 에우리노메가 말을 받았다. "우리가 비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저자들 가운데 누구도 아름다운 옥좌의 새벽 여신을 보지 못할 거예요."

498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유모, 저들은 모두 원수일세. 다들 재앙을 꾸미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도 안티노오스가 검은 죽음의 운명을 가장 닮았네. 어떤 가엾은 나그네가 궁한 처지에 몰려 사내들에게 빌며 집 안을 떠돌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모두 그의 자루를 채워 주고 무언가를 주었건만, 저자는 발판을 던져 그의 오른쪽 어깨 맨 위를 쳤다는군."

505 페넬로페는 방에 앉아 하녀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다. 그사이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왕비는 고귀한 돼지치기를 곁으로 불러 말했다.

508 "고귀한 에우마이오스, 가서 그 손님더러 이리 오라고 이르게. 그에게 인사도 건네고, 혹시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들었거나 제 눈으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 많이 떠돌아다닌 사람 같으니 말일세."

512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왕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왕비님, 아카이아인들이 조용히만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왕비님의 마음도 홀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에서 도망쳐 나와 맨 먼저 저를 찾아왔기에 저는 그를 사흘 밤 동안 데리고 있었고 사흘 낮 동안 제 오두막에 붙잡아 두었지만, 그 사람은 그동안에도 제 불행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신들에게서 배워 인간들에게 그리운 이야기를 노래하는 노래꾼인데, 그가 노래할 때면 사람들은 한없이 듣고 싶어 합니다. 꼭 그처럼 그 사람은 제 집에서 곁에 앉아 저를 홀렸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오디세우스와 아버지 대부터의 손님 벗이고, 미노스의 후손이 사는 크레타에 산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재앙을 겪으며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지금 이리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테스프로티아인들의 기름진 고장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분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오고 계시답니다."

528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가서 그 사람을 이리 불러오게. 내 앞에서 몸소 이야기하게 말일세. 저들은 문가에 앉아서든 여기 집 안에서든 마음껏 놀라지. 저들의 마음은 즐겁기만 하니. 저들 자신의 재산은 빵이든 달콤한 술이든 집에 고스란히 놓여 있고, 저들 집의 하인들이나 그것을 먹지. 그 대신 그자들은 날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며 소와 양과 살진 염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반짝이는 포도주를 함부로 마셔 대니, 살림이 거의 바닥났네. 이 집에서 재앙을 막아 줄 사람,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일세.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고향 땅에 닿기만 한다면, 제 아들과 함께 곧 저 사내들의 횡포를 앙갚음할 텐데."

541 왕비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가 크게 재채기를 했고, 그 소리가 집 안 가득 무시무시하게 울렸다. 페넬로페는 웃음을 터뜨리고 곧 에우마이오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544 "어서 가서 그 손님을 이리 내 앞으로 불러오게. 내 아들이 내가 한 말마다 재채기로 답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 그러니 구혼자들 모두에게 반드시 죽음이 이루어질 걸세. 아무도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걸세.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가슴에 새겨 두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참말인 줄 알게 되면, 외투와 윗옷, 고운 옷을 그에게 입혀 주겠네."

551 왕비가 이렇게 말하자 돼지치기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오디세우스 가까이 서서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553 "나그네 어르신, 텔레마코스의 어머니, 사려 깊은 페넬로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데, 숱한 시름을 겪으셨지만 남편 일로 당신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모양이오. 당신이 하는 말이 모두 참말인

줄 아시면, 당신에게 무엇보다 아쉬운 외투와 윗옷을 입혀 주실 것이오. 빵은 고을을 돌며 빌어서 배를 채우면 되오. 누구든 마음 내키는 사람이 당신에게 줄 것이오."

560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을 받았다. "에우마이오스, 그분의 남편 일이라면 내가 잘 알고 우리는 같은 고난을 겪었으니, 나는 이카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께 참말을 모두 곧 말씀드릴 수 있소. 그러나 모진 구혼자들의 무리가 두렵소. 그자들의 오만과 횡포는 무쇠 하늘까지 닿았소. 방금도 집 안을 지나가는 나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내가 쳐서 고통을 안겼지만, 텔레마코스도 다른 누구도 그것을 막아 주지 않았소. 그러니 이제 페넬로페께 아무리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홀에서 기다리시라고 전해 주시오. 그때 나를 불 곁에 더 가까이 앉히시고 남편의 귀향의 날을 물으시라 하시오. 내 옷이 초라하니 말이오. 당신도 아는 일이오. 내가 맨 처음 당신에게 탄원했으니."

574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돼지치기는 그 말을 듣고 갔다. 돼지치기가 문지방을 넘어서자 페넬로페가 그에게 말했다.

576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군, 에우마이오스. 그 떠돌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누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까닭으로 집 안에서 수줍어하는 건가? 수줍어하는 떠돌이는 못난 떠돌이일세."

579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왕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도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만한 사내들의 오만을 피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비님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 왕비님, 왕비님께서도 그렇게 손님과 단둘이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그 손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로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짐작하고 있네. 죽을 운명의 인간들 가운데 이처럼 오만을 부리며 무모한 짓을 꾸미는 사내들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

589 왕비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고귀한 돼지치기는 모든 것을 다 일러 주고 구혼자들의 무리 속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텔레마코스에게 머리를 바짝 붙이고 곧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593 "얘야, 나는 이제 돌아가서 돼지들과 그곳 살림을 지키겠다. 너와 내 살림이니 말이다. 여기 일은 모두 네가 맡아 돌보아라. 무엇보다 먼저 네 몸을 지키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라.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많은 자가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 제우스께서 저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 전에 저들을 모조리 없애 주시기를!"

598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렇게 할게요, 아저씨. 아저씨는 저녁을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좋은 제물을 몰고 오세요. 여기 일은 모두 저와 불사의 신들께서 돌볼 거예요."

602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돼지치기는 다시 반들반들 다듬은 걸상에 앉았다.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마음을 든든히 채운 뒤 그는 안뜰과,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홀을 뒤에 남기고 돼지들에게로 떠났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흥겹게 즐겼다. 날은 벌써 저물녘에 이르러 있었다.

제18권

1 그때 온 고을을 돌며 빌어먹는 거지 하나가 왔는데, 이타카 도시를 돌며 구걸하던 자로 게걸스러운 배로 쉬지 않고 먹고 마시는 데 이름이나 있었다. 힘도 기운도 없었지만 겉보기에는 덩치가 아주 컸다. 그의 이름은 존귀한 어머니가 태어날 때 붙여 준 아르나이오스였지만, 누가 시키기만 하면 달려가서 말을 전해 주곤 했으므로 젊은이들은 모두 그를 이로스라고 불렀다.[1] 그가 와서 오디세우스를 그의 집에서 쫓아내려 들며 꾸짖고는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0 "늙은이, 문간에서 비켜라. 곧 발목을 잡혀 끌려 나가기 전에. 다들 나한테 눈짓하며 너를 끌어내라고 시키는 게 안 보이냐? 그래도 나는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만. 자, 일어나라. 곧 우리 둘 사이의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지기 전에."

14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에게 해코지를 하지도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네. 누가 자네에게 많이 집어 준다 해도 시샘하지 않네. 이 문지방은 우리 둘이 앉기에 넉넉하니, 자네가 남의 것을 두고 시샘할 까닭은 없지. 보아하니 자네도 나처럼 떠돌이인 모양인데, 복을 내려 주는 것은 신들이 하실 일일세. 주먹으로 나를 너무 도발하지는 말게. 나를 화나게 했다가는 내가 늙었어도 자네 가슴과 입술을 피투성이로 만들지 모르고, 그러면 자네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홀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테니 내일은 내가 더 편히 쉴 수 있겠지." 떠돌이 이로스가 화가 나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허, 이 게걸스러운 놈이 아궁이 지키는 할망구처럼 술술 잘도 지껄이는구나! 내가 이놈을 두 주먹으로 흠씬 두들겨 혼쭐을 내고, 남의 곡식을 먹어 치운 돼지의 이빨을 뽑듯이 이놈 턱에서 이빨을 모조리 땅바닥으로 쳐내 주마. 자, 이제 허리띠를 매라.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우리가 싸우는 꼴을 구경하게. 그런데 너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젊은 사내와 맞붙어 싸우겠느냐?"

32 이렇게 두 사람이 높다란 문 앞, 반들반들한 문지방 위에서 잔뜩 성이 나서 서로 으르렁거리자, 신성한 기운을 지닌 안티노오스가 그 소리를 듣고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구혼자들에게 말했다.

36 "벗들이여,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네. 신께서 이 집에 이런 구경거리를 데려다주셨군. 저 나그네와 이로스가 주먹으로 붙어 보자고 서로 시비를 걸고 있네. 자, 어서 두 사람을 맞붙여 보세."

4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웃으며 벌떡 일어나, 누더기를 걸친 두 거지의 둘레로 모여들었고,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43 "거만한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게. 할 말이 있네. 여기 불 위에 염소 위장들이 놓여 있지. 저녁거리로 기름과 피를 가득 채워 올려 둔 것들일세. 두 사람 가운데 누구든 이겨서 더 센 쪽이 되면, 그 사람이 직접 일어나 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게 하고,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먹게 하며, 다른 거지는 아무도 이 안에 들어와 빌어먹지 못하게 하세."

50 안티노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속임수를 품고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52 "벗들이여, 늙은 사내가, 그것도 고난에 짓눌린 사내가 젊은 사내와 싸우기란 어림없는 일이지만, 못된 짓을 시키는 이 배가 나를 부추겨 매를 맞고 쓰러지게 하는구려. 자, 그러니 당신들 모두 굳게

맹세해 주시오. 누구도 이로스 편을 들어 무거운 주먹으로 나를 쳐서, 무모하게도 나를 저자의 힘에 꺾이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5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가 시킨 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들이 맹세를 다 마치자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가 다시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61 "손님, 당신 가슴과 굳센 마음이 저자를 물리치라고 부추긴다면, 다른 아카이아인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누구든 당신을 치는 자는 여럿을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오. 손님을 맞은 주인은 바로 나요. 그리고 왕인 안티노오스와 에우리마코스도 내 말에 찬성하오. 두 사람 모두 의젓한 사람들이니까."

66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옳다고 했다. 오디세우스가 누더기로 허리 아래를 동여매자 아름답고 커다란 넓적다리가 드러났고 넓은 어깨와 가슴과 억센 팔도 드러났는데, 아테나가 곁에 다가서서 백성의 목자의 팔다리를 더 굵게 키워 주었다. 구혼자들은 모두 몹시 놀랐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73 "이로스는 곧 이로스 아닌 이로스가 되어 제가 불러들인 재앙을 맞겠군. 저 늙은이가 누더기 밑으로 드러낸 넓적다리 좀 보게!"

75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이로스는 마음이 몹시 뒤흔들렸지만, 일꾼들이 억지로 허리띠를 매어 주고 겁에 질린 그를 끌고 나왔다. 그의 팔다리에서 살이 덜덜 떨렸다. 안티노오스가 그를 나무라며 이름을 불러 말했다.

79 "이 허풍선이야, 고난에 짓눌린 이런 늙은이를 그토록 무서워하며 떤다면 차라리 지금 없어져 버리든지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 너에게 똑똑히 일러두마. 이 말은 꼭 이루어질 거다. 이자가 너를 이겨 더 센 쪽이 되면, 너를 검은 배에 태워 뭍으로, 모든 인간을 해치는 에케토스 왕에게 보내 버릴 테다. 그 왕은 무자비한 청동으로 네 코와

귀를 베어 내고, 네 불알을 뜯어내어 개들에게 날로 나눠 먹이라고 던져 줄 거다."

88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이로스는 팔다리가 더욱 떨렸다. 일꾼들이 그를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고, 두 사람은 두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때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속으로 망설였다. 이자를 쳐서 그 자리에 쓰러뜨려 목숨이 떠나게 할까, 아니면 가볍게 쳐서 땅바닥에 뻗게만 할까.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아카이아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볍게 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주먹을 치켜든다. 이로스가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를 친다. 오디세우스가 이로스의 귀 밑 목덜미를 쳐서 뼈를 안으로 부서뜨린다. 곧 이로스의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먼지 속에 쓰러져 이를 딱딱 부딪치며 두 발로 땅을 걷어찬다. 당당한 구혼자들은 두 손을 치켜들고 죽도록 웃어댔다. 오디세우스는 이로스의 발을 잡고 문간을 지나 안뜰과 주랑의 문까지 끌고 가서, 안뜰 담장에 그를 기대어 앉히고 손에 지팡이를 쥐여 주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05 "여기 앉아서 돼지와 개나 쫓아라. 너처럼 비참한 놈이 나그네와 거지들의 왕 노릇을 하려 들지 마라.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108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어깨에 군데군데 해진 볼품없는 자루를 걸쳤다. 자루에는 꼬아 만든 끈이 어깨걸이로 달려 있었다. 그가 문지방으로 돌아가 앉자, 구혼자들은 유쾌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112 "나그네, 제우스와 다른 불사의 신들이 네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 네 마음에 드는 것을 주시기를! 네가 이 밑 빠진 놈이 고을에서 빌어먹고 다니지 못하게 해 주었으니, 우리는 곧 이놈을 뭍으로, 모든 인간을 해치는 에케토스 왕에게 데려갈 거다."

117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 길한 말에 기뻐했다. 안티노오스는 그의 앞에 기름과 피를 가득 채운 커다란 위장을 놓아 주었고, 암피노모스는 바구니에서 빵 두 덩이를 집어 그의 곁에 놓아 주고는, 황금 잔을 들어 그에게 축배를 건네며 말했다.

122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어르신. 지금은 숱한 불행에 붙잡혀 있지만 앞으로는 복이 있기를 비오."

124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암피노모스, 당신은 정말 의젓한 사람 같구려. 당신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으니 말이오. 둘리키온의 니소스가 훌륭하고 부유한 분이라는 좋은 명성을 나도 들었소.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라고들 하는데, 과연 말씨가 점잖은 사람 같구려. 그러니 내가 일러 주겠소. 잘 새겨듣고 귀 기울이시오. 땅 위에서 숨 쉬며 기어 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대지가 기르는 것으로 사람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소. 신들이 빼어남을 주시고 무릎이 힘차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사람은 앞으로 언젠가 재앙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소. 그러나 복된 신들이 비참한 일을 이루시면 그것마저 마지못해 꿋꿋한 마음으로 견뎌 내오.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마음이란,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날마다 가져다주시는 그날그날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오. 나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을 누릴 몸이었소. 그러나 힘과 기운에 기대어,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믿고 무모한 짓을 숱하게 저질렀소. 그러니 사람은 누구든 결코 도리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신들이 주시는 선물이면 무엇이든 잠자코 받아 지녀야 하오. 그런데 내가 보니 구혼자들이 저렇게 무모한 짓을 꾸며 재산을 축내고 그 사내의 아내를 업신여기고 있지만, 내가 말하건대 그 사내는 이제 가족과 고향 땅에서 그리 오래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오. 아주 가까이 와 있소. 부디 어떤 신이 당신을 몰래 집으로 데려가 주어,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당신이 그와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그가 이 지붕 아래로 들어오면, 구혼자들과 그 사람의 결판은 피를 보지 않고는 나지 않을 것이오."

151 이렇게 말하고 그는 신께 술을 따라 바친 뒤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 잔을 백성을 이끄는 이의 손에 다시 돌려주었다. 암피노모스는 가슴이 시름에 잠긴 채 고개를 떨구고 집 안을 가로질러 갔다. 그의 마음은 벌써 재앙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아테나가 그마저 묶어 두어 텔레마코스의 손과 창에 힘으로 꺾이게 했다. 그는 일어났던 높은 의자로 돌아가 다시 앉았다.

158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이카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 주었다. 구혼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는 생각이었으니, 그리하여 구혼자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게 하려는 여신의 뜻이었다. 페넬로페는 까닭 없이 웃음을 지으며 이름을 불러 말했다.

164 "에우리노메, 전에는 없던 일인데 내 마음이 구혼자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네. 저들이 밉기는 여전하지만. 그리고 내 아들에게 득이 될 말을 한마디 해 주고 싶네. 방자한 구혼자들과 늘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말일세. 저들은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뒤로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니."

169 살림 맡은 여인 에우리노메가 말을 받았다. "그래요, 아가, 그 말씀은 모두 옳아요. 자, 가서 아드님께 그 말을 하시고 감추지 마세요. 하지만 먼저 몸을 씻고 두 뺨에 기름을 바르세요. 이렇게 얼굴이 온통 눈물에 젖은 채로 가지는 마세요. 끝도 없이 늘 슬퍼하는 것은 더욱 몹쓸 일이에요. 아드님은 벌써 그만한 나이가 되었잖아요. 아드님에게 수염이 나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무엇보다 간절히 불사의 신들께 빌던 그 나이 말이에요."

177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에우리노메, 그이가 우묵한 배를 타고 떠난 뒤로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이 내 아름다움을 앗아 가 버렸으니, 아무리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이라도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하지 말게. 그보다 아우토노에와 히포다메이아더러 이리 오라고 이르게. 홀에서 내 곁에 서 있게 말일세. 사내들 사이에 혼자 들어가지는 않겠네. 부끄러우니."

185 왕비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어서 오라고 재촉하러 홀을 지나 나갔다.

187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여신은 이카리오스의 딸에게 달콤한 잠을 쏟아부었다. 페넬로페는 침상에 기대앉은 채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온 팔다리가 풀렸다. 그사이 여신 중에 고귀한 아테나는 아카이아인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도록 왕비에게 불멸의 선물을 내려 주었다. 여신은 먼저 고운 관을 쓴 키테라의 여신이 카리테스의 사랑스러운 춤판에 갈 때 바르는 암브로시아 같은 아름다움으로 왕비의 고운 얼굴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그리고 왕비를 보기에 더 크고 더 듬직하게 만들고, 톱으로 켠 상아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 놓고 여신이 떠나간 뒤, 하얀 팔의 시녀들이 소리를 내며 홀에서 다가오자 달콤한 잠이 왕비를 놓아주었고, 페넬로페는 두 손으로 뺨을 문지르며 말했다.

201 "아, 몹시 괴로운 나를 부드러운 잠이 포근히 감싸 주었구나. 정결한 아르테미스께서 지금 당장 내게 이처럼 부드러운 죽음을 내려 주셨으면! 그러면 더는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온갖 빼어남을 지녀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으뜸이던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다가 내 삶을 시들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206 이렇게 말하고 페넬로페는 반들거리는 위층 방에서 내려왔다. 혼자가 아니라 시녀 둘이 뒤따랐다.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구혼자들 앞에 이르자, 튼튼하게 지은 지붕을 받친 기둥 곁에 서서, 반들거리는 머릿수건을 두 뺨 앞으로 드리웠다. 믿음직한 시녀가 양옆에 하나씩 서 있었다. 구혼자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리고 사랑에 마음이 홀려, 저마다 왕비 곁에 누워 잠자리를 함께하기를 빌었고, 페넬로페는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215 "텔레마코스, 네 생각과 마음이 이제 굳건하지 못하구나. 어렸을 때는 오히려 속으로 더 꾀를 잘 굴리더니, 이제 다 자라 젊음이 한창이고 남의 고장 사람이 네 키와 생김새를 보면 부잣집 자식이라고 할 만한데도, 네 생각과 마음은 이제 도리에 맞지 않구나. 이 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손님이 그렇게 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우리 집에 앉아 있던 손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끌려다니며 험한 꼴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너에게 수치와 치욕이 돌아갈 것이다."

226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을 언짢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하나 다 압니다. 전에는 아직 어린아이였지요. 그러나 모든 일을 의젓하게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못된 생각을 품은 저자들이 여기저기 곁에 앉아서 저를 얼떨떨하게 만들고, 제 편이 되어 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손님과 이로스의 싸움은 구혼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힘이 더 셌습니다.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부디 구혼자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어떤 자는 안뜰에서, 어떤 자는 집 안에서 꺾여 고개를 떨구고 저마다 팔다리가 풀려 버리기를! 지금 저 이로스가 안뜰 문간에 앉아 술 취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팔다리가 풀려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제 집이 어디든 돌아가지도 못하듯이 말입니다."

243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에우리마코스가 페넬로페에게 말을 건넸다.

245 "이카리오스의 따님, 사려 깊은 페넬로페 님, 이아소스의 아르고스에 사는 아카이아인들이 모두 왕비님을 본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더 많은 구혼자들이 이 댁에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왕비님은 생김새와 키와 속에 지닌 고른 생각에서 여인들 가운데 으뜸이시니까요."

250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 아르고스인들이 일리오스로 배를 타고 갈 때, 내 남편 오디세우스가 그들과 함께 떠날 때, 불사의 신들이 나의 빼어남과 얼굴과 몸매를 앗아 갔소. 그이가 돌아와 내 삶을 돌보아 준다면 내 명성은 그렇게 더 크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오. 그러나 지금 나는 괴롭소. 어떤 신이 그토록 많은 재앙을 내게 몰아 보냈소. 그이는 고향 땅을 떠나던 날, 내 오른손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소."

259 "'부인, 나는 정강이받이를 잘 댄 아카이아인들이 모두 트로이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소. 트로이인들도 싸움을 잘하는 사내들이라고 하니 말이오.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자들이며, 발 빠른 말이 끄는 전차에 오르는 자들이라 하오.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는 전쟁의 큰 다툼도 그런 자들이 가장 빨리 결판을 내는 법이오. 그러니 신께서 나를 돌려보내 주실지, 아니면 내가 그곳 트로이에서 붙잡히고 말지 나는 모르겠소. 이곳 일은 모두 당신이 돌보시오. 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금처럼, 아니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는 더욱 마음 써 보살펴 주시오. 그러다 아들에게 수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당신 집을 떠나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시오.'"

271 "그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소. 저주받은 나에게, 제우스가 복을 앗아 간 나에게 끔찍한 혼인이 닥칠 밤이 오고야 말 것이오. 그런데 이 지독한 슬픔이 내 가슴과 마음에 사무치오. 구혼자들의 법도는 예전에 이렇지 않았소. 좋은 여인이나

부잣집 딸에게 구혼하려고 서로 다투는 사내들은 몸소 소와 살진 양을 끌고 와서 신부의 벗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빛나는 선물을 바치오. 남의 살림을 값도 치르지 않고 먹어 치우지는 않소."

281 왕비가 이렇게 말하며 구혼자들에게서 선물을 끌어내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홀리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것을 꾀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284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왕비에게 말을 받았다. "이카리오스의 따님, 사려 깊은 페넬로페 님,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누구든 이리로 선물을 가져오려 하거든 받아 두십시오. 주는 것을 마다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왕비님께서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과 혼인하시기 전에는 저희 농토로도, 다른 어디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290 안티노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저마다 선물을 가져오라고 전령을 보냈다. 안티노오스에게는 전령이 더없이 아름다운 커다란 옷을 가져왔다. 수를 놓은 옷이었는데, 잘 휜 고리에 끼우는 황금 옷핀이 모두 열두 개 달려 있었다. 에우리마코스에게는 전령이 곧 공들여 만든 황금 목걸이를 가져왔다. 호박 구슬을 꿰어 해처럼 빛나는 목걸이였다. 에우리다마스에게는 시종 둘이 귀걸이 한 쌍을 가져왔다. 오디 같은 구슬이 세 알씩 달려 있어 아름다운 빛이 반짝였다. 폴릭토르의 아들 페이산드로스 왕의 집에서는 시종이 목장식을 가져왔다. 더없이 아름다운 장신구였다. 아카이아인들이 저마다 다른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오자,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위층 방으로 올라갔고 시녀들이 그 더없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들고 따라갔다.

304 구혼자들은 춤과 사랑스러운 노래에 빠져 즐기며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즐기는 동안 검은 저녁이 찾아왔다. 그들은 곧 홀 안에

불을 밝힐 화로 셋을 세우고, 그 둘레에 오래전에 베어 바싹 마른 데다 방금 청동으로 쪼갠 장작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 횃불도 섞어 놓았다. 마음이 꿋꿋한 오디세우스의 하녀들이 번갈아 가며 불을 돋우었다. 그러자 제우스의 핏줄인,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몸소 하녀들에게 말했다.

313 "오래전에 떠나간 주인 오디세우스의 하녀들아, 존귀한 왕비께서 계신 방으로 가거라. 왕비 곁에서 물레가락을 돌리고, 방에 앉아 왕비를 즐겁게 해 드리든지 손으로 양털을 빗든지 해라. 이 사람들 모두에게는 내가 불빛을 비춰 주겠다. 이들이 아름다운 옥좌의 새벽 여신을 기다리려 한다 해도 나를 이기지는 못할 거다. 나는 참을성이 아주 많으니까."

320 그가 이렇게 말하자 하녀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뺨이 고운 멜란토가 그를 모질게 나무랐는데, 돌리오스가 낳은 딸로 페넬로페가 데려다 제 자식처럼 길러 주고 마음에 드는 노리개도 준 하녀였다. 그런데도 멜란토는 페넬로페의 슬픔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에우리마코스와 정을 통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멜란토가 욕설을 퍼부으며 오디세우스를 나무랐다.

327 "이 딱한 나그네야, 너는 정신이 나간 놈이로구나. 대장간이나 마을 쉼터에 가서 잘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 사내 앞에서 겁도 없이 대담하게 말을 늘어놓다니.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네 생각이 늘 그 모양이라 그렇게 헛소리를 지껄이는 게지. 떠돌이 이로스를 이겼다고 우쭐해서 날뛰는 거냐? 이로스보다 나은 다른 놈이 곧 일어나서 억센 주먹으로 네 머리통을 두들기고 피투성이로 만들어 이 집에서 내쫓지나 않을지 조심해라."

337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멜란토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개 같은 것아, 네가 지껄인 말을 당장 텔레마코스에게 가서 일러바치겠다.

그러면 텔레마코스가 그 자리에서 너를 토막 내 버릴 거다."

340 이렇게 말하여 그가 여자들을 기겁하게 하자, 여자들은 그가 한 말이 참말이라고 여겨 집 안을 가로질러 달아났고 저마다 겁에 질려 팔다리가 풀렸다. 오디세우스는 타오르는 화로 곁에서 불을 밝히며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렸다. 끝내 이루어지고야 말 생각들이었다.

346 아테나는 거만한 구혼자들이 마음 아픈 모욕을 아주 그만두게 하지는 않았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가슴에 고통이 더 깊이 스며들게 하려 했다.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빈정대며 그들 가운데서 먼저 말을 꺼내자, 동료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

351 "이름 높은 왕비의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게.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네. 이 사내가 오디세우스의 집에 온 것은 신의 뜻이 없지 않네. 어쨌든 횃불 빛이 이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으니 말일세."

356 이렇게 말하고 그는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에게 말을 걸었다. "나그네, 내가 너를 머슴으로 데려간다면 저 먼 들판 끝자락에서 품을 팔 생각이 있느냐? 품삯은 넉넉히 주마. 돌담을 쌓고 큰 나무를 심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해 내내 먹을 것을 대 주고, 옷도 입혀 주고, 발에 신을 신발도 주마. 하지만 너는 못된 짓만 배워 놔서 일하러 다닐 생각은 없고, 고을을 굽실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어 그 밑 빠진 배나 채우고 싶어 하지."

365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 해가 긴 봄철 풀밭에서 우리 둘이 일로 겨루어, 나도 잘 휜 낫을 들고 당신도 그런 낫을 들고서 날이 아주 어두워질 때까지 굶은 채 일을 겨룬다면 좋겠소. 베어 낼 풀은 넉넉하니 말이오. 아니면 가장 좋은 소들, 털빛이 붉고

덩치가 크며 둘 다 꼴을 실컷 먹었고 나이도 같고 끄는 힘도 같아 그 힘이 만만치 않은 소들을 몰고 갈 수 있다면 좋겠소. 넉 마지기 밭에 흙덩이가 쟁기 아래 술술 갈라진다면, 내가 고랑을 끊김 없이 곧게 갈아 나가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또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오늘 어디선가 전쟁을 일으키시고, 내게 방패 하나와 창 두 자루와 관자놀이에 꼭 맞는 온통 청동으로 된 투구가 있다면, 내가 맨 앞 싸움꾼들 사이에 섞여 싸우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그러면 내 배를 들먹이며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몹시 오만하고 마음이 모질구려. 몇 안 되는, 그것도 변변치 못한 자들과 어울리니 아마 스스로 크고 강한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오.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고향 땅에 닿기만 한다면, 저 문이 아무리 넓다 해도 문간을 지나 밖으로 달아나는 당신에게는 금세 좁아질 것이오."

387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에우리마코스는 속에서 더욱 화가 치밀어 그를 노려보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89 "이 가엾은 놈아, 네가 지껄이는 말의 값을 곧 치르게 해 주마. 여러 사내 앞에서 겁도 없이 대담하게 말을 늘어놓다니.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네 생각이 늘 그 모양이라 그렇게 헛소리를 지껄이는 게지. 떠돌이 이로스를 이겼다고 우쭐해서 날뛰는 거냐?"

394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발판을 집어 들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에우리마코스가 무서워 둘리키온 사람 암피노모스의 무릎 곁에 주저앉았고, 에우리마코스가 던진 발판은 술 따르는 이의 오른손에 맞았다. 술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울렸고, 술 따르는 이는 신음하며 먼지 속에 뒤로 벌렁 쓰러졌다. 구혼자들은 그늘진 홀 안에서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401 "저 나그네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를 떠돌다가 죽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우리 사이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거지들 때문에 다투고 있으니, 좋은 잔치의 즐거움도 다 사라지겠군. 못난 것들이 이기는 판이니 말일세." 그때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이상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미쳤구려. 먹고 마신 것을 이제 속에 감추지도 못하는군. 어떤 신이 당신들을 부추기고 있소. 자, 실컷 먹었으니 마음이 내키거든 집으로 가서 잠자리에 드시오. 나는 아무도 내쫓지 않겠소."

41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입술을 깨물며, 텔레마코스가 대담하게 말하는 데 놀랐다. 그때 아레토스의 아들인 니소스 왕의 빛나는 아들 암피노모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414 "벗들이여, 옳은 말을 들었으면 아무도 맞서는 말로 대들며 성내서는 안 될 걸세. 나그네도,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도 아무도 떠밀지 말게. 자, 술 따르는 이가 잔마다 신께 바칠 몫을 조금씩 따르게 하세.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집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도록 말일세. 나그네는 오디세우스의 홀에 남겨 두어 텔레마코스가 돌보게 하세. 그의 집으로 찾아왔으니 말일세."

422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을 반겼다. 둘리키온에서 온 전령이자 암피노모스의 시종인 영웅 물리오스가 그들을 위해 술동이에 술을 섞어,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서서 잔을 채워 주었다. 그들은 복된 신들께 술을 따라 바친 뒤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마셨다.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마음껏 마시고 나자, 그들은 잠을 자러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

1. 이로스(Iros, 그리스어 Ἶρος)는 신들의 말을 전하는 여신 이리스(Iris)의 이름을 사내 이름처럼 바꾼 별명이다. 누가 시키면 달려가 말을 전해 주던 심부름꾼이라

그렇게 불렸다. 18.73의 「이로스 아닌 이로스」는 원문 Ἶρος Ἄϊρος(Iros Airos)를 옮긴 것으로, 이름 앞에 부정의 접두사를 붙여 이제 심부름도 못 다닐 신세가 되리라고 비꼬는 말장난이다.

제19권

1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와 함께 구혼자들을 죽일 궁리를 하며 홀에 남았다. 그러다 곧 텔레마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 "텔레마코스, 싸움에 쓰는 무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안으로 치워 두어야 한다. 구혼자들이 무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묻거든 부드러운 말로 둘러대라. '연기에 그을지 않게 치워 두었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나면서 남겨 두었던 그때 모습과는 더 이상 닮지 않고, 불기운이 닿은 탓에 몹시 상해 버렸소. 게다가 어떤 신이 내 마음에 더 큰 걱정을 넣어 주었소. 혹시 당신들이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가 서로 다치게 하고, 잔치와 구혼을 욕되게 할까 두렵소. 쇠붙이는 저절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니 말이오.'"

14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그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내어 말했다.

16 "유모, 자, 여인들을 안채에 붙잡아 두세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좋은 무기를 방에 치워 둘게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집 안에서 돌보는 이 없이 연기에 그을려 상해 가고 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철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이제는 불기운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 두고 싶어요."

21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얘야, 네가 언젠가 정녕 생각이 깊어져서 집안을 돌보고 재산을 모두 지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자, 그러면 누가 따라가며 너에게 불을 들어 주겠느냐? 불을 밝혀 줄 하녀들은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26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이 손님이 들어 줄 거예요. 제 양식 됫박에 손을 대는 사람이라면, 먼 데서 왔다 해도 그냥 놀게 두지는 않겠어요."

29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에우리클레이아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유모는 살기 좋은 홀의 문들을 잠갔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빛나는 아들은 벌떡 일어나 투구와 배꼽이 돋은 방패와 날 선 창을 안으로 날랐고, 그들 앞에서는 팔라스 아테나가 황금 등잔을 들고 더없이 아름다운 빛을 밝혔다. 그때 텔레마코스가 곧 아버지에게 말했다.

36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홀의 벽과 아름다운 들보 사이 칸들, 전나무 서까래, 높이 솟은 기둥들이 활활 타는 불처럼 제 눈에 환히 빛납니다.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 정녕 안에 와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4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조용히 하고 생각은 속에 담아 두어라. 캐묻지도 마라. 그것이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의 법도이다. 자, 너는 가서 누워라. 나는 여기 남아서 하녀들과 네 어머니의 속을 좀 더 떠보겠다. 네 어머니는 슬피 울며 나에게 하나하나 물어볼 것이다."

47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환히 타오르는 횃불 빛을 받으며 홀을 가로질러 자러 제 방으로 갔다. 달콤한 잠이 찾아오면 늘 잠들던 곳이었다. 그날 밤에도 그는 거기 누워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와 함께 구혼자들을 죽일 궁리를 하며 홀에 남았다.

53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방에서 나왔다. 아르테미스와도 같고 황금빛 아프로디테와도 같았다. 하녀들이 불 곁에 페넬로페가 늘 앉던 의자를 놓아 주었다. 상아와 은을 둥글게 돌려 박은 의자로, 일찍이 목수 이크말리오스가 만들면서 아래에 발을 올려놓을 발판을 붙여 달았고, 그

위에는 커다란 양털 가죽이 깔려 있었다.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거기 앉았다. 하얀 팔의 하녀들이 홀에서 나와 남은 빵 무더기와 식탁과 잔들을 치웠다. 기세등등하던 사내들이 술을 마시던 잔이었다. 하녀들은 화로의 불을 바닥에 쏟아 버리고 그 위에 장작을 수북이 쌓아 빛을 내고 몸을 녹이게 했다. 그때 멜란토가 또다시 오디세우스를 나무랐다. "나그네, 아직도 여기서 밤새 집 안을 어슬렁거리며 귀찮게 굴고 여자들을 훔쳐볼 셈이냐? 이 딱한 인간아, 썩 문밖으로 나가서 얻어먹은 것으로나 만족해라. 안 그러면 곧 횃불에 얻어맞고 문밖으로 쫓겨날 거다."

7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노려보며 말했다.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이렇게 앙심을 품고 나에게 덤비느냐? 내가 때가 꼬질꼬질하고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고장을 돌며 빌어먹어서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쫓겨서 그런다. 거지와 떠도는 사내란 다 그런 법이다. 나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넉넉한 집을 꾸리고 부유하게 살면서 떠돌이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 아쉬워 찾아왔든 자주 베풀었고, 종도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사람들이 잘 살며 부자라 불리는 데 필요한 다른 것들도 많았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그 모든 것을 앗아 갔다. 아마 그것이 그의 뜻이었겠지. 그러니 여인아, 지금 하녀들 사이에서 으스대는 그 아름다움을 너도 언젠가 모두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안주인이 너에게 노해 엄하게 다스릴지도 모르고, 오디세우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직 바랄 몫은 남아 있다. 설령 그가 그렇게 죽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아폴론의 은덕으로 그 아들 텔레마코스가 벌써 그만큼 자랐다.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니, 홀의 여인들 가운데 누가 무모한 짓을 하면 결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89 그의 말을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들었다. 페넬로페는 시녀를 나무라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91 "이 뻔뻔한 것, 겁도 없는 개 같은 것아, 네가 저지르는 고약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 죗값은 네 머리로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이다. 너는 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몹시 비통해서 이 손님에게 내 홀에서 남편 소식을 물어보려 한다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네가 직접 들었으니까."

96 그렇게 말하더니 페넬로페는 살림 맡은 여인 에우리노메에게 말했다. "에우리노메, 의자를 가져오고 그 위에 양털 가죽을 깔아 주게. 손님이 앉아서 내게 이야기도 하고 내 말도 들을 수 있도록. 이 손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페넬로페가 이렇게 말하자 에우리노메는 서둘러 반들반들 다듬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양털 가죽을 깔았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거기 앉았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먼저 말을 꺼냈다.

104 "손님, 먼저 내가 직접 이것부터 묻겠소.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요?"

10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부인, 끝없는 땅 위의 인간 가운데 누구도 부인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인의 명성은 넓은 하늘까지 닿아 있으니, 나무랄 데 없는 어느 왕의 명성과도 같습니다. 그런 왕은 신을 두려워하며 굳센 백성을 많이 다스리고 바른 다스림을 받들어 지킵니다. 그러면 검은 땅은 밀과 보리를 내고 나무는 열매로 휘어지며, 양 떼는 끊임없이 새끼를 낳고 바다는 물고기를 대 주니, 다스림이 좋아서 그 아래 백성이 번성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댁에서 다른 것은 무엇이든 물으셔도 좋지만 제 혈통과 고향 땅만은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떠올리면 제 마음이 더욱 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앉아 울고불고해서는 안 됩니다. 끝도 없이 늘 슬퍼하는 것은 더욱 몹쓸

일입니다. 하녀들 가운데 누가, 아니면 부인께서 몸소, 제가 술에 정신이 무거워져 눈물 속을 헤엄친다며 언짢아하실지도 모릅니다."

123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손님, 아르고스인들이 일리오스로 배를 타고 갈 때, 내 남편 오디세우스가 그들과 함께 떠날 때, 불사의 신들이 나의 빼어남과 얼굴과 몸매를 앗아 갔소. 그이가 돌아와 내 삶을 돌보아 준다면 내 명성은 그렇게 더 크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오. 그러나 지금 나는 괴롭소. 어떤 신이 그토록 많은 재앙을 내게 몰아 보냈소. 섬들을 휘어잡은 으뜸가는 자들이 둘리키온과 사메와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에서 몰려오고,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이타카 바로 이곳에 사는 자들까지 내가 싫다는데도 내게 구혼하며 집을 거덜 내고 있소. 그래서 나는 나그네도, 탄원하는 사람도, 고장의 일을 맡아 하는 전령도 돌보지 못하고 오디세우스만 그리며 가슴이 녹아내리고 있소. 저들은 혼인을 서두르고, 나는 속임수를 실꾸리처럼 감아 나가오. 처음에 어떤 신이 내 속에 수의를 지으라는 생각을 불어넣었소. 나는 홀에 커다란 베틀을 세워 놓고 가늘고도 넓은 천을 짜기 시작하고는, 곧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141 "'내게 구혼하는 젊은이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내 혼인을 서두르고 싶더라도 이 천을 다 짤 때까지, 애써 자은 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기다려 주시오. 이것은 영웅 라에르테스의 수의라오. 긴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운명이 그분을 쓰러뜨릴 때 쓰려는 것이오. 그 많은 재산을 모은 분이 수의도 없이 누워 계신다면, 이 고장 아카이아 여인들 가운데 누가 나를 두고 분개할지도 모르니까.'"

148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소. 그때부터 나는 낮에는 커다란 베틀에서 천을 짜고, 밤이면 횃불을 곁에 두고 짠 것을 풀었소. 그렇게 세 해 동안 나는 아카이아인들을 속여 넘기고 믿게 했소. 그러나 네 해째가 되어 계절이 돌아오고, 달이 이울며

숱한 날이 다 차자,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개 같은 하녀들이 일러바치는 바람에 저들이 들이닥쳐 나를 붙잡고 큰소리로 꾸짖었소.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천을 다 짜고 말았소. 이제는 혼인을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꾀를 찾을 길도 없소. 부모님은 어서 혼인하라고 몹시 재촉하고, 아들은 저들이 살림을 먹어 치우는 것을 알고 애를 태우오. 이제 그 애도 집안을 돌볼 줄 아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제우스가 그에게 영광을 내려 주고 있소. 그래도 당신 혈통을 말해 주시오. 어디서 왔소? 옛이야기 속 참나무나 바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164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드님 오디세우스의 존귀하신 부인이시여, 제 혈통을 묻는 일을 끝내 그만두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지금 사로잡힌 슬픔보다 더 많은 슬픔에 저를 내맡기시는 셈이지만 말입니다. 지금의 저만큼 오래 제 고향을 떠나 숱한 인간들의 도시를 떠돌며 고통을 겪은 사내라면 그런 것이 법도입니다. 그래도 물으시고 캐물으시는 것에 대답하겠습니다. 포도주 빛 바다 한가운데 크레타라는 땅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기름지며 사방이 바닷물로 둘러싸인 땅인데, 거기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도시가 아흔 개나 됩니다. 말도 저마다 다른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카이아인도 있고 기개 높은 에테오크레테스족과 키도네스족, 세 갈래로 나뉜 도리스인, 고귀한 펠라스고이족도 삽니다. 그 도시들 가운데 크노소스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위대한 제우스와 이야기를 나누던 미노스가 거기서 아홉 해마다 왕 노릇을 했는데, 그분이 제 아버지, 기상 높은 데우칼리온의 아버지입니다. 데우칼리온은 저와 이도메네우스 왕을 낳았습니다. 이도메네우스는 뱃머리가 굽은 배들을 거느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일리오스로 떠났습니다. 제 이름은 이름난 아이톤이고, 나이로는 아래입니다. 형은 저보다 먼저 났고 더 뛰어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오디세우스를 보았고 손님 선물을

주었습니다. 트로이로 가려던 그를 거센 바람이 말레아곶에서 떠밀어 크레타로 몰아왔으니, 그는 해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의 동굴이 있는 암니소스, 드나들기 험한 포구에 배를 대고 사나운 바람을 겨우 피했습니다. 그는 곧장 도시로 올라와 이도메네우스를 찾으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정답고 존귀한 손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도메네우스가 뱃머리가 굽은 배들을 거느리고 일리오스로 떠난 지 벌써 열흘째인가 열하루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집 안에 넉넉히 있는 것으로 극진히 아껴 주었고, 그를 따라온 다른 전우들에게도 고장 사람들에게서 보릿가루와 반짝이는 포도주를 거두어 주고 제물로 잡을 소를 내주어 마음껏 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고귀한 아카이아인들은 거기서 열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거센 북풍이 몰아쳐 뭍에서조차 서 있지 못하게 했으니, 어떤 사나운 신이 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열사흘째 되는 날 바람이 잦아들자 그들은 배를 띄워 떠났습니다."

203 그는 거짓말을 숱하게 늘어놓으며 참말처럼 꾸며 댔다. 그 말을 듣는 페넬로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살갗이 녹아내렸다. 높은 산꼭대기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때가 있다. 서풍이 쏟아부은 눈을 동풍이 녹이면, 녹은 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넘쳐흐른다. 꼭 그처럼 페넬로페는 눈물을 쏟으며 고운 두 뺨이 녹아내렸고, 바로 곁에 앉아 있는 제 남편을 그리며 울었다. 오디세우스는 슬피 우는 아내가 마음속으로 가여웠지만, 그의 두 눈은 뿔이나 쇠로 만든 것처럼 눈꺼풀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 그는 속임수로 눈물을 감추었다. 페넬로페는 눈물 많은 울음을 실컷 울고 나서 다시 그에게 대답했다.

215 "자, 손님, 이제 당신을 시험해 보아야겠소. 당신 말대로 정녕 그곳에서 신에 버금가는 전우들과 함께 있던 내 남편을 당신 집에 손님으로 맞아 대접했는지 말이오. 그이가 몸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이 생김새는 어땠는지, 그이를 따르던 전우들은 어떠했는지 말해 주시오."

22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부인, 그토록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 제 고향을 떠나간 지 벌써 스무 해째입니다. 그래도 제 가슴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두 겹으로 된 두툼한 자줏빛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핀을 꽂는 대롱이 둘 달린 황금 걸쇠가 달려 있었고, 앞쪽에는 정교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앞발로 얼룩무늬 새끼 사슴을 움켜쥐고 버둥거리는 그것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것인데도 개는 새끼 사슴의 목을 조르며 노려보고 새끼 사슴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으니, 모두가 그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가 몸에 걸친 반들거리는 윗옷도 보았는데, 마른 양파 껍질처럼 부드러웠고 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녕 많은 여인이 그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일러 드릴 테니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오디세우스가 그 옷들을 집에서부터 입고 왔는지, 아니면 날랜 배에 오를 때 전우 가운데 누가 주었는지, 어쩌면 어느 손님 벗이 주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많은 이와 벗으로 지냈고, 아카이아인 가운데 그와 견줄 만한 이가 드물었으니까요. 저도 그에게 청동 칼과 두 겹으로 된 아름다운 자줏빛 외투와 발끝까지 내려오는 윗옷을 주었고, 갑판 튼튼한 배에 태워 정중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전령 하나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말씀드리지요. 등이 굽고 살갗이 검고 머리털이 곱슬곱슬했으며, 이름은 에우리바테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다른 전우들보다 그 사람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서로 속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249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가 일러 준 표지들이 틀림없음을 알아본 페넬로페는 울고 싶은 마음이 더욱 북받쳤다. 페넬로페는 눈물 많은 울음을 실컷 울고 나서 그에게 대답했다.

253 "손님, 당신은 전에도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 집에서 정답고 존귀한 손님이 될 것이오. 당신이 말하는 그 옷은 내가 직접 방에서 꺼내 개어서 그이에게 주었고, 그이의 장식이 되라고 반짝이는 걸쇠도 달아 주었소. 그러나 나는 그이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시는 맞지 못할 것이오. 오디세우스는 궂은 운명을 따라 우묵한 배를 타고,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몹쓸 일리오스[1]를 보러 떠났으니 말이오."

26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드님 오디세우스의 존귀하신 부인이시여, 이제는 고운 살갗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남편을 그리며 마음을 녹이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부인을 언짢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든 사랑으로 몸을 섞어 자식을 낳아 준 젊은 날의 남편을 잃으면 슬피 울기 마련입니다. 신들과 같다는 오디세우스 같은 남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울음을 그치시고 제 말을 새겨들으십시오.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바로 가까이, 테스프로티아인들의 기름진 고장에서 그가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고장을 돌며 얻은 값지고 좋은 보물을 많이 싣고 오는 길입니다. 다만 정다운 전우들과 우묵한 배는 트리나키아섬을 떠나오다가 포도주 빛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그의 전우들이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은 탓에 제우스와 헬리오스가 그에게 노여워했습니다. 전우들은 모두 파도가 사납게 치는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배의 용골에 매달려 있다가 파도에 밀려 뭍에 닿았습니다. 신들과 가까운 핏줄인 파이아케스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신처럼 진심으로

떠받들고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해를 입지 않게 손수 집까지 보내 주려 했습니다. 그러니 오디세우스는 벌써 오래전에 여기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땅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모으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마음속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는 죽게 마련인 인간들 가운데 잇속 차리는 꾀를 누구보다 많이 알아서, 다른 어떤 인간도 그와 겨룰 수 없습니다. 테스프로티아인의 왕 페이돈이 제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왕은 집에서 신께 술을 따라 바치며 제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배를 이미 바다에 띄워 두었고, 그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데려다줄 전우들도 채비를 마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왕은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마침 테스프로티아인들의 배가 밀이 많이 나는 둘리키온으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페이돈은 오디세우스가 모은 재물도 보여 주었는데, 그 왕의 홀에 쌓여 있는 보물은 열 대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만했습니다. 페이돈의 말로는 오디세우스가 도도나로 갔다고 했습니다. 잎이 높이 우거진 신의 참나무에서 제우스의 뜻을 듣고, 이미 오래 떠나 있던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드러내 놓고 돌아갈지 몰래 돌아갈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무사하고 곧 아주 가까이 돌아올 것이며, 사랑하는 이들과 고향 땅에서 더는 오래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인께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신 제우스께서 먼저, 그리고 제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화덕이 증인이 되어 주소서. 이 모든 일은 정녕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해 안에, 이 달이 기울고 새 달이 차오를 무렵 오디세우스가 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308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손님,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당신은 곧 내게서 우정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복 받은 사람이라 부를 것이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일이 이렇게만 될 것 같소. 오디세우스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바래다줄 배를 얻지 못할 것이오. 오디세우스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처럼, 아아, 그런 사람이 정녕 있기는 했던가, 존귀한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바래다줄 만한 주인이 이제 이 집에는 없기 때문이오. 자, 시녀들아, 손님의 발을 씻기고 잠자리를 펴 드려라. 침상과 외투와 반들거리는 깔개를 마련해 손님이 따뜻하게 지내다가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을 맞게 하여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발라 드려라. 그래서 손님이 홀 안에서 텔레마코스 곁에 앉아 식사를 들도록 하여라. 저들 가운데 누구든 마음을 해치는 자가 되어 손님을 괴롭힌다면 그자에게는 그만큼 더 고약한 일이 닥칠 것이오. 아무리 끔찍하게 화가 난다 해도 이 집에서는 더는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할 것이오. 손님, 당신이 꾀죄죄한 몰골로 누더기를 걸친 채 홀에서 식사를 한다면, 내가 슬기와 사려 깊은 꾀에서 다른 여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것을 당신이 어찌 알겠소? 인간이란 잠깐 살다 가는 목숨이오. 스스로 모질고 모진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살아서는 모든 인간이 뒷날 고통을 받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죽은 뒤에는 다들 비웃소. 그러나 스스로 나무랄 데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생각을 품는 사람은, 그 명성을 손님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실어 나르고 많은 이가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 일컫소."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드님 오디세우스의 존귀하신 부인이시여, 저는 노가 긴 배를 타고 눈 덮인 크레타의 산들을 떠나온 그날부터 외투와 반들거리는 깔개가 싫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던 대로 그냥 이렇게 눕겠습니다. 저는 숱한 밤을 초라한 잠자리에 누워 지새우며, 아름다운 옥좌의 고귀한 새벽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발 씻을 물도 제 마음에 반갑지 않습니다. 이 댁에서 일하는 여인들 가운데 누구도 제 발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만큼 많은 일을 속으로 견뎌 낸, 믿음직한 늙은 할멈 하나가 있다면 그 할멈이 제 발을 만지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349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정다운 손님, 먼 나라에서 내 집에 온 정다운 손님들 가운데 당신만큼 생각 깊은 사람은 아직 없었소. 당신은 무엇이든 참으로 조리 있고 생각 깊게 말하는구려. 내게는 속에 빈틈없는 생각을 품은 노파 한 사람이 있는데, 저 불운한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처음 낳았을 때 두 손으로 받아 들고 잘 먹이고 길러 준 사람이오. 이제 기운이 없기는 해도 그 노파가 당신 발을 씻겨 줄 것이오. 자, 사려 깊은 에우리클레이아, 일어나서 자네 주인과 동갑인 이 사람의 발을 씻겨 주게. 오디세우스도 아마 지금쯤 발이며 손이 이 사람과 같겠지. 인간은 불행 속에서 금세 늙어 버리니까."

361 페넬로페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서럽게 말했다.

363 "아아, 얘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구나!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녔는데도 제우스께서는 인간들 가운데 너를 가장 미워하셨구나.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께 너만큼 기름진 넓적다리뼈와 골라 뽑은 큰 제물을 바친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평안한 노년에 이르러 빛나는 아들을 길러 내게 해 달라고 빌며 그토록 많이 바쳤건만, 이제 제우스께서는 너 하나에게서만 귀향의 날을 송두리째 앗아 가 버리셨다. 그이가 먼 나라 어느 이름난 집에 이르렀을 때, 아마 그곳 여인들도 그이를 이렇게 비웃었을 것이오. 손님, 여기 이 개 같은 것들이 모두 손님을 비웃듯이 말이오. 손님은 저것들의 모욕과 숱한 수치스러운 짓을 피하려고 저것들에게는 발을 맡기지 않는데, 이카리오스의 따님, 사려 깊은 페넬로페 님께서 내게 시키시니 나는 기꺼이 하겠소. 그러니 페넬로페 님을 위해서도, 손님을 위해서도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리다. 내 속에서 마음이 시름으로 들끓으니 말이오.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시오. 고생에 지친 나그네가 이곳에 숱하게 왔지만, 손님처럼 몸매며 목소리며 발까지 오디세우스를 그토록 닮은 이는 아직 본 적이 없소."

38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할멈, 우리 두 사람을 제 눈으로 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오. 할멈이 눈여겨보고 말한 대로, 우리 둘이 서로 꼭 닮았다고 말이오."

386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늘 발을 씻기는 데 쓰던 번쩍이는 대야를 가져와 찬물을 듬뿍 붓고 그 위에 더운물을 떠 부었다. 오디세우스는 화덕 곁에 앉아 있다가, 노파가 발을 잡으면 흉터를 알아채 모든 일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대뜸 마음속에 들어 얼른 어둠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노파는 가까이 다가가 제 주인의 발을 씻기다가 곧 그 흉터를 알아보았다. 일찍이 그가 아우톨리코스와 그 아들들을 찾아 파르나소스산에 갔을 때 멧돼지가 흰 엄니로 찢어 놓은 흉터였다. 어머니의 훌륭한 아버지 아우톨리코스는 도둑질과 맹세 솜씨로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그 재주는 헤르메스가 몸소 내려 주었다. 아우톨리코스가 그 신이 반기는 새끼 양과 새끼 염소의 넓적다리뼈를 태워 바쳤으니, 헤르메스는 기꺼이 그와 함께했다. 아우톨리코스가 이타카의 기름진 고장에 왔을 때 딸이 막 아들을 낳은 참이었다. 그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에우리클레이아가 그 아기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403 "아우톨리코스 님, 따님이 낳은 이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붙여 줄 이름을 이제 몸소 찾아 주십시오. 빌고 또 빌어서 얻은 아이입니다." 아우톨리코스가 대답했다. "사위와 딸아, 내가 일러 주는 이름을 붙이게. 나는 기름진 대지 곳곳에서 숱한 남자와 여자에게 노여움을 품은 채 여기 왔으니, 이 아이 이름을 오디세우스[2]라 하여 그 노여움을 이름에

담게.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파르나소스산에 있는 외가의 큰 집에 오면, 거기 내 재산이 좀 있으니 그 가운데서 나눠 주고 기쁘게 돌려보내겠네."

413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빛나는 선물을 받으러 그곳에 갔다. 아우톨리코스와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은 손을 맞잡고 다정한 말로 그를 반겼다. 외할머니 암피테아는 오디세우스를 끌어안고 머리와 아름다운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아우톨리코스가 영광스러운 아들들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이르자, 아들들은 재촉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곧 다섯 살 난 수소를 끌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손질하여 통째로 각을 뜬 다음, 솜씨 좋게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고 정성껏 구워서 몫을 나누었다. 그렇게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잔치를 벌였고, 고루 나눈 잔치에 아무도 마음에 모자란 것이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제야 그들은 자리에 누워 잠의 선물을 받았다.

428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나자, 개들과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이 사냥을 나섰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숲으로 뒤덮인 파르나소스의 가파른 산을 올라 곧 바람 부는 골짜기에 이르렀다. 해가 고요히 깊게 흐르는 오케아노스에서 막 솟아올라 들판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몰이꾼들은 산골짜기에 다다랐다. 개들이 발자국을 냄새 맡으며 앞서가고 그 뒤로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이 따랐는데,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들과 함께 개들 바로 뒤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휘두르며 나아갔다. 그곳 빽빽한 덤불 속에 커다란 멧돼지가 누워 있었다. 그 덤불은 축축하게 부는 바람의 기운도 뚫고 들지 못하고 빛나는 해의 햇살도 내리꽂지 못하며 빗물도 꿰뚫고 스미지 못할 만큼 빽빽했고, 안에는 떨어진 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사람과 개들이 몰아오며 다가오는 발소리가 멧돼지의 귀에 닿았다. 멧돼지는 덤불에서 뛰쳐나와 등의 갈기를 곤두세우고 눈에서 불을 뿜으며 그들 바로 앞에 버티고 섰다.

오디세우스가 맨 먼저 억센 손에 긴 창을 치켜들고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멧돼지가 먼저 비스듬히 덤벼들어 그의 무릎 위를 들이받고 엄니로 살을 깊숙이 찢었으나 뼈에는 닿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멧돼지의 오른쪽 어깨를 겨냥해 찔렀고, 번쩍이는 창끝이 몸을 꿰뚫고 나갔다. 멧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먼지 속에 쓰러졌고 목숨이 날아가 버렸다. 아우톨리코스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멧돼지를 손질하고, 나무랄 데 없는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의 상처를 솜씨 좋게 동여매고 주문을 외어 검은 피를 멎게 한 다음, 곧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우톨리코스와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은 그를 잘 치료하고 빛나는 선물을 주어 서둘러 기쁘게 사랑하는 고향 이타카로 돌려보냈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 흉터를 어쩌다 얻었는지 하나하나 물었다. 오디세우스는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과 파르나소스산에 갔다가 사냥하던 중에 멧돼지가 흰 엄니로 들이받았다고 두 사람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467 노파는 손바닥으로 그 흉터를 쓰다듬다가 알아보았다. 노파가 발을 놓아 버리자 정강이가 대야 속으로 떨어졌다. 청동이 쩌렁 울리며 대야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물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기쁨과 고통이 한꺼번에 노파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낭랑하던 목소리가 막혔다. 노파는 오디세우스의 턱을 만지며 말했다.

474 "정녕 네가 오디세우스로구나, 얘야! 내 주인을 이렇게 온몸 더듬어 보기 전까지는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476 그렇게 말하더니 노파는 사랑하는 남편이 안에 와 있다고 알리고 싶어 페넬로페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테나가 그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놓아서, 페넬로페는 마주 바라보지도 알아채지도 못했다. 오디세우스는 손을 더듬어 오른손으로 노파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노파를 바짝 끌어당기며 말했다.

482 "유모, 어째서 나를 죽이려 하나? 자네가 바로 자네 젖으로 나를 먹여 길러 주지 않았나. 나는 숱한 고통을 겪은 끝에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네. 이제 자네가 알아차렸고 신이 자네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 주었으니 조용히 하게. 홀 안의 다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내 분명히 말해 두는데,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세. 신이 내 손으로 당당한 구혼자들을 쓰러뜨리게 해 준다면, 내 홀의 다른 하녀들을 죽일 때 자네가 내 유모라 해도 봐주지 않겠네."

491 사려 깊은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얘야, 무슨 말이 네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왔느냐? 내 기운이 얼마나 굳고 꺾이지 않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단단한 돌이나 쇠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마.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가슴에 새겨 두어라. 신이 네 손으로 당당한 구혼자들을 쓰러뜨리게 해 준다면, 그때 홀 안의 여인들 가운데 누가 너를 업신여기고 누가 죄가 없는지 하나하나 일러 주마."

499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유모, 어째서 자네가 그것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 그럴 필요 없네. 나 스스로 잘 살펴서 하나하나 알아낼 걸세. 자네는 입을 다물고 신들께 맡겨 두게."

50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발 씻을 물을 가지러 홀을 가로질러 나갔다. 먼저 떠 온 물은 모두 쏟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노파가 발을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듬뿍 발라 주자, 오디세우스는 몸을 녹이려고 다시 의자를 불 가까이 끌어당기고 흉터를 누더기로 덮어 가렸다.

508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손님, 아직 조금 더 내가 직접 물어볼 것이 있소. 아무리 시름에 잠긴 사람이라도 달콤한 잠이 찾아오기만 한다면 곧 달콤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될 것이오. 그러나 어떤 신이 내게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까지 내려 주었소. 낮에는 집 안에서 내 일과 시녀들의 일을 살피며 슬피 울고 탄식하는 것을 낙으로 삼지만, 밤이 오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면 나는 침상에 누워 있고,

날카로운 근심들이 촘촘히 내 들끓는 가슴을 에워싸고 울고 있는 나를 들쑤시오. 판다레오스의 딸 아에돈, 푸른 숲의 밤꾀꼬리가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 앉아 아름답게 노래할 때가 있소. 그 새는 가락을 자주 바꾸어 가며 울림 많은 목소리를 쏟아 놓는데, 일찍이 어리석게도 청동으로 죽인 제 사랑하는 아들, 제토스 왕의 아들 이틸로스를 애도하는 노래요. 꼭 그처럼 내 마음도 두 갈래로 나뉘어 이리저리 흔들리오. 남편의 잠자리와 백성의 소문을 어려워하며 아들 곁에 머물러 내 재산과 하녀들과 지붕 높은 큰 집을 모두 굳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홀에서 내게 구혼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구혼 선물을 내는 가장 뛰어난 이를 따라갈 것인가.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남편의 집을 떠나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 그 애가 다 커서 젊음의 한창때에 이르니, 아카이아인들이 제 재산을 먹어 치우는 것에 속을 끓이며 오히려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오. 자, 내 꿈 이야기를 듣고 풀이해 주시오. 우리 집에 거위 스무 마리가 물에서 나와 밀을 쪼아 먹는데,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오. 그런데 산에서 부리가 굽은 큰 독수리가 날아와 거위들의 목을 모조리 꺾어 죽였소. 거위들은 홀에 한 무더기로 널브러지고 독수리는 거룩한 창공 높이 날아올랐소. 나는 꿈속에서도 울며 소리쳐 통곡했고, 독수리가 내 거위들을 죽였다고 내가 서럽게 울부짖으니 머리채 고운 아카이아 여인들이 내 둘레에 모여들었소. 그러자 독수리가 돌아와 튀어나온 들보 위에 내려앉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나를 달래며 말했소."

546 "'용기를 내시오, 멀리까지 이름난 이카리오스의 딸이여. 이것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좋은 생시요. 거위들은 구혼자들이고, 나는 아까는 독수리였지만 이제는 당신 남편이 되어 돌아왔소. 내가 구혼자들 모두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 주겠소.'"

551 "그가 이렇게 말하자 꿀처럼 달콤한 잠이 나를 놓아주었소. 둘러보니 거위들이 여느 때처럼 홀 안의 구유 곁에서 밀을 쪼아 먹고 있었소."

554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부인, 그 꿈을 달리 비틀어 풀이할 길은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몸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부인께 일러 주지 않았습니까. 구혼자들 모두에게 파멸이 보입니다. 누구 하나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59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손님, 꿈이란 종잡을 수 없고 뜻을 가리기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소. 덧없는 꿈들이 드나드는 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뿔로 만들었고 하나는 상아로 만들었소. 그 가운데 톱으로 켠 상아 문으로 나오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헛말을 싣고 와서 사람을 속이고, 반들반들하게 다듬은 뿔 문으로 나오는 꿈은 인간 누구든 그것을 보면 참된 일을 이루어 주오.[3] 그러나 나의 그 무서운 꿈은 그 문으로 나온 것 같지 않소. 그랬다면 나와 내 아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소.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가슴에 새겨 두시오. 이제 곧 이름조차 불길한 새벽이 밝아 와 나를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떼어 놓을 것이오. 나는 이제 시합을 내걸겠소. 그이가 홀에 배의 용골 받침목처럼 줄지어 세워 두던 도끼 열두 자루 말이오. 그이는 멀리 떨어져 서서 그 도끼들을 화살로 꿰뚫곤 했소. 이제 그 시합을 구혼자들에게 내걸겠소. 그 활에 가장 손쉽게 시위를 얹어 손바닥으로 당기고 열두 자루 도끼를 모두 꿰뚫는 사람을 나는 따라가겠소.'[4] 처녀로 시집와 살아온 이 집, 참으로 아름답고 살림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서 말이오. 이 집을 나는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것 같소."

58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드님 오디세우스의 존귀하신 부인이시여, 이제 그 시합을 집에서 더 미루지

마십시오. 저들이 이 잘 다듬은 활을 만지작거리며 시위를 얹고 쇠를 꿰뚫기 전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먼저 이곳에 돌아올 것입니다."

588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손님, 당신이 홀에서 내 곁에 앉아 나를 즐겁게 해 주려 한다면 잠이 내 눈꺼풀 위에 내려앉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인간이 늘 잠을 자지 않고 지낼 수는 없소. 불사의 신들은 곡식을 내는 땅 위에서 죽게 마련인 인간 하나하나에게 저마다 몫을 정해 두었소. 이제 나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 오디세우스가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몹쓸 일리오스를 보러 떠난 뒤로 늘 내 눈물에 젖어 탄식의 자리가 된 침상에 눕겠소. 나는 거기 눕겠소. 당신은 이 집 안에서 누우시오. 바닥에 자리를 깔든지, 하녀들이 침상을 놓아 주게 하든지 하시오."

600 이렇게 말하고 페넬로페는 반들거리는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시녀들도 함께 갔다.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에 오른 페넬로페는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그리며 울었다. 마침내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을 내려 주었다.

---

1. 「몹쓸 일리오스」는 그리스어 카코일리오스(Kakoilios)를 옮긴 말이다. '나쁜, 몹쓸'을 뜻하는 카코스(kakos)를 트로이의 다른 이름 일리오스 앞에 붙여 한 낱말로 만든 이름이다. 남편을 앗아 간 곳을 제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페넬로페의 말로, 19.260·19.597·23.19에 나온다.

2. 아우톨리코스는 '노여워하다, 미워하다'를 뜻하는 동사 오디소마이(odyssomai)에 빗대어 오디세우스(Odysseus)라는 이름을 지었다. '노여움의 사람'으로 들리는 이름이다. 같은 동사가 이 이름의 주인을 따라다닌다. 1.62에서 아테나가 제우스에게 "어찌하여 그에게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라고 물을 때, 5.340에서 이노가, 5.423에서 오디세우스 자신이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말할 때, 19.275~276에서 "제우스와 헬리오스가 그에게 노여워했습니다"라고 할 때 모두 이 동사를 쓴다.

3. 그리스어로 상아(elephas)는 '속이다'(elephairomai)와, 뿔(keras)은 '이루다'(krainō)와 소리가 비슷하다. 상아 문의 꿈은 속이고 뿔 문의 꿈은 이룬다는

말에 이 말장난이 겹쳐 있다.

4. 도끼 열두 자루를 한 줄로 세워 두고 화살 한 대로 모두 꿰뚫는 시합이다. 도끼머리의 자루 구멍(또는 날 끝의 고리)이 일직선으로 늘어서게 세우고, 멀리 떨어져서서 화살이 그 구멍들을 꿰고 지나가게 한다고 풀이해 왔다. 정확한 모양은 옛날부터 해석이 갈린다.

제20권

1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현관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무두질하지 않은 쇠가죽을 깔고, 그 위에 아카이아인들이 제물로 잡곤 하던 양들의 털가죽을 여러 장 깔았다. 그가 눕자 에우리노메가 외투를 덮어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에게 재앙을 안길 궁리를 마음속에 품은 채 깨어 누워 있었다. 그때 전부터 구혼자들과 놀아나던 여인들이 서로 웃고 시시덕거리며 홀에서 나왔다. 그의 가슴속에서 마음이 들끓었다. 뛰어나가 저것들에게 하나하나 죽음을 안길 것인가, 아니면 방자한 구혼자들과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몸을 섞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했다. 그의 속에서 가슴이 짖어 댔다. 어미 개가 여린 강아지들을 감싸고 서서 낯선 사람을 보고 짖으며 덤벼들려 할 때가 있다. 꼭 그처럼 그의 가슴은 몹쓸 짓에 분개하여 속에서 짖어 댔다. 그는 가슴을 치며 제 가슴을 말로 나무랐다.

18 "참아라, 가슴아. 너는 전에 이보다 더 개 같은 일도 참아 냈다. 걷잡을 수 없는 기운을 지닌 키클롭스가 내 굳센 전우들을 먹어 치우던 그날에도 너는 견뎌 냈고, 마침내 죽을 줄로만 알았던 너를 꾀가 동굴에서 이끌어 냈다."

22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제 가슴을 다그쳤다. 그러자 그의 가슴은 순순히 따르며 끈질기게 참고 견뎠다. 그러나 오디세우스 자신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어떤 사람이 기름과 피를 가득 채운 순대를 활활 타는 큰불 위에 올려놓고, 어서 구워지기를 바라며 이리저리

뒤집을 때가 있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많은 염치없는 구혼자들에게 손을 댈지 궁리했다. 그때 아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아테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그의 머리맡에 서서 말했다.

33 "어찌하여 또 깨어 있느냐,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운한 사람아. 여기가 그대의 집이고, 집 안에는 그대의 아내가 있고, 누구든 아들로 두고 싶어 할 만한 아들도 있지 않느냐."

3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여신이시여, 말씀하신 것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늘 떼 지어 안에 있으니, 제 속의 마음은 혼자 몸으로 어떻게 염치없는 구혼자들에게 손을 댈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속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여신의 뜻으로 제가 저들을 죽인다 해도, 그 뒤에 어디로 피해 달아나겠습니까? 그것을 여신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44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을 받았다. "모진 사람, 남들은 저보다 못한 동무의 말도 믿는다. 죽게 마련이고 꾀도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 동무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나는 신이고, 온갖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대를 지켜 주고 있다. 터놓고 말해 주마. 목소리 지닌 인간들이 쉰 무리나 매복해 우리 둘을 에워싸고 아레스의 기세로 죽이려 덤빈다 해도, 그대는 그들의 소와 살진 양 떼를 몰아갈 것이다. 자, 이제 잠에 들어라. 밤새 깨어 지키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그대는 곧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다."

54 이렇게 말하고 아테나는 그의 눈꺼풀 위에 잠을 쏟아부었다. 여신 중에 고귀한 아테나는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56 마음의 시름을 풀어 주고 팔다리를 풀어 주는 잠이 오디세우스를 사로잡을 무렵, 믿음직한 그의 아내는 잠에서 깨어 부드러운 침상에

앉아 울었다. 마음껏 울고 나자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맨 먼저 아르테미스에게 기도했다.

61 "아르테미스여, 존귀한 여신이여, 제우스의 따님이시여, 이제 제 가슴에 화살을 쏘아 지금 당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아니면 회오리바람이 저를 낚아채 안개 낀 길을 따라 실어 가서, 제자리로 돌아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어귀에 던져 버리게 하소서. 일찍이 회오리바람이 판다레오스의 딸들을 채어 간 일이 있습니다. 신들이 그 부모를 죽여 딸들은 홀에 고아로 남았는데, 고귀한 아프로디테가 치즈와 달콤한 꿀과 감미로운 포도주로 그들을 길렀고, 헤라는 모든 여인보다 빼어난 아름다움과 슬기를 주었으며, 정결한 아르테미스는 늘씬한 키를 주었고, 아테나는 이름난 솜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귀한 아프로디테가 그 처녀들에게 꽃다운 혼인을 이루어 달라고 청하러 높은 올림포스로,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에게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제우스께서는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받을 몫과 받지 못할 몫을 모두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사이에 하르피이아들이 그 처녀들을 낚아채 가서 끔찍한 에리니에스에게 시중들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꼭 그처럼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신들께서 저를 없애 주소서. 아니면 머리채 고운 아르테미스께서 저를 쏘아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오디세우스를 눈앞에 그리며 끔찍한 땅 밑으로 내려가, 그보다 못한 사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낮에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어도 밤이면 잠이 찾아든다면 그 불행은 견딜 만합니다. 잠은 눈꺼풀을 덮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잊게 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신이 제게는 몹쓸 꿈까지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도 그이를 꼭 닮은 이가 군대와 함께 떠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제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이미 생시라고 여겨 가슴이 기뻤습니다."

91 페넬로페가 이렇게 말하자 곧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이 찾아왔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울고 있는 페넬로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는 이리저리 생각에 잠겼는데, 아내가 벌써 그를 알아보고 머리맡에 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덮고 잤던 외투와 양털 가죽을 거두어 홀 안의 의자 위에 놓아두고, 쇠가죽은 문밖으로 가져다 놓은 다음 두 손을 들어 제우스에게 기도했다.

98 "아버지 제우스여, 신들께서 저를 그토록 몹시 괴롭히신 끝에 마른 땅과 젖은 바다 위로 기꺼이 이끌어 제 땅에 데려다주셨다면, 안에서 잠에서 깨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제게 길한 말을 하게 하시고, 밖에서는 제우스의 다른 징조가 나타나게 하소서."

102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꾀 깊은 제우스가 그 기도를 들었다. 제우스는 곧 눈부신 올림포스에서, 높은 구름 위에서 천둥을 쳤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곡식 가는 여인이 길한 말을 했다. 그 가까이에 백성의 목자가 쓰는 맷돌들이 놓여 있어서, 열두 여인이 모두 그 맷돌에 매달려 사내들의 골수가 되는 보릿가루와 밀가루를 빻느라 애쓰고 있었다. 다른 여인들은 밀을 다 갈고 잠이 들었는데, 가장 힘이 약한 한 여인만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 그 여인이 맷돌을 멈추고 주인에게 징조가 될 말을 했다.

112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제우스여, 구름 한 점 없는데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 크게 천둥을 치셨으니, 정녕 누군가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가련한 이 몸이 하는 말도 이루어 주소서. 구혼자들이 오늘 오디세우스의 홀에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하소서. 보릿가루를 빻느라 마음 아픈 고생으로 제 무릎을 풀어 버린 저들이 오늘로 마지막 저녁을 먹게 하소서."

120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 길한 말과 제우스의 천둥에 기뻐했다. 죄지은 자들에게 앙갚음하게 되리라고

여겼다.

122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집 안에서는 다른 하녀들이 모여 화덕에 꺼질 줄 모르는 불을 지폈다. 신과 맞먹는 사내 텔레마코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어깨에 메고, 반들반들한 발에 아름다운 신을 매고, 날카로운 청동을 박은 튼튼한 창을 집어 들었다. 그는 문지방으로 가 서서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129 "유모, 손님을 잠자리와 먹을 것으로 집에서 잘 대접했나요,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그냥 누워 있나요? 우리 어머니는 슬기로우시면서도 그런 분이세요. 목소리 지닌 인간들 가운데 못한 사람은 덮어놓고 대접하고, 나은 사람은 푸대접해서 돌려보내시거든요."

134 사려 깊은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얘야, 이번에는 죄 없는 분을 탓하지 마라. 손님은 앉아서 마시고 싶은 만큼 포도주를 마셨고, 빵은 더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 네 어머니가 물어보았거든. 잠자리에 들 때가 되자 네 어머니는 하녀들에게 침상을 깔아 드리라고 일렀다. 그런데 손님은 아주 비참하고 기구한 사람처럼 침상과 깔개에서 자려 하지 않고 현관에서 무두질하지 않은 쇠가죽과 양털 가죽을 깔고 잤단다. 외투는 우리가 덮어 주었고."

144 에우리클레이아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창을 들고 홀을 가로질러 나갔다. 날랜 개 두 마리가 함께 따라갔다. 그는 정강이받이를 잘 댄 아카이아인들이 모인 회의장으로 갔다. 여인 중에 고귀한 에우리클레이아, 페이세노르의 아들 옵스의 딸은 하녀들을 불러 일렀다.

149 "자, 서둘러라. 몇은 집 안을 쓸고 물을 뿌리고, 잘 만든 의자마다 자줏빛 깔개를 덮어라. 몇은 해면으로 식탁을 모두 닦고 술동이와 손잡이 둘 달린 잘 만든 잔들을 깨끗이 씻어라. 나머지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 오되 서둘러 다녀오너라. 구혼자들이 홀을 오래 비우지 않고 아주 일찍 올 것이다. 오늘은 모두의 명절이니까."

157 에우리클레이아가 이렇게 말하자 하녀들은 그 말을 귀담아듣고 따랐다. 스무 명은 물이 검푸른 샘으로 가고, 나머지는 집 안에서 솜씨 좋게 일했다.

160 아카이아인들의 일꾼들이 들어와 솜씨 좋게 장작을 팼고, 여인들은 샘에서 돌아왔다. 그 뒤를 이어 돼지치기가 돼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살진 돼지 세 마리를 몰고 와서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먹이를 찾게 놓아두고, 자신은 다정한 말로 오디세우스에게 말을 건넸다.

166 "손님, 아카이아인들이 이제는 좀 더 당신을 존중해 주오, 아니면 전처럼 홀에서 업신여기오?"

168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 저자들이 남의 집에서 오만하게 무모한 짓을 꾸미며 저지르는 모욕을 신들께서 앙갚음해 주시면 좋겠소. 저자들에게는 염치라고는 한 조각도 없소."

172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가까이 다가왔다. 멜란티오스는 구혼자들의 저녁거리로 염소 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염소들을 몰고 왔고, 목동 둘이 함께 따라왔다. 멜란티오스는 소리 울리는 주랑 아래 염소들을 매어 두고 다시 오디세우스에게 빈정대며 말했다.

178 "나그네, 아직도 여기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귀찮게 굴고 문밖으로 나가지 않을 셈이냐? 아무래도 우리 둘은 주먹맛을 보기 전에는 갈라서지 못하겠구나. 네놈은 도리도 모르고 구걸을 해 대니 말이다. 아카이아인들의 잔치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으냐."

183 멜란티오스가 이렇게 말했으나 꾀 많은 오디세우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자코 고개를 저으며 속 깊이 재앙을 꾸몄다.

185 그들에게 세 번째로 일꾼들의 우두머리 필로이티오스가 왔다. 그는 구혼자들에게 줄 새끼 낳지 않은 암소 한 마리와 살진 염소들을

몰고 왔다.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도 건네주곤 하는 나루꾼들이 그 짐승들을 바다 건너로 실어다 주었다. 필로이티오스는 소리 울리는 주랑 아래 짐승들을 잘 매어 두고, 돼지치기 곁에 다가서서 물었다.

191 "돼지치기, 우리 집에 새로 온 이 나그네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의 핏줄이라고 하던가? 집안은 어디고 고향 땅은 어딘가? 가엾은 사람이로군. 그래도 생김새는 영락없이 왕 같은 분일세. 하지만 신들은 숱하게 떠도는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드시지. 왕들에게도 불행의 실을 자아 주실 때면 말일세."

197 그렇게 말하더니 필로이티오스는 다가서서 오른손을 내밀어 반기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99 "어서 오시오, 나그네 어르신. 지금은 숱한 불행에 붙잡혀 있지만 앞으로는 복이 있기를 비오. 아버지 제우스여, 신들 가운데 제우스보다 더 모진 신은 없습니다. 몸소 낳으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행과 쓰라린 고통 속에 빠뜨리십니다. 나는 이분을 보자마자 땀이 나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소. 오디세우스가 떠올랐기 때문이오. 그분도 아직 살아서 햇빛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사람들 사이를 떠돌고 계실 것이오. 이미 돌아가셔서 하데스의 집에 계신다면, 아아,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 님이여!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그분이 케팔레니아인들의 고장에서 나를 소 떼를 돌보는 자리에 앉혀 주셨소. 이제 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불어나서, 이마 넓은 소의 무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보다 더 이삭 패듯 불어날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런데 다른 자들이 그 소들을 저희가 먹겠다며 끌어오라고 내게 시키오. 저들은 홀 안의 아드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신들의 노여운 눈길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래 떠나 계신 주인의 재산을 벌써 나눠 가지려고 안달이오. 그래서 내 가슴속 마음은 이 일로 이리저리 몹시 뒤척이오. 아드님이 살아 계신데 소 떼를 몰고 남의 고장, 낯선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은 몹시

나쁜 일이지만, 여기 남아 남의 것이 된 소 떼를 지키며 고통을 겪는 것은 더 끔찍하오.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벌써 오래전에 기세등등한 다른 왕에게로 달아났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불운한 분을 생각하오. 그분이 어디선가 돌아와 집 안의 구혼자들을 흩어 버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오."

22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소치기, 당신은 못되거나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고, 속에 슬기가 깃들어 있음을 나도 알겠소. 그래서 말해 주고 큰 맹세도 하겠소. 이제 신들 가운데 먼저 제우스께서, 그리고 손님을 맞는 이 식탁과 내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화덕이 증인이 되어 주소서.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올 것이니,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는 구혼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소 떼를 돌보는 사내가 말을 받았다. "나그네,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내 힘이 어떠하고 내 두 손이 어떻게 따르는지 알게 될 것이오."

238 에우마이오스도 그와 똑같이, 지혜 많은 오디세우스가 제 집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모든 신에게 빌었다.

240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구혼자들은 텔레마코스에게 죽음과 운명을 안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왼쪽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높이 나는 독수리가 겁 많은 비둘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암피노모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245 "벗들이여, 텔레마코스를 죽이려는 이 꾀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걸세. 자, 잔치나 생각하세."

247 암피노모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들어가 외투를 긴 의자와 높은 의자 위에 벗어 두고, 큰 양과 살진 염소를 잡고, 살진 돼지와 무리에서

고른 암소도 잡았다. 그들은 내장을 구워 나누고 술동이에 포도주를 섞었다. 잔은 돼지치기가 돌렸다. 일꾼들의 우두머리 필로이티오스는 아름다운 바구니에 빵을 담아 나누어 주었고, 멜란티오스가 술을 따랐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뻗었다.

257 텔레마코스는 꾀를 굴려, 튼튼하게 지은 홀 안 돌 문지방 곁에 오디세우스를 앉혔다. 초라한 의자와 작은 식탁을 놓아 주고, 그 곁에 내장 몫을 놓고, 황금 잔에 포도주를 따른 다음 그에게 말했다.

262 "이제 여기 사내들 사이에 앉아 포도주를 드시오. 구혼자들의 조롱과 주먹은 내가 몸소 막아 주겠소. 이 집은 아무나 드나드는 고장의 집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집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장만한 집이오. 그리고 구혼자들이여, 당신들은 욕설과 주먹을 삼가시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오."

26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입술을 깨물며, 텔레마코스가 대담하게 말하는 데 놀랐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271 "아카이아인들이여, 거북하기는 하지만 텔레마코스의 말을 받아들이세. 우리를 크게 으르며 말하는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 녀석이 아무리 목청 좋은 연설꾼이라 해도 우리가 벌써 홀에서 입을 막아 버렸을 걸세."

275 안티노오스가 이렇게 말했으나 텔레마코스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령들이 도시 곳곳으로 신들에게 바칠 신성한 큰 제물을 끌고 갔고, 머리를 길게 기른 아카이아인들은 멀리 쏘는 아폴론의 그늘진 숲 아래로 모여들었다.

279 그들은 겉고기를 구워 꼬챙이에서 빼낸 다음 몫을 나누어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였다. 시중드는 이들은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가 시킨 대로, 오디세우스 곁에도 자기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몫을 놓아 주었다.

284 그러나 아테나는 거만한 구혼자들이 마음 아픈 모욕을 아주 그만두게 하지는 않았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가슴에 고통이 더 깊이 스며들게 하려 했다. 구혼자들 가운데 무도한 생각을 품은 사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크테시포스요 사메에 집이 있었으며, 엄청난 재산을 믿고 오래 떠나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 구혼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방자한 구혼자들에게 말했다.

292 "거만한 구혼자들이여, 내 말 좀 들어 보게. 저 나그네는 아까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똑같은 몫을 받았네. 이 집에 찾아오는 텔레마코스의 손님들을 푸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도 옳은 일도 아니지. 자, 나도 저자에게 손님 선물을 하나 주겠네. 그러면 저자도 목욕물 붓는 하녀나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있는 다른 종에게 그걸 선물로 줄 수 있겠지."

299 이렇게 말하고 크테시포스는 바구니에 놓여 있던 소 발 하나를 억센 손으로 집어 던졌다. 오디세우스가 고개를 살짝 비켜 피하며 속으로 몹시 쓴웃음을 짓자, 소 발은 잘 지은 벽에 맞았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크테시포스를 말로 나무랐다.

304 "크테시포스, 당신이 손님을 맞히지 못한 것이 당신에게는 정녕 훨씬 다행이었소. 손님이 몸소 그 던진 것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날카로운 창으로 당신 한가운데를 꿰뚫었을 것이고 당신 아버지는 여기서 혼인 잔치 대신 장례를 치르느라 바빴을 것이오. 그러니 아무도 내 집에서 더는 꼴사나운 짓을 보이지 마시오. 전에는 아직 철부지였지만, 이제 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되었소. 그래도 우리는 양이 도살되고 포도주와 빵이 바닥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껏 참아 왔소. 혼자서 여럿을 막기는 어려우니

말이오. 하지만 자, 이제는 더 적의를 품고 내게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이제 청동으로 나를 죽이고 싶어 안달한다면 차라리 그쪽을 바라겠소. 죽는 편이 훨씬 낫겠소. 이런 볼썽사나운 짓을 늘 보느니 말이오. 손님들이 떠밀려 다니고, 당신들이 아름다운 집 안에서 하녀들을 볼썽사납게 끌고 다니는 꼴을 보느니 말이오."

32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한참 만에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322 "벗들이여, 옳은 말을 들었으면 아무도 맞서는 말로 대들며 성내서는 안 될 걸세. 나그네도,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도 아무도 떠밀지 말게. 나는 텔레마코스와 그 어머니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나 해 주고 싶네. 두 사람 마음에 다 들었으면 좋겠군. 지혜 많은 오디세우스가 제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자네 모자의 가슴속 마음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구혼자들을 집에 붙잡아 두고 기다려도 아무도 분개할 일이 아니었지.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집에 다시 이르렀다면 그 편이 더 나았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해졌네. 자, 그러니 자네가 어머니 곁에 앉아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선물을 내는 사람에게 시집가시라고 일러 드리게. 그러면 자네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기쁘게 차지해 먹고 마시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집을 돌보시게 될 걸세."

338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아겔라오스, 제우스와, 이타카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죽었거나 떠돌고 있을 내 아버지의 고통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어머니의 혼인을 조금도 늦추지 않소. 오히려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가시라고 권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물도 얹어 드리겠소. 다만 원치 않으시는 어머니를 억지로 내모는 말로 홀에서 쫓아내는 것만은 부끄러워 못 하겠소. 신께서 그런 일은 이루지 마시기를."

345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말하자 팔라스 아테나가 구혼자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생각을 어지럽혔다. 그들은 제 턱이 아닌 남의 턱으로 웃듯 웃어 대며 피범벅이 된 고기를 먹었다. 그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고, 마음은 통곡할 일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신을 닮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351 "아, 가련한 자들아, 이 무슨 재앙을 겪고 있느냐? 너희 머리와 얼굴과 무릎 아래까지 밤이 휘감고 있다. 통곡 소리가 불타오르고 뺨은 눈물에 젖었다. 벽과 아름다운 들보 사이 칸마다 피가 뿌려졌다. 문간은 허깨비로 가득하고 안뜰도 가득한데, 모두 어둠 속 에레보스로 서둘러 내려간다. 해는 하늘에서 사라지고 몹쓸 안개가 덮쳐 왔다."

35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를 보고 즐겁게 웃었다.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360 "새로 다른 데서 온 나그네가 정신이 나갔군. 젊은이들, 어서 저자를 집에서 문밖으로 내보내 회의장으로나 가게 하게. 여기가 밤처럼 보인다니 말일세."

363 신을 닮은 테오클리메노스가 말을 받았다. "에우리마코스, 너에게 나를 바래다줄 사람을 붙여 달라고 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두 눈과 두 귀와 두 발이 있고, 가슴속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지어진 생각도 있다. 이것들을 데리고 나는 문밖으로 나가겠다. 너희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니,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욕하며 무모한 짓을 꾸미는 구혼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하지도 비키지도 못할 것이다."

371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살기 좋은 집을 나와 페이라이오스에게 갔고, 페이라이오스는 그를 기꺼이 맞아들였다. 구혼자들은 모두 서로 마주 보며 손님들을 비웃어 텔레마코스의 속을 긁었다.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376 "텔레마코스, 자네보다 손님 복이 사나운 사람은 없을 걸세. 자네가 데려온 이 떠돌이는 어떤가. 어디서 주워 왔는지 빵과 포도주만 아쉬워할 뿐 일솜씨도 힘도 하나도 없는, 그저 땅의 짐짝일세. 또 저 다른 녀석은 일어나서 예언을 늘어놓는군. 자, 내 말을 들으면 자네에게 훨씬 이득일 걸세. 이 손님들을 노 젓는 자리가 많은 배에 실어 시켈인들에게 보내세. 그러면 자네에게 제값을 받아 줄 걸세."

384 구혼자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텔레마코스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언제 염치없는 구혼자들에게 손을 댈지 줄곧 기다렸다.

387 이카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홀 맞은편에 더없이 아름다운 의자를 놓고 앉아, 홀 안의 사내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다. 그들은 짐승을 아주 많이 잡아, 웃고 떠들며 달콤하고 푸짐한 점심을 차렸다. 그러나 여신과 억센 사내가 곧 저들에게 차려 줄 저녁만큼 반갑잖은 저녁은 다시없을 것이었다. 먼저 꼴사나운 짓을 꾸민 것은 저들이었다.

제21권

1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이카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 주었다. 오디세우스의 홀에서 구혼자들 앞에 활과 잿빛 쇠를 내놓으라는 생각, 시합 거리이자 살육의 시작이 될 생각이었다. 페넬로페는 제 집의 높은 층계를 올라가 아름다운 청동 열쇠를 억센 손으로 집어 들었다. 상아 손잡이가 달린, 잘 휜 열쇠였다. 페넬로페는 시녀들과 함께 맨 안쪽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인의 보물인 청동과 황금과 공들여 벼린 쇠가 놓여 있었고, 뒤로 휜 활과 화살 담는 화살통도 놓여 있었다. 화살통에는 신음을 부르는 화살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불사의 신들과 닮은 에우리토스의 아들 이피토스가 스파르타에서 오디세우스를 만나 준 선물이었다. 두 사람은 메세네에서, 슬기로운 오르틸로코스의 집에서 서로 만났다. 메세네 사람들이 노 젓는 자리가 많은 배를 타고 와서 이타카에서 양 삼백 마리와 목동들을 실어 간 일이 있어서, 오디세우스는 그 고장 사람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을 받으러 그곳에 갔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다른 원로들이 그를 보내, 오디세우스는 아직 어린 나이에 사절이 되어 먼 길을 떠났다. 이피토스는 잃어버린 암말 열두 마리와 그 젖을 먹는, 힘든 일을 견디는 노새들을 찾으러 그곳에 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말들이 그에게 죽음과 운명이 되었으니, 그가 제우스의 아들, 마음이 굳센 사내 헤라클레스,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자를 찾아갔을 때 헤라클레스는 손님으로 온 그를 제 집에서 죽였다. 모진 자. 그는 신들의 노여운

눈길도, 손님 앞에 차려 준 식탁도 어려워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굽이 단단한 말들을 제 홀에 차지해 버렸다. 그 말들을 찾던 이피토스가 오디세우스를 만나, 일찍이 위대한 에우리토스가 지니다가 지붕 높은 집에서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그 활을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정다운 손님 벗의 사귐을 여는 첫 선물로 이피토스에게 날카로운 칼과 튼튼한 창을 주었다. 그러나 그 전에 제우스의 아들이 오디세우스에게 활을 준 바로 그 사람, 불사의 신들과 닮은 에우리토스의 아들 이피토스를 죽였기에,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식탁에 마주 앉지 못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검은 배를 타고 싸움터로 나갈 때 그 활을 가져가지 않고, 정다운 손님 벗을 기리는 물건으로 홀에 놓아두고 제 땅에서만 메고 다녔다.

42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그 방에 이르러 참나무 문지방에 올라섰다. 일찍이 목수가 솜씨 좋게 깎아 먹줄에 맞춰 곧게 다듬고 문설주를 세워 번쩍이는 문짝을 단 문지방이었다. 페넬로페는 곧 문고리에서 가죽끈을 재빨리 풀고 열쇠를 꽂아 넣은 다음, 똑바로 겨누어 문빗장들을 밀어 올렸다. 그러자 열쇠에 맞은 아름다운 문짝이 풀밭에서 풀을 뜯는 황소처럼 우렁차게 울리더니 금세 활짝 열렸다. 페넬로페는 높은 마루에 올라섰다. 거기에는 궤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향기로운 옷들이 들어 있었다. 페넬로페는 손을 뻗어 못에서 활을 내렸다. 활은 번쩍이는 활집에 싸인 채였다. 페넬로페는 그 자리에 앉아 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리 높여 울면서 주인의 활을 꺼냈다. 눈물 많은 울음을 실컷 울고 나서, 페넬로페는 뒤로 흰 활과 신음을 부르는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손에 들고 당당한 구혼자들이 있는 홀로 갔다. 시녀들은 쇠와 청동이 잔뜩 든 궤짝을 함께 들고 갔다. 주인이 시합에 쓰던 도구들이었다.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마침내 구혼자들 앞에 이르러, 튼튼하게 지은 지붕을 받친 기둥 곁에 서서, 반들거리는

머릿수건을 두 뺨 앞으로 드리웠다. 믿음직한 시녀가 양옆에 하나씩 서 있었다. 페넬로페는 곧 구혼자들에게 말했다.

68 "거만한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시오. 당신들은 주인이 오래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들이닥쳐 줄곧 먹고 마셔 왔소. 그러면서 나와 혼인해 나를 아내로 삼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핑계도 대지 못했소. 자, 구혼자들이여, 여기 시합이 내걸렸으니 나서 보시오. 나는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큰 활을 내놓겠소. 그 활에 가장 손쉽게 시위를 얹어 손바닥으로 당기고 열두 자루 도끼를 모두 꿰뚫는 사람을 나는 따라가겠소. 처녀로 시집와 살아온 이 집, 참으로 아름답고 살림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서 말이오. 이 집을 나는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것 같소."

80 그렇게 말하고 페넬로페는 고귀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활과 잿빛 쇠를 구혼자들 앞에 내놓으라고 일렀다. 에우마이오스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서 내려놓았다. 소치기도 주인의 활을 보자 다른 쪽에서 울었다. 안티노오스가 두 사람을 나무라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85 "어리석은 자들아, 하루 앞밖에 내다볼 줄 모르는 촌뜨기들아! 아, 가련한 두 놈아, 어찌하여 눈물을 쏟으며 부인의 가슴속 마음을 들쑤시느냐?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 마음이 고통 속에 잠겨 있는 분이다. 잠자코 앉아서 먹든지, 아니면 활은 여기 놓아두고 문밖으로 나가서 울어라. 구혼자들에게는 버거운 시합이다. 이 잘 다듬은 활에 시위를 얹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디세우스 같은 사내는 아무도 없다. 나는 그를 직접 보았다. 그때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기억은 생생하다."

96 안티노오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시위를 얹고 쇠를 꿰뚫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손에서 날아온 화살을 맨 먼저 맛볼 사람이었다. 그때 그는 홀에 앉아 오디세우스를 업신여기고 다른 동무들도 모두 부추기고 있었다.

101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허,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나를 정녕 어리석게 만드셨나 보오. 사랑하는 어머니는 슬기로우신데도 이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소. 자, 구혼자들이여, 여기 시합이 내걸렸으니 나서 보시오. 이만한 여인은 지금 아카이아 땅 어디에도 없소. 신성한 필로스에도 아르고스에도 미케네에도, 이타카 이곳에도 검은 뭍에도 없소. 당신들도 그것을 잘 알 텐데, 내가 무엇 하러 어머니를 칭찬하겠소? 자, 핑계를 대며 미적거리지 말고 더는 시위 얹기를 오래 피하지 마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지 않겠소. 나도 이 활을 한번 시험해 보겠소. 내가 시위를 얹고 쇠를 꿰뚫는다면 아버지의 아름다운 시합 상을 이미 거둘 만한 사람으로 여기 남을 테니, 존귀한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을 따라 이 집을 떠나 나를 슬프게 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오."

118 그렇게 말하더니 텔레마코스는 벌떡 일어서서 어깨에서 붉은 외투를 벗고 날카로운 칼도 어깨에서 풀어 놓았다. 그는 먼저 도끼들을 세웠다. 모두를 위해 길게 고랑 하나를 파고 먹줄에 맞춰 곧게 늘어세운 다음 둘레의 흙을 다져 밟았는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토록 가지런히 세우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그는 문지방으로 가서 서서 활을 시험했는데, 시위를 얹어 쇠를 꿰뚫으려는 기대를 마음에 품고 세 번이나 당기려고 애써 활을 흔들었지만 세 번 다 힘이 빠져 놓아 버렸다. 네 번째로 힘껏 끌어당겼다면 시위를 얹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고개를 저어, 그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말렸다.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가 다시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131 "허, 나는 앞으로도 못나고 힘없는 사람이 될 모양이오. 아니면 내가 아직 너무 젊어서, 누가 먼저 덤벼들 때 사내를 막아 낼 만큼 내 손을 믿지 못하는 것이오. 자, 나보다 힘이 센 당신들이 활을 시험해 보고 시합을 끝냅시다."

136 이렇게 말하고 그는 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단단히 맞붙인 반들반들 다듬은 문짝에 활을 기대 세우고 날랜 화살도 그 자리에 아름다운 활고자에 기대어 놓은 다음, 아까 일어났던 의자로 돌아가 다시 앉았다.

140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동무들, 술 따르는 이가 술을 따르기 시작하는 자리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차례로 모두 일어나게."

143 안티노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맨 먼저 오이놉스의 아들 레이오데스가 일어났다. 그는 그들의 제물 점쟁이로, 늘 아름다운 술동이 곁 맨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만은 무모한 짓을 싫어했고 구혼자들 모두에게 분개했다. 그가 맨 먼저 활과 날랜 화살을 집어 들었다. 그는 문지방으로 가서 서서 활을 시험했으나, 굳은살 하나 박이지 않은 여린 손으로 끌어당기다가 손이 먼저 지쳐 버려 시위를 얹지 못하고 구혼자들에게 말했다.

152 "벗들이여, 나는 시위를 얹지 못하겠네. 다른 사람이 잡아 보게. 이 활은 뛰어난 사내들 여럿에게서 기운과 목숨을 앗아 갈 걸세. 우리가 늘 여기 모여 날마다 기다려 온 것을 살아서 얻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지. 지금은 누구나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 혼인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꿈꾸겠지. 그러나 이 활을 시험해 보고 나면, 고운 옷을 입은 다른 아카이아 여인을 찾아 구혼 선물을 들고 구혼하게 될 테고, 그러면 페넬로페는 가장 많은 선물을 내고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에게 시집가겠지."

163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활을 내려놓았다. 단단히 맞붙인 반들반들 다듬은 문짝에 활을 기대 세우고 날랜 화살도 그 자리에 아름다운 활고자에 기대어 놓은 다음, 아까 일어났던 의자로 돌아가 다시 앉았다. 안티노오스가 그를 나무라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레이오데스, 무슨 말이 자네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왔나? 무섭고 고약한 말이군. 듣고 있자니 분개하게 되네. 자네가 시위를 얹지 못한다고 해서 이 활이 뛰어난 사내들에게서 기운과 목숨을 앗아 간단 말인가. 존귀한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활과 화살을 당기는 사람으로 낳지 않았을 뿐일세. 다른 당당한 구혼자들이 곧 시위를 얹을 걸세."

175 그렇게 말하더니 안티노오스는 염소치기 멜란티오스에게 일렀다. "자, 멜란티오스, 홀에 불을 지피고 그 곁에 큰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양털 가죽을 깔아라. 그리고 안에 있는 기름을 큰 덩어리로 가져오너라.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활을 데우고 기름을 발라 시험해 보고 시합을 끝낼 수 있다."

181 그가 이렇게 말하자 멜란티오스는 곧 꺼질 줄 모르는 불을 지피고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양털 가죽을 깐 다음, 안에 있는 기름을 큰 덩어리로 가져왔다. 젊은이들은 그것으로 활을 데워 시험해 보았지만 시위를 얹지 못했다. 힘이 한참 모자랐다.

186 안티노오스와 신을 닮은 에우리마코스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구혼자들의 우두머리로, 빼어남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자들이었다. 그때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소치기와 돼지치기가 둘이 함께 집 밖으로 나갔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도 몸소 그들 뒤를 따라 집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문밖으로, 안뜰 밖으로 나서자 오디세우스는 다정한 말로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193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털어놓을까, 아니면 혼자 감춰 둘까? 내 마음은 말하라고 시키는구려. 어떤 신이

오디세우스를 데려와 그가 어디선가 이렇게 느닷없이 돌아온다면, 당신들은 그를 도울 사람이오? 구혼자들을 돕겠소, 아니면 오디세우스를 돕겠소? 가슴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해 보시오."

199 소 떼를 돌보는 사내가 말을 받았다. "아버지 제우스여, 부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분이 돌아오시고 어떤 신이 그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러면 내 힘이 어떠하고 내 두 손이 어떻게 따르는지 알게 될 것이오."

203 에우마이오스도 그와 똑같이, 지혜 많은 오디세우스가 제 집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모든 신에게 빌었다.

205 오디세우스는 두 사람의 속마음을 틀림없이 알아보고 다시 그들에게 대답했다.

207 "바로 내가 안에 와 있네. 숱한 고난을 겪은 끝에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네. 종들 가운데 자네 둘만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았네. 다른 이들 가운데서는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비는 사람을 아무도 듣지 못했네. 자네 둘에게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대로 일러 주겠네. 신이 내 손으로 당당한 구혼자들을 쓰러뜨리게 해 준다면, 자네 둘 모두에게 아내를 얻어 주고 재산과 내 집 가까이 지은 집도 내주겠고, 그러면 자네들은 내게 텔레마코스의 동무요 형제가 될 걸세. 자, 자네들이 나를 똑똑히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도록 다른 뚜렷한 표지도 보여 주지. 일찍이 내가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과 파르나소스산에 갔을 때 멧돼지가 흰 엄니로 찢어 놓은 흉터일세."

221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누더기를 걷어 큰 흉터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똑똑히 확인하자, 슬기로운 오디세우스를 두 팔로 껴안고 울며 반가움에 그의 머리와 어깨에 입을 맞추었고, 오디세우스도 똑같이 그들의 머리와 손에 입을 맞추었다. 오디세우스가

몸소 말리며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울고 있는 사이에 해가 졌을 것이다.

228 "울음과 탄식을 그치게. 누가 홀에서 나왔다가 보고 안에 가서 일러바칠지도 모르네. 자, 다 함께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씩 들어가세. 내가 먼저 들어가고 자네들은 그 뒤에 오게. 그리고 이것을 신호로 삼세. 다른 당당한 구혼자들은 모두 내게 활과 화살통을 주지 못하게 할 걸세. 그러나 고귀한 에우마이오스, 자네는 활을 들고 집 안을 가로질러 와서 내 손에 쥐여 주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홀의 단단히 맞물린 문들을 잠그고, 누구든 우리 울타리 안에서 사내들의 신음이나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결코 문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자코 일만 하라고 이르게. 고귀한 필로이티오스, 자네에게는 안뜰 문을 열쇠로 잠그고 재빨리 끈으로 묶어 두라고 이르겠네."

242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살기 좋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까 일어났던 의자로 가서 앉았다.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두 종도 들어왔다.

245 에우리마코스는 벌써 활을 손에 들고 불빛에 이리저리 데우고 있었다. 그래도 시위를 얹을 수 없자 그의 영광스러운 가슴은 크게 신음했다. 속을 끓이던 그가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249 "허, 나 자신 때문에도, 우리 모두 때문에도 슬프군. 괴롭기는 하지만 혼인 때문에 이토록 슬퍼하는 것은 아닐세. 바다에 둘러싸인 이타카에도 다른 도시들에도 아카이아 여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보다 힘이 이토록 모자라 그의 활에 시위도 얹지 못한다면, 뒷날 태어날 사람들까지 듣고 비웃을 수치일세."

256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말을 받았다. "에우리마코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세. 자네도 알지 않나. 오늘은 고장에서 그 신의 정결한 명절일세. 이런 날 누가 활을 당기겠나? 활은 가만히 내려놓으세.

도끼들은 모두 그냥 세워 둔들 어떻겠나.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홀에 들어와 그것들을 집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세. 자, 술 따르는 이가 잔마다 신께 바칠 몫을 먼저 따르게 하게.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굽은 활은 내려놓으세.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염소치기 멜란티오스에게 모든 염소 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염소들을 몰고 오라고 이르게. 그래서 활로 이름난 아폴론께 넓적다리뼈를 바치고 나서 활을 시험해 보고 시합을 끝내세."

269 안티노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전령들이 그들의 손에 물을 부어 주었고, 젊은이들이 술동이마다 술을 넘치도록 채우고, 먼저 잔마다 신께 바칠 몫을 조금씩 따른 다음 모두에게 돌렸다. 신께 술을 따라 바치고 마음껏 마시고 나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속임수를 품고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275 "이름 높은 왕비의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소. 특히 에우리마코스와 신을 닮은 안티노오스에게 청하오. 안티노오스가 한 이 말이 옳으니, 지금은 활을 그만두고 신들께 맡기시오. 내일 아침이면 신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힘을 내려 주실 것이오. 자, 그 잘 다듬은 활을 내게 주시오. 당신들 앞에서 내 손과 힘을 시험해, 내 유연한 팔다리에 예전 같은 힘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 떠돌이 생활과 돌보는 이 없는 삶이 벌써 그 힘을 앗아 가 버렸는지 알아보겠소."

285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가 잘 다듬은 활에 시위를 얹을까 두려워 방자하게 분개했다. 안티노오스가 그를 나무라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288 "아, 가련한 나그네야, 네게는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구나. 방자한 우리와 함께 편히 잔치를 즐기며 먹을 몫에서 빠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는 말과 이야기도 다 들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다른 어떤 나그네나 거지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가 너를 해치는구나. 포도주는 벌컥벌컥 들이켜고 알맞게 마시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해친다. 포도주는 이름 높은 켄타우로스 에우리티온마저 기상 높은 페이리토오스의 홀에서 미혹에 빠뜨렸으니, 에우리티온은 라피타이족에게 갔다가 포도주에 정신이 흐려지자 미쳐 날뛰며 페이리토오스의 집에서 못된 짓을 저질렀다. 영웅들은 분노에 휩싸여 벌떡 일어나 그를 문간을 지나 문밖으로 끌어내고, 무자비한 청동으로 귀와 코를 잘라 냈다. 그는 제 정신이 흐려진 탓에 그 미혹을 어리석은 마음에 짊어진 채 떠나갔다. 그 일로 켄타우로스들과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으니, 술에 취한 그가 맨 먼저 제게 재앙을 불러들인 셈이다. 그처럼 네가 그 활에 시위를 얹는다면 너에게도 큰 재앙이 닥치리라고 일러 둔다. 우리 고장에서는 아무도 너를 돌봐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곧바로 너를 검은 배에 실어, 모든 인간을 해치는 에케토스 왕에게 보내 버릴 것이다. 그곳에서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 조용히 마시기나 하고, 너보다 젊은 사내들과 다투지 마라."

311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안티노오스, 이 집에 찾아오는 텔레마코스의 손님들을 푸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도 옳은 일도 아니오. 이 손님이 제 손과 힘을 믿고 오디세우스의 큰 활에 시위를 얹는다면 나를 제 집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으리라고 생각하오? 그 사람도 가슴속으로 그런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오.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여기서 잔치를 들지 마시오. 그건 정말 당치 않은 일이오."

320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했다. "이카리오스의 따님, 사려 깊은 페넬로페 님, 저희는 그자가 페넬로페 님을 데려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다만 사내들과 여인들의

입방아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저희보다 못한 누군가가 언젠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무랄 데 없는 사내의 아내에게 훨씬 못한 사내들이 구혼하면서, 잘 다듬은 활에 시위 하나 얹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웬 떠돌이 거지가 와서 손쉽게 활에 시위를 얹고 쇠를 꿰뚫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테니 저희에게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에우리마코스, 가장 뛰어난 사내의 집을 업신여기며 먹어 치우는 자들이 고장에서 좋은 명성을 얻을 수는 결코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수치로 여기오? 이 손님은 몸집이 아주 크고 다부지며,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오. 자, 그에게 그 잘 다듬은 활을 주시오.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 분명히 말해 두는데,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그가 시위를 얹고 아폴론께서 그에게 영광을 내려 주신다면, 나는 그에게 외투와 윗옷, 고운 옷을 입혀 주고, 개와 사내들을 막아 낼 날카로운 창과 양날 칼을 주고, 발에 신을 신겨 주고, 그의 가슴과 마음이 바라는 곳으로 보내 주겠소."

343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어머니, 이 활을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든 말든, 바위투성이 이타카를 다스리는 이들이든 말을 먹이는 엘리스 쪽 섬들을 다스리는 이들이든, 아카이아인 가운데 저보다 권한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활을 아예 손님에게 주어 가져가게 하겠다 해도, 그들 가운데 누구도 제 뜻을 거슬러 억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으로 가셔서 어머니의 일, 베틀과 물렛가락을 돌보시고 시녀들에게도 일을 하라고 이르십시오. 활은 남자들이 맡겠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 집의 권한은 제게 있으니까요."

354 페넬로페는 놀라서 방으로 돌아갔다. 아들의 의젓한 말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다.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간 페넬로페는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그리며 울었다. 마침내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을 내려 주었다.

359 고귀한 돼지치기는 굽은 활을 들고 가져갔다. 그러자 구혼자들이 모두 홀에서 소리쳐 꾸짖었다.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362 "이 몹쓸 돼지치기, 얼빠진 놈아, 굽은 활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아폴론과 다른 불사의 신들이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머지않아 네가 길러 온 그 날랜 개들이,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돼지들 곁에 홀로 있는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366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돼지치기는 많은 이가 홀에서 소리쳐 꾸짖으니 겁이 나서, 들고 가던 활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텔레마코스가 맞은편에서 으르며 소리쳤다.

369 "아저씨, 활을 계속 가져가세요. 모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저씨보다 어리긴 하지만, 돌을 던져 아저씨를 들판으로 쫓아 버릴지도 몰라요. 힘은 제가 더 세니까요. 집 안에 있는 구혼자들 모두보다도 제가 그만큼 손과 힘이 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들 가운데 누구든 곧 비참하게 우리 집에서 내쫓아 버릴 텐데요. 저들은 못된 짓을 꾸미고 있으니까요."

376 그가 이렇게 말하자 구혼자들은 모두 그를 보고 즐겁게 웃으며 텔레마코스에 대한 사나운 노여움을 누그러뜨렸다. 돼지치기는 활을 들고 집 안을 가로질러 가서, 슬기로운 오디세우스 곁에 서서 그의 손에 쥐여 주고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내어 말했다.

381 "사려 깊은 에우리클레이아, 텔레마코스가 당신에게 홀의 단단히 맞물린 문들을 잠그고, 누구든 우리 울타리 안에서 사내들의 신음이나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결코 문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자코 일만 하라고 이르셨소."

38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에우리클레이아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유모는 살기 좋은 홀의 문들을 잠갔다.

388 필로이티오스는 소리 없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 담장이 튼튼한 안뜰의 문을 잠그고, 주랑 아래에 놓여 있던 양 끝이 흰 배에 쓰는 파피루스 밧줄로 문을 묶은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까 일어났던 의자로 가서 앉아 오디세우스를 지켜보았다. 오디세우스는 벌써 활을 손에 들고, 주인이 떠나 있는 사이에 벌레가 뿔을 갉아먹지나 않았나 하고 이리저리 돌려 가며 이쪽저쪽을 살펴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397 "이자는 활을 볼 줄 아는 데다 활 도둑이기도 한 모양이군. 아니면 제 집에도 이런 활이 놓여 있거나 이런 걸 만들 작정인가 보지. 못된 짓에 이골이 난 떠돌이 녀석이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 보는 꼴을 보게."

401 오만한 젊은이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자가 저 활에 시위를 얹을 수 있을 만큼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군!"

404 구혼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꾀 많은 오디세우스는 큰 활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더니,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큰 활에 시위를 얹었다. 리라와 노래에 능한 사람이 잘 꼰 양 창자 줄의 양 끝을 매어, 새 줄감개에 손쉽게 줄을 걸 때가 있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큰 활에 시위를 얹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시위를 잡아 튕겨 본다. 시위가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그 소리가 제비 같다. 구혼자들은 큰 슬픔에 휩싸이고 모두 얼굴빛이 변한다. 제우스가 징조를 보이며 크게 천둥을 친다. 꾀가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들이 징조를 보내 주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한다. 그는 식탁 곁에 꺼내 놓인 날랜 화살 하나를 집는다. 다른 화살들은 우묵한 화살통 안에 들어 있는데, 아카이아인들이 곧 맛보게 될 화살들이다. 그는 화살을 줌통에 얹고

의자에 앉은 그 자리에서 시위와 오늬를 당기더니, 똑바로 겨누어 쏜다. 화살은 도끼들의 첫 자루 구멍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청동을 무겁게 단 화살은 곧장 모두 꿰뚫고 문밖으로 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424 "텔레마코스, 홀에 앉아 있는 손님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소. 나는 과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고, 활에 시위를 얹느라 오래 애쓰지도 않았소. 구혼자들이 업신여기며 깔보는 것과는 달리 내 기운은 아직 굳건하오. 이제 아카이아인들에게 날이 밝을 때 저녁을 차려 줄 때가 되었소. 그다음에는 노래와 리라로 다른 놀이도 즐겨야 하오. 그것이 잔치를 빛내는 것들이니 말이오."

431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눈썹으로 신호를 보냈다.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는 날카로운 칼을 몸에 두르고 제 손으로 창을 움켜쥔 다음, 반짝이는 청동으로 무장한 채 의자 곁, 아버지 가까이에 섰다.

제22권

1 꾀 많은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들고 큰 문지방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날랜 화살들을 바로 발 앞에 쏟아 놓고 구혼자들에게 말했다. "버거운 시합은 이제 끝났다. 이번에는 아직 아무도 맞힌 적 없는 다른 과녁을 겨누어 보겠다. 내가 맞힐 수 있을지, 아폴론께서 내게 영광을 내려 주실지 알게 되겠지."

8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안티노오스에게 쓰라린 화살을 겨누었다. 안티노오스는 손잡이 둘 달린 아름다운 황금 술잔을 막 들어 올리려던 참이었다. 포도주를 마시려고 벌써 잔을 손에 쥐고 있었고, 죽음은 그의 마음속에 조금도 없었다. 잔치를 벌이는 사내들 가운데서, 여럿 사이에 홀로 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자기에게 몹쓸 죽음과 검은 죽음의 운명을 안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오디세우스가 그의 목을 겨누어 화살을 날린다. 화살촉이 여린 목을 곧장 꿰뚫고 나간다. 안티노오스가 한쪽으로 쓰러지고, 화살에 맞은 그의 손에서 잔이 떨어진다. 곧바로 사람의 피가 굵은 줄기로 콧구멍에서 솟구친다. 그는 발로 식탁을 걷어차 밀어내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져 빵과 구운 고기가 피범벅이 된다. 구혼자들은 사내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홀 안을 우왕좌왕하면서 잘 지은 벽 쪽을 사방으로 둘러보았지만 집어 들 방패도 튼튼한 창도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노한 말로 오디세우스를 꾸짖었다.

27 "나그네, 네가 사람을 쏘다니 몹쓸 짓을 했구나. 너는 다시는 다른 시합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제 가파른 파멸이 너에게 닥칠 것이 틀림없다. 이타카의 젊은이들 가운데 단연 으뜸인 사내를 방금 죽였으니, 이곳에서 대머리독수리들이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31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일부러 사내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자기들 모두의 머리 위에 파멸의 밧줄이 매여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35 "이 개들아, 너희는 내가 트로이인들의 고장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여겼지. 그래서 내 집을 거덜 내고, 하녀들을 억지로 끌어다 함께 자고, 내가 살아 있는데도 몰래 내 아내에게 구혼했다.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뒷날 사람들에게서 받을 분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모두의 머리 위에 파멸의 밧줄이 매였다."

42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 새파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가파른 파멸을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에우리마코스만이 그에게 대답했다.

45 "이타카의 오디세우스여, 정녕 돌아오신 것이라면 아카이아인들이 저지른 짓을 두고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저희는 홀에서도 들에서도 무모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장본인은 이미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안티노오스입니다. 이 일을 꾸민 것은 바로 그자입니다. 그자는 혼인을 그리 바라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셨지만, 그자는 잘 지은 이타카 고장에서 몸소 왕이 되고 아드님을 매복해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그자는 마땅한 몫대로 죽임을 당했으니, 오디세우스께서는 백성을 아껴 주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고장에서

거두어, 홀에서 마시고 먹어 치운 것을 모두 갚겠습니다. 저마다 황소 스무 마리 값을 따로 가져와, 오디세우스의 가슴이 풀리실 때까지 청동과 황금으로 물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여워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6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노려보며 말했다. "에우리마코스, 너희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지금 가진 것을 다 내게 내놓고 어디서 다른 것을 더 얹어 준다 해도, 구혼자들이 저지른 도를 넘은 짓의 값을 모조리 치르기 전에는 내 손이 살육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 앞에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가운데 하나뿐이다. 그렇게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할 자가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파른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68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다. 에우리마코스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70 "벗들이여, 이 사내는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손을 거두지 않을 걸세. 잘 다듬은 활과 화살통을 손에 넣었으니, 우리를 모두 죽일 때까지 반들반들한 문지방에서 쏘아 댈 걸세. 자, 싸울 생각을 하세. 칼을 뽑고, 빨리 죽음을 부르는 화살을 식탁으로 막게. 모두 한꺼번에 그에게 덤벼들어 문지방과 문간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도시로 나가 어서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 그러면 이 사내는 곧 지금 쏜 화살이 마지막이 될 걸세."

79 그렇게 말하더니 에우리마코스는 양쪽에 날을 세운 날카로운 청동 칼을 뽑아 들고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화살을 날려 그의 가슴, 젖꼭지 곁을 맞혔고, 날랜 화살이 간에 박혔다. 에우리마코스는 손에서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몸을 꺾으며 비틀거리다 식탁 위로 쓰러졌고, 음식과 손잡이

둘 달린 잔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고통스러워 이마로 땅을 찧으며 두 발로 의자를 걷어차 흔들었다. 그의 두 눈 위로 어둠이 쏟아져 내렸다.

89 암피노모스는 혹시 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여,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에게 마주 달려들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가 한발 앞서 뒤에서 청동을 박은 창으로 그의 두 어깨 사이를 찔러 가슴까지 꿰뚫었다. 암피노모스는 쿵 하고 쓰러지며 이마 전체로 땅을 들이받았다. 텔레마코스는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암피노모스의 몸에 꽂아 둔 채 뒤로 물러났다.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뽑는 사이에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가 칼을 들고 덤벼들어 그를 찌르거나 앞으로 숙인 그를 내리치지나 않을까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달려가 곧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다다랐고, 가까이 서서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01 "아버지, 이제 제가 방패 하나와 창 두 자루와, 관자놀이에 꼭 맞는 온통 청동으로 된 투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도 가서 무장하고 돼지치기와 소치기에게도 무기를 주겠습니다. 무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105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화살이 아직 남아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얼른 뛰어가 가져오너라. 나 혼자 남아 있는 사이에 저들이 나를 문간에서 밀어내지 못하게 말이다."

108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그는 이름난 무구가 놓여 있는 방으로 가서 방패 네 개와 창 여덟 자루와 말총 장식이 달린 청동 투구 네 개를 꺼내 들고 가서, 곧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다다랐다. 그는 맨 먼저 제 몸에 청동을 둘렀다. 두 종도 그와 똑같이 아름다운 무구를 입고, 온갖 꾀를 지닌 슬기로운 오디세우스 곁에 섰다.

116 오디세우스는 몸을 지킬 화살이 남아 있는 동안 제 집 안에서 구혼자들을 하나씩 겨누어 쏘아 맞혔고, 그들은 겹겹이 쓰러졌다. 활을

쏘던 주인에게 화살이 떨어지자, 그는 활을 튼튼하게 지은 홀의 문설주에 기대어 번쩍이는 벽 앞에 세워 두었다. 그리고 어깨에 네 겹으로 된 방패를 메고 굳센 머리에 잘 만든 투구를 썼다. 말총 장식이 달린 투구 위에서 깃 장식이 무시무시하게 끄덕였다. 그는 청동 날을 단 튼튼한 창 두 자루를 집어 들었다.

126 잘 지은 벽에는 높직한 쪽문이 하나 나 있었고, 튼튼하게 지은 홀의 문지방 맨 끝자리 곁으로는 골목길로 빠지는 통로가 있었는데, 단단히 맞물린 널문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고귀한 돼지치기에게 그 길목 가까이 서서 지키라고 일렀다. 그리로 덤벼들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아겔라오스가 모두에게 들리게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132 "벗들이여, 누가 저 높직한 쪽문으로 올라가 백성들에게 알리고, 어서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겠나? 그러면 이 사내는 곧 지금 쏜 화살이 마지막이 될 걸세."

135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말을 받았다. "제우스가 기르신 아겔라오스 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뜰로 나가는 아름다운 문이 무섭도록 가깝고 골목길 어귀는 빠져나가기가 고약해서, 용맹한 사내 하나만 버티고 있어도 모두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방에서 나리들께서 입고 무장하실 무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빛나는 아들이 무구를 치워 둔 곳은 분명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방 안일 것입니다."

142 이렇게 말하고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는 홀의 좁은 틈새 통로를 타고 오디세우스의 방들로 올라갔다. 그는 거기서 방패 열두 개와 창 열두 자루, 말총 장식이 달린 청동 투구도 그만큼 꺼내 들고 서둘러 돌아와 구혼자들에게 건넸다. 구혼자들이 무구를 몸에 두르고 긴 창을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것을 보자, 그제야 오디세우스는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고, 눈앞의 일이 엄청나게 커 보였다. 그는 곧 텔레마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51 "텔레마코스, 홀 안의 여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둘에게 몹쓸 싸움을 부추기는 게 틀림없다. 아니면 멜란티오스겠지."

153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아버지, 이것은 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단단히 맞물린 방문을 제가 기대어 놓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망꾼이 저보다 눈이 밝았습니다. 자, 고귀한 에우마이오스, 가서 방문을 닫아 주세요. 그리고 이 짓을 하는 게 여인들 가운데 누구인지, 아니면 제 짐작대로 돌리오스의 아들 멜란티오스인지 알아봐 주세요."

160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는 아름다운 무구를 더 가져오려고 다시 방으로 갔고, 고귀한 돼지치기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곧 가까이 있던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164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우리가 짐작한 그 몹쓸 사내가 또 방으로 갑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자보다 힘이 세다면 그 자리에서 죽일까요, 아니면 주인님께 이리로 끌고 와서 그자가 주인님 댁에서 꾸민 숱한 도를 넘은 짓의 값을 치르게 할까요?"

17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나와 텔레마코스는 저 당당한 구혼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홀 안에 붙잡아 두겠네. 자네 둘은 그자의 발과 손을 등 뒤로 꺾어 방 안에 내던지고 나올 때 뒤로 문짝을 묶어 닫은 다음, 그자 몸에 꼰 밧줄을 감아 높은 기둥을 타고 끌어올려 들보 가까이 매달게. 그래야 그자가 오래도록 살아 있으면서 모진 고통을 겪을 걸세."

17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그 말을 귀담아듣고 따랐다. 두 사람이 방으로 가는데, 안에 있던 멜란티오스는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다. 멜란티오스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무구를 뒤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문설주 양옆에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한 손에는 아름다운 투구를, 다른 손에는 곰팡이가 슨 넓고 낡은 방패를 들고 있었다. 영웅 라에르테스가 젊은 시절에 들고 다니던 방패로, 이제는 버려진 채 놓여 있어 가죽끈 솔기가 다 풀려 있었다. 두 사람은 달려들어 그를 붙잡고 머리채를 잡아 안으로 끌어들인 뒤, 가슴이 쓰라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라에르테스의 아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시킨 대로, 그의 발과 손을 등 뒤로 단단히 꺾어 한데 모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밧줄로 묶었다. 그 몸에 꼰 밧줄을 감아 높은 기둥을 타고 끌어올려 들보 가까이 매달았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그에게 빈정대며 이렇게 말했다.

195 "멜란티오스, 이제 너는 네게 어울리는 푹신한 잠자리에 누워 밤새 꼬박 망을 보겠구나. 구혼자들이 집에서 잔치를 차리도록 네가 염소를 몰고 오는 그 시각에, 오케아노스의 물결에서 이른 아침에 태어난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이 떠오르는 것을 놓칠 리도 없겠지."

200 그렇게 멜란티오스는 모진 밧줄에 팽팽히 매달린 채 거기 남겨졌다. 두 사람은 무구를 입고 번쩍이는 문을 닫은 다음, 온갖 꾀를 지닌 슬기로운 오디세우스에게 갔다. 그들은 거기서 기운을 내뿜으며 버티고 섰다. 문지방 위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 집 안에는 수도 많고 용맹한 사내들이 있었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모습도 목소리도 멘토르를 닮은 채 그들 가까이 다가왔다. 오디세우스는 여신을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다.

208 "멘토르, 재앙을 막아 주게. 자네에게 늘 잘해 주던 정다운 벗을 잊지 말게. 자네는 나와 동갑내기가 아닌가."

210 그는 그것이 군사를 북돋우는 아테나라고 짐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맞은편에서는 구혼자들이 홀 안에서 위협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가 맨 먼저 여신을 나무랐다.

213 "멘토르, 오디세우스의 말에 넘어가 구혼자들과 싸우며 저자를 돕지 마라. 우리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가 이자들,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고 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홀에서 그런 짓을 하려고 날뛰었으니 네 머리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동으로 너희 목숨을 빼앗고 나면, 집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네 재산은 모두 오디세우스의 재산과 한데 섞어 버리고, 네 아들들이 홀에서 살아가게 두지 않을 것이며, 네 딸들과 믿음직한 네 아내가 이타카 도시를 돌아다니게 두지도 않겠다."

224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테나는 가슴속으로 더욱 노여워하며, 노한 말로 오디세우스를 꾸짖었다.

226 "오디세우스, 자네에게는 이제 그 굳건한 기운도 용맹도 남아 있지 않군. 예전에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난 하얀 팔의 헬레네를 두고 아홉 해 동안 트로이인들과 쉼 없이 줄곧 싸울 때, 자네는 무서운 싸움터에서 많은 사내를 죽였고 길이 넓은 프리아모스의 도시도 자네의 계책으로 함락되었지. 그런데 이제 제 집과 재산에 돌아와서는 어찌하여 구혼자들 앞에서 용맹하게 맞서기를 마다하며 우는소리를 하나? 자, 여보게, 이리 와서 내 곁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원수들 사이에서 알키모스의 아들 멘토르가 자네에게 입은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알게 될 걸세."

236 이렇게 말했지만 여신은 아직 승리를 어느 한쪽으로 다 기울여 주지 않고, 오디세우스와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힘과 용맹을 더 시험했다. 여신은 제비와 꼭 같은 모습으로 날아올라, 그을음 낀 홀의 들보 위에 앉았다.

241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와 에우리노모스, 암피메돈과 데모프톨레모스, 폴릭토르의 아들 페이산드로스, 그리고 슬기로운 폴리보스가 구혼자들을 부추겼다. 아직 살아남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구혼자들 가운데서는 이들이 빼어남으로 단연 으뜸이었다. 나머지는 이미 활과 빗발치는 화살에 쓰러진 뒤였다. 아겔라오스가 모두에게 들리게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248 "벗들이여, 이제 이 사내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손을 거둘 걸세. 멘토르는 헛된 큰소리만 늘어놓고 가 버렸고 저들만 맨 앞 문간에 남았으니, 이제 모두 한꺼번에 긴 창을 던지지 말고, 자, 먼저 여섯이 던지게. 제우스께서 오디세우스를 맞혀 영광을 얻게 해 주실지도 모르니. 저자만 쓰러지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 없네."

255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가 시킨 대로 힘껏 창을 던졌다. 그러나 아테나가 그 창들을 모두 헛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은 튼튼하게 지은 홀의 문설주를 맞혔고, 다른 사람은 단단히 맞물린 문짝을 맞혔으며, 또 다른 사람의 청동을 무겁게 단 물푸레나무 창은 벽에 박혔다. 그들이 구혼자들의 창을 피하고 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262 "벗들이여, 이제 나는 우리도 구혼자들 무리에 창을 던지자고 말하겠네. 저들은 앞서 저지른 못된 짓도 모자라 우리를 죽여 무구를 벗겨 가려고 날뛰고 있네."

265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똑바로 겨누어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오디세우스는 데모프톨레모스를, 텔레마코스는 에우리아데스를, 돼지치기는 엘라토스를 죽였고, 소 떼를 돌보는 사내는 페이산드로스를 죽였고,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넓디넓은 땅바닥을 이로 물었다. 구혼자들은 홀 안쪽 깊숙이 물러났고, 네 사람은 달려 나가 시체에서 창을 뽑았다.

272 구혼자들은 다시 힘껏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그러나 아테나가 그 대부분을 헛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은 튼튼하게 지은 홀의 문설주를 맞혔고, 다른 사람은 단단히 맞물린 문짝을 맞혔으며, 또 다른 사람의 청동을 무겁게 단 물푸레나무 창은 벽에 박혔다. 암피메돈은 텔레마코스의 손목을 스치듯 맞혀, 청동이 살갗 겉을 다치게 했다. 크테시포스는 긴 창을 방패 너머로 내질러 에우마이오스의 어깨를 긁었고, 창은 그 위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 온갖 꾀를 지닌 슬기로운 오디세우스 곁의 사람들은 다시 구혼자들 무리에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이번에는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가 에우리다마스를, 텔레마코스가 암피메돈을, 돼지치기가 폴리보스를 맞혔고, 소 떼를 돌보는 사내는 크테시포스의 가슴을 맞히고는 뽐내며 말했다.

287 "폴리테르세스의 아들, 빈정대기 좋아하는 놈아, 다시는 어리석음에 끌려 큰소리치지 말고 말은 신들께 맡겨라. 신들이 훨씬 더 세시니까. 이것은 일찍이 네가 집 안을 떠돌며 빌어먹던 신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에게 던져 준 소 발에 대한 손님 선물이다."

292 뿔 굽은 소 떼를 돌보는 사내가 이렇게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다마스토르의 아들을 바로 곁에서 긴 창으로 찔렀고, 텔레마코스는 에우에노르의 아들 레이오크리토스의 옆구리 한복판을 창으로 찔러 청동을 끝까지 꿰뚫었다. 레이오크리토스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이마 전체로 땅을 들이받았다. 그때 아테나가 높은 지붕에서 사람을 죽이는 아이기스를 쳐들었다. 구혼자들은 넋이 나가 홀 안을 이리저리 내달렸다. 봄철 해가 길어질 무렵이면 날쌘 쇠파리가 떼 지은 소들에게 달려들어 이리저리 몰아댈 때가 있다. 꼭 그처럼 구혼자들은 홀 안을 내달렸다. 네 사람은 그들을 덮쳐 들었다. 발톱과 부리가 굽은 독수리들이 산에서 내려와 작은 새들을 덮칠 때가 있다. 새들은 구름을 피해 움츠러들며 들판으로 내달리지만, 독수리들은 달려들어 새들을

죽이고, 새들에게는 막아 낼 힘도 달아날 길도 없다. 사람들은 그 사냥을 보며 즐거워한다. 꼭 그처럼 네 사람은 집 안에서 구혼자들을 덮쳐 사방으로 돌아서며 내리쳤다. 머리가 깨지는 처참한 신음이 일었고, 온 바닥이 피로 들끓었다.

레이오데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달려들어 무릎을 붙잡고, 애원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오디세우스여, 무릎을 잡고 빕니다. 저를 어려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홀에서 여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무모한 말을 하거나 무모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다른 구혼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 말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못된 짓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짓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물 점쟁이였을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저까지 그들과 함께 쓰러져 눕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베푼 선행의 고마움은 뒷날에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봅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노려보며 말했다. "그들의 제물 점쟁이였다고 자랑한다면, 너는 이 홀에서 내 달콤한 귀향이 아득히 멀어지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너를 따라가 네 아이를 낳기를 몇 번이고 빌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괴로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겔라오스가 죽으면서 땅에 떨어뜨린 칼이 놓여 있는 것을 굵은 손으로 집어 들어, 그것으로 레이오데스의 목 한복판을 내리쳤다. 레이오데스가 아직 말을 하는 사이에 그의 머리가 먼지 속에 뒹굴었다.

그러나 테르피스의 아들, 노래꾼 페미오스는 아직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 있었다. 구혼자들 곁에서 억지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는 낭랑한 리라를 손에 든 채 높직한 쪽문 가까이 서서, 홀을 빠져나가 안뜰을 지키는 큰 제우스의 잘 지은 제단 곁에 가서

앉을지, 아니면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무릎을 잡고 빌지 속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굴렸다. 그 제단에서는 일찍이 라에르테스와 오디세우스가 소의 넓적다리뼈를 수없이 태워 바쳤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잡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는 우묵한 리라를 술동이와 은못 박은 의자 사이 바닥에 내려놓고,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무릎을 붙잡고 애원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44 "오디세우스 님, 무릎을 잡고 빕니다. 저를 어려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노래꾼을 죽이신다면, 뒷날 오디세우스 님께도 슬픔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깨쳐 배웠고, 신께서 제 마음속에 온갖 노래의 길을 심어 주셨습니다. 신 앞에서 노래하듯 오디세우스 님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목을 베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디세우스 님의 사랑하는 아드님 텔레마코스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댁에 드나들며 잔치 자리에서 구혼자들에게 노래를 불러 준 것은 결코 제가 원하거나 바라서가 아니었고, 수도 훨씬 많고 힘도 훨씬 센 그들이 억지로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354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신성한 힘을 지닌 텔레마코스가 그 말을 듣고, 곧 가까이 있던 제 아버지에게 말했다.

356 "멈추십시오. 죄 없는 이 사람을 청동으로 찌르지 마십시오. 전령 메돈도 살려 두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늘 저를 돌봐 주던 사람입니다. 필로이티오스나 돼지치기가 벌써 죽이지 않았다면, 아니면 아버지께서 집 안을 휩쓸며 날뛰실 때 마주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361 그가 이렇게 말하자 생각 깊은 메돈이 그 말을 들었다. 메돈은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고, 갓 벗긴 소가죽을 뒤집어쓰고 의자 밑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그는 곧 의자 밑에서 일어나 재빨리 소가죽을 벗어 던지고, 텔레마코스에게 달려가 무릎을 붙잡고 애원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67 "도련님, 저 여기 있습니다. 멈추시고,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구혼자들에게 노하신 나머지 그 크신 힘으로 날카로운 청동을 휘둘러 저를 해치지는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자들은 홀에서 아버님의 재산을 거덜 냈고, 어리석게도 도련님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371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게. 이 아이가 자네를 지켜 살려 주었으니, 못된 짓보다 착한 일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남에게도 일러 주게. 자, 자네는 노래 많은 노래꾼과 함께 홀에서 나가, 살육을 벗어나 안뜰에 앉아 있게. 내가 집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칠 때까지 말일세."

37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홀 밖으로 나가 큰 제우스의 제단 곁에 앉았다. 둘은 언제 죽음이 닥칠까 줄곧 마음을 졸이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오디세우스는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해 아직 살아서 숨어 있는 사내가 있는지 제 집 안을 두루 살폈지만, 눈에 띈 것은 피와 먼지 속에 무더기로 쓰러진 그들 모두였다. 어부들이 코가 많은 그물로 잿빛 바다에서 우묵한 바닷가로 물고기를 끌어 올릴 때가 있다. 물고기들은 바다 물결을 그리워하며 모두 모래 위에 쏟아져 널브러지고, 빛나는 해가 그들의 목숨을 앗아 간다. 꼭 그처럼 그때 구혼자들은 서로 겹겹이 포개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391 "텔레마코스, 자,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다 다오. 내 마음에 품은 말을 해야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문을 흔들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395 "오래 사신 할멈, 이리 좀 나오세요. 우리 홀에서 하녀들을 감독하시잖아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부르세요."

398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에우리클레이아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유모가 살기 좋은 홀의 문들을 열고 나서자 텔레마코스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고, 유모는 죽어 쓰러진 시체들 사이에서 피와 핏덩이를 온통 뒤집어쓴 오디세우스를 찾아냈다. 들에서 지내는 소를 잡아먹고 사자가 걸어올 때가 있다. 그 가슴도 두 뺨도 온통 피투성이라 얼굴을 마주 보기가 무섭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는 발이며 손까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다. 유모는 시체들과 엄청난 피를 보자, 큰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보고 환성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유모가 아무리 그러고 싶어 해도 붙잡아 말리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11 "할멈, 기쁘거든 마음속으로만 기뻐하고 참게. 환성은 지르지 말게. 죽은 사내들 앞에서 뽐내는 것은 경건한 일이 아닐세. 이자들을 쓰러뜨린 것은 신들이 정한 운명과 이자들 자신의 모진 짓일세. 이자들은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오든, 못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무모한 짓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걸세. 자, 홀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죄 없는지 낱낱이 일러 주게."

419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얘야, 내가 사실대로 낱낱이 일러 주마. 이 홀에는 하녀가 쉰 명 있는데, 양털을 빗고 종살이를 견디도록 우리가 일을 가르친 여인들이고, 그 가운데 열두 명이 하나같이 염치없는 짓에 빠져, 나도 페넬로페도 존중하지 않았다. 텔레마코스는 이제 막 자라는 참이라, 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하녀들을 부리게 두지 않았지. 자, 내가 반들거리는 위층 방에 올라가, 어떤 신이 잠을 내려 준 네 아내에게 알리마."

43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아내는 아직 깨우지 말게. 자네는 앞서 몹쓸 짓을 꾸민 여인들에게 이리 오라고 이르게."

43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여인들에게 알리고 어서 오라고 재촉하러 홀을 가로질러 갔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곁으로 불러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37 "이제 시체를 나르기 시작하고, 여인들에게도 나르라고 시키게. 그다음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의자와 식탁을 물과 구멍 숭숭한 해면으로 닦게 하게. 집 안을 모두 정돈하고 나면 하녀들을 튼튼하게 지은 홀에서 끌어내어, 둥근 집과 안뜰의 나무랄 데 없는 담장 사이에서 날이 긴 칼로 내리쳐서, 그들의 목숨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구혼자들 밑에서 누리며 몰래 몸을 섞던 아프로디테를 잊게 하게."

446 그가 이렇게 말하자 여인들이 모두 한데 몰려 나왔다. 그들은 몹시 슬피 울며 굵은 눈물을 쏟았다. 여인들은 먼저 죽은 시체들을 날라, 담장이 튼튼한 안뜰의 주랑 아래 서로 기대어 놓았다. 오디세우스가 몸소 재촉하며 일을 시키자, 여인들은 억지로라도 시체를 날라 냈다. 그다음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의자와 식탁을 물과 구멍 숭숭한 해면으로 닦았다.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는 튼튼하게 지은 집의 바닥을 긁개로 긁어냈고, 하녀들이 그것을 날라 문밖에 내다 놓았다. 홀을 모두 정돈하고 나서 그들은 하녀들을 튼튼하게 지은 홀에서 끌어내어, 둥근 집과 안뜰의 나무랄 데 없는 담장 사이,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좁은 곳에 몰아넣었다.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462 "제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위에 욕을 퍼붓고 구혼자들 곁에서 잠을 잔 저것들의 목숨은 깨끗한 죽음으로 거두지 않겠어요."

465 그는 이렇게 말하고 뱃머리가 검푸른 배의 밧줄을 큰 기둥에 매어 둥근 집 둘레에 감고, 아무도 발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높이 팽팽하게 당겨 맸다. 날개가 긴 개똥지빠귀나 비둘기가 잠자리를 찾아 들어가다가 덤불 속에 쳐 놓은 그물에 걸릴 때가 있다. 새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잠자리다. 꼭 그처럼 여인들은 머리를 나란히 하고 매달렸고, 모두의 목에 올가미가 걸렸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려는 뜻이었다. 여인들은 잠시 발을 버둥거렸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474 그들은 멜란티오스를 문간과 안뜰을 지나 끌어내어, 무자비한 청동으로 코와 귀를 잘라 내고, 생식기를 뜯어내 개들에게 날것으로 던져 주었으며, 노여움에 찬 마음으로 손과 발을 잘라 냈다.

478 그들은 손과 발을 씻고 오디세우스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일은 다 끝났다. 오디세우스는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할멈, 재앙을 씻어 낼 유황을 가져오게. 불도 가져오게. 홀에 유황을 피워 깨끗이 해야겠네. 그리고 페넬로페에게 시녀들을 데리고 이리 오라고 이르고, 집 안의 하녀들도 모두 이리 오라고 재촉하게."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그래, 얘야, 네 말이 다 옳다. 자, 내가 외투와 윗옷을 가져다주마. 그 넓은 어깨를 이렇게 누더기로 감싼 채 홀에 서 있지 마라. 남들이 보면 분개할 일이다."

49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무엇보다 먼저 홀에 불부터 피워 주게."

492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불과 유황을 가져왔다. 오디세우스는 홀과 집과 안뜰을 구석구석 유황을 피워 깨끗이 했다. 노파는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집 안을 지나, 여인들에게 알리고 어서 오라고 재촉하러 다시 갔다. 여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홀에서 나와 오디세우스를 에워싸고 반겼다. 그들은 반가움에 겨워 그의 머리와 어깨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았다.

오디세우스는 울고 싶고 탄식하고 싶은 달콤한 그리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속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았다.

제23권

1 노파는 사랑하는 남편이 집 안에 와 있다고 안주인에게 알리려고, 기쁨에 겨워 껄껄 웃으며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무릎에는 힘이 솟고 두 발은 엎어질 듯 바삐 움직였다. 노파는 안주인의 머리맡에 서서 말했다.

5 "일어나요, 페넬로페, 아가. 날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아가 눈으로 직접 보세요. 오디세우스가 왔어요. 늦게나마 집에 돌아왔어요. 그의 집을 들볶고 살림을 먹어 치우고 그 아들을 억누르던 거만한 구혼자들을 다 죽였어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유모, 신들이 자네를 미치게 만들었나 보네. 신들은 아무리 생각이 깊은 사람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도 슬기로운 길에 올려놓을 수 있지. 그 신들이 자네를 홀렸군. 전에는 자네 생각이 반듯했는데. 어찌하여 슬픔이 가득한 이 마음을 이런 엉뚱한 말로 놀리고, 내 두 눈꺼풀을 덮어 나를 묶어 두었던 달콤한 잠에서 나를 깨우는가? 오디세우스가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몹쓸 일리오스를 보러 떠난 뒤로 나는 이렇게 깊이 잠든 적이 없었네. 자, 이제 내려가서 홀로 돌아가게. 내 곁에 있는 다른 여인 누구라도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고 나를 잠에서 깨웠더라면, 나는 당장 호되게 꾸짖어 홀 안으로 돌려보냈을 걸세. 자네는 나이 덕을 보는 줄 알게."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아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디세우스가 왔어요. 내 말대로 집에 돌아왔어요. 홀에서 모두가 업신여기던 그 손님이 바로 오디세우스예요. 텔레마코스는 진작부터 아버지가 집 안에 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가 오만한 사내들의 폭력을 갚을 때까지 슬기롭게 아버지의 계획을 감추고 있었어요."

32 유모가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기뻐하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노파를 끌어안았고, 눈꺼풀에서 눈물을 떨구었다. 페넬로페는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5 "자, 유모, 숨김없이 말해 주게. 정말로 자네 말대로 그이가 집에 돌아왔다면, 저 염치없는 구혼자들은 늘 떼 지어 집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이는 혼자서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있었나?"

39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을 받았다. "나는 보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도 없어요. 죽어 가는 사람들의 신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여인들은 튼튼하게 지은 방 안쪽 깊숙이 겁에 질려 앉아 있었고, 단단히 맞물린 문짝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가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홀에서 나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나를 불러오라고 텔레마코스를 보냈거든요. 가 보니 오디세우스가 죽어 쓰러진 시체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둘레에는 시체들이 단단히 다진 바닥을 덮은 채 서로 겹쳐 누워 있었어요. 그걸 보았다면 아가도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이제 시체들은 모두 안뜰 문간에 한데 쌓여 있고, 오디세우스는 큰불을 피워 더없이 아름다운 집을 유황으로 깨끗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아가를 불러오라고 나를 보냈어요. 자, 따라와요. 두 사람 다 숱한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 둘이 함께 가슴에 기쁨을 누려야지요. 오랜 바람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오디세우스가 살아서 몸소 화덕 곁으로 돌아와 홀에서 아가와 아들을 찾았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하던 구혼자들에게는 제 집에서 모두 앙갚음을 했어요."

58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유모, 아직 크게 뽐내며 웃지 말게. 그이가 홀에 나타난다면 모두에게, 무엇보다 나와 우리가 낳은 아들에게 얼마나 반가울지 자네도 알지. 그러나 자네가 하는 이 말은

참말이 아닐세. 불사의 신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만과 못된 짓에 분개해 당당한 구혼자들을 죽인 걸세. 그들은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오든, 못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으니, 무모한 짓 때문에 재앙을 당한 걸세. 오디세우스는 머나먼 곳에서 아카이아 땅으로 돌아올 귀향을 잃었고, 그 자신도 죽었네."

69 정다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대답했다. "아가, 무슨 말이 그 이빨 울타리를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집 안 화덕 곁에 와 있는데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다니요. 아가 마음은 늘 믿을 줄을 몰라요. 자, 그럼 다른 뚜렷한 표지를 하나 말해 줄게요. 일찍이 멧돼지가 흰 엄니로 찢어 놓은 흉터예요. 발을 씻겨 주다가 그 흉터를 알아보고 아가에게 바로 말하려 했는데, 오디세우스가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속이 아주 깊으니까요. 자, 따라와요. 내 목숨을 걸지요. 내가 아가를 속인 거라면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나를 죽여도 좋아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유모, 자네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영원히 사는 신들의 계책을 헤아리기는 어려운 일일세. 그래도 내 아들에게 가 보세. 죽은 구혼자들과 그들을 죽인 사람을 보아야겠네." 이렇게 말하고 페넬로페는 위층 방에서 내려갔다. 내려가는 동안 그 가슴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떨어져서 물어볼지, 아니면 곁에 다가서서 그의 머리에 입 맞추고 두 손을 잡을지 이리저리 생각을 굴렸다. 페넬로페는 안으로 들어가 돌 문지방을 넘어서자, 불빛 속에 오디세우스와 마주 보이게 맞은편 벽 쪽에 앉았다. 오디세우스는 긴 기둥에 기대어 눈을 내리깐 채 앉아서, 기품 있는 아내가 제 눈으로 그를 보았으니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고, 놀라움이 가슴을 덮쳤다. 이따금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도, 이따금은 몸에 걸친 초라한 옷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텔레마코스가 어머니를 나무라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97 "어머니, 모진 어머니, 마음이 어찌 그리 매정하십니까? 어찌하여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떨어져 앉아, 곁에 앉아서 말을 묻지도 캐묻지도 않으십니까? 다른 여인이라면 누구도 숱한 고생을 겪고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편에게서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슴은 언제나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104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얘야, 내 가슴속 마음이 얼떨떨하구나.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마주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오디세우스이고 집에 돌아온 것이라면, 우리 둘은 서로를 더 잘 알아볼 것이다. 우리 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표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111 페넬로페가 이렇게 말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빙그레 웃고, 곧 텔레마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113 "텔레마코스, 홀에서 네 어머니가 나를 시험하게 내버려 두어라. 곧 더 잘 알아볼 게다. 지금은 내가 때가 끼고 몸에 초라한 옷을 걸치고 있으니, 네 어머니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직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될지 궁리해 보자. 고장에서 사람 하나만 죽여도, 그것도 뒤에서 앙갚음해 줄 사람이 많지 않은 이를 죽였더라도, 죽인 사람은 친척과 고향 땅을 버리고 달아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를 떠받치던 버팀목, 이타카의 젊은이들 가운데 단연 으뜸인 자들을 죽였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너에게 이른다."

123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일은 아버지께서 몸소 살피십시오. 사람들은 아버지의 꾀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하고, 죽을 운명의 인간 가운데 다른 어떤 사내도 아버지와 겨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꺼이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는 용맹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29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바를 말하겠네. 먼저 목욕을 하고 윗옷을 갈아입게. 그리고 홀에 있는 하녀들에게도 옷을 차려입으라고 이르게. 신과 같은 노래꾼은 낭랑한 리라를 들고 우리 앞에 서서 흥겨운 춤을 이끌게 하게. 밖에서 듣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웃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나 혼인 잔치가 벌어졌다고 말하도록 말일세. 우리가 나무가 우거진 우리 농장으로 나가기 전에 구혼자들이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도시 곳곳에 널리 퍼져서는 안 되네. 거기 가서 그다음에는 올림포스의 신께서 무슨 묘수를 손에 쥐여 주실지 궁리해 보세."

141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을 귀담아듣고 따랐다. 그들은 먼저 목욕을 하고 윗옷을 갈아입었고, 여인들도 차려입었다. 신과 같은 노래꾼이 우묵한 리라를 집어 들어, 그들 마음속에 달콤한 노래와 나무랄 데 없는 춤을 향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즐겁게 노는 사내들과 허리띠 고운 여인들의 발소리에 큰 집이 사방으로 쿵쿵 울렸다. 집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149 "틀림없이 누군가가 구혼자가 많던 왕비와 혼인했구먼. 모진 여자 같으니, 처녀로 시집와 맞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 큰 집을 끝내 지키지 못했어."

152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했다. 한편 살림 맡은 여인 에우리노메가 제 집에 있는 기개 높은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준 뒤 고운 겉옷과 윗옷을 입혀 주었다. 아테나는 그의 머리 위로 아름다움을 듬뿍 부어 그를 보기에 더

크고 더 다부지게 만들고, 머리에서는 히아신스꽃 같은 곱슬머리를 늘어뜨려 주었다. 솜씨 좋은 사람이 은에 금을 입힐 때가 있다.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나에게서 온갖 기술을 배운 장인이라, 그가 만든 것은 우아하다. 꼭 그처럼 아테나가 그의 머리와 어깨에 우아함을 부어 주었다. 욕조에서 나오니 그 모습이 불사의 신들과 같았다. 그는 아까 일어났던 의자로 돌아가 아내와 마주 보는 자리에 다시 앉아서, 아내에게 말했다.

166 "이상한 사람,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이 여느 연약한 여인들보다 당신에게 유난히 굳은 마음을 주었구려. 다른 여인이라면 누구도 숱한 고생을 겪고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편에게서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오. 자, 유모, 내 잠자리를 펴 주게. 나 혼자서라도 누워야겠네. 이 사람의 가슴속 마음은 정녕 쇠로 되어 있으니."

173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이상한 사람, 나는 뽐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며 크게 놀란 것도 아니오. 당신이 노가 긴 배를 타고 이타카를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소. 자, 에우리클레이아, 저이가 손수 지은 튼튼한 방 밖에 단단히 짠 침상을 펴 드리게. 단단히 짠 침상을 밖에 내다 놓고 그 위에 양털 가죽과 외투와 반들거리는 덮개를 깔아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게."

181 페넬로페는 남편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속을 끓이며 믿음직한 아내에게 말했다.

183 "부인, 정녕 마음 아픈 말을 하는구려. 누가 내 침상을 다른 곳으로 옮겼단 말이오? 아무리 솜씨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일 것이오. 신이 몸소 와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겠지만 말이오. 사람들 가운데서는 살아 있는 인간 누구도, 아무리

한창때의 젊은이라 해도 그 침상을 쉽게 들어 옮기지 못하오. 공들여 만든 그 침상에는 큰 표지가 깃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손수 만들었소. 울안에 잎이 길쭉한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한창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둥치가 기둥만큼 굵었소. 나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돌을 촘촘히 쌓아 방을 다 지었고, 위에 지붕을 잘 얹은 다음, 단단히 맞물리게 짠 문짝을 달았소. 그런 다음 잎이 길쭉한 올리브나무의 우듬지를 쳐 내고, 밑동부터 둥치를 다듬어 청동으로 솜씨 좋게 깎고 먹줄에 맞춰 곧게 다듬어 침상 다리로 삼았고, 송곳으로 구멍을 모두 뚫었소. 거기서부터 시작해 침상을 깎아 다 만들고, 황금과 은과 상아로 꾸몄소. 그리고 자줏빛으로 물들인 번쩍이는 소가죽 끈을 침상 안에 팽팽하게 매었소. 이렇게 나는 이 표지를 당신에게 밝히오. 부인, 그 침상이 아직 그 자리에 굳건히 있는지, 아니면 벌써 어떤 사내가 올리브나무 밑동을 잘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는지 나는 모르오."

205 그가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다. 오디세우스가 틀림없이 일러 준 표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리며 곧장 달려가 오디세우스의 목에 두 팔을 두르고 그의 머리에 입 맞추며 말했다.

209 "오디세우스, 내게 노여워하지 마오. 당신은 다른 일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내렸소. 우리 둘이 서로 곁에 머물며 젊음을 누리고 늙음의 문턱에 이르는 것을 신들이 시샘했소.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반기지 않았다고 해서 노여워하거나 언짢아하지 마오. 내 가슴속 마음은 누가 와서 말로 나를 속이지나 않을까 늘 떨고 있었소. 못된 잇속을 꾀하는 자가 많으니까. 제우스의 딸, 아르고스의 헬레네도 용맹한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자기를 다시 사랑하는 고향 집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낯선 나라 사내와 사랑과 잠자리로 몸을 섞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나 어떤 신이 그 여인을 부추겨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게 했소. 그 전에는 그 여인도 그 쓰라린 미혹을 마음에 품지 않았소. 그 미혹에서 우리에게도 처음으로 슬픔이 닥쳤소. 그런데 이제 당신이 우리 침상의 뚜렷한 표지를 낱낱이 밝혔소. 그 침상은 다른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고, 오직 당신과 나, 그리고 시녀 하나만 보았소. 내가 이리로 올 때 아버지가 딸려 보낸 악토리스인데, 우리 둘을 위해 단단히 지은 방의 문을 지키던 여인이오. 이로써 당신은 아무리 매정한 내 마음이라도 설득하는구려."

231 페넬로페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울음이 더욱 북받쳐 올랐다. 그는 마음에 꼭 맞는, 믿음직한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 헤엄치는 사람들 눈에 뭍이 반갑게 나타날 때가 있다. 포세이돈이 바람과 거센 물결로 몰아쳐 바다 한가운데서 튼튼한 배를 산산이 부숴 버린 사람들인데, 잿빛 바다를 헤엄쳐 뭍까지 살아 나오는 이는 몇 되지 않고 그들의 살갗에는 소금기가 두껍게 엉겨 붙어 있다. 재앙을 벗어난 그들은 반가움에 겨워 땅을 밟는다. 꼭 그처럼 페넬로페에게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남편이 반가웠고, 하얀 두 팔은 남편의 목을 감은 채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다른 생각을 해내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이 울고 있는 사이에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여신이 나타났을 것이다. 아테나는 긴 밤을 하늘 끝자락에 붙들어 두고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은 오케아노스 물가에 붙잡아 둔 채, 여신을 태우고 달리는 두 망아지, 사람들에게 빛을 실어 나르는 발 빠른 람포스와 파에톤에게 멍에를 메우지 못하게 했다.

247 그때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아직 모든 시련의 끝에 이르지 못했소.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고생이 남아 있소. 많고도 힘든 그 고생을 내가 모두 끝내야 하오. 내가 전우들과 나

자신의 귀향 길을 찾아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간 그날,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이 내게 그렇게 예언했소. 자, 부인, 이제 잠자리로 갑시다. 이제는 달콤한 잠 속에 함께 누워 즐거움을 누립시다."

256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당신 마음이 바랄 때면 언제든 잠자리는 마련될 것이오. 신들이 당신을 잘 지은 집과 당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당신이 그 일을 떠올렸고 신이 당신 마음에 그것을 넣어 주었으니, 자, 그 시련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주시오. 내 생각에 나중에라도 듣게 될 테니, 지금 당장 아는 것도 조금도 나쁘지 않소."

263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이상한 사람, 어찌하여 또 이렇게 몹시 재촉하며 말하라고 하오? 그러나 숨김없이 말하겠소. 감추지 않겠소. 당신 마음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오. 나 자신도 기쁘지 않소. 테이레시아스는 내게 손에 잘 맞는 노를 들고 사람들의 도시를 아주 많이 찾아다니라고 했소. 바다를 모르고 소금 섞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때까지 말이오. 그들은 뺨을 붉게 칠한 배도, 배의 날개인 손에 잘 맞는 노도 모르오. 그는 내게 아주 뚜렷한 표지를 일러 주었소. 당신에게도 숨기지 않겠소.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나그네가 나더러 빛나는 어깨에 곡식을 까부르는 넉가래를 메고 있다고 말하거든, 그때 손에 잘 맞는 노를 땅에 꽂고, 포세이돈 왕께 숫양과 황소와 암퇘지를 올라타는 수퇘지를 훌륭한 제물로 바치라고 했소.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의 신들께 차례대로 빠짐없이 신성한 큰 제물을 바치라고 했소. 내게는 바다에서 아주 부드러운 죽음이 찾아와, 넉넉한 노년에 지친 나를 데려갈 것이오. 내 둘레의 백성은 복을 누릴 것이오. 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소."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말을 받았다. "신들이 당신에게 더 나은 노년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재앙에서 벗어날 희망이 있소."

288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에우리노메와 유모는 타오르는 횃불 아래에서 부드러운 천으로 잠자리를 마련했다. 두 여인이 서둘러 단단히 짠 침상을 다 펴 놓자, 노파는 잠을 자러 제 방으로 돌아갔고, 침실을 돌보는 시녀 에우리노메가 손에 횃불을 들고 침상으로 가는 두 사람의 길을 이끌었다. 에우리노메는 두 사람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두 사람은 반가움에 겨워, 옛 침상이 지켜온 그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는 춤추던 발을 멈추고 여인들도 멈추게 한 다음, 그늘진 홀 안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300 두 사람은 그리운 사랑을 실컷 나누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다. 여인 중에 고귀한 페넬로페는 홀에서 견뎌 온 일을 이야기했다. 페넬로페 때문에 소와 살진 양을 수없이 잡고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수없이 퍼 마시던 구혼자들의 몹쓸 무리를 지켜보아야 했던 일이었다. 제우스의 핏줄인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에게 안긴 숱한 시름과 자신이 비참하게 겪은 숱한 고생을 모두 이야기했다. 페넬로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까지 그 눈꺼풀 위에 잠이 내려앉지 않았다.

310 오디세우스는 맨 처음 키코네스족을 무찌른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다음에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기름진 땅에 이른 일, 키클롭스가 저지른 짓, 그리고 키클롭스가 가엾게 여기지도 않고 잡아먹은 굳센 전우들의 값을 그에게서 받아 낸 일을 들려주었다. 아이올로스에게 가서 그가 기꺼이 맞아 주고 떠나보내 주었지만, 아직 사랑하는 고향 땅에 닿을 운명이 아니어서 돌풍이 다시 그를 낚아채어, 깊이 신음하는 그를 물고기 많은 바다로 실어 간 일도 이야기했다.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의 텔레필로스에 이르자 그들이 배들과 정강이받이를 잘 댄 전우들을 모두 죽였고, 오디세우스 혼자 검은 배를

타고 빠져나온 일도 이야기했다. 키르케의 속임수와 갖은 꾀도 낱낱이 들려주었다.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물으려고 노 젓는 자리가 많은 배를 타고 곰팡내 나는 하데스의 집에 가서, 모든 전우와 저를 낳아 어릴 때 길러 준 어머니를 본 일도 이야기했다. 목청 높은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은 일, 떠도는 바위와 무서운 카립디스와 스킬라에 이른 일도 이야기했다. 스킬라에게서는 지금껏 아무도 다치지 않고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전우들이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은 일, 높은 데서 천둥 치는 제우스가 연기 나는 벼락으로 날랜 배를 쳐서 훌륭한 전우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고 그 혼자 몹쓸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일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오기기아섬의 님프 칼립소에게 이른 일을 이야기했다. 칼립소는 그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우묵한 동굴에 붙잡아 두고 보살피며, 언제까지나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그의 가슴속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숱한 고생 끝에 파이아케스인들에게 이른 일도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를 신처럼 진심으로 떠받들고, 청동과 황금과 옷을 넉넉히 주어 배에 태워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보내 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의 시름을 풀어 주고 팔다리를 풀어 주는 달콤한 잠이 그에게 덮쳐 왔다.

344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 다른 생각을 해냈다. 오디세우스가 아내의 잠자리와 잠을 마음껏 누렸다고 여겨지자, 아테나는 곧 이른 아침에 태어난 황금 옥좌의 새벽 여신을 오케아노스에서 일으켜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부드러운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일렀다.

350 "부인, 우리 둘은 이미 숱한 시련을 넘치도록 겪었소. 당신은 여기서 시름 많은 내 귀향을 두고 울었고,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고통으로 나를 묶어 두었소. 이제 우리

둘이 그토록 그리던 잠자리에 함께 이르렀으니, 당신은 홀에 있는 내 재산을 돌보아 주시오. 방자한 구혼자들이 거덜 낸 양 떼는 나 스스로 많이 약탈해 오고, 나머지는 아카이아인들이 가축우리를 모두 채울 때까지 내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이제 나무가 우거진 농장으로 가서, 나 때문에 몹시 슬퍼하시는 훌륭한 아버지를 뵙겠소. 부인,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이 일을 당부하오. 해가 뜨자마자 내가 홀에서 죽인 구혼자들에 대한 소문이 퍼질 것이오. 당신은 시녀들을 데리고 위층 방에 올라가 앉아 있고,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366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운 무구를 어깨에 둘렀고,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깨워 모두 손에 싸움에 쓸 무기를 들라고 일렀다. 그들은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청동으로 무장한 다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벌써 땅 위에 빛이 퍼져 있었지만, 아테나가 그들을 밤으로 감싸 숨긴 채 재빨리 도시 밖으로 이끌어 냈다.

제24권

1 킬레네의 헤르메스가 구혼자들의 혼백을 불러냈다. 헤르메스는 아름다운 황금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의 눈을 홀려 잠들게도 하고 잠든 이들을 다시 깨우기도 했다. 헤르메스가 그 지팡이를 휘둘러 이끌자 혼백들은 찍찍 소리를 내며 뒤따랐다. 기이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바위에 줄지어 매달려 있던 박쥐 가운데 한 마리가 떨어지면, 박쥐들은 찍찍거리며 날아다니다가 서로 붙잡고 매달린다. 꼭 그처럼 혼백들은 찍찍 소리를 내며 함께 갔고, 어진 헤르메스가 곰팡내 나는 길을 따라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오케아노스의 물줄기와 흰 바위[1]를 지나고, 해의 문과 꿈들의 고장을 지나, 곧 아스포델 풀밭에 이르렀다. 지쳐 쓰러진 인간들의 허깨비인 혼백들이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혼백과 파트로클로스와 나무랄 데 없는 안틸로코스와 아이아스의 혼백을 만났다. 아이아스는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다음으로는 다른 모든 다나오스인 가운데 생김새도 몸집도 가장 빼어난 이였다.

19 그들이 아킬레우스 곁에 모여 있을 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혼백이 슬픔에 잠겨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둘레에는 아이기스토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죽어 최후를 맞은 다른 혼백들이 모여 있었다. 펠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다.

24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우리는 영웅들 가운데 당신이 벼락을 즐기는 제우스에게 언제나 가장 사랑받는다고 여겼소.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고통을 겪던 트로이인들의 고장에서 당신이 많은 굳센 사내들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나 태어난 자는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몹쓸 운명이 당신에게도 일찍 닥칠 것이었구려. 당신이 누리던 그 명예를 다 누린 채 트로이인들의 고장에서 죽음과 최후를 맞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온 아카이아인이 당신에게 무덤을 쌓아 주었을 테고, 당신은 아들에게도 뒷날까지 큰 명성을 남겼을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가장 비참한 죽음에 붙잡힐 운명이었구려."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말을 받았다. "펠레우스의 복 받은 아들, 신들과 닮은 아킬레우스여, 당신은 아르고스에서 먼 트로이에서 죽었소. 당신 둘레에서는 트로이인과 아카이아인의 가장 뛰어난 아들들이 당신을 두고 싸우다 죽어 갔고, 당신은 소용돌이치는 먼지 속에 큰 몸을 크게 뻗고 누워 말 부리던 재주도 잊었소. 우리는 온종일 싸웠고, 제우스가 폭풍으로 멈추게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싸움을 그치지 않았을 것이오. 우리는 당신을 싸움터에서 배들로 옮겨 와, 따뜻한 물과 기름으로 아름다운 살갗을 깨끗이 씻고 침상에 눕혔소. 다나오스인들은 당신 둘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머리털을 잘랐소. 당신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불사의 바다 여신들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왔소. 바다 위로 엄청난 울부짖음이 일자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떨었소. 그때 옛일을 많이 아는 사내, 전에도 그 계책이 가장 뛰어나 보였던 네스토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카이아인들은 벌떡 일어나 우묵한 배로 달아났을 것이오. 네스토르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의에서 말했소."

54 "'멈추시오, 아르고스인들이여, 달아나지 마시오, 아카이아의 젊은이들이여. 저것은 그의 어머니가 불사의 바다 여신들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와, 죽은 아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오.'"

57 "그가 이렇게 말하자 기상 높은 아카이아인들은 두려움을 멈추었소. 바다 노인의 딸들이 당신 둘레에 서서 애처롭게 울며

당신에게 불멸의 옷을 입혔소. 아홉 무사 여신이 모두 아름다운 목소리로 번갈아 주고받으며 만가를 불렀소. 그때 아르고스인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오. 낭랑한 무사 여신이 그토록 마음을 북받치게 했소. 열이레 동안 밤낮으로 불사의 신들과 죽을 운명의 인간들이 함께 당신을 두고 울었고, 열여드레째에 우리는 당신을 불에 맡기며 당신 둘레에서 아주 살진 양과 뿔 굽은 소를 많이 잡았소. 당신은 신들의 옷에 싸여 많은 기름과 달콤한 꿀과 함께 불탔고, 많은 아카이아 영웅들이 무장한 채 걸어서도 말을 타고도 불타는 화장더미 둘레를 돌며 행진했소. 엄청난 소리가 일었소. 헤파이스토스의 불길이 당신을 다 태우자, 아킬레우스, 우리는 새벽에 당신의 흰 뼈를 물 타지 않은 포도주와 기름 속에 거두었소. 당신 어머니는 손잡이 둘 달린 황금 항아리를 내주었소. 디오니소스의 선물이며 널리 이름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이라고 했소. 빛나는 아킬레우스, 그 안에 당신의 흰 뼈가 놓여 있는데 죽은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뼈가 함께 섞여 있고,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뒤로 다른 모든 전우 가운데 당신이 가장 아꼈던 안틸로코스의 뼈는 따로 놓여 있소. 그 둘레에 우리, 창을 든 아르고스인들의 신성한 군대가 넓은 헬레스폰토스 가에 튀어나온 곶 위에 크고 나무랄 데 없는 무덤을 쌓아 올려, 지금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뒷날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바다에서 멀리 보이게 했소. 당신 어머니는 신들에게 청해 더없이 아름다운 상품을 얻어, 경기장 한가운데 아카이아의 뛰어난 이들 앞에 내놓았소. 당신은 왕이 죽어 젊은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합을 준비하는 영웅들의 장례에 여러 번 가 보았을 것이오. 그러나 은빛 발의 여신 테티스가 당신을 위해 내놓은 그 더없이 아름다운 상품을 보았다면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놀랐을 것이오. 당신은 신들에게 그토록 사랑받았으니까. 그렇게 당신은 죽어서도 이름을 잃지 않았고,

아킬레우스, 당신의 훌륭한 명성은 언제까지나 모든 사람에게 남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전쟁을 끝내고 나서 무슨 기쁨을 누렸소? 제우스는 내 귀향 길에 아이기스토스와 저주받을 아내의 손으로 비참한 파멸을 꾸몄소."

98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아르고스를 죽인 길잡이가 오디세우스에게 죽은 구혼자들의 혼백을 이끌고 그들 가까이 다가왔다. 두 혼백은 그것을 보자 놀라서 곧장 다가갔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혼백이 멜라네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이름 높은 암피메돈을 알아보았다. 이타카에 집을 두고 살던 암피메돈이 그의 손님 벗이었기 때문이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다.

106 "암피메돈, 어찌 된 일로 당신들은 모두 가려 뽑은 듯 나이도 비슷한 이들끼리 이 어두운 땅 밑으로 내려왔소? 도시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내들을 고른다 해도 이렇게 고르지는 못할 것이오. 포세이돈이 거센 바람과 큰 물결을 일으켜 배 위에서 당신들을 쓰러뜨렸소? 아니면 뭍에서 소 떼와 아름다운 양 떼를 몰아가려다 원수들에게 죽었소? 아니면 도시와 여인들을 두고 싸우다 죽었소? 묻는 내게 말해 주시오. 나는 당신의 손님 벗이라 자부하오. 신에 버금가는 메넬라오스와 함께, 오디세우스를 부추겨 갑판 튼튼한 배를 타고 일리오스로 함께 가자고 하러 내가 당신 집에 내려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오? 도시를 무너뜨린 오디세우스를 간신히 설득하느라 우리는 꼬박 한 달 동안 넓은 바다를 다 건너야 했소." 암피메돈의 혼백이 말을 받았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제우스가 기른 이여,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일을 나는 기억하오. 이제 당신에게 우리가 맞은 죽음의 몹쓸 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일러 주겠소. 우리는 오래 집을 떠나 있던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

구혼했는데, 그 여인은 끔찍한 혼인을 거절하지도 않고 끝내 매듭짓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죽음과 검은 죽음의 운명을 꾸미고 있었소. 그 여인은 속으로 이런 꾀도 궁리해 냈소. 홀에 커다란 베틀을 세워 놓고 가늘고도 넓은 천을 짜기 시작하더니,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소."

131 "'내게 구혼하는 젊은이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내 혼인을 서두르고 싶더라도 이 천을 다 짤 때까지, 애써 자은 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기다려 주시오. 이것은 영웅 라에르테스의 수의라오. 긴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운명이 그분을 쓰러뜨릴 때 쓰려는 것이오. 그 많은 재산을 모은 분이 수의도 없이 누워 계신다면, 이 고장 아카이아 여인들 가운데 누가 나를 두고 분개할지도 모르니까.'"

138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우리 굳센 마음도 그 말에 따랐소. 그때부터 페넬로페는 낮에는 커다란 베틀에서 천을 짜고, 밤이면 횃불을 곁에 두고 짠 것을 풀었소. 그렇게 세 해 동안 꾀로 아카이아인들을 속여 넘기고 믿게 했소. 그러나 네 해째가 되어 계절이 돌아오고, 달이 이울며 숱한 날이 다 차자, 사정을 똑똑히 아는 여인 하나가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는 빛나는 천을 풀고 있는 그 자리를 덮쳐 잡았소.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천을 다 짜고 말았소."

147 "그 여인이 커다란 베틀에서 천을 다 짜고 빨아서, 해나 달처럼 빛나는 수의를 내보였을 때, 어떤 몹쓸 신이 어디선가 오디세우스를 데려와 돼지치기가 사는 농장 맨 끝에 이르게 했소. 신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도 검은 배를 타고 모래 많은 필로스에서 그곳으로 왔소. 두 사람은 구혼자들에게 몹쓸 죽음을 꾸민 뒤 널리 이름난 도시로 왔는데,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오고 텔레마코스가 앞장섰소. 돼지치기가 몸에 초라한 옷을 걸친 오디세우스를 데려왔는데, 그는 비참한 거지, 늙은이와 닮은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몸에는 초라한 옷을 걸치고 있었소. 그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이 든 사람들조차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소. 우리는 오히려 그를 몹쓸 말로 몰아세우고 물건을 던졌소. 그는 한동안 제 홀에서 얻어맞고 몰아세움을 당하면서도 참는 마음으로 견뎠소. 그러나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뜻이 그를 일깨우자, 그는 텔레마코스와 함께 더없이 아름다운 무구를 들어다 방에 넣고 빗장을 걸어 잠갔소. 그러고는 갖은 꾀를 부려 아내에게 일러, 구혼자들 앞에 활과 잿빛 쇠를 내놓게 했소. 불운한 우리에게는 시합 거리이자 살육의 시작이었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억센 활에 시위를 얹지 못했소. 힘이 한참 모자랐소. 그 큰 활이 오디세우스의 손에 들어가려 할 때, 우리는 모두 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활을 주지 말라고 소리쳐 꾸짖었지만, 텔레마코스만이 그에게 활을 주라고 재촉하며 일렀소.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활을 손에 받아 손쉽게 시위를 얹고 쇠를 꿰뚫었소. 그러고는 문지방으로 가서 서서 날랜 화살들을 쏟아 놓고 무섭게 사방을 노려보더니, 안티노오스 왕을 쏘았소. 그다음에는 다른 이들을 똑바로 겨누어 신음을 부르는 화살을 날렸고, 그들은 겹겹이 쓰러졌소. 어떤 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뚜렷했소. 그들은 곧 기운을 다해 집 안을 누비며 사방으로 돌아서며 죽였소. 머리가 깨지는 처참한 신음이 일었고, 온 바닥이 피로 들끓었소. 아가멤논이여, 우리는 그렇게 죽었소. 우리의 시신은 지금도 돌보는 이 없이 오디세우스의 홀에 누워 있소. 저마다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아직 그 일을 모르오. 알았다면 우리 상처에서 검은 피를 씻어 내고 우리를 눕혀 놓고 곡을 해 주었을 텐데. 그것이 죽은 이들이 받는 몫이니까."

191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말을 받았다. "라에르테스의 복 받은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당신은 참으로 크나큰 빼어남을 지닌 아내를 얻었구려. 나무랄 데 없는 페넬로페, 이카리오스의 딸은 그토록 마음씨가 훌륭했고, 처녀로 맞은 남편 오디세우스를 그토록 잘

기억했소. 그러니 그 빼어남의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불사의 신들은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 분별 있는 페넬로페를 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줄 것이오. 처녀로 맞은 남편을 죽여 못된 짓을 꾸민 틴다레오스의 딸과는 다르오. 그 여자를 두고는 사람들 사이에 끔찍한 노래가 퍼질 것이고, 그 여자는 연약한 여인들 모두에게, 행실 바른 여인에게까지 고약한 평판을 안겨 줄 것이오."

203 이렇게 그들은 대지 깊은 곳, 하데스의 집에 서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205 오디세우스 일행은 도시에서 내려와 곧 라에르테스의 잘 가꾼 아름다운 농장에 이르렀다. 일찍이 라에르테스가 몸소 숱한 고생을 하여 마련한 농장이었다.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고 집 둘레로는 오두막이 사방으로 빙 둘러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들게 일해 주는, 그에게 매인 종들이 그 오두막에서 먹고 앉고 잠을 잤다. 집 안에는 시켈인 노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떨어진 농장에서 노인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종들과 아들에게 말했다.

214 "자네들은 이제 잘 지은 집 안으로 들어가, 돼지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을 골라 어서 저녁 식사로 잡게. 나는 아버지를 시험해 보겠네.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눈으로 알아채실지, 아니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알아보지 못하실지."

219 이렇게 말하고 그는 종들에게 싸움에 쓸 무구를 건넸다. 종들은 곧 집으로 갔고, 오디세우스는 시험해 보려고 열매 많은 과수원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큰 과수원으로 내려갔지만 돌리오스도, 다른 종들도, 그 아들들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과수원의 울타리로 쓸 돌담을 쌓을 돌을 주우러 가 있었고, 노인 돌리오스가 그들의 길을 이끌었다. 그는 잘 가꾼 과수원에서 아버지 혼자 나무 둘레를 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기운 데를 꿰맨 꼴사나운 더러운 윗옷을 입고,

정강이에는 긁히지 않으려고 꿰맨 쇠가죽 각반을 두르고, 손에는 가시덤불 때문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머리에는 염소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슬픔을 키우고 있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늙음에 시달리며 가슴 깊이 큰 슬픔을 품은 아버지를 보자, 키 큰 배나무 아래 멈춰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입맞추고 끌어안고서 자기가 어떻게 고향 땅에 돌아왔는지 낱낱이 말할지, 아니면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며 시험해 볼지 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먼저 빈정대는 말로 시험해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마음먹고 곧장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나무 둘레를 파고 있었다. 빛나는 아들이 곁에 서서 말을 걸었다.

244 "노인장, 당신은 과수원을 돌보는 데 서툴지 않구려. 돌봄이 잘 되어 있어서, 나무든 무화과든 포도나무든 올리브든 배나무든 밭이랑이든, 이 동산에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또 한 가지 일러 줄 테니 마음에 노여움을 품지는 마시오. 당신 자신은 잘 돌보지 못하고 있구려. 서글픈 늙음을 짊어진 데다 몹시 꾀죄죄하고 꼴사나운 옷을 입고 있소. 게으르다고 주인이 당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오. 생김새도 체구도 종처럼 보이지는 않소. 당신은 왕 같은 사내를 닮았소. 그런 사람이라면 목욕하고 먹고 나서 부드럽게 자는 것이 어울리오. 그것이 노인의 법도니까. 자, 이것을 말해 주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당신은 누구의 종이오? 누구의 과수원을 돌보고 있소?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이이타카에 온 것이오? 방금 여기로 오는 길에 만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생각이 그리 반듯하지 못해서, 내가 내 손님 벗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아니면 벌써 죽어 하데스의 집에 있는지 물었는데도 하나하나 말해 줄 생각도 내 말을 들어 줄 생각도 하지 않았소. 내

분명히 일러 줄 테니 잘 새겨서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일찍이 나는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 사내를 손님으로 대접했소. 멀리서 온 손님 가운데 그만큼 정다운 이가 내 집에 온 적은 없었소. 그는 이타카 태생이라고 자랑하며, 아르케이시오스의 아들 라에르테스가 자기 아버지라고 했소. 나는 그를 집에 데려가 잘 대접하고, 집에 있는 많은 것으로 정성껏 아껴 주었고, 마땅한 손님 선물도 주었소. 잘 다듬은 황금 일곱 탈란톤을 주었고, 꽃무늬를 새긴 온통 은으로 된 술동이를 주었소. 홑겹 외투 열두 벌, 깔개 열두 장, 고운 겉옷 열두 벌, 윗옷도 그만큼 주었고, 그 밖에 나무랄 데 없는 솜씨를 지닌 아리따운 여인 넷을 그가 손수 고르게 하여 주었소."

280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손님, 당신이 묻는 땅에 온 것은 맞소. 그러나 오만하고 무모한 사내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소. 당신이 아낌없이 내준 그 선물은 헛되이 베푼 것이 되었소. 먼저 베푼 이에게는 그렇게 갚는 것이 도리이니, 그가 이타카 고장에 살아 있는 것을 당신이 만났더라면 그는 당신에게 선물로 잘 보답하고 융숭하게 대접해서 떠나보냈을 것이오. 자, 이것을 말해 주시오. 숨김없이 낱낱이. 당신이 그 사람을, 불운한 당신의 손님 벗을, 내 아들을,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그 기구한 내 아들을 대접한 것이 몇 해 전이오? 그 아이는 아마 사랑하는 이들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물고기들에게 먹혔거나, 뭍에서 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오. 그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아이에게 수의를 입혀 곡하지 못했고, 많은 구혼 선물을 받고 맞아들인 아내, 분별 있는 페넬로페도 침상 곁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 남편의 눈을 감겨 주며 곡하지 못했소. 그것이 죽은 이들이 받는 몫인데.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요? 당신과 신에 버금가는 전우들을 이리로 데려온 날랜

배는 어디에 대어 두었소? 아니면 남의 배에 길손으로 타고 왔는데, 그들은 당신을 내려놓고 떠나 버렸소?"

302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말해 주겠소. 나는 알리바스에서 왔고, 그곳 이름난 집에 살고 있소. 폴리페몬의 아들 아페이다스 왕의 아들이오. 내 이름은 에페리토스요. 그런데 어떤 신이 나를 시카니아에서 떠돌게 하여, 원치도 않았는데 이리로 오게 되었소. 내 배는 저기 도시에서 떨어진 들판에 대어 두었소. 오디세우스로 말하면, 그가 그곳을 떠나 내 고향을 떠나간 지 벌써 다섯 해째요. 기구한 사람이오. 그가 떠날 때 오른쪽에서 길한 새들이 날았소. 나는 기뻐하며 그를 떠나보냈고 그도 기뻐하며 떠났으며, 우리 둘은 다시 만나 손님으로 사귀며 빛나는 선물을 주고받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소."

315 그가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검은 구름이 라에르테스를 덮었고, 라에르테스는 두 손으로 그을음 섞인 먼지를 움켜쥐어 깊이 신음하며 잿빛 머리 위에 부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오디세우스는 마음이 북받쳐 벌써 콧날이 시큰해지며 날카로운 기운이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입 맞추며 말했다.

321 "아버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울음과 눈물 섞인 탄식을 그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몹시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욕과 못된 짓을 앙갚음하려고 우리 집에서 구혼자들을 죽였습니다."

327 라에르테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정녕 내 아들 오디세우스로서 여기 돌아온 것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게 뚜렷한 표지를 하나 말해 보시오."

330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먼저 이 흉터를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제가 파르나소스산에 갔을 때 멧돼지가 흰 엄니로 찢어 놓은 흉터입니다.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께서 저를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우톨리코스께 보내셨지요. 그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제게 약속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신 선물을 받아 오라고 말입니다. 자, 또 잘 가꾼 과수원의 나무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나무들입니다. 어린 제가 동산에서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나무마다 하나하나 달라고 졸랐지요. 우리는 그 나무들 사이를 걸었고, 아버지께서는 나무마다 이름을 부르며 일일이 일러 주셨습니다. 배나무 열세 그루와 사과나무 열 그루와 무화과나무 마흔 그루를 주셨고, 포도나무 쉰 줄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대셨는데, 줄마다 열매가 익는 때가 달랐고, 거기에는 온갖 포도송이가 달렸습니다. 제우스의 계절들이 위에서 무겁게 내리누를 때면 말입니다."

345 그가 이렇게 말하자 라에르테스는 무릎과 가슴이 그 자리에서 풀려 버렸다. 오디세우스가 틀림없이 일러 준 표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라에르테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 두 팔을 둘렀고,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잃어 가는 아버지를 제 몸에 끌어안았다. 라에르테스는 숨을 돌리고 정신이 가슴속으로 되돌아오자, 다시 그에게 대답했다.

351 "아버지 제우스여, 구혼자들이 정녕 무모한 오만의 값을 치렀다면, 신들께서는 아직 높은 올림포스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타카 사람들이 모두 곧 이리로 몰려오고, 케팔레니아인들의 도시마다 두루 전령을 보내 부추기지나 않을까 속으로 몹시 두렵구나."

35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일로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자, 과수원 가까이 있는 집으로 가시지요.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그리로 먼저 보내, 되도록 빨리 저녁을 차리게 해 두었습니다."

361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갔다. 살기 좋은 집에 이르자,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가 고기를 많이 썰고 반짝이는 포도주에 물을 타고 있었다. 그사이 시켈인 시녀가 제 집에 있는 기개 높은 라에르테스를 씻기고 올리브기름을 발라 주었다.

367 그리고 고운 외투를 입혀 주었다. 아테나가 곁에 다가서서 백성의 목자의 팔다리를 북돋아, 전보다 더 크고 더 다부져 보이게 했다. 라에르테스가 욕조에서 나오자,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불사의 신들과 꼭 닮은 모습을 마주 보고 놀랐다. 아들은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373 "아버지, 영원히 사는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 아버지의 생김새와 체구를 더 훌륭해 보이게 해 주셨나 봅니다." 의젓한 라에르테스가 대답했다.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부디 내가 케팔레니아인들을 다스리며 뭍의 곶에 있는 잘 지은 도시 네리코스를 함락했을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어제 우리 집에서 어깨에 무구를 메고 너와 함께 서서 구혼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홀에서 그 숱한 자들의 무릎을 풀어 버렸을 테고, 너는 속으로 기뻐했을 텐데."

383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다른 이들은 일을 마치고 잔치를 차려 긴 의자와 팔걸이의자에 차례로 앉았다. 그들이 막 저녁 식사에 손을 대려는데, 늙은 돌리오스가 그 아들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일하느라 지쳐서 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을 기르고, 늙음이 덮친 노인을 정성껏 돌보는 시켈인 노파, 그들의 어머니가 나가서 그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보고 마음속으로 알아보자, 놀라서 홀 안에 우뚝 섰다. 오디세우스가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394 "노인장, 놀라움은 잊고 앉아서 식사하게. 우리는 식사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줄곧 자네들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홀에 머물러 있었네."

39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돌리오스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곧장 다가와 오디세우스의 손을 잡고 손목에 입 맞추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400 "주인님, 저희가 몹시 바라면서도 더는 기대하지 않던 차에 돌아오셨으니, 신들께서 몸소 주인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신들께서 주인님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사려 깊은 페넬로페 님께서는 주인님이 이리로 돌아오신 것을 벌써 똑똑히 아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령을 보내야 합니까?"

406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노인장, 벌써 알고 있네. 자네가 그런 일에 애쓸 까닭이 있겠나?"

408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돌리오스는 반들반들 다듬은 걸상에 다시 앉았다. 돌리오스의 아들들도 그와 똑같이 이름난 오디세우스를 둘러싸고 말로 반기며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저희 아버지 돌리오스 곁에 차례로 앉았다.

412 그렇게 그들이 홀에서 식사에 힘쓰는 동안, 소문이 전령이 되어 구혼자들의 끔찍한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알리며 도시 곳곳을 재빨리 누볐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저마다 사방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오디세우스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집에서 시체를 날라 저마다 묻었고, 다른 도시에서 온 이들은 날랜 배에 실어 어부들에게 맡겨 저마다 제 집으로 데려가게 한 다음, 가슴이 쓰라린 채 모두 함께 회의장으로 갔다. 그들이 모여 한자리에 다 모이자, 에우페이테스가 일어나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아들 안티노오스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슬픔이 그의 가슴에 놓여 있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맨 먼저 죽인

아들이었다. 에우페이테스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의에서 말했다.

426 "벗들이여, 이 사내가 아카이아인들에게 엄청난 짓을 꾸몄소. 많고도 훌륭한 사내들을 배에 태워 데려가더니 우묵한 배들도 잃고 백성들도 잃었고, 돌아와서는 케팔레니아인 가운데 단연 으뜸인 자들을 죽였소. 자, 이자가 서둘러 필로스나 에페이오이족이 다스리는 고귀한 엘리스로 건너가기 전에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고두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아들들과 형제들을 죽인 자에게 앙갚음하지 않는다면, 뒷날 태어날 사람들이 들어도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오. 나는 살아 있어도 마음이 달갑지 않을 것이오. 차라리 당장 죽어 죽은 이들 사이에 끼고 싶소. 자, 갑시다. 저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 달아나지 못하게."

438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자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메돈과 신과 같은 노래꾼이 잠에서 깨어나 오디세우스의 홀에서 나와 그들 가까이 다가와 그들 한가운데 서자, 사람마다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생각 깊은 메돈이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443 "이타카 사람들이여, 이제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오디세우스는 불사의 신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일을 꾸미지 않았소. 나는 오디세우스 곁에 서 있던 불사의 신을 내 눈으로 보았소. 그 신은 모든 면에서 멘토르를 닮았소. 불사의 신은 어떤 때는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나 그를 북돋았고, 어떤 때는 홀 안을 휩쓸며 구혼자들을 몰아붙였고, 구혼자들은 겹겹이 쓰러졌소."

450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 새파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 가운데서 마스토르의 아들, 늙은 영웅 할리테르세스가 말했다. 그만이

앞일도 지난 일도 내다보았다. 할리테르세스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의에서 말했다.

454 "이타카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시오. 벗들이여, 이 일은 당신들의 못남 때문에 일어났소. 당신들은 내 말도, 백성의 목자 멘토르의 말도 듣지 않고 당신들 아들들의 어리석은 짓을 말리지 않았소. 그들은 몹쓸 무모한 짓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소. 가장 뛰어난 사내의 재산을 거덜 내고 그 아내를 업신여겼소. 그 사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내 말을 따르시오. 가지 맙시다. 누가 제 손으로 불러들인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말이오."

463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나머지는 한데 모여 그 자리에 남았다. 일어난 이들은 할리테르세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에우페이테스를 따랐고, 곧바로 무구를 향해 내달렸다. 그들은 번쩍이는 청동을 몸에 두르고 나서, 땅이 넓은 도시 앞에 한데 모였다. 에우페이테스가 어리석게도 그들을 이끌었으니, 그는 아들의 죽음에 앙갚음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을 운명이었다.

472 아테나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말했다. "크로노스의 아드님, 우리 아버지, 다스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여쭙는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속에 어떤 뜻을 감추고 계십니까? 몹쓸 전쟁과 무서운 싸움을 더 이어 가시렵니까, 아니면 양편 사이에 우애를 맺어 주시렵니까?"

477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내 딸아, 어찌하여 그런 것을 내게 묻고 캐묻느냐?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저들에게 앙갚음하게 하자는 그 뜻을 네가 몸소 꾸미지 않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그러나 마땅한 바를 일러 주마.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에게

앙갚음했으니, 그들은 굳은 맹세의 제물을 잡아 맹세를 맺고, 오디세우스가 언제까지나 왕으로 다스리게 하라. 우리는 아들들과 형제들이 살해된 일을 잊게 해 주자. 그들이 예전처럼 서로 아끼고, 부와 평화가 넉넉하기를."

487 이렇게 말하여 제우스는 전부터 하고 싶어 안달하던 아테나를 부추겼다. 여신은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내리달려 내려갔다.

489 그들이 꿀처럼 달콤한 음식을 실컷 먹어 더 바랄 것이 없게 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가 나가서 저들이 벌써 가까이 오고 있지 않은지 보게."

492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돌리오스의 아들 하나가 시킨 대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문지방으로 가서 서서, 그들이 모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오디세우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저들이 벌써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서 무장하시지요."

496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일어나 무구를 입었다. 오디세우스 쪽 네 사람과 돌리오스의 여섯 아들이었다. 라에르테스와 돌리오스도 머리가 희었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라 무구를 입었다. 그들은 번쩍이는 청동을 몸에 두르고 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502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모습도 목소리도 멘토르를 닮은 채 그들 가까이 다가왔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여신을 보고 반가워하며, 곧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506 "텔레마코스, 사내들이 싸우며 가장 뛰어난 자가 가려지는 자리에 몸소 나서고 보면 너도 이제 알 게다. 예전부터 온 땅에서 힘과 용맹으로 이름을 떨쳐 온 네 조상의 가문을 조금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젓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원하신다면 보십시오.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가문을 조금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513 그가 이렇게 말하자 라에르테스가 기뻐하며 말했다. "정다운 신들이여, 오늘은 내게 무슨 날인가? 참으로 기쁘구나. 내 아들과 손자가 용맹을 두고 겨루다니."

516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 곁에 다가서서 말했다. "아르케이시오스의 아들이여, 내 모든 벗 가운데 단연 가장 정다운 이여, 빛나는 눈의 처녀 신과 아버지 제우스께 기도하고 나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어서 휘둘러 던지시오."

520 팔라스 아테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큰 기운을 불어넣었다. 라에르테스는 큰 제우스의 딸에게 기도하고 나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어서 휘둘러 던져, 청동 볼가리개를 단 투구를 뚫고 에우페이테스를 맞혔다. 투구는 창을 막지 못했고, 청동이 꿰뚫고 나갔다. 에우페이테스는 쿵 하고 쓰러졌고, 그 위로 무구가 덜그럭 울렸다. 오디세우스와 빛나는 아들이 앞줄의 싸우는 자들에게 덤벼들어 칼과 양쪽에 날이 선 창으로 내리찔렀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소리를 질러 온 무리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적을 모두 죽여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531 "이타카 사람들아, 괴로운 싸움을 멈추어라. 피를 흘리지 말고 어서 서로 갈라서라."

533 아테나가 이렇게 말하자 새파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겁에 질려 손에서 무구를 놓쳤고, 여신의 목소리가 울리자 무구는 모두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도시 쪽으로 돌아섰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지르며,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몸을 웅크렸다가 덮쳐 들었다. 그때 크로노스의 아들이 연기 나는 벼락을 내던졌고, 벼락은 힘센 아버지의

딸, 빛나는 눈의 여신 앞에 떨어졌다. 그러자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542 "제우스의 핏줄, 라에르테스의 아들, 재간 많은 오디세우스여, 멈추어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치는 싸움의 다툼을 그쳐라. 크로노스의 아들, 멀리 내다보는 제우스가 그대에게 노하지 않도록."

545 아테나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그 말을 따르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가 두 편 사이에 맹세를 맺어 주었다. 모습도 목소리도 멘토르를 닮은 채였다.

---

1. 그리스어 레우카스 페트레(Leukas petrē)를 옮긴 말이다. 오케아노스의 물줄기 곁,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바위로, 이오니아해의 섬 레우카스를 가리키지 않는다.

판권면

오디세이아

원제 · Ὀδυσσεια

지은이 · 호메로스 (Homer, 기원전 8세기 무렵)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A. T. 머리(Augustus Taber Murray) 엮음·옮김 《Homer: The Odyssey》, 로브 고전 총서(Loeb Classical Library) 전 2권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ondon: William Heinemann, 1919)의 그리스어 본문. 전자 텍스트는 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Perseus Digital Library, Trustees of Tufts University) 공개본에서 본문 글자와 머리의 문단 나눔만 취했고, 그 디지털 부호화(CC BY-SA)는 쓰지 않았다. 그리스어 원전에서 옮겼으며, 새뮤얼 버틀러의 영어 산문 번역(1900)은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24권 12,107행 · 원문 1,186문단, 번역 1,186문단 · 옮긴이 주 23개

형식 · 이야기체 산문. 문단 첫머리의 굵은 숫자는 그 문단이 시작하는 원문 행 번호다.

저작권 · 원작은 기원전 8세기 무렵의 고대 작품으로,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 모두에서 퍼블릭도메인이다. 저본인 머리 판(1919)은 미국에서 1930년 이전 출판물로 보호기간이 끝났고, 엮은이 머리(1866~1940)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도 보호기간이 끝났다. 대조본인 버틀러(Samuel Butler, 1835~1902)의 영역(1900)도 두 나라 모두에서 보호기간이 끝났다.

한국어 번역 ·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옮겼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4